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신윤정
이명진·전광희·문승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책임자】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이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광희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문승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37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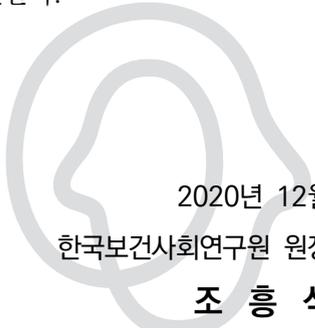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발|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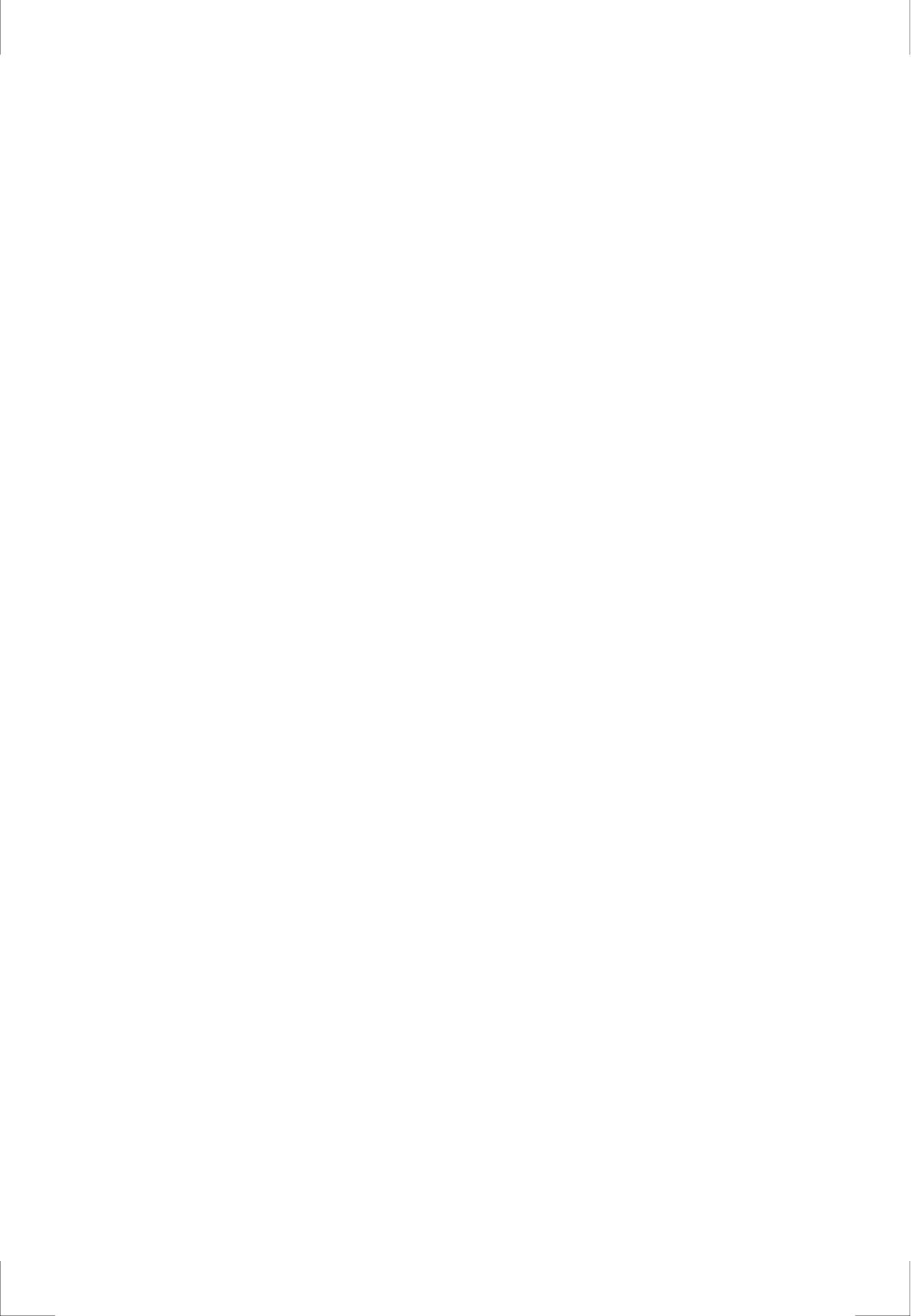
그동안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하락하여 초저출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대응 정책의 목표는 합계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서 국민이 희망하는 출산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출산 의향의 형성 과정과 계획한 출산의 실현 정도를 파악하여 원하는 출산과 실제 출산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두 자녀에 대한 규범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 출산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에 우호적이지 못한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출산을 억제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압력이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를 추월하고 있다는 것은 인구 변천이 끝난 이후 사회에서 지속해서 논의될 과제일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양질의 출산 패널 자료가 구축되어 출산 의향의 실현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장래 인구추계에 보다 더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신윤정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전광희 충남대학교 교수, 이명진 고려대학교 교수, 문승현 연구원의 공동 연구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귀중한 조언을 제공해 주신 KDI School 최슬기 교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인수 부연구위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2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제3절 출산 의향의 개념과 지표	12
제2장 출산 의향의 형성	27
제1절 선행 연구	30
제2절 분석 개요	55
제3절 TPB 모형 분석	81
제4절 TDIB 모형 분석	101
제5절 소결	112
제3장 출산 의향의 실현	117
제1절 선행 연구	120
제2절 분석 개요	127
제3절 분석 결과	141
제4절 소결	166
제4장 출산 의향의 예측 타당성	171
제1절 선행 연구	174

제2절 분석 개요	186
제3절 분석 결과	204
제4절 소결	247
제5장 결론	251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253
제2절 정책 제언	259
참고문헌	267
부 록	277
1.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지	277
2. 출산 의향의 실현: 확률 효과 로짓 모형 분석 결과	296
3. 출산 의향과 출산 의도의 예측 타당성 분석에 활용한 표	302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출산력 조사에서 이상 자녀 수에 대한 질문 문항(조사표 확인이 가능한 연도부터)	16
〈표 1-2〉 출산력 조사에서 계획 자녀 수에 대한 질문 문항(조사표 확인이 가능한 연도부터)	17
〈표 1-3〉 본 연구의 장별 출산 의향에 대한 정의	25
〈표 2-1〉 GGS에서 사용된 출산 의도·태도·인식된 통제·주관적 규범 관련 문항	35
〈표 2-2〉 Miller의 TDIB 검증을 위한 Childbearing Questionnaire(CBQ) 모듈	45
〈표 2-3〉 주요 조사 내용	59
〈표 2-4〉 조사대상자의 특성	61
〈표 2-5〉 조사대상자 배우자의 특성	63
〈표 2-6〉 조사대상자 자녀의 특성	65
〈표 2-7〉 출산 자녀 수·이상 자녀 수·희망 자녀 수·계획 자녀 수	69
〈표 2-8〉 출산 의향 및 출산 계획의 강도	71
〈표 2-9〉 출산 의향 강도별 출산 의향 확신성	73
〈표 2-10〉 출산 계획 강도별 출산 계획 확신성	74
〈표 2-11〉 임신 행동의 강도	76
〈표 2-12〉 출산 의향 강도별 및 출산 계획 강도별 임신 행동 강도	77
〈표 2-13〉 출산 의향 강도별 배우자의 동의 정도	79
〈표 2-14〉 출산 계획 강도별 배우자의 동의 정도	80
〈표 2-15〉 출산 계획 정도	82
〈표 2-16〉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83
〈표 2-17〉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85
〈표 2-18〉 주관적 규범	87
〈표 2-19〉 인식된 통제	87
〈표 2-20〉 출산 계획 정도에 대한 연령별 비표준화 계수	99
〈표 2-21〉 출산 계획 정도에 대한 출산 자녀 수별 비표준화 계수	101
〈표 2-22〉 출산 의향 정도	102
〈표 2-23〉 임신 관련 행동 정도	103
〈표 2-24〉 개인 특성별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104

〈표 2-25〉 개인 특성별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105
〈표 2-26〉 내생변수에 대한 전체 효과(표준화계수)	107
〈표 2-27〉 내생변수에 대한 직접 효과(표준화계수)	108
〈표 2-28〉 내생변수에 대한 간접 효과(표준화계수)	108
〈표 2-29〉 출산 의향 정도에 대한 연령별 비표준화계수	109
〈표 2-30〉 출산 계획 정도에 대한 연령별 비표준화계수	109
〈표 2-31〉 임신 관련 행동 정도에 대한 연령별 비표준화계수	110
〈표 2-32〉 출산 의향 정도에 대한 출산 자녀 수별 비표준화계수	111
〈표 2-33〉 출산 계획 정도에 대한 출산 자녀 수별 비표준화계수	111
〈표 2-34〉 임신 관련 행동 정도에 대한 출산 자녀 수별 비표준화계수	112
〈표 3-1〉 본 분석에 사용한 표본의 구성: 2008~2010년	129
〈표 3-2〉 본 분석에 사용한 표본의 구성: 2010~2012년	130
〈표 3-3〉 본 분석에 사용한 표본의 구성: 2012~2014년	131
〈표 3-4〉 본 분석에 사용한 표본의 구성: 2014~2016년	132
〈표 3-5〉 본 분석에 사용한 표본의 구성: 2016~2018년	133
〈표 3-6〉 출산 계획별 2년 이내 출산 실현율	134
〈표 3-7〉 2년 이내 출산 계획자의 2년 이내 출산 실현 빈도	135
〈표 3-8〉 2년 이내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들의 분포	138
〈표 3-9〉 실현자와 비실현자 분포	139
〈표 3-10〉 연기자·포기자·미결정자 분포	140
〈표 3-11〉 2년 이내 출산 계획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평균 연령	141
〈표 3-12〉 2년 이내 출산 계획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계획 당시 자녀 수	142
〈표 3-13〉 2년 이내 출산 계획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학력	143
〈표 3-14〉 2년 이내 출산 계획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경제활동상태	144
〈표 3-15〉 2년 이내 출산 계획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소득	145
〈표 3-16〉 분석에 이용한 독립변수	152
〈표 3-17〉 로짓 모형 추정 결과: 실현자	154



〈표 3-18〉 로짓 모형 추정 결과: 연기자	157
〈표 3-19〉 로짓 모형 추정 결과: 포기자	158
〈표 3-20〉 로짓 모형 추정 결과: 미결정자	159
〈표 3-21〉 2년 이내 출산 계획자에 대한 다항 로짓 모형 분석 결과	163
〈표 3-22〉 비실현자 다항 로짓 모형 추정 결과	165
〈표 4-1〉 출산력 조사 연도별 출산 의향/의도와 기간 합계 출산율 및 코호트 합계 출산율	190
〈표 4-2〉 기간 합계 출산율(PTFR) 대비 이상 자녀 수/ 기대 자녀 수(30~34세 기혼 여성)의 비율(%) : 1982~2018년	192
〈표 4-3〉 출산력 조사 연도별 출산 의향/의도(기혼 여성 30~34세)를 초과하는 인구동태 통계의 자녀 비율(%) : 1982~2018년	194
〈표 4-4〉 출산력 조사 연도별 조정 기간 합계 출산율·이상 자녀 수·기대 자녀 수 (30~34세 기혼 여성) : 1982~2018년	201
〈표 4-5〉 출산력 조사 연도의 기혼 여성 각세별 이상 자녀 수 : 1974~2018년	207
〈표 4-6〉 출산력 조사 연도의 기혼 여성의 각세별 기대 자녀 수 (총 출생아 수 + 추가계획 자녀 수 : 1974~2018년	209
〈표 4-7〉 출산력 조사 기혼 여성 연령대별(15~49세, 15~34세, 35~49세)의 이상 자녀 수 :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212
〈표 4-8〉 출산력 조사 기혼 여성(미혼 제외) 연령대별(15~49세, 15~34세, 35~49세)의 기대 자녀 수 :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215
〈표 4-9〉 출산력 조사의 각세별 만 50세까지 무자녀로 남는 여성의 비율: 1974~2018년	219
〈표 4-10〉 출산력 조사 연도별 이상 자녀 수 및 기대 자녀 수의 연령별 패턴 선형방정식 추정 결과 : 1974~2018년	238
〈표 4-11〉 연령대별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의 선형방정식 추정 결과	240
〈표 4-12〉 2018년 출산력 조사 기혼 여성의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를 이용한 출생아 가정치 설정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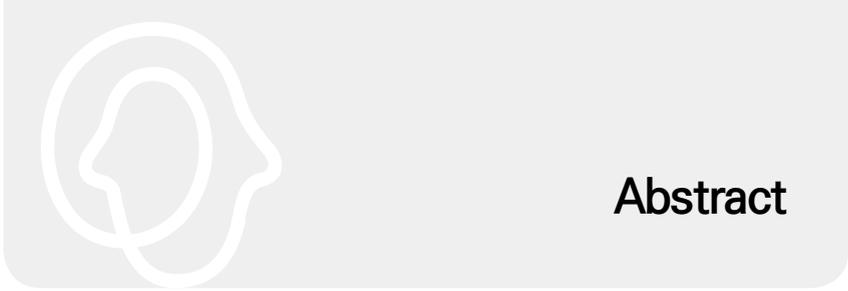
〈표 4-13〉 2018년 출산력 조사 무자녀 여성을 제외한 모든 여성의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를 이용한 출생아 가정치 설정	246
〈부록 표 2-1〉 로짓 확률효과 모형 추정 결과: 실현자	296
〈부록 표 2-2〉 로짓 확률효과 모형 추정 결과: 연기자	297
〈부록 표 2-3〉 로짓 확률효과 모형 추정 결과: 포기자	298
〈부록 표 2-4〉 로짓 확률효과 모형 추정 결과: 미결정자	299
〈부록 표 2-5〉 2년 이내 출산 계획자에 대한 다항 로짓 확률효과 모형 분석 결과	300
〈부록 표 2-6〉 비실현자 다항 로짓 확률효과 모형 추정 결과	301
〈부록 표 3-1〉 출산력 조사의 연령(매세)별 만 50세에서 무자녀인 여성을 제외한 모든 여성의 연도별 이상 자녀 수: 1974-2018년	302
〈부록 표 3-2〉 출산력 조사의 연령(매세)별 만 50세에서 무자녀인 여성을 제외한 모든 여성의 연도별 기대 자녀 수: 1976-2018년	304
〈부록 표 3-3〉 출산력 조사의 연령별 모든 여성의 코호트 합계출산율: 1974-2018년	306
〈부록 표 3-4〉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장래인구추계의 연령별 모든 여성의 코호트 합계 출산율: 1974-2018년	308

그림 목차



[그림 2-1] 출산 결정에 적용된 계획된 행동이론	33
[그림 2-2] Klobas(2010)가 TPB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SEM	38
[그림 2-3] Miller(1994)의 Traits-Desires-Intentions-Behaviour(TDIB)	42
[그림 2-4] 출산 의향/의도-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	44
[그림 2-5] Mynarska와 Rytel(2018)이 TDIB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SEM	49
[그림 2-6]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측정모형	90
[그림 2-7]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측정모형	92
[그림 2-8] 주관적 규범	93
[그림 2-9] 인식된 통제	95
[그림 2-10] TPB 모형	98
[그림 2-11] TDIB 모형	106
[그림 4-1] 기간 합계 출산율(PTFR) 대비 이상 자녀 수/기대 자녀 수 (30~34세 기혼 여성)의 비율(%): 1982~2018년	191
[그림 4-2] 출산력 조사 연도별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 순위별 출산연령의 증가(세) : 1982~2018년	197
[그림 4-3]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 순위별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 추이: 1970~2019년 · 198	
[그림 4-4] 출산력 조사 연도의 인구동태 출산 순위별 출산연령: 1982~2018년	199
[그림 4-5] 이상 자녀 수 및 기대 자녀 수 (30~34세 기혼 여성) 대비 조정 기간 합계 출산율의 크기(%): 1982~2018년	202
[그림 4-6] 출산력 조사의 기혼 여성 연령대별(15~49세, 15~34세, 35~49세) 평균 이상 자녀 수 추이: 1974~2018년	213
[그림 4-7] 출산력 조사의 기혼 여성 연령대별(15~49세, 15~34세, 35~49세) 평균 기대 자녀 수 추이: 1974~2018년	216
[그림 4-8] 1950~2005년생 코호트의 연령별 첫째 자녀 출산율과 누적 출산율	218
[그림 4-9] 출산력 조사 각세별 기혼 여성의 이상 자녀 수, 무자녀를 제외한 모든 여성의 실효 이상 자녀 수, 인구동태 및 추계자료의 평균 코호트 완결 가족 크기(명) 연도별 비교 : 1974~2018년	221

[그림 4-10] 출산력 조사 각세별 기혼 여성의 기대 자녀 수와 모든 여성의 실효 기대 자녀 수, 출산 여성(무자녀 제외)의 실효 기대 자녀 수, 인구동태 및 추계자료의 평균 코호트 완결 가족 크기(명) 연도별 비교: 1974~2018년	228
[그림 4-11] 우리나라 센서스 매세별 기혼 여성의 기대 자녀 수와 모든 여성의 실효 기대 자녀 수, 출산 여성(무자녀 제외)의 실효 기대 자녀 수, 인구동태 및 추계자료의 평균 코호트 완결 가족 크기(명) 연도별 비교: 2005~2015년	236
[그림 4-12] 출산력 조사 연도의 연령별 이상 자녀 수 및 기대 자녀 수 선행방정식의 절편값(명)과 기울기(명): 1974~2018년	239
[그림 4-13] 출산력 조사 연도의 연령대별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의 분포 패턴 : 1976~2018년	241
[그림 4-14] 2018년 출산력 조사 기혼 여성의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를 이용한 출생아 수 가정치 도표화	243
[그림 4-15] 2018년 출산력 조사 무자녀 여성을 제외한 모든 여성의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를 이용한 출생아 수 가정치 도표화	245



Abstract

Realization of fertility intention and fertility forecasting

Project Head: Yoon-Jeong Sh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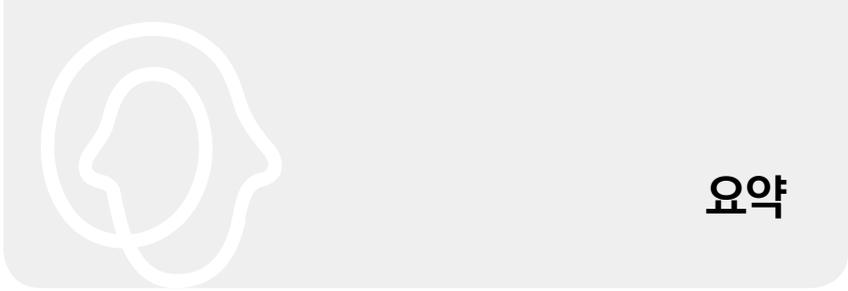
This study analyzed a series of processes that lead to childbirth from childbirth desire and intentions and examined diverse factors affecting them.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of the TPB model and the TDIB model, it was found that the subjective norm of childbirth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childbirth desire and pregnancy behavior, the influence of the positive or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child was relatively small, and the perceived control had the smallest effects. Economically active women are less likely to realize childbirth than inactive women, but they have a higher tendency to postpone childbirth rather than give up. The low-educated, middle-low and middle-class groups had greater difficulty in realizing the planned birth and were more likely to give up. The effective expected number of children measured through the fertility survey was found to be very close to the completed fertility rate estimated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future population estimates. It implies that the expected number of

Co-Researchers: Myoung-Jin Lee, Kwang-Hee Jun, Seung-Hyun Moon

2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children could be usefully used in estimating the fertility rate in the era of very low birth rates.

***Key words:** fertility desire, fertility intention, fertility forecasting



요약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목표가 합계 출산율 제고에서 원하는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에 따라 출산 의향의 실현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파악하고 이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국내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제공하였다. 어떠한 매커니즘을 통해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이 마련되고, 계획한 출산이 실제 출산으로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이 출산율을 예측하는 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가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출산율 전개 방향을 모색하였다.

2장은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와 Traits-Desires-Intentions-Behavior(TDIB) 이론을 검토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모델을 적용하여 전국 거주 25~39세 기혼여성 3,486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3장은 「여성가족패널」 2차~8차(2008년~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2년 이내 출산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을 대상으로 2년 이후 출산 실현 여부를 실현자, 연기자, 포기자, 미결정자로 구분한 후 로짓 모형과 다항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장은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이 가지고 있는 출산율 예측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래인구추계에 필요한 출산력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1974~2018년)」와 「인구센서스(2005, 2010, 2015년)」를 이용하여 실효적 이상 자녀 수와 실효적 기대 자녀 수를 산출한 후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장래인구추계의 코호트별 완결 출산율 자료와 비교하여 출산율 예측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4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을 예측 연구

TPB모형과 TDIB 모형으로 추정된 결과, 출산 계획과 임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출산에 대한 주관적인 규범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에 대한 태도가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고, 인식된 통제的影响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 계획과 임신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여성의 연령과 자녀 수에 따라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한 출산의 실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은 작아지고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비경제활동 여성보다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은 작지만 출산을 포기하기보다 연기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력과 중하층 혹은 중산층 집단이 계획한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작았고 출산을 포기할 확률도 높았다. 출산력 조사를 통해서 예측된 실효적 기대 자녀 수는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장래 인구추계의 코호트별 완결 출산율에 매우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기대 자녀 수는 초저출산 시대에서 출산율을 추계하고 장래 인구 모습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부모, 친지 등 외부로부터 받는 압력이 출산 의향이나 계획 그리고 임신 행동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은 “저출산의 덫” 가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자녀 혹은 무자녀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도래하는 경우 저출산 현상은 더욱 굳어질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출산 계획을 세우는 데 인식된 통제의 영향력이 낮다는 것은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회경제적 여건 및 정책적 환경이 출산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 그리고 출산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크기가 출산 패리티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무자녀, 한 자녀 등 출산 패리티별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보편적으로 추진해 온 저출산 대응 정책은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여성들이 희망하는 출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 수준별 정책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하층 혹은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는 인구 추계를 위한 출산율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실제 출산아 수와의 차이를 보정하는 작업을 통하여 출산율 예측 정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강건한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이나 출산 의향에 바탕을 둔 미래 출산율 예측을 위해서는 양질의 출산 패널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산 패널의 조사 설계와 설문 문항을 세심하게 구성하여 출산 의향의 실현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산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 의도에 신뢰성을 더할 수 있는 보정 작업이 가능해지면 출산 의향을 바탕으로 한 더욱 타당성 있는 출산율 예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출산력 조사는 국내 출산 변천 과정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모니터링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도 유일한 조사 자료이므로 변화된 환경을 살피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 용어:** 저출산, 이상 자녀 수, 기대 자녀 수, 출산율 예측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출산 의향의 개념과 지표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19년 0.92명으로 집계되어 2018년 0.98명을 기록한 이래 연속적으로 두 해에 걸쳐서 1명 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오면서, 보육 서비스의 보편적 지원, 아동 수당, 육아 휴직의 급여 등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지속해서 낮게 유지되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저출산 대응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었다. 그래서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왔던 출산율 제고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도되었다. 합계 출산율의 상승을 목표로 하였던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출산을 생산력 혹은 노동력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선호와 선택에 따른 사회적 결과로 간주하고 있다. 정책의 목표를 합계 출산율 제고가 아닌 “삶의 질” 제고에 두고 국민이 원하는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희망하는 출산과 실제 출산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출산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당위성이며, 이러한 차이를 좁히는 것이 출산지원정책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출산 의향이 감소하여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의 기반을 흔드는 위협이 되고 있다. 국내 저출산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출산 의향과 실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이상 자녀 수” 혹은 “계획 자녀 수”에 대한 분석은 가족계

획사업을 추진하였던 197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다. 이후 1980년대까지 이상 자녀 수와 계획 자녀 수에 대한 분석은 여성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수준보다 높았던 출산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던 가족 계획사업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면서 국민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계획하는 자녀 수는 출산 자녀 수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저출산 이슈가 제기된 이래로 많은 연구자가 국민이 희망하는 출산을 실현하는 데 정책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희망 출산과 실제 출산 간의 괴리에 내재한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은 아직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어떠한 요인들이 출산 의향을 형성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계획한 출산이 어느 정도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국민이 희망하고 계획하고 있는 출산이 실제 출산을 예측하는 데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 효과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출산 의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부터 실제 출산으로 이루어질 때까지의 과정에서 작용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출산 대응 정책은 국민이 희망하는 출산을 실현하지 못하는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한 시점에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상 자녀 수 혹은 기대 자녀 수가 출산율을 예측하는 데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 사회의 출산율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예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이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파악하고 이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국내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출산 의향과 계획이 형성되고 있으며, 계획한 출산이 실제

출산으로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이 실제 출산율을 예측하는 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향후 우리나라의 출산율 전개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장은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이 형성되는 과정과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와 Traits-Desires-Intentions-Behavior(TDIB) 내용을 검토하고 본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설문 모듈을 적용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25~39세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다. 조사 문항에는 출산 자녀 수, 이상 자녀 수, 희망 자녀 수, 계획 자녀 수, 출산 의향 및 출산 계획의 정도, 임신하지 않기 위한 행동, 임신하기 위한 행동이 포함된다. 출산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동기, 인식된 통제, 주관적 규범, 미래의 상황, 기타 사회경제적 배경을 조사한다.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적용하여 TPB와 TDIB의 이론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국내 저출산 현상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한다.

3장에서는 출산 계획이 실제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이 분석에서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인이 출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여성가족패널 2차~8차(2008년~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2년 이내

출산 계획의 실현 여부를 실현자, 연기자, 포기자, 미결정자로 구분한 다음 로짓 모형과 다항 로짓 모형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1974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격으로 조사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 조사」와 2005년, 2010년, 2015년 「인구센서스」에서 조사된 출산 의향 및 출산 계획 분석 결과와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장래인구추계의 코호트별 완결 가족 크기를 비교하여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이 가지고 있는 출산율 예측 타당성 정도를 검증한다. 이상 자녀 수/기대 자녀 수와 기간 합계 출산율 간의 격차를 Bongaarts(2001)의 모델을 바탕으로 설명하였다.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의 무자녀 여성을 제외한 모든 여성의 비율을 출산력 조사결과에 적용하여 산출한 실효 이상 자녀 수와 실효 기대 자녀 수를 출산율 예측 타당성 점검을 위한 기준으로 삼는다. 출산율 예측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를 이용하여 장래 인구 추계에 필요한 출산력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5장은 결론으로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점 및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제3절 출산 의향의 개념과 지표

외국의 문헌에서는 출산 의향에 대한 개념으로 이상 자녀 수(ideal number of children), 희망 자녀 수(desired number of children), 기대 자녀 수(expected number of children), 의도 자녀 수(intended number of children) 등을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다. 각각의 연구자는 연구 목적과 해당 국가의 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출산 의향을 정의하

고 그에 따른 측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출산 의향에 대한 정의와 측정 방식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Testa & Toulemon, 2006). 최근 학계에서는 출산 의향에 대한 측정치가 얼마나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는지, 조사에 필요한 출산 의향 질문 문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출산 의향 지표에서 국가 간의 비교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무응답 혹은 “모른다”라는 응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출산 의향을 학계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외국의 대표적인 출산 조사가 출산 의향을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OECD 회원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국제 데이터베이스인 OECD Family database의 이상 자녀 수 및 의도 자녀 수에 대한 지표도 소개한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출산 의향”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1. 출산 의향의 개념

이상 자녀 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출산에 대한 규범을 반영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경험한 출산을 반영하지 않는 인구학적이지 못한 개념으로 실제 출산율이 변화하는 모습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De Santis & Livi Bacci, 2001; van de Kaa, 2001).

희망 자녀 수는 Miller(1995)가 제안한 개념으로 출산 동기, 태도, 믿음과 같은 심리학적인 특성이 출산 희망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희망 자녀 수는 낳기를 원하는 자녀 수로 측정된다. 출산 희망이 더욱 구체적인 계획인 출산 의도로 이어지며, 출산 의도는 출산 촉진 혹은 출산 회피의 행동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출산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보았다.

기대 자녀 수는 이미 태어난 자녀 수에 출산을 기대하고 있는 자녀 수를 더한 값이다. 예를 들면 “자녀를 (한 명 더) 낳을 것을 기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 “몇 명을 낳을 것을 기대하십니까?”라고 질문하여 이러한 응답에 현재 자녀 수를 더하여 기대 자녀 수를 측정한다(van de Kaa, 2001). 기대 자녀 수는 미래 출산율을 예측할 수 있는 더욱정확한 측정치로 알려져 있다.

의도 자녀 수는 기대 자녀 수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두 지표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의도(intentions)는 특별한 목표를 향한 계획된 행동 혹은 “어떠한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결심”을 말한다. 반면에 기대(expectation)는 개인의 의도 혹은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과는 무관하게 무엇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평가”와 관련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의도하는 자녀 수는 원하지 않는 출산(unwanted births) 혹은 적절하지 않은 시기의 출산(mistimed births)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Stanford, Hobbs, Jameson, DeWitt, and Fischer, 2000).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피임 실패 혹은 생식 능력 저하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에 기대하는 출산과 의도하는 출산을 구분하여 응답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은 출산 의도와 출산 기대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1965년 National Fertility Survey 결과에서도 출산 의도와 출산 기대에 대한 답변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었다(Morgan, 2001).

2. 출산 의향에 대한 국내외 지표

국내에서 출산 의향에 대한 조사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이하 출산력 조사)」, 「여성가족패널」, 「인구센서스」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외국 문헌의 출산 의향은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 이외에도 의도 자녀 수, 희망 자녀 수 등 다양한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주로 이상 자녀 수와 계획 자녀 수로 측정하고 있다. 이는 출산 의향에 대한 개념이 서양과 우리나라가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출산 의향을 바라보는 문화적인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출산력 자료는 1974년도 조사부터이며 이 시기부터 “이상 자녀 수”의 측정이 가능하다(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 2016). 이상 자녀 수에 대한 질문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설문지 확인이 가능한 1997년 조사부터 알 수 있다.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아주머니께서는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1)”라고 질문하였다. 따라서 2012년 조사까지는, 응답자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녀 수가 이상적인 자녀 수로 정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당한 자녀 수”가 응답자의 입장에서 적당한 자녀 수 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한 가정에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자녀 수 인지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모호한 측면이 있다. 2015년부터는 이상 자녀 수에 대한 질문을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변경하였다. 따라서 2015년 조사부터 이상 자녀 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이상적인 자녀 수라는 의미가 명확해졌다. 또한, 이상적인 상태도 “적당하다”에서 “좋다고 생각한다”라는 의미로 변경되었다.

외국에서는 의도하고 있는 자녀 수 혹은 기대하고 있는 자녀 수를 조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계획”이라는 단어를 질문에 포함하여

1) “아주머니”라는 호칭은 2000년 “부인” 그리고 2003년부터 “귀하”라는 호칭으로 변경되었다.

낳기를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를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조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계획 자녀 수”는 외국에서 조사하는 의도 자녀 수 혹은 기대 자녀 수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출산력 조사에서는, 2012년까지는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생각입니까?”라고 질문하고 “① 낳겠다”, “② 낳지 않겠다”, “③ 생각 중이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015년과 2018년에는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계획입니까?”라고 질문하면서 “① 낳을 생각이다”, “② 낳지 않을 생각이다”, “③ 생각 중이다(모르겠음)”라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출산력 조사에서는 이 밖에도 현재 계획하고 있는 출산뿐만 아니라 결혼 당시 낳을 것으로 계획하였던 자녀 수도 조사하고 있다.

〈표 1-1〉 출산력 조사에서 이상 자녀 수에 대한 질문 문항(조사표 확인이 가능한 연도부터)

조사연도	질문 문항
1997년	아주머니께서는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이상 자녀 수: 명 ② 잘 모르겠다.
2000년	부인께서는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이상 자녀 수: 명 ② 잘 모르겠다.
2003년	귀하께서는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이상 자녀 수: 명 ② 잘 모르겠다.
2006년	귀하께서는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이상 자녀 수: 명 ② 잘 모르겠다.
2009년	귀하께서는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이상 자녀 수: 명 ② 잘 모르겠다.
2012년	귀하께서는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이상 자녀 수: 명 ② 잘 모르겠다. ⑧ 비해당 ⑨ 무응답
2015년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이상 자녀 수: 명 ② 잘 모르겠다.
2018년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이상 자녀 수: 명 ② 잘 모르겠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데이터(<http://data.kihasa.re.kr/databank/subject/list?page=1&seq=6&searchText=%EC%B6%9C%EC%82%B0%EB%A0%A5>, 2020.06.03. 인출).

〈표 1-2〉 출산력 조사에서 계획 자녀 수에 대한 질문 문항(조사표 확인이 가능한 연도부터)

조사연도	질문 문항
1997년	아주머니께서는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생각입니까? (※ 조사원: 현재 임신 중인 부인은 현재의 임신을 포함하여 질문하시오) ① 낳겠다 ② 낳지 않겠다. ③ 생각 중이다 → 지금 생각으로 몇 명이나 더 낳으실 생각입니까? 명
2000년	부인께서는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생각입니까? (※ 조사원: 현재 임신 중인 부인은 현재의 임신 외의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인지의 여부를 질문하시오) ① 낳겠다 ② 낳지 않겠다. ③ 생각 중이다 → 지금 생각으로 몇 명이나 더 낳으실 생각입니까? 명
2003년	부인께서는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생각입니까? (※ 조사원: 현재 임신 중인 부인은 현재의 임신 외의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인지의 여부를 질문하시오) ① 낳겠다 ② 낳지 않겠다. ③ 생각 중이다 → 지금 생각으로 몇 명이나 더 낳으실 생각입니까? 명
2006년	부인께서는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생각입니까? (※ 조사원: 현재 임신 중인 부인은 현재의 임신 외의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인지의 여부를 질문하시오) ① 낳겠다 ② 낳지 않겠다. ③ 생각 중이다 → 지금 생각으로 몇 명이나 더 낳으실 생각입니까? 명
2009년	부인께서는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생각입니까? (※ 조사원: 현재 임신 중인 부인은 현재의 임신 외의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인지의 여부를 질문하시오) ① 낳겠다 ② 낳지 않겠다. ③ 생각 중이다 → 지금 생각으로 몇 명이나 더 낳으실 생각입니까? 명
2012년	부인께서는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생각입니까? (※ 조사원: 현재 임신 중인 부인은 현재의 임신 외의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인지의 여부를 질문하시오) ① 낳겠다 ② 낳지 않겠다 ③ 생각 중이다 ④ 비해당 ⑤ 무응답 → 지금 생각으로 몇 명이나 더 낳으실 생각입니까? 명
2015년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계획입니까? (*현재 임신은 제외) ① 낳을 생각이다 (명) ② 낳지 않을 생각이다. ③ 생각 중이다 (모르겠음)
2018년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계획입니까? (*현재 임신은 제외) ① 낳을 생각이다 (명) ② 낳지 않을 생각이다. ③ 생각 중이다 (모르겠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데이터(http://data.kihasa.re.kr/databank/subject/list?page=1&seq=6&searchText=%EC%B6%9C%EC%82%B0%EB%A0%A5, 2020.06.03. 인출).

「여성가족패널」은 49세 이하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앞으로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으십니까?”라고 질문하고,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대해 “언제쯤 자녀를 가질 계획입니까?” “① 1년 이내”, “② 1~2년 사이에”, “③ 2년 이후”로 응답하게 하여 계획하고 있는 출산 시기를 파악하였다. 또한 “님의 현재 생활과 앞으로의 계획을 모두 고려하면 현재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를 모두 몇 명을 두실 생각이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본 질문이 자녀 출산 계획에서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도 자녀 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²⁾

「인구센서스」는 2005년 조사부터 “앞으로 자녀를 낳으실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현재 임신 중의 태아도 포함합니다)”라고 질문하고 있다. 출산력 조사와 「여성가족패널」과 달리 현재 임신 중의 태아도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에 포함하고 있다.³⁾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출산과 관련한 대표적인 패널 조사로 「Gender and Generations Survey(GGS)」가 있다. GGS는 2003~2006년 기간 동안 첫 번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3년 이후에 같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조사가 이루어졌다. 현재 GGS 2020이 계획 중에 있다. GGS 2020에서는 향후 3년 이내에 자녀를 낳을 의도, 궁극적으로 자녀를 낳을 의도, 낳기를 의도하는 자녀 수, 개인적으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족 수, 일반적으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족 수를 조사하고 있다.

GGS 조사에서는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하여 자녀를 낳을 의도를 질문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3년 이내에 계획하

2) 출처: 여성가족패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lofw.kwdi.re.kr/portal/dataSet/rdsFileListPage.do> 2020.04.03. 인출).

3)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https://www.census.go.kr/dat/ysr/ysrItem.do?q_menu=6&q_sub=2 2020.06.03. 인출).

고 있는 출산이 가장 현실성 있는 출산 의도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질문에 대한 응답을, “① 절대로 아니다”, “② 아마도 아니다”, “③ 확실하지 않다”, “④ 아마도 그렇다”, “⑤ 절대로 그렇다”의 다섯 가지 척도로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출산 의도에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여 “예” 혹은 “아니오”가 아닌 다섯 가지 척도로 응답하게 한 것을 볼 수 있다. 3년 이내 자녀 출산 의도에 대해 “절대로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자녀를 낳을 의도를 추가로 질문하였다. 이러한 질문에도 역시 다섯 가지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이상 자녀 수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족 수와 일반적으로 볼 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족 수를 모두 조사하고 있다.⁴⁾

3. 출산 의향 조사에서의 무응답

출산 의도 곧 기대 자녀 수 자료에서 중요한 문제는 계획하고 있는 출산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모른다”는 것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유일한 응답이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람들을 “무응답”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학계에서도 “모른다”라는 응답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본 절에서는 출산 의향에 대한 무응답을 처리하는 데 각 국가가 활용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른다”라는 응답을 무시하고 이들의 계획 자녀 수에 응답한 사람들의 응답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응답자들의 기대 자녀 수가 응답자들의 기대 자녀 수와 같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4) 출처: Gender & Generation Programme. (2020). Gender & Generation Survey. Horizon 2020 Research and Innovation Programme (<https://www.ggp-i.org>에서 2020.04.06. 인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무응답 여성이 평균적으로 더 적은 자녀 수를 가지며 비혼으로 남아 있는 경우 많기 때문이다. 자녀 출산의 불확실성에 직면한 여성들의 생애 출생아 수는 계획 자녀 수를 응답한 여성들보다 더 적을 수 있다.

Van de Giessen(1992)에 따르면 1982년 네덜란드 출산율 조사는 1945~1964년에 태어난 기혼자와 비혼자(18~37세)를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수의 자녀를 기대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바 있다. 네덜란드 출산율 조사는 응답자에게 출산을 기대하고 있는 자녀 수를 질문한 후(0명 포함), 이러한 기대 자녀 출산에 대해 얼마나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자녀 출산은 기대하고 있지만 기대 자녀 수를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기대 자녀 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질문하였다. 그리고 자녀를 출산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만일 자녀를 갖게 된다면 몇 명이나 낳을 것을 기대하는지 질문하였다. Van de Giessen(1992)은 이러한 질문 방식은 전체 조사대상 여성들이 자녀 수에 대해 적어도 대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여성들이 미래 출산 자녀 수에 대하여 적어도 직관적으로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응답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 자녀 수에 대해 약간의 힌트만 가지고서도 인구 추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Van de Giessen(1992)이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960~1964년 코호트 여성들은 최소 2.0명에서 최대 2.4명의 기대 자녀 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자마다 출산 계획에 대한 무응답에 다양한 가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Werner(1986)는 자녀가 없고 자녀 출산 계획에 응답하지 않은 여성들은 자녀를 갖지 않는다고 가정하거나, 또는 무자녀 혹은 한 명의 자녀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

은 비증을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Jain(1988)은 자녀가 없고 기대 자녀 수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의 기대 자녀 수는, 자녀가 없고 기대 자녀 수에 응답한 사람들의 연령별 기대 자녀 수와 같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적어도 자녀가 한 명이며 기대 자녀 수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의 기대 자녀 수는, 같은 수의 자녀를 가지고 있으며 기대 자녀 수를 응답한 사람의 기대 자녀 수를 따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Van de Giessen(1992)은 호주와 네덜란드의 경우 기대 자녀 수를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대 자녀 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응답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Van de Giessen(1992)에 따르면, 호주는 두 수치를 평균한 값을 기대 자녀 수로 사용하였으며, 네덜란드는 최댓값과 최솟값의 범위를 모두 제시하였다. Van de Giessen(1992)은 최근에 와서 최대 기대 자녀 수와 최소 기대 자녀 수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여성들이 자녀 출산에 대한 불확실성(동거, 결혼, 출산 등)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연구자들은 출산 의향에 대한 무응답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4. OECD Family Database의 출산 의향 지표

가족 관련 대표적인 국제 데이터베이스인 OECD Family Database (2020)는 출산 의향과 관련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출산 의향에 대한 지표는 “SF2-2: 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이상 자녀수와 실제 자녀 수)”이라는 중분류 지표 안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세분류 지표에는 “개인적인 이상 자녀 수(Chart SF2.2A)”, “일반적인 이상적인 자녀 수(Chart SF2.2B)”,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자녀 수(Chart SF2.2C)”, “교육 수준별 개인적인 이상 자녀 수(Chart SF2.2C)”, “근로

상태별 개인적인 이상 자녀 수(Chart SF2.2E)”, “일반적인 이상 자녀 수와 개인적인 이상 자녀 수 간 차이(SF2.2F)”가 있다. 개인적인 이상 자녀 수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15~64세, 15~39세, 40~64세 연령 집단별로 공개하고 있다. 일반적인 이상 자녀 수는 15~64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이상, “모르겠음/혹은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을 공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자녀 수는 25~39세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아 수와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를 합한 수치로 공개하고 있다. 교육 수준별 개인적인 이상 자녀 수는 15~64세 여성을 전체 집단, 저학력 및 중간 학력, 고학력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개인적인 이상 자녀 수를 공개하고 있다. 근로 상태별 개인적인 이상 자녀 수는 15~64세 여성을 전체, 근로 여성(working), 비근로(Not working) 여성으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다. 일반적인 이상 자녀 수와 개인적인 이상 자녀 수 간 차이는 15~64세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다.

OECD Family Database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간의 차이, 그리고 이러한 차이의 국가별 특징을 보여 준다. 또한, 이상 자녀 수를 성별, 연령별 등 인구학적 특징뿐만 아니라 학력 및 근로 상태 등 사회경제학적 특성별로도 비교하고 있다. 상세한 지표를 가지고 이상 자녀 수에 대해 자세하게 국가별 현황을 비교하는 것은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데 이상 자녀 수가 전달하고 있는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OECD Family Database는 OECD 22개 회원국가에 대하여 이상 자녀 수 지표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의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국의 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OECD Family Database의 이상 자녀 수의 정의와 국내 조사 자료의 정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5. 출산 의향에 관한 본 연구의 정의

출산 의향은 복잡한 심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학계에서도 정확한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구자 혹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외국의 선행 연구에서는 출산 의향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를 연구 목적과 이용하는 조사 자료 및 지표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출산 의향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 희망하는 자녀 수, 의도하고 있는 자녀 수, 기대하고 있는 자녀 수 등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출산력 조사에서 이상 자녀 수, 계획 자녀 수, 기대 자녀 수를 측정하고 있고 (이소영 외 2018), 「인구센서스」에서 계획 자녀 수가 언급되고 있지만 엄밀하게 볼 때 외국의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출산력 조사에서 2015년 이후 이상 자녀 수와 계획 자녀 수에 대한 정의가 과거와 다소 달라졌지만, 아직 외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희망 자녀 수(desired number of children), 기대 자녀 수(expected number of children), 의도 자녀 수(intended number of children)에 대한 개념은 국내에서 거의 측정된 바가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한 출산 의향에 관한 연구는 기존에 조사된 자료 (주로 출산력 조사)의 정의를 따랐으며, 출산 의향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과 정의를 위한 연구는 없었다. 출산 의향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각 국가의 문화적인 배경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실정에 맞는 출산 의향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내리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출산 의향에 대한 설문 모듈, 출산력 조사, 「여성가족패널」, 「인구센서스」에서 조사된 출산 의향 관련 자료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용하는 자료에서 정의된 출산 의향을 따라야 하는 한계가 있었고 장별로 출산 의향에 대한 정의가 다소 중첩되는 경향을 피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 의향을 이상 자녀 수, 희망 자녀 수, 의도 자녀 수, 기대 자녀 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접근하되, 분석의 목적과 이용하는 자료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의하였다. “출산 의향”이라는 용어를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되, 특히 세부적으로 “원하는 출산” 혹은 “희망하는 출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적절한 국내 용어가 없어서 “출산 의향”이라는 용어를 중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장 출산 의향의 형성, 3장 출산 의향의 실현, 4장 출산 의향의 예측 타당성이라는 차별적인 분석 목적을 가진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에서 이용한 자료와 지표를 가지고 정의한 출산 의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3〉).

2장에서 출산 의향의 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Miller(1995)의 「Childbearing Questionnaire(CBQ)」와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GGS)」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장에서 적용한 출산 의향, 출산 계획, 이상 자녀 수, 희망 자녀 수, 계획 자녀 수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출산 의향은 “자녀를 낳는 것을 원하는 정도”, 출산 계획은 “자녀를 낳는 것을 계획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상 자녀 수는 “일반적으로 볼 때 한 가정에서 이상적인 자녀 수”와 “개인적으로 볼 때 한 가정에서 이상적인 자녀 수”, 희망 자녀 수는 “낳기를 원하는 자녀 수”, 계획 자녀 수는 “낳기를 계획하는 자녀 수”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조사에서 활용한 설문 문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부록 1] 참조).

제3장 출산 의향의 실현에서는 「여성가족패널 (2차~8차)」 자료를 이

용하였는데, 여기서 정의된 출산 계획은 “2년 이내에 자녀를 가질 계획”을 의미한다.

제4장 출산 의향의 예측 타당성에서는 1974~2018년 출산력 조사 자료와 2005, 2010, 2015년 「인구센서스」를 이용하였다. 4장에서 이상 자녀 수는 출산력 조사의 설문 내용에 근거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자녀 수” 혹은 “일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자녀 수”, 기대 자녀 수는 “낳을 생각이 있는 자녀 수” 혹은 “낳을 계획이 있는 자녀 수”라고 정의하였다.

〈표 1-3〉 본 연구의 장별 출산 의향에 대한 정의

구분	지표명	정의
2장	출산 의향	• 자녀를 낳는 것을 원하는 정도
	출산 계획	• 자녀를 낳는 것을 계획하는 정도
	이상 자녀 수	• 일반적으로 볼 때 한 가정에서 이상적인 자녀 수 • 개인적으로 볼 때 한 가정에서 이상적인 자녀 수
	희망 자녀 수	• 낳기를 원하는 자녀 수
	계획 자녀 수	• 낳기를 계획하는 자녀 수
3장	출산 계획	• 2년 이내 자녀를 가질 계획
4장	이상 자녀 수	•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자녀 수 (일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자녀 수)
	기대 자녀 수	• 낳을 생각이 있는 자녀 수 (낳을 계획이 있는 자녀 수)

주: 1) 이상 자녀 수는 출산력 조사 1974~2012년까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자녀 수로 질문하였으며, 출산력 조사 2015년과 2018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자녀 수로 질문하였음.

2) 기대 자녀수는 출산력 조사 1974~2012년까지 낳을 생각이 있는 자녀 수, 출산력 조사 2015년과 2018년, 인구 센서스 2005, 2010, 2015년에 대해서는 낳을 계획이 있는 자녀 수로 질문하였음.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출산 의향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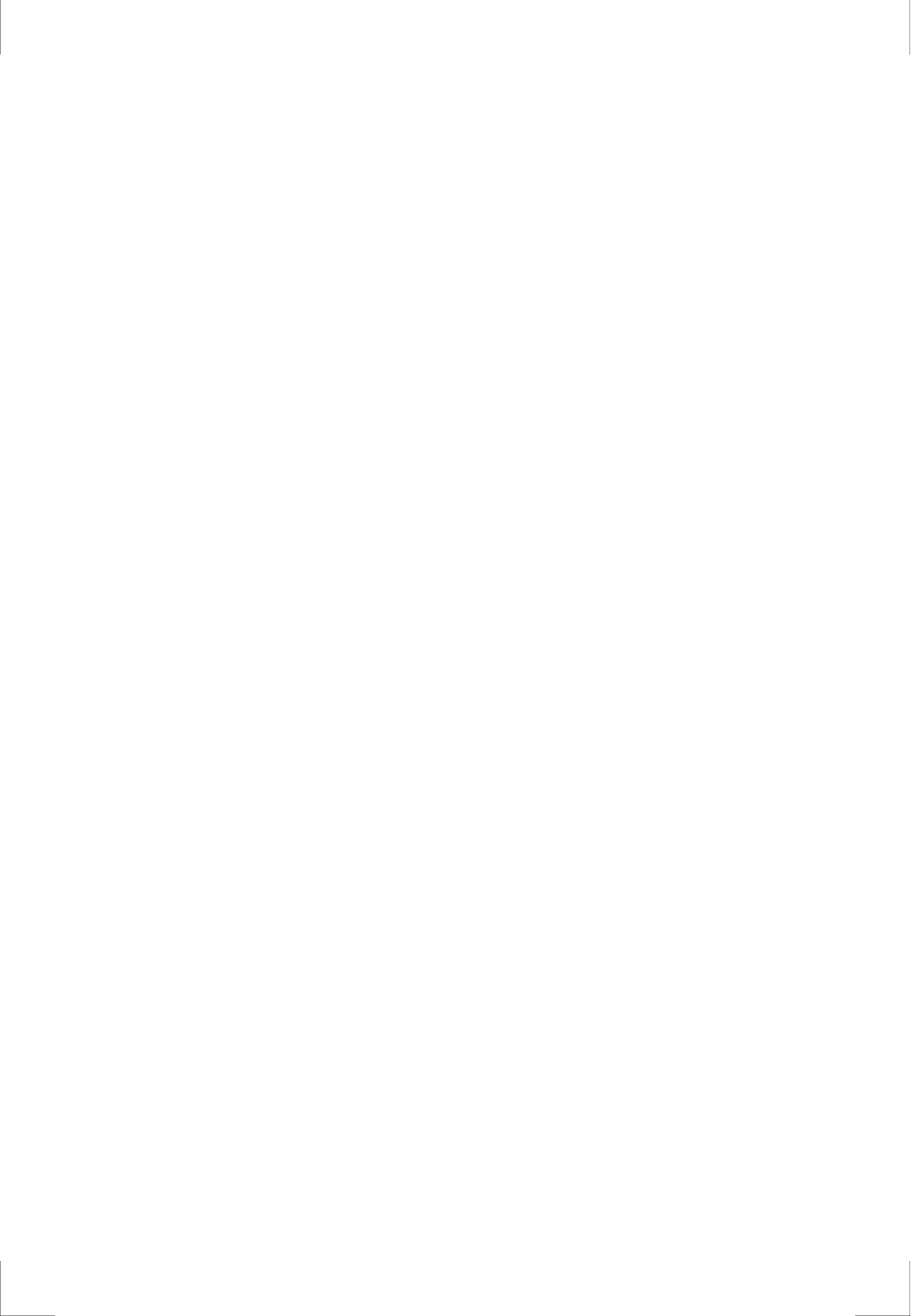
제1절 선행 연구

제2절 분석 개요

제3절 TPB 모형 분석

제4절 TDIB 모형 분석

제5절 소결



제 2 장 출산 의향의 형성

본 장에서는 출산이 이루어지는 시발점으로서 출산 의향의 형성에 대해서 논의한다. 전통적인 가족 사회에서 개인 중심 사회로 변화되면서 출산에 대한 개인의 의향과 선호가 출산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현대 사회에서의 출산은 기대하지 않은 상황 혹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기보다 사전의 계획과 준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이 함께 출산율 제고에서 “희망하는 출산의 실현”으로 전환됨에 따라 출산 의향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 출산율이 낮게 유지되는 이유는 출산 의향 자체가 낮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 반면에 출산 의향은 높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 본 장에서는 첫 번째 주제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고자 한다. 즉,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들의 출산 의향이 어느 정도이며, 이에 미치는 인구 사회학적인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출산 의향이 낮게 혹은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출산 의향이 출산 계획 및 임신 혹은 피임 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서구 국가에서는 출산 의향이 저출산 현상에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는 전제 아래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의 형성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미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관련 외국의 이론이 최근 들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하였지만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국내 설문 모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출산 의향의 정도와 이에 미치는 인구 사회학적 요인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출산 의향의 형성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인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과 Traits-Desires-Intentions-Behavior(TDIB)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설문 모듈인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GGS)와 Childbearing Questionnaire(CBQ)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GS와 CBQ의 주요 내용을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설문 문항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온라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조사 자료를 가지고 TPB 이론에 근거하여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 주관적 규범, 인식된 통제가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TDIB 모형에 따라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과 이후 출산 계획 및 임신 관련 행동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국내 저출산 현상에 주는 함의를 모색하고 관련 연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다.

제1절 선행 연구

자녀 출산에 대한 전통적인 의사 결정 이론은 Gary Becker의 가족 경제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부부는 주어진 소득과 효용을 가지고 자녀에 대한 (직접 및 간접) 비용과 혜택을 고려하여 자녀를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 최적의 선택을 한다. 자녀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적은 수의 자녀에게 많은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려는 “양과 질의 대체”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양과 질의 대체”는 현대 사회

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유용한 이론적인 근거이다 (Becker, 1981a). 출산에 대한 가족 경제 이론은, 자녀 출산은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제약 속에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며 제약 조건의 대부분은 “재정적인” 제약으로 간주하고 있다(Becker, 1981b; Becker & Barro, 1988).

2차 인구학적 변천이 일어난 이후 자녀 출산에 대한 의사 결정은 단지 재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전통적인 체계와 규범에서 벗어난 개인의 자율권, 자기표현과 자아실현에 대한 열망 등 사회적 맥락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각이 대두되었다(Lesthaeghe, 1998; van de Kaa, 1987). 베커를 위시한 기존의 이론들이 비용과 혜택의 관점에서 자녀 출산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던 반면에, 이 시기부터 “선호”가 출산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게 되었다(Billari, Philipov & Testa, 2009). 선호 체계를 반영하여 출산 결정 과정을 이론화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심리학 및 행동학 분야였다. 대표적인 이론으로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 (Ajzen & Klobas, 2013)와 Traits-Desires-Intentions-Behavior(TDIB) (Miller, 2011)가 있다. 1장에서 언급한 유럽 국가의 출산 관련 대표적인 조사인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GGS) 조사도 TPB 모형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Gauthier, 2019). 이로부터 GGS 자료를 이용하여 TPB 모형을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출산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였다(Klobas, 2010; Dommermuth, Klobas & Lappegård, 2011).

TPB와 TDIB는 출산 의사 결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사회심리적 요인 검증능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출산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은 출산 결정 과정과 이러한 과정에 작용하는 주요한 요인을 이해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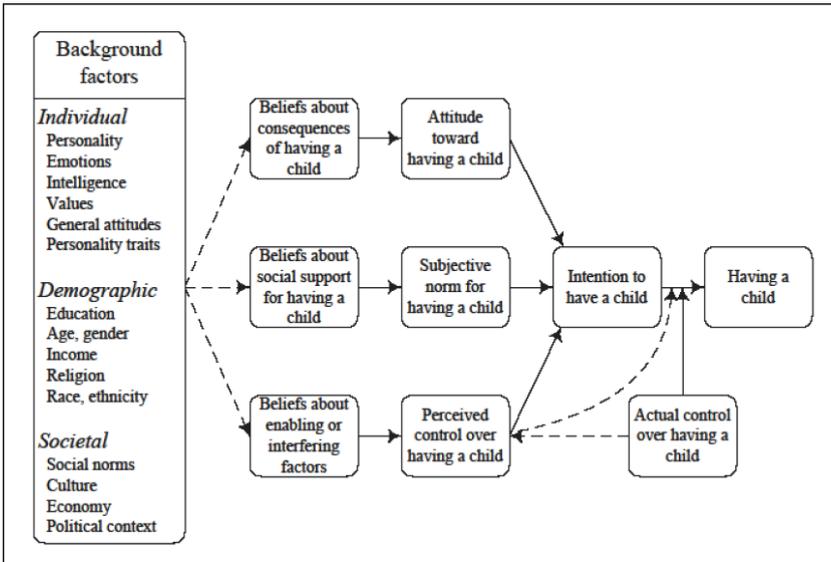
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출산 결정 과정에 대한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녀가 주는 기쁨이 출산 동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혹은 자녀를 양육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이 부부들의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동기를 막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 결과는 국민의 출산 결정에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지 알려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출산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여 출산 의사 결정 과정을 모형화한 TPB와 TDIB 이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설문 모듈과 실증 분석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은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들이 어떠한 단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한 사회심리학 영역의 이론이다. Ajzen과 Klobas (2013)는 TPB를 자녀 출산 행위에 적용하여 출산 의도(intention)를 형성하는 사회심리학적 과정을 모형화하였다. TPB에 따르면 자녀를 낳을 것인지 낳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의도는 세 가지 신념(beliefs)의 영향을 받는다. 첫째, 행동적인 신념은 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 혹은 평가이며, 이것들이 결합하여 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형성한다. 둘째, 규범적인 신념은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주변 사람 혹은 집단이 가지고 있는 기대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주변 사람들과 집단을 따르려는 개인적인 동기와 결합하여 자녀 출산에 대한 주관적인 규범을 형성한다. 셋째, 통제된 신념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개인적인 인식과 이러한 요인이 자녀 출산을 쉽게 하거나 막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개인의 인식과 결합하여 형성된다.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인 규범이 더 호의적일수록, 그리고 인식된 통제력이 더 강할수록 개인은 더 높은 출산 의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림 2-1] 출산 결정에 적용된 계획된 행동이론



자료: Ajzen & Klobas (2013).

TPB 모형을 검증할 수 있는 설문은 GGS 1차연도 조사(2003~2006)⁵⁾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설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자녀 출산 계획에 대해 3년 이내에 자녀를 낳을 의도가 있는가를 물어본 뒤에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니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의 네 가지 척도를 기준으

5) 출처: Gender & Generation Survey Wave 1. Horizon 2020 Research and Innovation Programme, <https://www.ggp-i.org/>.

로 응답하게 하였다. 자녀 출산 계획을 3년이라는 기간에 한정하여 질문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인 출산 계획을 파악할 수 있으며, 4점 척도의 강도를 두고 응답하게 한 것은 출산 계획에 불확실성이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앞으로 3년 이내에 당신이 자녀를 낳는다고(한 명 더 낳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녀 출산이 다음과 같은 당신의 삶의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후 “① 매우 좋아진다”, “② 좋아진다”, “③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다”, “④ 나빠진다”, “⑤ 매우 나빠진다”에 응답하게 하였다. 삶 속에서 출산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원하는 것을 할 가능성, 고용 기회, 재정적인 상태, 성생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생각하는 것,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 배우자 간의 친밀성, 배우자의 고용 가능성, 노년에 받을 보호와 안정, 삶에 있어서 확실성, 당신과 부모 간의 친밀성이다.

규범적인 신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당신이 자녀를 낳는 것(한 명 더 낳는 것)은 당신 혹은 당신 배우자의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향후 3년 이내에 당신이 자녀를 낳는 것 (한 명 더 낳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에 당신이 어느 정도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당신 친구들은 당신이 자녀를 낳아야(한 명 더 낳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 부모는 당신이 자녀를 낳아야(한 명 더 낳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당신 친척들은 당신이 자녀를 낳아야(한 명 더 낳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의 세 가지 진술에 대해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동의한다”, “③ 동의하지도 동의 안하지도 않는다”, “④ 동의하지 않

는다”, “⑤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자녀 출산에 대해 주변으로부터 받는 압력 혹은 자녀 출산에 대해 응답자가 느끼는 사회적 규범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

통제된 실험은 “향후 3년 이내에 자녀를 낳을(한 명 더 낳을) 것인지 혹은 낳지 않을 것인지에 대하여 당신의 결정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얼마나 달려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뒤 재정적 상황, 일자리, 주거 환경, 건강, 안정적인 배우자를 갖는 것, 배우자의 일자리, 배우자의 건강, 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육아 휴직 혹은 자녀 돌봄 휴가를 갈 기회 등의 9가지 영역에 대해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어느 정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답변하게 하였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전반적인 경제성장, 노동시장 여건, 정책 환경이 자녀 출산 계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표 2-1〉 GGS에서 사용된 출산 의도·태도·인식된 통제·주관적 규범 관련 문항

	GGG	한국어 번역
출산의도	622. Do you intend to have a/another child during the next three year? ① definitely not ② probably not ③ probably yes ④ definitely yes	622. 당신은 앞으로 3년 이내에 자녀를 낳을(한 명 더 낳을) 계획입니까?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니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태도	627. Now, suppose that during the next 3 years you were to have a/another child. I would like you to tell me what effect you think this would have on various aspect of you life? Please choose your answers from the card ① much better ② better ③ neither better nor worse ④ worse ⑤ much worse	627. 앞으로 3년 이내에 당신이 자녀를 낳는다고 (한 명 더 낳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녀 출산이 다음과 같은 당신의 삶의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 올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아진다 ② 좋아진다 ③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다 ④ 나빠진다 ⑤ 매우 나빠진다

36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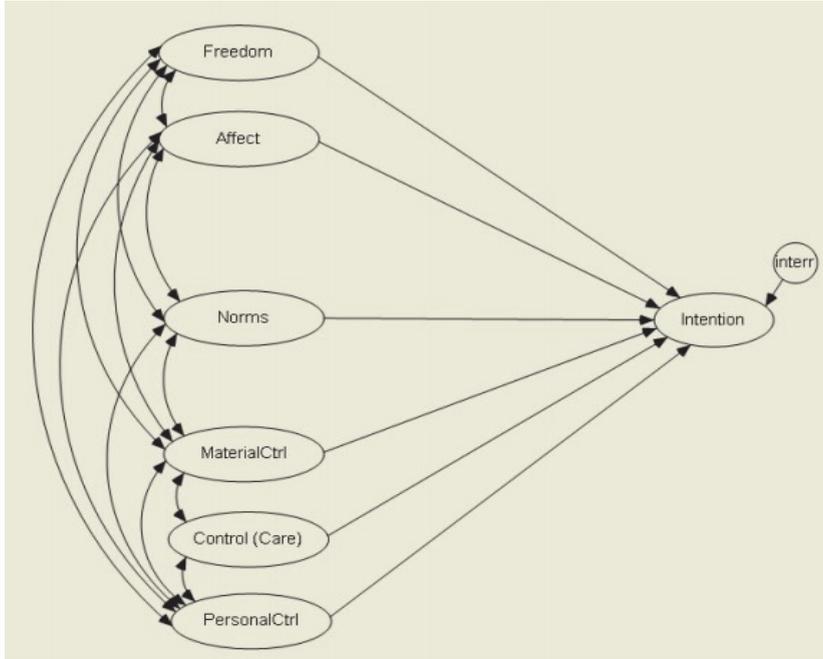
		GGS	한국어 번역
태도		a. the possibility to do what you want	a.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가능성
		b. your employment opportunities	b. 당신의 고용 기회
		c. your financial situation	c. 당신의 재정적 상태
		d. your sexual life	d. 당신의 성생활
		e. what people around you think of you	e. 당신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f. the joy and satisfaction you get from life	f.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
		g. the closeness between you and your partner/spouse	g. 당신과 배우자 간의 친밀성
		h. your partner's/spouse's employment opportunities	h. 배우자의 고용 가능성
		I. the care and security you may get on old age	I. 노년에 받을 보호와 안정
		j. certainty in your life	j. 삶에 있어서 확실성
	k. the closeness between you and your parents	k. 당신과 부모 간의 친밀성	
인식된 통제		628. How much would the decision on whether to have or not to have a/another child during the next three years depend on the following? ① not at all ② a little ③ quite a low ④ a great deal ⑤ not applicable	628. 향후 3년 이내에 자녀를 낳을(한명 더 낳을) 것인지 혹은 낳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당신의 결정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얼마나 달려 있습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어느 정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a. your financial situation	a. 재정적 상황
		b. your work	b. 일자리
		c. you housing condition	c. 주거 환경
		d. your health	d. 건강
		e. you having a suitable partner	e. 안정적인 배우자를 갖는 것
		f. your partner's/spouse's work	f. 배우자의 일자리
		g. your partner's/spouse's health	g. 배우자의 건강
		h. availability of childcare	h. 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I. your opportunity to go no parental leave or care leave	I. 육아 휴직 혹은 자녀 돌봄 휴가를 갈 기회

	GGG	한국어 번역
주 관 적 규 범	629. Although you may feel that the decision to have a/another child is yours(and your partner's/spouse's) alone, it is likely that others have opinions about what you should do. I'm going to read out some statement about what other people might think about you having a/another child during the next three years. Please tell me to what extent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se statements, choosing your answer from the card	629. 당신이 자녀를 낳는 것 (한 명 더 낳는 것)은 당신 혹은 당신 배우자의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향후 3년 이내에 당신이 자녀를 낳는 것 (한 명 더 낳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에 당신이 어느 정도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동의한다 ③ 동의하지도 동의 안하지도 않는다 ④ 동의하지 않는다 ⑤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는다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 disagree ⑤ strongly disagree	
	a. Most of your friends think that you should have a/another child	a. 대부분의 당신 친구들은 당신이 자녀를 낳아야 (한 명 더 낳아야)한다고 생각한다
	b. Your parents think that you should have a/another child	b. 당신 부모는 당신이 자녀를 낳아야 (한 명 더 낳아야)한다고 생각한다
	c. Most of your relatives think that you should have a/another child	c. 대부분의 당신 친척들은 당신이 자녀를 낳아야 (한 명 더 낳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자료: GGP Consortium Board (2003)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Core Questionnaire for Wave 1(https://www.ggp-i.org/sites/default/files/questionnaires/GGP_QueueW1Core.pdf, 2020.03.08. 인출).

Klobas(2010)는 GGS 설문 문항을 가지고 불가리아, 러시아, 독일,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루마니아 8개 국가의 25~34세 여성을 대상으로 Structural Equation Model(SEM)을 이용하여 TPB를 검증하였다. GGS의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 규범적인 신념, 주관적인 규범에 대한 설문 문항을 가지고 Principal Axis Factoring(PAF)을 통해 자녀 출산 의도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① 태도(자유)”, “② 태도(만족)”, “③ 주관적 규범”, “④ 물질적 통제”, “⑤ 자녀 보육 통제”, “⑥ 개인적 통제”의 6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 여섯 가지 요인이 출산 의도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2-2] Klobas(2010)가 TPB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SEM



자료: Klobas(2010).

분석 모형은 “① 자녀가 없는 여성이 첫째 아이를 낳을 의도”, “② 자녀가 있는 여성이 추가로 자녀를 낳을 의도”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두 모형에서 6가지 요인이 출산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달라서 첫째 아이를 낳는 의도와 둘째 아이를 낳는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둘째 아이 출산이 첫째 아이 출산보다 인지적으로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요인이 개입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태도(만족)와 주관적인 규범이 자녀 출산 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식된 통제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대부분 국가에서 첫째 자녀 출산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태도(만족)이었으나, 둘째 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가마다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자유), 태도(만족), 주관적 규범, 물질적 통제, 자녀 보육 통제, 개인적 통제가 출산 의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각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화적 특징 및 가족 정책 수준 등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주관적인 규범의 영향은 보수적인 특징이 강한 이탈리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출산 의사 형성이 개인별 그리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산 장려 정책은 개인과 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 세밀하게 접근되고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Azjen과 Klobas(2013)는 Klobas(2010) 연구를 연장하여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헝가리 등 네 국가에서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고 자녀를 한 명 가지고 있는 25~34세 여성을 대상으로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이용하여 자녀에 대한 태도, 주관적인 규범, 인식된 통제가 출산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 주관적인 규범, 인식된 통제가 출산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마다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국가가 출산에 대한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차별적인 가족 정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모든 국가에서 공통으로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가 둘째 아이 출산 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출산 의도를 형성하는 데 추가로 낳는 자녀가 부모 자신의 삶을 더 좋게 할 것인지 혹은 더 나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 정책이 발달한 프랑스에서는 인식된 통제력이 출산 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발달한 가족 정책이 부모들에게 자녀 출산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갖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주관적인 규범은 독일에서는 자녀 출산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자녀 출산에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통제력에 따라 자녀 출산 결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한편, 태도, 주관적 규범, 인식된 통제력 외에 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구 사회학적 변수들을 보면, 여성의 연령이 태도, 주관적 규범, 인식된 통제력을 매개로 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여성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자녀 출산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더 강한 주관적인 규범을 가지며, 인식된 통제가 더 강해지고, 출산 패리티(현재 자녀 수)가 다른 인구 사회학적 변수보다 출산 의도의 변이를 더 크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ommermuth et al. (2011)은 노르웨이 GGS 자료를 이용하여 3년 이내에 출산할 의도가 있다고 응답한 여성들에 대해 현재 자녀를 낳기를 원하는지 혹은 아닌지를 TPB로 검증하였다. “향후 3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다시 “지금 자녀 출산을 원하십니까?”라고 질문하여 현재 자녀 출산 의도를 측정하였다.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식된 통제력은 GGS의 설문 모듈을 사용하였다.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이용하여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 주관적 규범, 인식된 통제력의 네 가지 요인 변수를 구축하였고, 로짓 회귀 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긍정적인 태도는 추가로 자녀를 낳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인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규범은 첫째 아이 출산과 둘째 아이 출산에 모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 인식된 통제력은 인구학적인 변수를 포함하기 전에는 유의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포함하고 난 이후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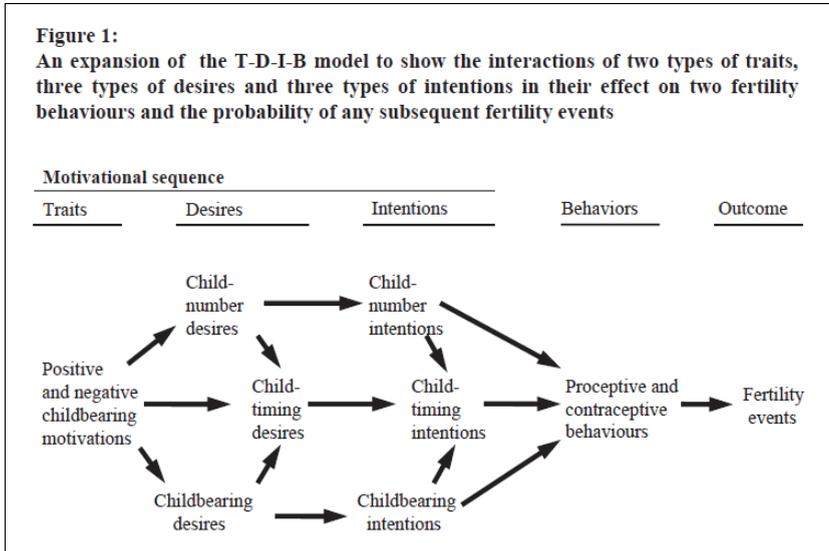
국내에서 TPB 모형을 검증한 대표적인 연구로 변두영(2015)이 있다. 변두영(2015)은 서울 거주 25~39세 기혼남성 735명과 기혼 여성 700명을 대상으로 웹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Klobas(2010)의 연구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대상자 분석 결과, 자녀에 대한 만족이 출산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관적 규범도 출산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규범, 즉 주요한 주위사람이 자녀를 가지라고 종용하는 압력의 정도는 출산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물질적 통제는 출산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상태, 직장생활, 주거 환경적인 요건이 자녀 출산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출산 의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남성과 여성의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 중 '만족'은 기혼여성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적 통제'는 기혼남성에게만 유의미하였다. 이는 건강상태와 자신과 아내의 직장생활이 기혼남성의 자녀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성과 비교하면 남성의 출산 의도는 환경적 요소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2. Traits-Desires-Intentions-Behaviour (TDIB)

Miller(1994)는 자녀 출산을 출산 의향(desire) 혹은 출산 동기(motives)로부터 시작되는 동기 유발 연속 과정(motivational sequence)의 결과라고 보았다. TDIB에서 동기적 특성(Traits)은 인간 신경 네트워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결속 스키마(bonding Schemas)와 관련되어 있다. 결속 스키마로 인해 인간은 사회조직 속에서 협력하고 생존하며 번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속 스키마 중에서 출산과 관련 있는 것

이 양육적 스키마(nurturant schema)로서 이러한 생물학적 체계가 출산 행동의 기저라고 보았다. 동기적 기질(dispositions)은 개인적인 성향, 심리적인 특성, 생애사 발달과정과 결합하여 자녀 출산에 대한 욕구(desire)로 귀결된다. 개인은 가능한 선택과 자원을 고려하여 출산 욕구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출산 의도를 형성한다. Miller는 출산 의도를 개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계획으로서 “현실에 의해 제약된 욕구(desire)”라고 보았다(Miller, 1994, p. 228). 이렇게 형성된 출산 의도가 출산을 촉진하는 행동 혹은 출산을 회피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림 2-3] Miller(1994)의 Traits-Desires-Intentions-Behaviour(TDIB)



자료: Miller(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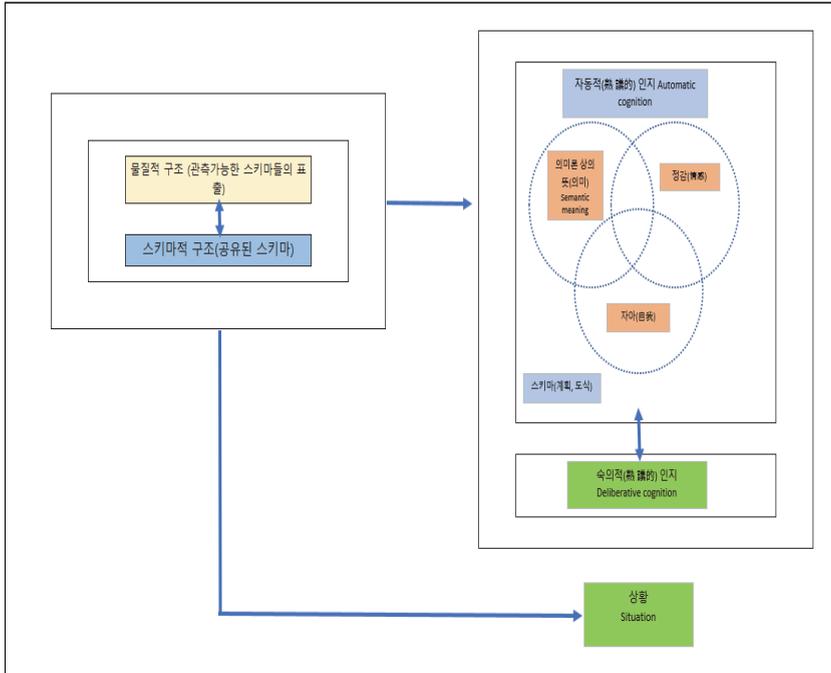
Miller의 이론에 따르면 자녀 출산 결정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출산 동기이다. 동기 유발 기질은 유전적으로 결정되며 개

인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되는 무의식적인 경험적 체계이다. 출산 동기는 출산의 다양한 측면에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긍정적인 동기와, 비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정적인 동기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자녀 출산 의향이 형성되려면 긍정적인 동기가 발현할 필요가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녀 출산 동기는 자녀 출산 의향을 예견할 수 있는 선행 지표이며, 긍정적인 동기를 보인 사람들이 실제로 자녀를 갖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Morgan & Rackin(2010)도 Miller (1994)와 같은 맥락에서 출산 의향 및 출산 의도와 실제 출산 행동 간의 상호관계, 또는 심리적 특질의 실제 행동 예측은 [그림 2-4]의 인지 모델의 주요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뇌의 정보처리 시스템의 자동적 과정(automatic process)은 개인의 외부환경에 대한 경험을 형상화(representation)하여 스키마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이 네트워크에 속한 각각의 스키마는 특정의 대상(예: 사람 또는 특정의 재화나 서비스), 개념(예: 가족, 출산, 양육 등), 행동(예: 동거 부부가 법적 혼인 또는 출산 압력에 대하여 대응하는 행동)의 언어학적 의미, 그와 관련된 주관적 감정, 자신에 대한 적합성/중요성을 파악하는 기능을 한다. 뇌는 이러한 전환과정(mapping process)을 통하여 외부환경적 단서들의 의미, 감정적 가치나 개인적 중요성/적합성을 해석하는 준비를 한다.

44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을 예측 연구

[그림 2-4] 출산 의향/의도-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



자료: Morgan & Rackin(2010).

TDIB가 TPB와 다른 점은, TPB는 자녀 출산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도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예를 들어, 자녀를 낳는 것이 나에게 혜택을 주는지 혹은 불이익을 주는지, 내가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하여 중요한 주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대한 신념 등), TDIB는 자녀 출산에 대한 의도가 내적인 동기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출산 의도를 형성하는 데는 개인의 동기적 특성을 포함하여 파트너의 욕구와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TDIB는 개인의 마음 이론과 공감 능력에 대한 논의로서 자녀 출산에 대하여 구성원이나 지인들이 주는 영향력 보다 개인

의 평가 자체가 더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Miller(1995)는 Childbearing Questionnaire(CBQ)를 개발하여 TDIB 모형을 검증할 수 있는 도구로 제시하였다. CBQ를 통하여 긍정적인 동기와 부정적인 동기가 자녀 출산에 미치는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선행 연구들은 CBQ가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으며, 우수한 심리 측정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탈리아(Sina, ter Meulen & Carrasco de Paula, 2010), 온두라스(Kennedy, 2005), 이란(Pezeshki, Zeighami & Miller, 2005)에서도 CBQ를 활용하여 조사를 한 바 있다.

CBQ는 자녀 출산에 대한 동기를 긍정적인 동기와 부정적인 동기 두 가지로 구분하여 영역별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긍정적인 자녀 출산 동기는 “① 임신·출산·영아에 대한 기쁨”, “② 전통적인 부모”, “③ 자녀 양육의 기쁨”, “④ 필요와 연결됨에 대한 감정”, “⑤ 자녀의 도구적 가치”로 구분된 총 28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인 동기는 “① 임신과 출산의 불편함”, “②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불안과 걱정”, “③ 자녀 양육의 부정적인 면”, “④ 부모로서의 스트레스”로 구분된 총 21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들은 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와 부정적인 동기를 기술하는 각 질문에 대해 4점 척도(“① 매우”, “② 어느 정도”, “③ 약간”, “④ 아니다”)를 기준으로 응답하였다.

〈표 2-2〉 Miller의 TDIB 검증을 위한 Childbearing Questionnaire(CBQ) 모듈

긍정적인 자녀 출산 동기	
	Joys of pregnancy, birth, and infancy (임신 출산 영아에 대한 기쁨)
①	Feeling a baby move and kick inside me (my wife) (아기에 대한 생각이 나(나의 배우자)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②	Giving my husband(wife) the satisfaction of father(mother) hood (나의 배우자에게 부모가 된다는 만족을 주고 싶다)
③	Giving (helping my wife) birth to a baby (나의 배우자에게 자녀를 낳게 해주고 싶다)
④	Breast (bottle) feeding a baby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싶다)

46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을 예측 연구

	⑤ Holding and cuddling a baby (아기를 껴안고 귀여워해 주고 싶다)
	⑥ Devoting myself and much of my time to raising children and being a mother(father) (부모로서 나 자신과 나의 많은 시간을 자녀 양육에 헌신하고 싶다)
Traditional parenthood (전통적인 부모)	
	⑦ Having a child who will carry on my family traditions (나의 가족 전통을 승계할 자녀를 갖고 싶다)
	⑧ Being the centre of a large, active family (크고 활발한 가족의 중심이고 싶다)
	⑨ Strengthening our marriage through a child (자녀를 통해 나의 결혼을 공고히 하고 싶다)
	⑩ Fulfilling my religious feeling about family life (가족생활에 대한 나의 종교적인 감정을 이행하고 싶다)
	⑪ Providing my parents with a grandchild (나의 부모에게 손자를 안겨드리고 싶다)
	⑫ Fulfilling my potential by having children (자녀를 낳음으로써 나의 잠재력을 다하고 싶다)
Satisfaction of child rearing (자녀 양육의 기쁨)	
	⑬ Having my child be a success in life (자녀를 갖는 것은 인생에서의 성공이다)
	⑭ Playing with my child (자녀와 놀고 싶다)
	⑮ Having my child contribute to society (자녀를 낳아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⑯ Guiding and teaching my child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싶다)
	⑰ Sharing childraising with my husband(wife) (자녀 양육을 배우자와 공유하고 싶다)
	⑱ Experiencing the special love and closeness that a child provides (자녀가 주는 특별한 사랑과 친밀감을 경험하고 싶다)
Feeling needed and connected (필요와 연결됨에 대한 감정)	
	⑲ Feeling needed and useful through my baby (자녀를 통해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사람인 것을 느끼고 싶다)
	⑳ Having my child provide me with companionship and support later in life (자녀는 나의 노후에 나의 곁에 함께 있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㉑ Having a helpless baby to love and protect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기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다)
	㉒ Feeling more complete as a woman(man) through my baby (아기를 통해서 더 완벽한 여성(남성)을 느끼고 싶다)
	㉓ Living a fuller, more enriched life through my child (자녀를 통해서 더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
Instrumental value of child (자녀의 도구적 가치)	
	㉔ Knowing that I am fertile (내가 생식력 있다는 것을 알고 싶다)
	㉕ Having my family and friends admire me with my baby (자녀를 가짐으로써 가족과 친구들이 나를 높이 평가하게 하고 싶다)
	㉖ Having a son (아들을 갖고 싶다)

	㉓ Having a daughter (딸을 갖고 싶다)
	㉔ Giving our first child a brother or sister (첫째 아에게 형제 혹은 자매를 주고 싶다)
부정적인 자녀 출산 동기	
Discomforts of pregnancy and childbirth (임신과 자녀 출산의 불편함)	
	① Experiencing (seeing my wife experience) the discomforts of pregnancy (임신의 불편함을 경험하게 한다/내 배우자가 임신으로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을 본다)
	② Experiencing (seeing my wife experience) the pain of childbirth (자녀 출산의 불편함을 경험하게 한다/내 배우자가 자녀 출산으로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을 본다)
Fear and worries of parenthood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불안과 걱정)	
	③ Having an unhappy and poorly adjusted child (불행하고 적절치 못하게 적응된 자녀를 갖는다)
	④ Worrying about the health and safety of my child (자녀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근심한다)
	⑤ Having a baby who is born deformed (불구가 된 채 태어난 자녀를 갖는다)
	⑥ Worrying whether I am raising my child the right way (내가 자녀를 바르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 걱정한다)
	⑦ Having a child who embarrasses or disgraces the rest of the family (가족들을 당혹하게 하고 치욕스럽게 하는 자녀를 갖는다)
	⑧ Feeling guilty or inadequate as a parent (부모로서 죄의식과 적절치 못함을 느낀다)
Negatives of child care (자녀 양육의 부정적인 면)	
	⑨ Being kept from my (having my wife being kept from her) career or job by a baby (자녀 때문에 (나 혹은 배우자가) 직업 혹은 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⑩ Being responsible for a needy and demanding baby (자녀가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일에 책임을 진다)
	⑪ Spending time and energy involved in childcare (자녀 양육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
	⑫ Having to put up with the mess and noise that children make (자녀가 어질러 놓은 것과 소음을 정리한다)
	⑬ Burdening our family finances with a child (자녀로 인하여 가계 재정에 부담이 된다)
	⑭ Taking care of a baby who is disagreeable and irritating (말 듣지 않고 귀찮게 구는 자녀를 돌본다)
	⑮ Taking care of a sick child (아픈 자녀를 돌보는 것)
	⑯ Having a baby who takes away my freedom to do other things (자녀를 낳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을 하는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Parental stress (부모로서의 스트레스)	
	⑰ Straining our marriage with a baby (자녀로 인해 결혼 생활이 혹사당한다)

⑱	Having a baby who strains my (wife's) health (자녀를 갖는 것은 나 (배우자)의 건강을 상하게 한다)
⑲	Having a child who is a burden to my husband (wife) (자녀를 갖는 것은 나의 배우자에게 부담을 준다)
⑳	Having a child who makes it necessary for me (my wife) to have a job (자녀를 갖는 것은 내가 (배우자)가 직업을 갖는 것을 필요로 하게 한다)
㉑	Having a baby who takes away from how much I can give my other child (자녀를 갖는 것은 다른 자녀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빼앗은 것이다)

자료: Miller(1995)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음.

CBQ에서 자녀 출산 의향과 의도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설문에 앞서 응답자들에게 자녀 출산 의향(desire)은 “본인이 하고자 원하는 것”이며 출산 의도(intention)는 “본인이 실제로 하고자 계획”이라는 것을 주지시켰다. 자녀 출산 의향과 계획은, 출산 자체에 대한 의향과 계획, 낳고자 하는 자녀 수에 대한 의향과 계획, 자녀를 낳고자 하는 시기에 대한 의향과 계획의 세 종류로 질문하였다. 이는 TDIB 모형 자체가 출산 의향을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 출산하고자 하는 자녀 수에 대한 의향, 출산하고자 하는 시기에 대한 의향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출산 계획도 자녀 출산에 대한 계획, 출산하고자 하는 자녀 수에 대한 계획, 출산하고자 하는 시기에 대한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녀 출산 의향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녀 출산을 원하는가”를 10점 척도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본인이 자녀를 낳고자 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는가”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한 후 두 응답을 결합하여 자녀 출산 의향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자녀 출산 계획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하게 질문하였다.

낳고자 원하는 자녀 수에 대해서 “몇 명의 자녀를 원하는가?”를 질문하였다. 낳기를 원하는 자녀 수가 확실하지 않으면 최솟값과 최댓값 사이의 중간값을 응답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2명과 3명 중에서 확실하지 않을 경우 2.5 명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TDIB 모형에서는 낳기를 계획하는 자녀 수도 포함되어 있지만 CBQ에서는 낳기를 계획하는 자녀 수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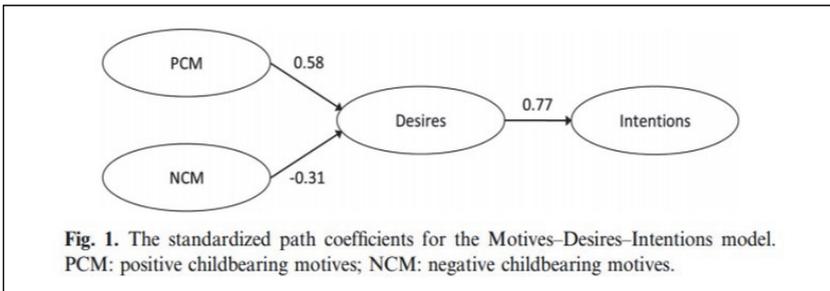
질문을 포함하지 못했다.

낳기를 원하는 시기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얼마나 빨리 자녀 낳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①12개월 이내 혹은 가능하면 빨리”, “② 12~17개월 이내”, “③18~23개월 이내”, “④2년~2.9년”, “⑤3~3.9년”, “⑥4~4.9년”, “⑦5년 이후”에 응답하게 하였다. 자녀 출산을 계획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하게 질문하였다.

첫 번째 인터뷰를 하고 난 후 3년 6개월 동안 세 차례의 추적 조사가 이루어졌다. 각각의 추적 조사에서는 응답자가 임신 촉진 행위 혹은 임신 회피 행동을 하였는가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맨 마지막 조사에서는 첫 번째 조사 이후 응답자가 임신한 적이 있는가를 질문하여 최종 출산 결과를 조사하였다.

Mynarska와 Rytel(2018)은 TDIB 이론이 최근 폴란드에서 늘어나고 있는 무자녀 현상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분석틀이라고 보았다. Miller의 CBQ와 Mynarska(2009)가 수행한 질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CBQ 설문 문항을 폴란드 형으로 개발하여 30~39세 무자녀 31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고, 이러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TDIB 이론을 검증하였다.

[그림 2-5] Mynarska와 Rytel(2018)이 TDIB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SEM



자료: Mynarska & Rytel(2018).

자녀 출산 의향은 다음의 세 가지 질문으로 조사하였다. “당신은 얼마나 많이 자녀를 낳고 싶으십니까?”, “당신에게 자녀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신이 자녀를 가진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자녀 출산 의도는 다음과 같은 두 질문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자녀에 대한 당신의 태도, 당신의 상황 및 미래 계획을 고려해 볼 때 향후 3년 이내에 자녀를 가질 의도(계획)가 있으십니까?”, “당신 생각에 향후 3년 이내에 어느 정도 자녀를 가질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 동기와 부정적 동기에 대한 질문은 Miller의 CBQ 모듈을 기본으로 하면서 폴란드의 문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폴란드 형으로 개발한 질문 문항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무자녀인 사람들에게 TDIB 이론은 적절하게 검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자녀 출산 동기가 자녀 출산 의향에 내재하여 있으며, 이러한 자녀 출산 의향이 자녀 출산 의도를 예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적인 동기가 부정적인 동기보다 자녀 출산 의향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Miller가 개발한 CBQ 모듈을 폴란드에 적용하여 개발한 측정 도구가 심리 측정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인 무자녀 현상을 분석하는 데 CBQ가 장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자녀 출산과 관련하여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문화적인 상황에서 무자녀라는 특수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출산 결정을 검증하는 데 TDIB 이론과 CBQ 모듈이 모두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향후 TDIB 이론을 토대로 한 연구가 무자녀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았다.

4. 국내 연구 결과

우리나라에서 출산 의향과 계획에 대한 실증 분석은 많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에 미치는 인구학적인 특성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데 주목하고 TPB와 TDIB처럼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에 대한 이론을 검증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출산 관련 조사가 TPB와 TDIB와 같은 이론적인 토대 위에 설계되어 있지 않아 이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조사 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가 갖는 함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김정석(2007)은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 응한 35세 이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무자녀 여성, 한 자녀 여성, 두 자녀 이상으로 구분하여 추가출산계획을 이항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자녀에 관한 출산 계획은 보편적인 현상이며 둘째 자녀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가구 경제의 안정성과, 양육보조자가 있는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둘째 자녀 출산 계획이 자신이 처한 경제적 여건과 양육 여건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첫째 아이 출산 계획보다 선택적 요소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아이 계획은 남아의 존재 여부, 이상 자녀의 성별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아(선호)의 영향력이 여전히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출산아 수에 따라 출산 계획의 기제가 차별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출산 계획이 출산아의 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기제는 출산 행위에 대한 깊이를 더할 것으로 보았다. 이 같은 기제에 접근하려면 더욱더 심층적인 연구 특히 질적 연구(특히 FGI)가 병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추가출산 의사(종속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의 자녀 이외에 또 다른 자녀를 낳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모르겠다)”로 응답한 사람을 추가출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가진 의미를 심층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박수미(2008)는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의 20~34세 여성 중에서 첫 자녀를 출산하고 둘째 자녀는 아직 출산하지 않은 기혼여성 51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맥도널드(McDonald, 2000)가 주장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은 개인 대상 제도의 높은 성 평등성과 가족 대상 제도의 불평등성 간의 갈등 또는 불일치의 결과’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가족 내 성 형평성과 둘째 출산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정책적·이론적 함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둘째 출산 계획에 대해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을 이용하였다.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자녀 태울 조절’과 ‘원하는 자녀 구성’ 등 가족 주기상의 가족계획이었다. 총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첫째 자녀가 여아일수록 둘째 출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발견되었다. 둘째 자녀의 출산을 계획할 때 여성들에게 있어 가족 내 부부의 ‘성 형평성 요인’은 여성이 노동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취업 중인 기혼여성의 경우 남편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둘째 출산 계획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업주부에게는 남편의 가사참여와 같은 부부간 성 형평성 요인이 둘째의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업주부에게서도 재취업을 피하기 위해 둘째 자녀의 출산 시기를 앞당기고 자녀 양육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 못지않게 가족 내에서도 양성의 평등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정혜은, 진미정(2008)은 취업 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 자녀 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경제학적 관점과 문화가치 관적 접근, 신가계경제학 이론에 근거하여 가구소득, 교육 수준, 가사노동 조력, 출산 관련 정책, 자녀양육비, 자녀 가치관 관련 변수를 설명 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의 경우, 남편의 더 많은 가사노동 시간, 친정어머니의 생존 여부, 사회적 지원에 대한 더 높은 욕구, 높은 정서적 자녀 가치관이 출산 의도와 더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 여성들은 양육비가 낮을수록, 높은 정서적 자녀 가치관을 지닐수록, 그리고 첫째 자녀가 여아이면 더 높은 출산 의도를 보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취업 여성과 비취업 여성 간의 욕구가 다르므로, 둘째 아이 출산에는 각각의 욕구에 맞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정성호(2012)는 저출산 관련 주요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경험 여부가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 참여한 20~35세 기혼여성으로 하였다. 무자녀 여성, 한 자녀 여성, 두 자녀 여성으로 구분하여 자녀 수에 중점을 두고 추가자녀 희망 여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응답자가 저출산 정책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통제변수로는 사회경제적 특징을 투입한 다음, 출산 계획 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자녀 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경제적 지원 정책과 성 평등적인 문화조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출산

계획의 가능성이 더 큰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현존 자녀 수별로 분석할 경우 무자녀 기혼여성들은 저출산 관련 대책에 따른 자녀출산계획의 차이가 없었으며, 한 자녀 기혼여성들과 두 자녀 기혼여성도 저출산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추가 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정책의 이용도에 대한 분석에서도 인지도 분석에서와 같은 양상이 발견되었다. 이 연구는 현존 자녀 수에 관심을 두고 추가 자녀 출산 계획 의도를 분석하여, 자녀 수에 따라 출산 계획과 저출산 관련 정책들이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정책적 대안의 세분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해봉, 장인수(2017)는 한국여성가족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 계획 및 출산 행위에 따른 개인 특성과 부부 특성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출산 계획에 따른 개인 특성과 부부 특성 효과는 출산 계획의 형태를 고려하여 이항 로짓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출산 행위에서 관측되는 개인 특성과 부부 특성 효과는 이산형 생존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출산 계획과 행위와 유의하게 연관된 변수들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특성과는 별도로 부부 특성 또한 출산 계획 혹은 출산 행위를 설명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개인 특성 중에서 출산 계획 및 출산 행위와 연관되는 변수들은 대체로 연령, 출산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 변수들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특성의 경우 배우자 간 연령이나 교육 수준 격차, 아내 대비 남편의 상대적 가사노동 시간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출산 행위 분석에서 출산 계획의 효과를 검토한 결과 둘째 및 셋째 출산 행위 모두 출산 계획은 출산 행위와 유의하게 연관됨을 보여 주었다.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면 본 연구는 개인 특성과 부부 특성을 나누어 다양한 변수들을 검토하였으며 출산 계획이 출산 행위와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제2절 분석 개요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출산 의향과 출산 의도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인 TPB와 TDIB를 검증하기 위하여 온라인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조사에 사용한 질문은 GGS에서 조사한 출산 의도와 관련된 문항과 CBQ의 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와 부정적인 동기 문항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 거주 25~39세 기혼여성 3,000명이다. 출산 의향과 출산 의도에 대한 의미 있는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출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자에 한정하여 조사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미혼인 상태에서 거의 자녀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출산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미혼자의 경우 향후 결혼 여부가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을 좌우할 수 있으며, 출산의 결정도 부부 중 일방의 의사 결정이 아니라 대개 부부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미혼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은 결혼 후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에 있어 미혼자는 기혼자와는 차별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미혼자를 기혼자와 함께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 측정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는 미혼 여성을 포함하지 않고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혼여성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출산을 고려할 수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이혼, 사별, 별거한 여성을 제외하고 현재 배우자가 있는 여성만을 골랐다⁶⁾. 2018년 우리나라 어머니의 평균 자녀 출산 연령은 32.8세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

6) 미혼 여성의 출산 의향 그리고 이혼과 별거를 경험한 여성들의 출산 계획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에 이러한 분석은 미혼자 연구 혹은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출산 의향과 계획은 평균 출산 연령을 전후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간주하여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25~39세로 하였다.

온라인 조사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의 하나는 조사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패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을 대표하는 표본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5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5세 연령별(25~29세, 30~34세, 35~39세), 학력별(고졸 이하, 대졸 이상), 5개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 강원/제주권), 출산 자녀 수(무자녀, 1자녀, 2자녀 이상) 분포를 산출하여 이러한 분포에 근접하도록 표본을 선별하였다.

조사는 2020년 6월 18일부터 28일 기간 동안 시행하였다. 애초 3,0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나 연령별·학력별·권역별·출산 자녀 수별 할당된 분포에 맞게 표본을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애초에 할당된 분포에 더 가깝게 접근하기 위하여 486명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조사가 완료된 표본 수는 3,486명이다.

2. 조사 내용

가. 출산 관련 내용

출산과 관련해서는 출산 자녀 수, 이상 자녀 수, 출산 의향 및 희망 자녀 수, 출산 계획 및 계획 자녀 수, 임신하지 않기 위한 행동 혹은 임신하기 위한 행동,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에 대한 배우자의 동의 정도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자녀 수는 여성의 총 자녀 수와 실제로 출산한 자녀 수를 조사하였다⁷⁾. 이상 자녀 수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 수와 개인적으로 볼 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 수를 조

7) 총 자녀 수에는 여성이 출산한 자녀 외 입양 자녀, 재혼한 남편의 전혼 자녀 등이 포함된다.

사하였다. 희망 자녀 수는 낳기를 원하는 자녀 수, 계획 자녀 수는 낳기를 계획하는 자녀 수로 조사하였다.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에 대한 질문 문항은 Miller(1995)의 CBQ 모듈을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CBQ의 설문 특성인 출산 의향이나 출산 계획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한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척도로 의향이나 계획의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Coombs, Coombs, & McClelland(1975)의 전형적인 출산 선호 연구에서도 “I-sclae”과 “J-scale”을 적용하여 매우 다양한 척도로 출산 선호도를 측정할 바 있다. 지금까지 출산 의향과 계획에 대한 국내 조사에서는 “예”, “아니오”, “생각 중이다(혹은 모르겠음)”의 세 가지 척도로만 측정하여 출산 의향과 계획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또한, 적지 않은 응답자들이 “생각 중이다(혹은 모르겠음)” 라는 불분명한 답변을 하여 정확한 출산 계획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조사에서는 출산 의향과 계획의 정도를 10점 척도로 응답하게 한 후, 이러한 응답에 대한 확신성을 다시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두 문항을 함께 분석하면 더욱 넓은 변이값을 가지고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낳기를 원하는 자녀 수와 낳기를 계획하는 자녀 수를 조사하여 희망 자녀 수와 계획 자녀 수를 파악하고 이와 함께 자녀 낳기를 원하는 시기와 자녀 낳기를 계획하는 시기도 조사하였다.

출산 의도와 출산 계획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발현되어 나타나는 것은 임신하기 위한 행동 혹은 임신하지 않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Miller(1995)의 CBQ는 1차 조사 이후에 수행한 추적 조사에서 임신하기 위한 행동과 임신하지 않기 위한 행동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연차별 연구가 아니고 일 년 연구로 종료되기 때문에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에 대한 질문과 함께 임신하기 위한 행동 혹은 임신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포함하였다. 임신하기 위한 행동과 임신하지 않기 위한 행동의 강도는 각각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배우자의 동의는 자녀 출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응답자의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에 대해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나.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출산 동기, 인식된 통제, 주관적 규범, 미래의 상황을 포함하였다.

출산 동기에 대한 질문은 Miller(1995)의 CBQ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질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출산에 대한 긍정적 동기는 자녀가 주는 기쁨(6문항), 전통적인 부모의 모습(6문항), 자녀 양육의 즐거움(6문항), 자녀와의 관계(5문항), 자녀가 주는 혜택(5문항) 등 총 28개 문항으로,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동기는 임신과 출산이 주는 불편함(2문항), 부모가 갖는 불안과 걱정(6문항), 자녀 양육에 따른 불이익(8문항), 부모가 갖는 스트레스(5문항) 등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출산에 미치는 인식된 통제에 대한 질문은 GGS 설문 문항을 기초로 하여 사회경제적인 상황과 정부 정책이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성하였다. 사회경제적인 상황에는 재정적 상황, 주거 환경, 나와 배우자의 일자리, 나와 배우자의 건강을 포함하였으며, 정부 정책으로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육아 휴직이나 자녀 돌봄 휴가, 국가의 현금 지원을 포함하였다. 각각의 상황이 자녀를 낳을 것인지 낳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의향과 계획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를 질문한 후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출산에 대한 주관적인 규범에 대한 질문도 GGS 설문 문항을 기초로 구성하여, 본인이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친구, 부모님, 친척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미래의 상황에 대한 기대감 또한 GGS 설문 문항을 기초로, 3년 이후의 경제 상황이 현재와 비교하여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표 2-3〉 주요 조사 내용

영역	항목	변수
출산	자녀 수	- 총 자녀 수 - 출산 자녀 수
	이상 자녀 수	- 일반적인 관점 - 개인적인 관점
	출산 의향	- 출산 의향 강도 - 출산 의향 확신성 - 자녀 수 의향 - 출산 시기 의향
	출산 계획	- 출산 계획 강도 - 출산 계획 확신성 - 자녀 수 계획 - 출산 시기 계획
	임신하지 않기 위한 행동/ 임신하기 위한 행동	- 행동 노력의 강도 - 임신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 임신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배우자의 동의	- 자녀 출산 의향에 대한 동의 - 자녀 출산 계획에 대한 동의
출산 동기	긍정적 동기	- 자녀가 주는 기쁨 - 전통적인 부모 모습 - 자녀 양육의 즐거움 - 자녀와의 관계 - 자녀가 주는 혜택
	부정적 동기	- 임신과 출산이 주는 불편함 - 부모가 갖는 불안과 걱정 - 자녀 양육에 따른 불이익 - 부모가 갖는 스트레스
인식된 통제	사회경제적인 상황	- 재정적 상황 - 주거 환경 - 나의 일자리 - 나의 건강 - 배우자의 일자리 - 배우자의 건강
	정부 정책	-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영역	항목	변수
		- 육아 휴직이나 자녀 돌봄 휴가 - 국가의 현금 지원
주관적 규범	친구/부모 /친척	- 내가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생각
미래의 상황	경제적인 상황	- 3년 이후 경제적 상황
본인 및 가족 배경	본인	- 연령, 혼인 기간, 거주 지역, 학력, 종교 - 경제활동/직업/고용 형태 - 월평균 가구소득, 주택 형태/보유 형태 - 3년 후 추적 조사 의향
	배우자	- 연령, 학력, 동거 여부 - 경제활동/직업/고용 형태
	자녀	- 연령, 성별, 재학 여부, 동거 여부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을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기술 분석 결과

가.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25~29세, 30~34세, 35~39세가 각각 29.2%, 35.1%, 35.8%를 차지하고 있다. 혼인 지속 연수는 0~1년 15.3%, 2~3년 24.6%, 4~5년 19.5%, 6~9년 25.6%, 10년 이상이 15.1%이다. 출생 자녀 수는 자녀 없는 여성이 27.7%, 한 자녀 36.1%, 두 자녀 31.2%, 세 자녀 이상이 5.1%이다.

사회경제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 21.0%, 대졸 이상 79.0%로 거의 80% 이상이 2년제 대학을 포함한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지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은 58%, 하지 않는 여성은 42%이다. 약 80%에 가까운 여성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여율은 높지 않다. 이는 자녀 출산 및 양육기에 있는 기혼여성이 여전히 일과 가족생활을 함께 영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중 60%가 사무직이며, 19.1%가 전문직이다. 프리랜서, 단순노무직, 시간제, 무급 가족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8%, 판매/영업/서비스 종사자 비중은 약 7.1%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76.3%로 가장 높고, 계약직 9.2%, 일용직 11.5%, 임시직이 3%이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0~299만 원 21.5%, 300~399만 원 21.1%, 400~499만 원 20.0%, 500~699만 원 25.4%, 700만 원 이상 12.0%이다. 주택 형태는 대부분 아파트(72.9%) 혹은 연립빌라(18.3%)에 거주하고 있었다. 주택 보유 형태는 자가 51.7%, 전세 35.0%, 월세 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볼 때 대도시 45.3%, 중도도시 49.5%, 읍면동 5.2%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 65.5%, 개신교 16.4%, 불교 8.5%, 천주교 8.0%로 나타났다.

〈표 2-4〉 조사대상자의 특성

(단위: 명, %)

조사대상자의 특성		대상자 수	비율
연령	25-29	1,016	29.15
	30-34	1,223	35.08
	35-39	1,247	35.77
	계	3,486	100.00
혼인 지속 연수	0~1년	533	15.29
	2~3년	856	24.56
	4~5년	679	19.48
	6~9년	893	25.62
	10년 이상	525	15.06
	계	3,486	100.00
출생 자녀 수	자녀 없음	964	27.65
	한 자녀	1,257	36.06
	두 자녀	1,087	31.18
	세 자녀 이상	178	5.11
	계	3,486	100.00
학력	고졸 이하	733	21.03
	대졸 이상	2,753	78.97
	계	3,486	100.00
경제활동	하고 있음	2,022	58.00
	하지 않음	1,464	42.00
	계	3,486	100.00
직업	전문직	387	19.14
	사무직	1,214	60.04
	생산/기능직	25	1.24
	판매/영업/서비스직	144	7.12
	프리랜서/단순노무직	239	11.82

62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조사대상자의 특성		대상자 수	비율
	/시간제/무급 가족 종사자		
	농/임/어업	3	0.15
	자영업	8	0.4
	관리직	1	0.05
	종교직	1	0.05
	계	2,022	100.00
고용 형태	정규직	1,543	76.31
	계약직	185	9.15
	임시직	61	3.02
	일용직	233	11.52
	계	2,022	100.00
월평균 가구소득	0~299만 원	748	21.46
	300~399만 원	736	21.11
	400~499만 원	696	19.97
	500~699만 원	887	25.44
	700만 원 이상	419	12.02
	계	3,486	100.00
주택 형태	단독주택	161	4.62
	아파트	2,542	72.92
	주상복합	61	1.75
	오피스텔	72	2.07
	연립빌라	639	18.33
	기타	11	0.32
계	3,486	100.00	
주택 보유 형태	자가(본인이나 가족의 소유)	1,801	51.66
	전세	1,221	35.03
	월세	314	9.01
	반전세	79	2.27
	기타	71	2.04
	계	3,486	100.00
지역	대도시	1,578	45.27
	중소도시	1,727	49.54
	읍면동	181	5.19
	계	3,486	100.00
종교	없음	2,284	65.52
	불교	296	8.49
	개신교	570	16.35
	천주교	277	7.95
	기타	59	1.71
계	3,486	100.00	

주: 계약직: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비정규직 근로, 임시직: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 일용직: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아르바이트 근로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우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의 연령은 35~39세 40.5%, 30~34세 30%, 40세 이상 20%로 조사대상 여성과 비교하여 높은 연령 집단에 해당하는 비중이 높다. 부부가 같은 거주지에서 함께 사는 경우가 96%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배우자의 학력은 대졸 이상 79.4%와 고졸 이하 20.6%로 여성의 학력 비중과 유사하다. 하지만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비중은 98.5%로 여성 조사대상자와 비교하여 월등하게 높다.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대부분 남성이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배우자의 직업은 사무직 34.6%, 전문직 22.6%, 생산/기능직 19.3%, 판매/영업/서비스직 13.4%, 프리랜서/단순노무직/특수고용직은 7.1%이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88.2%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며 계약직은 약 4.6%에 불과하다.

〈표 2-5〉 조사대상자 배우자의 특성

		(단위: 명, %)	
배우자의 특성		대상자 수	비율
연령	29세 이하	339	9.72
	30~34세	1,044	29.95
	35~39세	1,413	40.53
	40세 이상	690	19.79
	계	3,486	100.00
배우자 동거 여부	같이 살고 있음	3,346	95.98
	같이 살지 않음 (주말부부 포함)	140	4.02
	계	3,486	100.00
학력	고졸 이하	717	20.57
	대졸 이상	2,769	79.43
	계	3,486	100.00
경제활동	하고 있음	3,434	98.51
	하지 않음	52	1.49
	계	3,486	100.00
직업	전문직	775	22.57
	사무직	1,187	34.57

64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배우자의 특성		대상자 수	비율
	생산/기능직	661	19.25
	판매/영업/서비스직	459	13.37
	프리랜서/단순노무직 /특수고용직	245	7.13
	농/임/어업	22	0.64
	자영업	37	1.08
	관리직	2	0.06
	군인	30	0.87
	기술직	7	0.20
	종교직	9	0.26
	계	3,434	100.00
	고용 형태	정규직	3,029
계약직		157	4.57
임시직		35	1.02
일용직		213	6.2
계		3,434	100.00

주: 계약직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비정규직 근로, 임시직은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 일용직은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아르바이트 근로임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대상자 자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자녀의 평균 연령은 첫째 자녀 5.0세, 둘째 자녀 4.4세, 셋째 자녀 3.0세로 나타났다. 성별은 첫째 아이 및 둘째 아이에서 남아와 여아의 비중이 거의 각각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아이의 경우 남아가 53.9%, 여아가 46.1%로 남아 비중이 약간 더 높지만 큰 차이는 없다. 자녀의 대부분은 미취학이거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자녀는 조사대상 여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표 2-6〉 조사대상자 자녀의 특성

(단위: 명, %)

출산 순위	자녀의 특성		대상자 수	비율
첫째 자녀	평균 연령(세)		5.04	
	성별	남자	1,304	51.50
		여자	1,228	48.50
		계	2,532	100.00
	학교	미취학	1,717	67.81
		초등학교	716	28.28
		중학교	77	3.04
		고등학교	20	0.79
		성인	2	0.08
		계	2,532	100.00
	동거 여부	동거	2,510	99.13
		비동거	22	0.87
계		2,532	100.00	
둘째 자녀	평균 연령(세)		4.43	
	성별	남자	634	49.84
		여자	638	50.16
		계	1,272	100.00
	학교	미취학	980	77.04
		초등학교	274	21.54
		중학교	15	1.18
		고등학교	3	0.24
		계	1,272	100.00
	동거 여부	동거	1,270	99.84
		비동거	2	0.16
		계	1,272	100.00
셋째 자녀	평균 연령(세)		2.95	
	성별	남자	97	53.89
		여자	83	46.11
		계	180	100.00
	학교	미취학	145	80.56
		초등학교	33	18.33
		중학교	2	1.11
		계	180	100.00
	동거 여부	동거	180	100.00
		비동거	0	0.00
		계	180	100.00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 출산 자녀 수

일반적으로 볼 때 한 가정에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 수의 평균은 2.03명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적으로 볼 때 본인이 낳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 수 평균은 이보다 낮은 1.82명으로 나타났다. 낳기를 원하는 희망 자녀 수의 평균은 1.98명이며 낳기를 계획하는 계획 자녀 수의 평균은 이보다 낮은 1.82명으로 나타났다⁸⁾.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전국 대표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출산력 조사와 인구센서스의 결과와 매우 근접한 것으로서 온라인을 통해 수집한 본 조사 결과가 전체 25~39세 여성들의 출산 의향과 계획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본 조사가 출산력 조사 및 인구센서스와 차별적으로 희망 자녀 수, 일반적인 관점의 이상 자녀 수, 개인적인 관점의 이상 자녀 수를 추가로 조사함으로써 출산력 조사와 인구센서스를 통해 파악할 수 없었던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이상 자녀 수와 희망 자녀 수가 비슷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상적인 자녀 수와 계획 자녀 수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는 희망 자녀 수에 반영되어 나타나지만, 개인적으로 이상적인 자녀 수는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에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암시한다. 현재까지 출산한 평균 자녀 수는 1.14명으로 이상 자녀 수, 희망 자녀 수, 계획 자녀 수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출산 자녀 수, 일반적인 이상 자녀 수, 개인적인 이상 자녀 수, 희망 자녀 수, 계획 자녀 수를 인구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특성별로 볼 때 출산 자녀 수는 연령이 높은 집단과 혼인 연수가 오래

8) 설문조사는 자녀가 있는 여성에 대해서 현재 자녀 수를 제외하고 더 낳기를 원하는 자녀 수와 더 낳기를 계획하는 자녀 수를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의 “희망 자녀 수”와 “계획 자녀 수”는 출산한 자녀 수를 포함한 자녀 수이다.

된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는 연령과 혼인 연수와 무관하게 약 2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희망 자녀 수, 계획 자녀 수는 연령이 높아지거나 혼인 연수가 오래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최근 세대로 올수록 이상적으로 생각하거나 낳기를 희망하는 자녀 수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경제학적 특성별로 보면 학력 수준이 낮은 집단(고졸 이하), 읍면동 거주,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여성의 평균 출산아 수가 더 높다. 소득별로 보면 소득 수준이 두 번째로 낮은 월 300~399만 원 집단의 평균 자녀 수가 1.24명으로 전체 소득 집단 중에서 평균 자녀 수가 가장 많다. 평균 자녀 수가 가장 적은 집단은 두 번째로 소득 수준이 높은 월 500~699만 원 집단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평균 자녀 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이 하는 여성보다 평균 자녀 수가 더 많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는 인구 특성 혹은 사회경제적 특성과 거의 무관하게 약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두 자녀에 대한 관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상적인 자녀 수는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혼인 연수가 길수록, 출산 자녀가 많을수록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이상 자녀 수는 학력별 혹은 소득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읍면동 거주가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 거주보다 높았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이 하는 여성보다 더 높았다.

희망 자녀 수와 계획 자녀 수의 집단별 격차는 연령이 높을수록, 혼인

연수가 길수록, 출산 자녀 수가 많을수록 희망 자녀 수 혹은 계획 자녀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저학력, 읍면동 거주, 저소득, 비경제 활동 여성이 희망 자녀 수 혹은 계획 자녀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이상 자녀 수, 희망 자녀 수, 계획 자녀 수와 출산 자녀 수 간의 차이를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혼인 연수가 길수록, 출산 자녀 수가 많을수록 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지고 혼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자녀 출산이 이루어져서 이상적이거나 희망하는 혹은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에 근접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임기 종료에 가까워진 연령인 35~39세에서 개인적인 이상적인 자녀 수와 출산 자녀 수 간의 격차는 0.35명, 희망 자녀 수와 출산 자녀 수 간의 격차는 0.56명, 계획 자녀 수와 출산 자녀 수 간의 격차는 0.4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혼인 연수가 10년 이상 된 여성의 경우 이상적인 자녀 수와 출산 자녀 수 간의 격차, 희망 자녀 수와 출산 자녀 수 간의 격차, 계획 자녀 수와 출산 자녀 수 간의 격차는 각각 0.09명, 0.44명, 0.3명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학적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학력이 높거나, 대도시 거주, 경제 활동을 하는 집단에서 출산 자녀 수와 이상 자녀 수, 희망 자녀 수, 계획 자녀 수가 상대적으로 큰 격차를 보였으며, 소득 집단별로는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한편, 연령이 높고, 혼인 연수가 오래되었으며, 출산 자녀 수가 많고, 학력이 낮고, 읍면동에 거주하며, 소득 수준이 낮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가 개인적으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 수보다 많은 경향도 발견되었다.

〈표 2-7〉 출산 자녀 수·이상 자녀 수·희망 자녀 수·계획 자녀 수

(단위: 명)

		출산 자녀 수 (A)	이상 자녀 수 _일반	이상 자녀 수 _개인(B)	희망 자녀 수 (C)	계획 자녀 수 (D)	B-A	C-A	D-A
전체		1.14	2.03	1.82	1.98	1.82	0.68	0.84	0.68
연령 별	25~29세	0.64	1.97	1.73	1.81	1.67	1.09	1.17	1.03
	30~34세	1.13	2.03	1.81	1.96	1.81	0.68	0.83	0.68
	35~39세	1.57	2.09	1.92	2.13	1.97	0.35	0.56	0.4
혼인 연수	0~1년	0.25	1.96	1.70	1.68	1.53	1.45	1.43	1.28
	2~3년	0.65	1.99	1.71	1.73	1.61	1.06	1.08	0.96
	4~5년	1.15	2.01	1.78	1.92	1.73	0.63	0.77	0.58
	6~9년	1.66	2.06	1.90	2.18	2.01	0.24	0.52	0.35
	10년 이상	1.97	2.14	2.06	2.41	2.27	0.09	0.44	0.3
출산 자녀 수	자녀 없음	0.00	1.94	1.52	1.49	1.31	1.52	1.49	1.31
	한 자녀	1.00	2.00	1.72	1.77	1.63	0.72	0.77	0.63
	두 자녀	2.00	2.12	2.09	2.42	2.26	0.09	0.42	0.26
	세 자녀 이상	3.12	2.22	2.57	3.43	3.34	-0.55	0.31	0.22
학력	고졸 이하	1.33	2.03	1.87	2.08	1.94	0.54	0.75	0.61
	대졸 이상	1.09	2.03	1.81	1.95	1.79	0.72	0.86	0.7
지역	대도시	1.08	2.01	1.8	1.92	1.77	0.72	0.84	0.69
	중소도시	1.18	2.05	1.83	2.01	1.85	0.65	0.83	0.67
	읍면동	1.33	2.06	1.96	2.17	1.98	0.63	0.84	0.65
소득	0~299만 원	1.17	2.03	1.9	2.08	1.92	0.73	0.91	0.75
	300~399만 원	1.24	2.04	1.86	2.03	1.9	0.62	0.79	0.66
	400~499만 원	1.17	2.02	1.81	1.97	1.83	0.64	0.8	0.66
	500~699만 원	1.03	2.02	1.75	1.86	1.7	0.72	0.83	0.67
	700만 원 이상	1.11	2.06	1.8	1.95	1.77	0.69	0.84	0.66
경제 활동	하고 있음	1.04	2.02	1.76	1.92	1.74	0.72	0.88	0.7
	하지 않음	1.29	2.05	1.91	2.06	1.93	0.62	0.77	0.64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 출산 의향 및 출산 계획

본 절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0년도에 실시한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출산 의향의 강도와 자녀 출산 계획의 강도를 분석한다. 자녀 출산 의향의 강도는 자녀 낳는 것을 원하고 있는 정도를 11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된 결과이며, 자녀 출산 계획의 강도는 자녀 낳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정도를 11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된 결과이다. 응답자는 본인의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의 강도를 0점부터 10점까지의 척도에 응답하였다. 자녀 낳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거나 전혀 계획하지 않는 경우 0점부터 보통의 경우 5점, 상당히 원하거나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10점에 응답하였다.

전체 집단의 출산 의향 강도는 4.57점이었고, 출산 계획의 강도는 3.90점으로 보통의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 계획의 강도가 출산 의향의 강도보다 낮았다.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출산 의향 강도와 출산 계획 강도가 사회경제적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 학력별, 출산 자녀 수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이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보다, 자녀가 없거나 적은 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출산 의향 강도와 출산 계획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별 혹은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서는 출산 의향 강도와 출산 계획 강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의향의 강도와 출산 계획의 강도 분포는 “전혀 원하지 않음(전혀 계획하지 않음)”에서 각각 25%, 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당히 원함” 혹은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함”에 응답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전혀 원하지 않음” 혹은 “전혀 계획하지 않음”에 응답한 비중이 증가하였다. 자녀 수별로 볼 때 무자녀 여성의 경우는 “상당히 원함” 혹은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함”의 비중이 높으나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혀 원하지 않음” 혹은 “전혀 계획하지 않음”에 응답한 비중이 증가하였다.

〈표 2-8〉 출산 의향 및 출산 계획의 강도

(단위: 점)

		출산 의향 강도(0~10점)		출산 계획 강도(0~10점)	
전체		4.57		3.90	
연령별	25~29세	5.71	F=136.82	5.24	F=172.33
	30~34세	4.84	Prob>F =	4.09	Prob>F =
	35~39세	3.36	0.000	2.63	0.000
출산 자녀 수	자녀 없음	6.26	F=248.72	5.89	F=331.77
	한 자녀	5.16	Prob>F =	4.44	Prob>F =
	두 자녀	2.78	0.000	1.93	0.000
	세 자녀 이상	2.06		1.33	
혼인연 수	0~1년	6.43		5.98	
	2~3년	5.83	F=149.24	5.31	F=196.76
	4~5년	4.61	Prob>F =	3.90	Prob>F =
	6~9년	3.30	0.000	2.50	0.000
	10년 이상	2.70		1.87	
학력	고졸 이하	4.21	F=9.04	3.42	F=17.57
	대졸 이상	4.66	Prob>F =	4.03	Prob>F =
지역	대도시	4.66	F=1.08	4.01	F=1.62
	중소도시	4.48	Prob>F =	3.82	Prob>F =
	읍면동	4.54	0.3384	3.66	0.1979
소득	0~299만 원	4.85		4.08	
	300~399만 원	4.47	F=2.40	3.85	F=1.35
	400~499만 원	4.38	Prob>F =	3.80	Prob>F =
	500~699만 원	4.45	0.0478	3.77	0.2505
	700만 원 이상	4.78		4.11	
경제 활동	하고 있음	4.59	F=0.20	3.90	F=0.00
	하지 않음	4.53	Prob>F =	3.90	Prob>F =
		0.6552		0.9868	

주: 출산 의향의 강도는 “전혀 원하지 않음(0),” “보통(5),” “상당히 원함(10),” 출산 계획의 강도는 “전혀 계획하지 않음(0),” “보통(5),”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함(10)”의 11 척도로 응답함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라. 출산 의향 · 출산 계획 · 임신 행동

전체적으로 볼 때 약 70%가 넘는 사람들이 본인의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표 2-10>). 출산 의향에 대해서 “전혀 확신하지 않는다” 혹은 “확신하지 않는다”는 비중은 5.25%, 출산 계획에 대해서 “전혀 확신하지 않는다” 혹은 “확신하지 않는다”는 비중은 이보다 낮은 3.45%로 나타났다. 출산을 상당히 원하거나 (출산 의향 강도 10) 혹은 전혀 원하지 않는 경우 (출산 의향 강도 0) “매우 확신한다”라는 비중이 각각 약 80%로 나타났으며, “전혀 계획하지 않는다 (출산 계획 강도 0)” 혹은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한다 (출산 계획 강도 10)”고 응답한 사람들이 “매우 확신한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각각 75.9%와 87.2%로 나타났다. 따라서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에 대해 극단적인 응답을 하는 사람일수록 본인의 응답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출산 의향 및 계획의 강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확신성에 있어서도 “보통”일 경우가 많았다.

〈표 2-9〉 출산 의향 강도별 출산 의향 확산성

(단위: 점, 명, %)

출산 의향 강도 (0~10점)	전혀 확산하지 않는다	확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확신한다	매우 확산한다	계
0	12 (1.38)	5 (0.57)	22 (2.53)	135 (15.52)	696 (80.00)	870 (100.00)
1	0 (0.00)	7 (4.14)	22 (13.02)	105 (62.13)	35 (20.71)	169 (100.00)
2	0 (0.00)	12 (6.42)	40 (21.39)	101 (54.01)	34 (18.18)	187 (100.00)
3	0 (0.00)	19 (9.36)	72 (35.47)	100 (49.26)	12 (5.91)	203 (100.00)
4	1 (0.78)	23 (17.97)	42 (32.81)	57 (44.53)	5 (3.91)	128 (100.00)
5	4 (0.85)	56 (11.91)	257 (54.68)	121 (25.74)	32 (6.81)	470 (100.00)
6	0 (0.00)	23 (9.58)	93 (38.75)	113 (47.08)	11 (4.58)	240 (100.00)
7	0 (0.00)	17 (5.03)	90 (26.63)	211 (62.43)	20 (5.92)	338 (100.00)
8	0 (0.00)	3 (1.05)	45 (15.79)	195 (68.42)	42 (14.74)	285 (100.00)
9	0 (0.00)	0 (0.00)	4 (2.74)	91 (62.33)	51 (34.93)	146 (100.00)
10	0 (0.00)	1 (0.22)	8 (1.78)	80 (17.78)	361 (80.22)	450 (100.00)
계	17 (0.49)	166 (4.76)	695 (19.94)	1,309 (37.55)	1,299 (37.26)	3,486 (100.00)

주: 출산 의향의 강도는 “전혀 원하지 않음(0),” “보통(5),” “상당히 원함(10)”으로 응답함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4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표 2-10〉 출산 계획 강도별 출산 계획 확신성

(단위: 점, 명, %)

출산 계획강도 (0~10점)	전혀 확신하지 않는다	확신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확신한다	매우 확신한다	계
0	15 (1.35)	9 (0.81)	29 (2.60)	216 (19.39)	845 (75.85)	1,114 (100.00)
1	0 (0.00)	6 (3.13)	27 (14.06)	127 (66.15)	32 (16.67)	192 (100.00)
2	1 (0.58)	9 (5.26)	42 (24.56)	99 (57.89)	20 (11.70)	171 (100.00)
3	2 (0.81)	19 (7.72)	83 (33.74)	124 (50.41)	18 (7.32)	246 (100.00)
4	0 (0.00)	16 (10.81)	79 (53.38)	48 (32.43)	5 (3.38)	148 (100.00)
5	0 (0.00)	29 (7.02)	243 (58.84)	114 (27.60)	27 (6.54)	413 (100.00)
6	0 (0.00)	10 (5.00)	96 (48.00)	89 (44.50)	5 (2.50)	200 (100.00)
7	0 (0.00)	3 (1.05)	64 (22.30)	197 (68.64)	23 (8.01)	287 (100.00)
8	0 (0.00)	1 (0.35)	21 (7.29)	208 (72.22)	58 (20.14)	288 (100.00)
9	0 (0.00)	0 (0.00)	3 (2.63)	72 (63.16)	39 (34.21)	114 (100.00)
10	0 (0.00)	0 (0.00)	6 (1.92)	34 (10.86)	273 (87.22)	313 (100.00)
계	18 (0.52)	102 (2.93)	693 (19.88)	1,328 (38.10)	1,345 (38.58)	3,486 (100.00)

주: 출산 계획의 강도는 “전혀 계획하지 않음(0),” “보통(5),”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함(10)”의 11 척도로 응답함.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신 행동의 평균 점수는 4.82로 나타났다(〈표 2-11〉).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결과, 임신 행동의 강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가 없거나 자녀 수가 적은 여성일수록,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일수록 더 높았다. 이는 나이가 적고 자녀가 없거나 적은 수의 자녀를 가지고 있으며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일수록 자녀를 출산하고자 더욱 높은 강도의 임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사회경제적 특성별로는 소득이 0~299만 원에 해당하는 집단이 그보다 높은 소득 집단보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보다 더 강한 임신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나 지역별로는 임신 행동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출산 의향 강도 및 출산 계획 강도가 낮을수록 임신하지 않으려는 행동이 강하고, 출산 의향 강도 및 출산 계획 강도가 높은 수록 임신하려는 행동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 선형 관계가 관찰되었으며, 후자가 전자보다 더 강한 선형 관계를 보였다(〈표 2-12〉). 따라서 출산 의향보다는 출산 계획이 임신 행동 점수와 선형 관계가 더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출산 의향보다는 출산 계획이 더욱 확실한 출산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더욱 일관성 있는 임신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76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표 2-11〉 임신 행동의 강도

(단위: 점)

구분		임신 행동 강도(1~11점)	
전체		4.82	
연령별	25~29세	5.18	F=24.50 Prob>F = 0.000
	30~34세	5.01	
	35~39세	4.34	
출산 자녀 수	자녀 없음	5.98	F=119.31 Prob>F = 0.000
	한 자녀	5.10	
	두 자녀	3.66	
	세 자녀 이상	3.71	
혼인 연수	0~1년	5.52	F=42.81 Prob>F = 0.000
	2~3년	5.46	
	4~5년	5.05	
	6~9년	4.26	
	10년 이상	3.73	
학력	고졸 이하	4.80	F=0.04 Prob>F = 0.8478
	대졸 이상	4.83	
지역	대도시	4.94	F=2.39 Prob>F = 0.0921
	중소도시	4.71	
	읍면동	4.80	
소득	0~299만 원	5.17	F=3.75 Prob>F = 0.0048
	300~399만 원	4.78	
	400~499만 원	4.58	
	500~699만 원	4.74	
	700만 원 이상	4.84	
경제 활동	하고 있음	4.73	F=4.41 Prob>F = 0.0358
	하지 않음	4.95	

주: 임신 행동 강도는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한 행동을 “매우 강하게(1)”, “보통(3)”, “매우 약하게(5)”,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음(6)”, 임신을 하기 위한 행동을 “매우 약하게(7)”, “보통(9)”, “매우 강하게(11)”의 11점 척도로 측정함.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2-12〉 출산 의향 강도별 및 출산 계획 강도별 임신 행동 강도

(단위: 점)

출산 의향 강도 (0~10점)	임신 행동 강도 (1~11점)	출산 계획 강도 (0~10점)	임신 행동 강도 (1~11점)
0	2.69	0	2.81
1	3.50	1	3.63
2	3.33	2	3.81
3	3.82	3	4.28
4	3.96	4	4.71
5	5.19	5	5.67
6	5.25	6	5.33
7	5.85	7	6.16
8	6.10	8	6.88
9	6.76	9	7.90
10	7.93	10	8.07

주: 1) 출산 의향의 강도는 “전혀 원하지 않음(0),” “보통(5),” “상당히 원함(10),” 출산 계획의 강도는 “전혀 계획하지 않음(0),” “보통(5),”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함(10)”의 11 척도로 응답함.

2) 임신 행동 강도는,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한 행동을 “매우 강하게(1),” “보통(3),” “매우 약하게(5),”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음(6),” 임신을 하기 위한 행동을 “매우 약하게(7),” “보통(9),” “매우 강하게(11)”의 11점 척도로 측정함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마. 출산 의향 및 출산 계획에 대한 배우자 동의

전반적으로 볼 때 자녀 출산 의향에 배우자가 “동의한다” 혹은 “매우 동의한다”에 응답한 비중은 61.3%로 나타났으며(〈표 2-13〉), 자녀 출산 계획에 배우자가 “동의한다” 혹은 “매우 동의한다”에 응답한 비중은 이보다 낮은 57.0%로 나타났다(〈표 2-14〉). 출산 의향이 더 구체적인 출산 계획으로 갈 때 배우자의 동의 정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출산 의향 강도 그리고 출산 계획 강도별로 배우자의 동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출산을 상당히 원하거나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높았다. 출산 의향 강도를 “상당히 원함(출산 의향 강도 10)”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73.6%가 배우자가 본인의 자녀 출산 의향에 대해 “매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출산 계획 강도 10)”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83.1%가 배우자가 본인의 출산 계획에 “매우 동의한다”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출산을 전혀 원하지 않거나 전혀 계획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동의하는 비중과 전혀 동의하지 않는 비중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출산을 전혀 원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매우 동의하는 비중이 29.1%이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 비중이 29.9%이다. 출산을 전혀 계획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모두 동의하는 비중이 26.2%이고 배우자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 비중이 28.0%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을 전혀 원하지 않거나 전혀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경우 배우자와 의견 일치를 보는 경우와 의견 대립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양립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표 2-13〉 출산 의향 강도별 배우자의 동의 정도

(단위: 점, 명, %)

출산 의향 강도 (0~10점)	배우자 동의 정도					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0	260 (29.89)	80 (9.2)	108 (12.41)	169 (19.43)	253 (29.08)	870 (100.0)
1	26 (15.38)	23 (13.61)	36 (21.30)	61 (36.09)	23 (13.61)	169 (100.0)
2	18 (9.63)	37 (19.79)	46 (24.60)	58 (31.02)	28 (14.97)	187 (100.0)
3	13 (6.4)	35 (17.24)	60 (29.56)	68 (33.50)	27 (13.30)	203 (100.0)
4	7 (5.47)	32 (25.00)	38 (29.69)	35 (27.34)	16 (12.50)	128 (100.0)
5	25 (5.32)	45 (9.57)	165 (35.11)	157 (33.40)	78 (16.60)	470 (100.0)
6	7 (2.92)	26 (10.83)	50 (20.83)	122 (50.83)	35 (14.58)	240 (100.0)
7	16 (4.73)	23 (6.8)	54 (15.98)	161 (47.63)	84 (24.85)	338 (100.0)
8	10 (3.51)	20 (7.02)	31 (10.88)	130 (45.61)	94 (32.98)	285 (100.0)
9	3 (2.05)	3 (2.05)	16 (10.96)	60 (41.10)	64 (43.84)	146 (100.0)
10	10 (2.22)	7 (1.56)	18 (4.00)	84 (18.67)	331 (73.56)	450 (100.0)
계	395 (11.33)	331 (9.5)	622 (17.84)	1,105 (31.70)	1,033 (29.63)	3,486 (100.0)

주: 출산 의향의 강도는 “전혀 원하지 않음(0),” “보통(5),” “상당히 원함(10)” 의 11 척도로 응답함.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0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표 2-14〉 출산 계획 강도별 배우자의 동의 정도

(단위: 점, 명, %)

출산 계획 강도 (0~10점)	배우자 동의 정도					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0	312 (28.01)	120 (10.77)	157 (14.09)	233 (20.92)	292 (26.21)	1,114 (100.0)
1	16 (8.33)	32 (16.67)	48 (25.00)	73 (38.02)	23 (11.98)	192 (100.0)
2	23 (13.45)	38 (22.22)	37 (21.64)	50 (29.24)	23 (13.45)	171 (100.0)
3	18 (7.32)	45 (18.29)	75 (30.49)	80 (32.52)	28 (11.38)	246 (100.0)
4	4 (2.7)	22 (14.86)	54 (36.49)	51 (34.46)	17 (11.49)	148 (100.0)
5	12 (2.91)	41 (9.93)	142 (34.38)	144 (34.87)	74 (17.92)	413 (100.0)
6	3 (1.5)	14 (7.00)	37 (18.50)	99 (49.50)	47 (23.50)	200 (100.0)
7	4 (1.39)	7 (2.44)	34 (11.85)	152 (52.96)	90 (31.36)	287 (100.0)
8	1 (0.35)	9 (3.13)	25 (8.68)	136 (47.22)	117 (40.63)	288 (100.0)
9	0 (0.00)	1 (0.88)	5 (4.39)	46 (40.35)	62 (54.39)	114 (100.0)
10	2 (0.64)	2 (0.64)	8 (2.56)	41 (13.10)	260 (83.07)	313 (100.0)
계	398 (11.42)	363 (10.41)	737 (21.14)	1,081 (31.01)	907 (26.02)	3,486 (100.0)

주: 출산 계획의 강도는 “전혀 계획하지 않음(0),” “보통(5),”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함(10)”의 11 척도로 응답함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절 TPB 모형 분석

1. 지표

가. 내생변수

TPB 모형은 출산이 행동적인 신념, 규범적인 신념, 통제된 신념 등 세 가지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Klobas, 2010; Dommermuth et al., 2011). 이 연구에서 TPB 모형은 행동적인 신념을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로 구분하여, 하나의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와 네 개의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로 구성하였다. 내생변수는 출산 계획 정도이고, 외생변수는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주관적 규범, 인식된 통제이다. 내생변수는 하나의 관찰변수(observed variable)로 측정된 것이고, 외생변수는 여러 개의 관찰변수로 측정된 값을 바탕으로 한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다.

〈표 2-15〉는 TPB 모형에서 내생변수 (혹은 종속변수)인 출산 계획 정도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변수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를 낳는 것을, 자녀가 있는 경우는 한 명 더 낳는 것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출산 계획 정도는 11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가장 정도가 강한 것이 10점, 보통이 5점, 그리고 가장 정도가 약한 것이 0점으로 지정되었다. 중간값인 5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평균값은 3.90으로 다소 왼쪽으로 치우쳐진 분포를 보인다. 즉, 평균적으로 응답자의 자녀 출산을 계획하는 정도는 보통 이하로 볼 수 있다.

〈표 2-15〉 출산 계획 정도

(단위: 점(11점 척도))

문항	평균	표준편차
귀하께서는 자녀를 한 명 더 낳는 것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3.90	3.18

주: 전혀 계획하지 않음: 0점; 보통: 5점;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함 10점.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 외생변수

1)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TPB 모형에서 사용한 외생변수는 응답자의 태도와 가치와 관련된 네 가지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다. 첫 번째 변수는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관련된 변수로 구성된다. 〈표 2-16〉은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관련된 28개 변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자녀가 주는 기쁨, 전통적인 부모의 모습, 자녀 양육의 즐거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가 주는 혜택 등 다섯 개 하위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각 부문의 변수는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개별 관찰변수의 평균값은 변수의 내용에 따라 다소 다르다. 자녀 출산과 관련된 일반적인 평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값(3.42점)을 보인다. 반면에 자녀 출산의 종교적 의무에 대한 태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값(1.73점)을 보인다.

한편,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측정한 전체 변수 사이에 신뢰도를 측정한 Cronbach's Alpha 값은 .94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물론 여기에 제시된 모든 변수가 TPB 모형에 포함된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잠재변수로 측정할 때, 자료에 바탕을 둔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의

적합도가 적절한 수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따라서 특정 변수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측정한 잠재변수와의 관련성이 낮으면 전체 측정모형에서 제외하였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라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이 .5보다 작을 때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2-16〉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단위: 점(4점 척도))

변수명	문항	평균	표준편차
q67	자녀의 태동·태기를 느끼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3.15	.74
q68	배우자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만족감을 주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2.93	.82
q69	배우자의 자녀를 갖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2.91	.80
q70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2.52	.92
q71	아기를 안고 귀여워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3.21	.75
q72	자녀를 키우고 헌신하는 부모가 된다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2.55	.93
q73	집안을 이을 자녀를 갖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1.97	.88
q74	내가 가족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2.39	.86
q75	출산을 통해 결혼이 굳건해진다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2.63	.87
q76	가족생활에 대한 나의 종교적인 책무를 다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1.73	.85
q77	나의 부모에게 손주를 안겨드리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2.33	.95
q78	자녀를 낳음으로써 나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2.18	.87
q79	자녀를 가져서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느끼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2.37	.88
q80	자녀와 함께 노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2.95	.74
q81	자녀를 낳아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2.12	.87
q82	자녀를 훈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2.23	.82
q83	배우자와 자식을 함께 키우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3.09	.74

84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을 예측 연구

변수 명	문 항	평균	표준 편차
q84	자녀가 주는 특별한 사랑과 친밀감을 경험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3.42	.69
q85	자녀를 통해 내가 필요하고 유용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2.79	.84
q86	노후에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자녀를 갖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2.35	.89
q87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를 갖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3.28	.69
q88	자녀를 통해 여성으로서 완벽함을 인정받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2.09	.89
q89	자녀를 통해서 좀 더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2.49	.91
q90	나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2.50	.90
q91	자녀를 가짐으로써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존중받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2.32	.90
q92	아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1.86	.91
q93	딸을 갖게 된다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2.21	.98
q94	자녀에게 형제 혹은 자매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2.81	.90
전체		2.55	.54
Cronbach's Alpha		.944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을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TPB 모형의 두 번째 외생변수는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표 2-17>은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측정하는 임신과 출산의 불편함, 부모의 불안과 걱정, 자녀 양육의 불이익, 부모 스트레스 등 네 개 하위 영역의 21개 변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4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대부분 변수의 평균값이 2.5점 전후의 값을 보이고 있다. 장애 출산 자녀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변수가 가장 높은 평균값(3.04점)을 갖고 있으며, 부끄러운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변수가 가장 낮은 평균값(1.82점)을 보인다.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측정하는 21개 변수를 바탕으로 계산한 신뢰

도 Cronbach's Alpha 값은 .915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측정할 측정모형에서도 요인적재값이 .5보다 낮은 변수를 제외하여 최종 측정모형을 구성하였다.

〈표 2-17〉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단위: 점(4점 만점))

변수 명	문 항	평균	표준 편차
q95	임신으로 인한 입덧, 체중증가 등의 고통이 생기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2.87	.83
q96	자녀 출산에 따른 육체적인 고통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2.94	.86
q97	아이가 크면서 말 안 듣고 불평하는 아이가 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2.56	.79
q98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2.62	.84
q99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3.04	.81
q100	내가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지 걱정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2.86	.79
q101	자녀가 집안의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1.82	.75
q102	부모로서 죄의식과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2.23	.86
q103	자녀 때문에 직장생활에 소홀하거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2.95	.86
q104	자녀의 다양한 요구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2.73	.82
q105	자녀 양육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2.72	.87
q106	자녀가 어지럽혀 놓는 것을 치우고 소란스럽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2.25	.83
q107	자녀를 키우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3.03	.84
q108	말 듣지 않고 귀찮게 구는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2.23	.83
q109	자녀가 아플 때 돌보아야 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2.02	.81
q110	자녀 때문에 내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2.76	.83
q111	자녀로 인해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2.34	.84

변수 명	문 항	평균	표준 편차
	동기를 준다		
q112	자녀 때문에 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2.30	.87
q113	자녀 때문에 배우자가 부담을 갖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2.36	.85
q114	자녀 부양을 위해 나 또는 배우자가 직업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2.36	.86
q115	다른 자녀들에게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2.33	.83
	전체	2.54	.51
	Cronbach's Alpha		.915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주관적 규범

〈표 2-18〉은 TPB 모형에서 세 번째 외생변수인 주관적 규범을 측정할 세 개 관찰변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주관적 규범은 출산과 관련하여 응답자 주변의 일종의 압력에 대한 평가를 측정할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주변의 친구, 부모, 친척 관련 세 가지 관찰변수를 포함하였다.

관찰변수의 측정값은 5점 척도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세 개 변수를 바탕으로 주관적 규범을 측정할 때,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68로 나타났다. 주관적 규범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의 개수가 세 개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관적 규범의 경우 관찰변수가 세 개로 하나의 잠재변수를 측정할 때, 자유도가 0이 된다. 이럴 때는 적합도 계산이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주관적 규범의 측정모형은 모든 변수를 다 포함하였다.

〈표 2-18〉 주관적 규범

(단위: 점(5점 척도))

변수명	문항	평균	표준 편차
norm1	대부분 친구들이 내가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55	1.22
norm2	부모님은 내가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96	1.47
norm3	친척들은 내가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96	1.39
	전체	2.82	1.21
	Cronbach's Alpha	.868	

자료: 출산 의향의 실험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인식된 통제

TPB 모형에서 네 번째 외생변수는 인식된 통제이다. 이 잠재변수는 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출산과 관련한 재정, 주거, 일자리, 건강, 육아 관련 정부 프로그램 혹은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로 아홉 개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TPB 모형에서 다른 외생변수는 가치와 태도 등 주관적 측면에 대한 평가 혹은 동의 정도와 관련된 것이다. 반면에 인식된 통제는 출산과 관련된 객관적 조건과 관련된 잠재변수이다. 이러한 아홉 개 변수로 측정된 인식된 통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55로 나타났다.

〈표 2-19〉 인식된 통제

(단위: 점(5점 척도))

변수명	문항	평균	표준 편차
control1	재정적 상황	3.43	.67
control2	주거 환경	3.18	.78
control3	나의 일자리	3.19	.80
control4	나의 건강	3.18	.74
control5	배우자의 일자리	2.83	.98

변수명	문항	평균	표준 편차
control6	배우자의 건강	2.91	.91
control7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2.84	.85
control8	육아 휴직이나 자녀 돌봄 휴가	3.07	.87
control9	국가의 현금 지원	3.07	.57
전체		2.82	1.21
Cronbach's Alpha		.855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측정모형

가.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첫 번째 외생변수인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여러 관찰변수로 측정하고자 한다. 먼저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측정한 5개 하위 부문 28개 관찰변수를 모두 투여한다. 물론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의미하는 잠재변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첫째, 관찰변수로 직접 측정하는 1차 순위(first-order)로 잠재변수를 구성할 수 있다. 둘째, 하위 부문을 1차 순위 잠재변수로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의미하는 2차 순위(second-order) 잠재변수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구조와 체계에 관한 충분한 이론적 근거가 없고,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하위 부문과 상관 없이 모든 관찰변수를 포함하여 1차 순위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측정모형을 구성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28개 모든 관찰변수가 측정모형에 포함된 것은 아니

다. 요인적재값이 .5 미만인 변수는 다른 변수에 비해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 아래 측정모형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높은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에 바탕을 둔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는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이용하였다.

수정지수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고정된 각종 모수를 측정이 가능한 자유 모수로 변경하면 모형의 적합도가 개선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해당하는 모수에 대한 수정지수가 크다는 것은 모형 적합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Whittaker, 2011).

예를 들면, 공분산이 허용되지 않은 연결의 수정지수가 클 경우, 공분산 연결을 허용하면 적합도가 높아진다. 수정지수의 기준값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한 이론적 근거가 없는 공분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정지수가 100 이상일 경우만 공분산을 허용하였다. 물론 이러한 공분산 설정은 주로 유사한 주제를 포함한 하위 부문 내 관찰변수 사이에 이루어졌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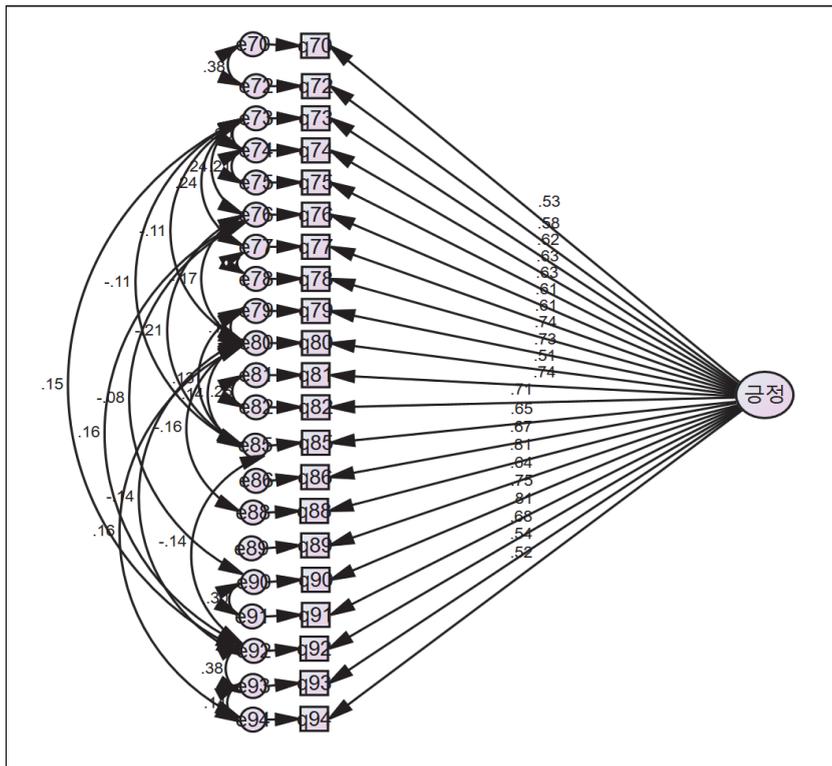
[그림 2-6]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구성한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측정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고전적 적합도인 χ^2 값은 1839.903이고 확률값은 .00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합한 모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방법 예제를 따라서 χ^2 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Jöreskog, 1969).

모형 적합도(goodness of fit)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와 기준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점증(incremental) 적합도인 NFI, 절대

9) MacCallum, Roznowski, & Necowitz(1992)에서 제시된 것처럼 수정지수가 이론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모형 선택보다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정지수가 경험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정지수를 이용해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수정지수를 사용해야 한다.

(absolute) 적합도인 GFI와 AGFI 그리고 간략(parsimonious) 적합도인 RMSEA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적합도 값이 NFI는 .90 이상, GFI는 .90 이상, RMSEA는 .06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볼 때,¹⁰⁾ 최종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FI: .949, AGFI: .929, NFI: .953, RMSEA: .055).

[그림 2-6]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측정모형



주: 1) 각 변수에 해당하는 설명은 <표 2-16> 참조
 2) GFI= .949, AGFI=.929, NFI=.953 RMSEA=.055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 Mueller & Hancock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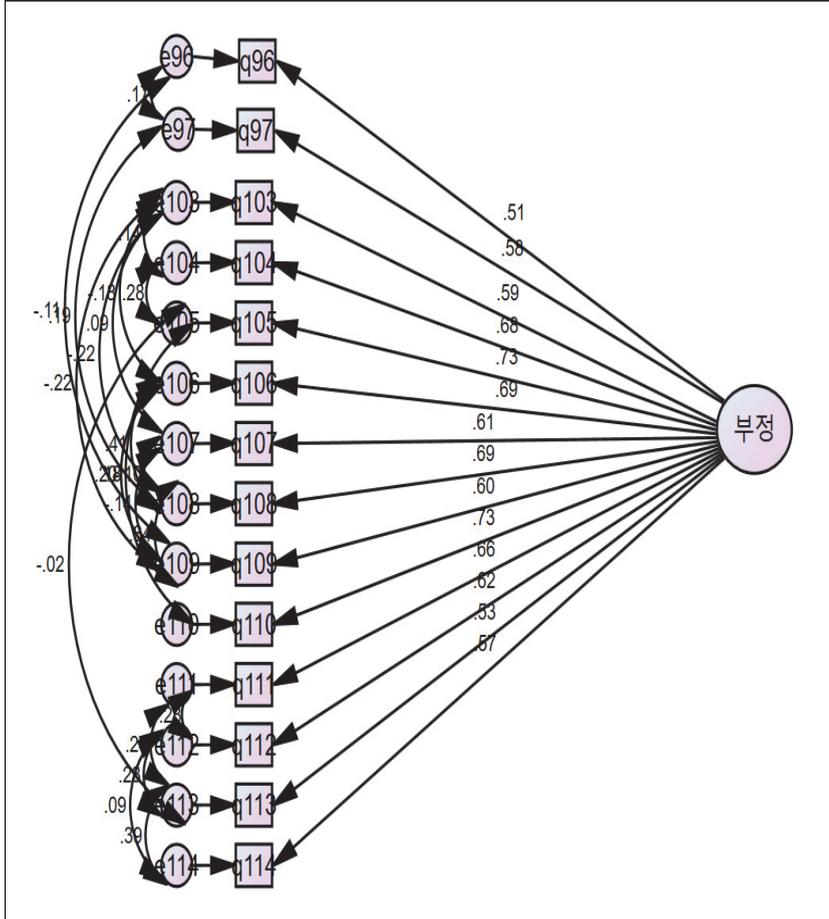
나.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도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대한 측정모형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측정모형을 구성하였다.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임신과 출산의 불편, 부모의 불안과 걱정, 자녀 양육에 따른 불이익, 부모 스트레스 등 네 개 하위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개별 관찰변수는 강한 부정, 일정 부정, 일정 긍정, 강한 긍정을 의미하는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하위 부문 구성과 체계에 관한 강한 이론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부문별 구분이나 차이를 무시하고 1차 순위(first-order) 잠재변수를 구성하였다.

먼저 모든 관찰변수 중에서 요인적재값이 .5 미만일 때는 측정모형에서 제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래 21개 관찰변수 중에서 모두 14개 관찰변수만을 기준으로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측정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수정지수를 참조하여, 수정지수가 100 이상이면 공분산을 설정한 측정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2-7]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한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대한 측정모형이다. 이 모형 역시 대표적인 적합도인 χ^2 값은 5,244.900이고 확률값은 .000이기 때문에 고전적인 의미에서 적합한 모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측정모형 역시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이 모형의 적합도는 구체적으로 GFI(.967), AGFI(.938), NFI(.962), RMSEA(.065)로 각각 나타났고, 모형 적합도 기준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2-7]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측정모형



주: 1) 각 변수에 해당하는 설명은 <표 2-17> 참조

2) GFI= .967, AGFI=.938, NFI=.962, RMSEA=.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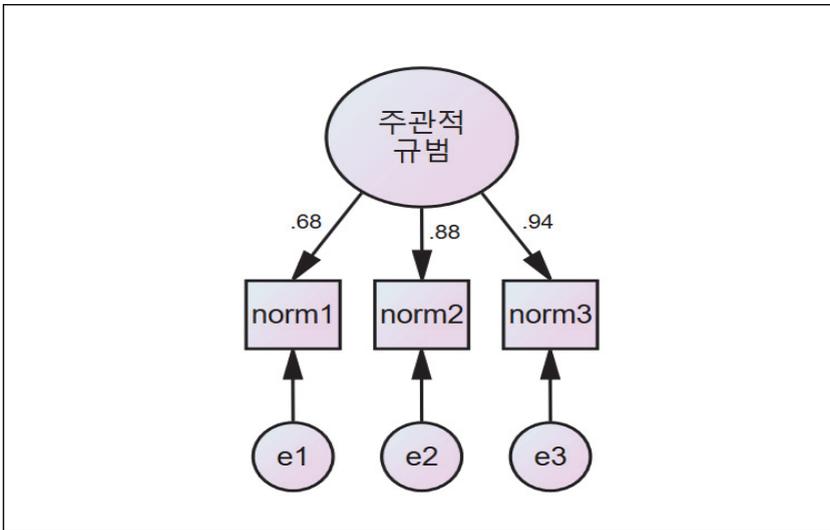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출산과 관련한 주변의 압력과 관련이 있다. 주관적 규범에 대한 측정모형은 앞서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나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대한 측정모형과는 다르다. 이러한 측정모형과는 달리, 주관적 규범은 친구, 부모, 친척의 출산에 대한 압력을 세 개 관찰변수를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여기에서는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자유도가 0이기 때문에, 적합도를 측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림 2-8]에서 제시된 것처럼 적합도 지수 없이 측정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2-8] 주관적 규범



주: norm1: 대부분 친구들이 내가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norm2: 부모님은 내가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norm3: 친척들은 내가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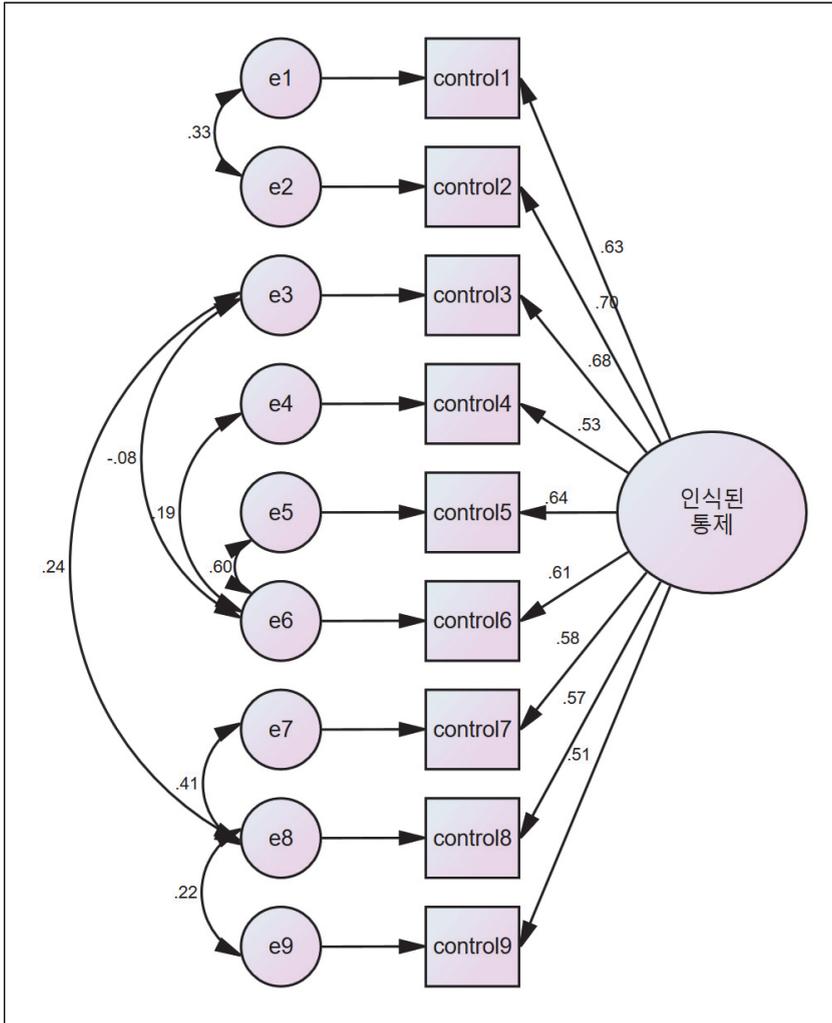
라. 인식된 통제

인식된 통제는 출산 의향이나 계획과 관련하여 다양한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잠재변수이다. 여기에는 재정적 상황, 주거 환경, 나의 일자리, 나의 건강, 배우자의 일자리, 배우자의 건강,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육아 휴직이나 자녀 돌봄 휴가, 국가의 현금 지원 등 9개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인식된 통제도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에 대한 측정모형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9개 변수를 투입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측정모형을 구성하였다. 여기에서는 9개 변수 모두가 요인적재값이 .5를 넘기 때문에 모든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각 관찰변수의 오차 사이에 공분산은 수정지수가 100이 넘을 때 한정하여 측정하도록 모수를 설정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 모형의 χ^2 값은 315.905이고 확률값은 .000이기 때문에 고전적인 의미에서 적합한 모형이라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GFI(.981), AGFI(.957), NFI(.975), RMSEA(.065)로 각각 나타났다. 이 같은 적합도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모형 적합도 기준에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9] 인식된 통제



주: 1) control1: 재정적 상황; control2: 주거 환경; control3: 나의 일자리; control4: 나의 건강; control5: 배우자의 일자리; control6: 배우자의 건강; control7: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control8: 육아 휴직이나 자녀 돌봄 휴가; control9: 국가의 현금 지원

2) GFI= .981, AGFI=.957, NFI=.975, RMSEA=.065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구조 모형¹¹⁾

여기에서는 관찰변수를 바탕으로 하는 측정모형을 통해 측정한 외생변수와 내생변수를 모두 포함하고 이러한 변수 사이의 관계 혹은 경로를 설정한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을 다루고자 한다. 본 구조모형은 Ajzen & Klobas (2013)의 계획된 행동 이론에 따라 Klobas가 그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바탕으로 설계하였다. ([그림 2-1], [그림 2-2] 참조) 외생변수는 잠재변수로 구성된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인식된 통제이다. 그리고 내생변수는 하나의 관찰변수로 측정된 출산 계획 정도이다.

이러한 잠재변수 경로모형을 검토하고 이를 출산과 관련한 주요 배경변수인 응답자 연령과 출산 자녀 수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통해 TPB 모형에서 연령과 출산 자녀 수가 간접적으로 출산 계획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여기에서 연령은 25세 이상~29세 이하, 30세 이상~34세 이하, 35세 이상 세 집단으로 나누고, 출산 자녀 수는 0명, 1명, 2명 이상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가. 전체 모형

[그림 2-10]은 앞서 구성한 네 가지 외생변수에 대한 측정모형과 내생변수인 출산 계획 정도를 포함한 TPB 전체 모형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개별 외생변수의 측정모형까지 포함하면 전체 모형이 파악하기 어려워서, 관찰변수는 생략하고 잠재변수인 외생변수만을 제시하였

11) 구조모형을 잠재변수 경로모형(latent variable path model)이라고도 한다.

다. 그리고 네 개의 경로 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표준화 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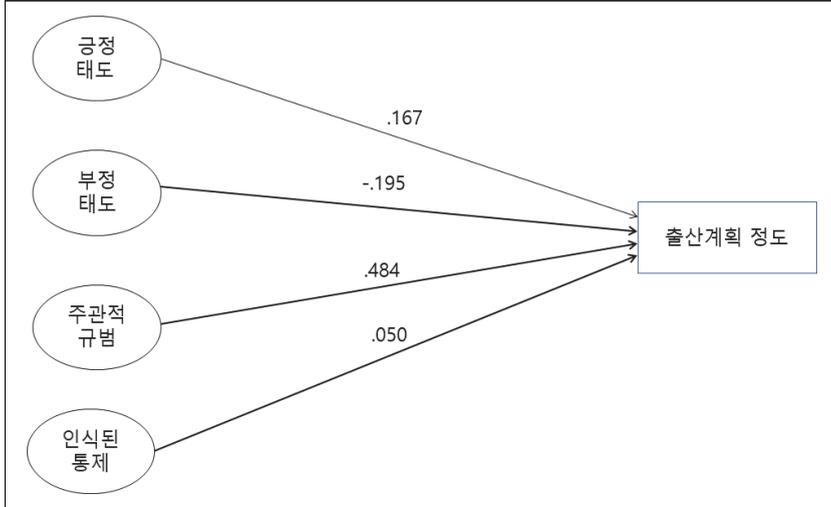
개별적인 표준화 계수의 절대값을 보면, 출산 계획 정도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는 주관적 규범이다. 이 주관적 규범은 부모, 친구, 친척의 출산에 대한 압력을 바탕으로 한 잠재변수를 의미한다. 그다음으로 출산 계획 정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는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긍정적 태도이다. 영향의 강도만을 볼 때 주관적 규범이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보다 두 배 이상 강한 영향 정도를 보인다.

물론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응답자의 출산 계획 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응답자의 출산 계획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TPB 모형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약한 영향 정도를 보이는 외생변수는 자녀 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평가하는 인식된 통제이다.

TPB 모형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 인식된 통제 등이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나 개별 외생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정도는 국가별로 다르다.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태도가 출산 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인식된 통제나 주관적 규범은 개별 사회의 특징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여기에서 제시된 결과는 변두영(2015)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물론 TPB 모형의 구성이 똑같지는 않다. 하지만 주관적 규범이 출산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자녀에 대한 태도가 출산 의도에 그다음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인식된 통제가 출산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약하다는 사실도 같이 나타났다.

[그림 2-10] TPB 모형



주: 경로 위에서 표준화 계수가 제시됨.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 연령별 차이

〈표 2-20〉은 세 개 연령 집단별로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주관적 규범, 인식된 통제가 출산 계획 정도에 미친 영향을 비표준화계수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개별 독립변수 혹은 외생변수가 종속변수 혹은 내생변수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 차이를 살펴보려면 표준화계수가 적절하다. 그러나 집단 사이에 같은 독립변수 혹은 외생변수가 종속변수 혹은 내생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비표준화계수를 비교해야 한다. 표준화계수는 측정단위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표준오차를 고려하는데, 이러한 표준오차가 집단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집단별 표준오차가 비슷하다면, 표준화계수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비표준화계수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Kim &

Ferree, 1981).

구체적인 집단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자녀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와 관련하여 연령별로 뚜렷한 방향은 찾아보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집단은 30세 이상~34세 이하이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영향력이 가장 큰 집단은 25세 이상~20세 이하 집단이다.

반면에 주관적 규범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30세 이상~34세 이하 집단이다. 그리고 인식된 통제에 대해서는 25세 이상~29세 이하 집단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다.

이를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네 개 외생변수의 영향력이 가장 낮은 집단은 35세 이상~39세 이하 집단이다. 출산 계획 정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상대적으로 고연령 집단에서 낮다. 반면에 25세 이상~29세 이하와 30세 이상~34세 이하 연령 집단은 외생변수별로 영향력 정도가 다르다.

〈표 2-20〉 출산 계획 정도에 대한 연령별 비표준화 계수

계수	25~29세	30~34세	35~39세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1.419**	1.491**	1.236**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1.715**	-1.399**	-0.873**
주관적 규범	1.173**	1.237**	1.110**
인식된 통제	.545**	.128**	.045*

주: * $p < .05$, ** $p < .01$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 출산 자녀 수별 차이

출산 자녀 수도 출산 관련 행동을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TPB 모형에서 이러한 출산 자녀 수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자녀 수별로 세 개 집단으로 나누어 개별 외생 변수의 영향을 비표준화 계수를 통해 비교하였다.

〈표 2-21〉은 출산 계획 정도에 대한 출산 자녀 수별 비표준화 계수를 보여 주고 있다. 먼저,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출산 계획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면, 출산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영향이 줄어든다. 출산 자녀 수가 0명일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강하다. 출산 자녀 수가 1명인 집단은 그 영향이 그다음으로 크고, 출산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집단은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전체적으로 출산 계획 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출산을 회피하려는 행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출산 자녀 수가 1명인 집단에서 가장 강하다. 그다음으로는 자녀 수가 0명인 집단이 강하다. 자녀 수가 2명 이상일 경우는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주관적 규범의 집단별 차이는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와 다른 유형을 보인다.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집단은 출산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경우이다. 그다음으로는 출산 자녀 수가 0명, 출산 자녀 수가 1명인 순서로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이 약하다.

반면에 인식된 통제의 집단별 차이도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마찬가지로 출산 자녀 수별로 다른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인식된 통제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집단은 출산 자녀 수가 0인 집단이다. 출산 자녀 수가 늘어갈수록 인식된 통제의 영향력은 줄어든다. 출산 자녀 수가 1명인 집단, 출산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집단이 출산 자녀 수가 0인 집단에 비해 인식된 통제의 영향력이 약하다.

〈표 2-21〉 출산 계획 정도에 대한 출산 자녀 수별 비표준화 계수

계수	0명	1명	2명 이상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2.086**	2.025**	.869**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1.867**	-1.999**	-.663**
주관적 규범	.684**	.449**	.813**
인식된 통제	.620**	.339**	.118*

주: * $p < .05$ ** $p < .01$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4절 TDIB 모형 분석

1. 내생변수

TDIB 모형은 자녀에 대한 태도가 출산 의향, 출산 계획, 임신 관련 행동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TDIB 모형은 관련 요인에 대한 평가나 태도를 중시하는 TPB 모형과는 달리 출산에 대한 내적 동기를 강조한다(Miller, 1994). 이 연구에서 TDIB 모형은 TPB 모형과 달리 내생변수가 세 개인데, 구체적으로 출산 의향 정도, 출산 계획 정도, 그리고 임신 관련 행동 정도이다. 여기에서 임신 관련 행동 정도가 최종 내생변수이다.¹²⁾

12) 출산 계획 정도는 TPB 모형에서 사용한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치는 〈표 2-15〉에 제시되어 있다.

가. 출산 의향 정도

〈표 2-22〉는 출산 의향 정도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출산 의향 정도의 평균값은 4.57이고, 표준편차는 3.56이다. 출산 의향 정도는 출산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원하는 정도로 측정되었고, 이미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한 명 더 출산하는 것을 원하는 정도로 측정되었다. 이 변수는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상당히 원함에 10점, 보통에 5점, 전혀 원하지 않음에 0점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출산 의향 정도를 측정한 척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중간값보다 왼쪽에 다소 치우쳐 있지만, 보통을 의미하는 5점에 가까운 분포를 보인다. 표준편차는 3.56으로 대체로 11점 척도상에 넓게 펼쳐져 있다.

〈표 2-22〉 출산 의향 정도

(단위: 점(11점 척도))

문 항	평균	표준 편차
귀하께서는 자녀를 한 명 더 낳는 것을 어느 정도 원하고 계십니까?	4.57	3.56

주: 전혀 원하지 않음: 0점; 보통: 5점; 상당히 원함 10점.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 임신 관련 행동 정도

TDIB 모형의 최종 내생변수인 임신 관련 행동 정도도 다른 내생변수와 마찬가지로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임신하기 위한 행위를 매우 강하게 하는 것을 10점으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5점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한 행위를 매우 강하게 하는 것을 0점으로 지정하였다.

〈표 2-23〉은 임신 관련 행동 정도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임신 관련 행동 정도의 평균값은 4.82점이고 표준편차는 3.08점이다. 이 내생변수도 다른 내생변수와 마찬가지로 평균값이 극단적으로 좌측이나 우측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임신과 관련하여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중간 척도에 가깝다. 표준편차 역시 다른 내생변수와 마찬가지로 3점 이상으로 비교적 분포가 넓게 퍼져있다.

〈표 2-23〉 임신 관련 행동 정도

(단위: 점(11점 척도))

문 항	평균	표준 편차
귀하께서는 현재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한 행동 혹은 임신을 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4.82	3.08

주: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한 매우 강한 행동: 0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5점; 임신을 하기 위한 매우 강한 행동: 10점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외생변수

가.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TDIB 모형에서 외생변수는 잠재변수로 구성된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이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표 2-24〉와 〈표 2-25〉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표 2-24〉는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응답자의 주요 배경별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연령별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점수가 높다. 가장 높은 연령 집단은 35세 이상~39세 이하(2.60)이다. 반면에 가장 점수가 낮은 연령 집단은 25세 이상~29세 이하(2.50)이다.

그리고 다른 배경을 살펴보면,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점수는 학력이 높을수록, 지역별로는 읍면동이, 소득은 하위층이거나 상층에서 높다. 이 밖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집단과 출산 자녀 수가 많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점수를 보인다.

〈표 2-24〉 개인 특성별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단위: 점)

문항		평균(1~4점)	표준편차
전체		2.55	.54
연령별	25~29세	2.50	.57
	30~34세	2.53	.53
	35~39세	2.60	.51
학력	고졸 이하	2.54	.58
	대졸 이상	2.55	.52
지역	대도시	2.56	.54
	중소도시	2.54	.53
	읍면동	2.58	.48
소득	0~299만 원	2.59	.56
	300~399만 원	2.51	.50
	400~499만 원	2.51	.54
	500~699만 원	2.51	.54
	700만 원 이상	2.58	.56
경제활동	하고 있음	2.53	.55
	하지 않음	2.58	.51
출산 자녀 수	자녀 없음	2.42	.60
	한 자녀	2.57	.51
	두 자녀 이상	2.63	.49

주: 긍정적 태도 척도는 28개 항목에 대한 평균 점수를 의미함.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관한 질문은 〈표 2-16〉에 제시.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역시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 다소 다르다. 연령별로는 25세 이상~29세 이하 집단에서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점수가 높은 반면에, 35세 이상~39세 이하 집단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점수가 가장 낮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지역은 대도시가 읍면동보다, 소득은 중위층과 상층에서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점수가 높다. 출산 자녀 수에서는 자녀가 없는 집단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점수가 가장 높다.

〈표 2-25〉 개인 특성별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단위: 점)

문항		평균(1~4점)	표준편차
전체		2.55	.51
연령별	25~29세	2.57	.52
	30~34세	2.54	.51
	35~39세	2.51	.49
학력	고졸 이하	3.47	.55
	대졸 이상	2.56	.49
지역	대도시	2.54	.50
	중소도시	2.54	.51
	읍면동	2.51	.51
소득	0~299만 원	2.49	.56
	300~399만 원	2.49	.56
	400~499만 원	2.56	.51
	500~699만 원	2.56	.51
	700만 원 이상	2.57	.51
경제활동	하고 있음	2.57	.50
	하지 않음	2.49	.51
출산 자녀 수	자녀 없음	2.65	.52
	한 자녀	2.49	.49
	두 자녀 이상	2.50	.50

주: 부정적 태도 척도는 21개 항목에 대한 평균 점수를 의미함.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관한 질문은 〈표 2-17〉에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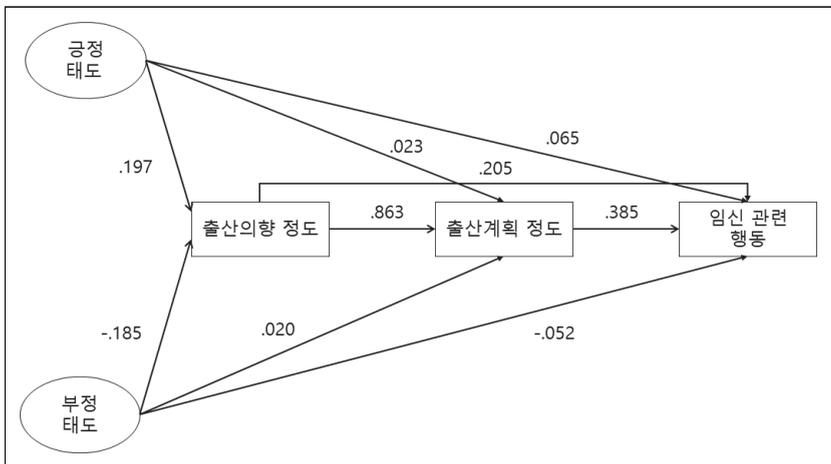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구조 모형

가. 전체 모형

TDIB 모형은 Miller(1994)가 제시한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Mynarska와 Rytel(2018)이 실증 분석을 위해 설계한 Structural Equation Model에 기초하여 설계하였다(그림 2-3], [그림 2-5] 참조). 전체 모형에서 외생변수는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포함한다. 두 개 잠재변수는 이미 TPB 모형에서 구성한 측정모형을 사용한다. 그리고 내생변수는 출산 의향 정도, 출산 계획 정도, 임신 관련 행동 정도를 포함한다. 각 내생변수는 외생변수와는 달리 하나의 관찰변수로 측정되었다. 전체 모형과 관련 배경인 연령대별과 출산 자녀 수별로 나누어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림 2-11] TDIB 모형



주: 경로 위에서 표준화계수가 제시됨.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2-11]은 TDIB 모형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경로 위에 제시된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임신 관련 행동에 직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출산 계획 정도이고 그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출산 의향 정도이다. 반면에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임신 관련 행동에 직접적으로는 비교적 작은 영향을 미친다. 임신 관련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표준화계수가 .065이고,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표준화계수가 -.052로 나타났다.

한편 TDIB 모형에서는 이러한 직접적 효과도 있지만, 여러 매개 변수와 외생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로 인해 다양한 간접적 효과도 존재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 2-26>, <표 2-27>, 그리고 <표 2-28>은 내생변수에 대한 전체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를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내생변수 중에서 임신 관련 행동에 대한 효과만 살펴보면,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전체 효과는 .179이고, 직접적 효과는 .065, 간접적 효과는 .115로 나타난다.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전체 효과는 -.144, 직접적 효과는 -.052, 간접적 효과는 -.092로 나타난다. 즉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는 직접적 효과보다는 간접적 효과가 더 강하다.

한편 출산 의향 정도와 출산 계획 정도의 임신 관련 행동에 대한 전체 효과는 각각 .538과 .385이고, 직접 효과는 각각 .205와 .385이다. 임신 관련 행동에 대한 간접 효과는 출산 의향 정도의 경우만 .333으로 나타났다.

<표 2-26> 내생변수에 대한 전체 효과(표준화계수)

계수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출산 의향 정도	출산 계획 정도
출산 의향 정도	.197	-.185	-	-
출산 계획 정도	.193	-.140	.863	-
임신 관련 행동	.179	-.144	.538	.385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2-27〉 내생변수에 대한 직접 효과(표준화계수)

계수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출산 의향 정도	출산 계획 정도
출산 의향 정도	.197	-.185	-	-
출산 계획 정도	.023	.020	.863	-
임신 관련 행동	.065	-.052	.205	.385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2-28〉 내생변수에 대한 간접 효과(표준화계수)

계수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출산 의향 정도	출산 계획 정도
출산 의향 정도	-	-	-	-
출산 계획 정도	.170	-.159	-	-
임신 관련 행동	.115	-.092	.333	-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 연령별 차이

TPB 모형과 마찬가지로 TDIB 모형에서도 임신 관련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응답자의 배경인 연령과 출산 자녀 수를 집단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2-29〉는 출산 의향 정도에 대한 연령별 비표준화계수를 제시한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출산 의향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출산이 많이 이루어지는 연령대인 30세 이상~34세 이하에서 가장 크다. 그다음으로 영향이 큰 집단은 25세 이상~29세 이하 집단이고,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은 집단은 가임기 후반에 해당하는 35세 이상~39세 이하 집단이다.

반면에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출산 의향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영향은 25세 이상~29세 이하 집단에서 가장 강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영향이 줄어든다.

〈표 2-29〉 출산 의향 정도에 대한 연령별 비표준화계수

계수	25~29세	30~34세	35~39세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1.683**	1.816**	1.495**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1.853**	-1.576**	-.929**

주: * $p < .05$, ** $p < .01$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2-30〉에서 제시된 것처럼, 출산 계획 정도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은 출산 의향 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다르게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영향이 있지만,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영향이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출산 계획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35세 이상~39세 이하 집단에서 가장 강하고, 그다음으로 영향이 강한 연령 집단은 25세 이상~29세 이상이며, 가장 약한 집단은 30세 이상~34세 이하이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출산 계획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연령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연령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출산 의향 정도가 출산 계획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30세 이상~34세 이하 집단에서 가장 강하고, 그다음으로는 25세~29세 이하 집단에서 영향이 크며, 영향이 가장 약한 집단은 35세 이상~39세 이하이다.

〈표 2-30〉 출산 계획 정도에 대한 연령별 비표준화계수

계수	25~29세	30~34세	35~39세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256*	.232	.277*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212	.145	-.025
출산 의향 정도	.845**	.865**	.777**

주: * $p < .05$, ** $p < .01$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2-31〉은 TDIB 모형에서 최종 내생변수인 임신 관련 행동 정도에 대한 독립 변수의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 먼저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영향력이 약해진다. 반면에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25세 이상~29세 이하 집단에서 가장 강하고, 30세 이상~34세 이하 집단에서 가장 약하다.

출산 의향 정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영향력이 강해진다. 반면에 출산 계획 정도는 25세 이상~29세 이하 집단에서 가장 강하고, 35세 이상~39세 이하에서 그다음으로 강하다. 그리고 출산 계획 정도가 임신 관련 행동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25세 이상~29세 이하 집단에서 가장 강하고, 30세 이상~34세 이하에서 가장 약하다.

〈표 2-31〉 임신 관련 행동 정도에 대한 연령별 비표준화계수

계수	25~29세	30~34세	35~39세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477*	.408*	.254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521**	-.165	-.292*
출산 의향 정도	.204**	.423**	.441**
출산 계획 정도	.238**	.102*	.171*

주: * $p < .05$, ** $p < .01$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 출산 자녀 수별 차이

출산 자녀 수도 출산 의향 정도, 출산 계획 정도, 임신 관련 행동 정도 등 내생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경변수이다. 〈표 2-32〉에서 제시된 것처럼, 출산 의향 정도에 대해서는 출산 자녀 수별 추세가 비교적 뚜렷하다. 즉, 출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출산 의향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약해진다.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도 마찬가지이다. 출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출산 의향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진다.

〈표 2-32〉 출산 의향 정도에 대한 출산 자녀 수별 비표준화계수

계수	0명	1명	2명 이상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2.500**	2.189**	1.036**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2.139**	-2.022**	-.878**

주: * $p < .05$, ** $p < .01$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2-33〉은 출산 계획에 대한 독립 변수의 영향을 출산 자녀 수별로 보여 주고 있다. 출산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진다. 반면에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출산 자녀 수와 관계가 없고 모든 집단에서 비표준화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출산 의향 정도는 자녀에 대한 태도와 다른 유형을 보인다. 출산 자녀 수가 0인 집단에서 출산 의향 정도가 출산 계획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자녀가 1명 있는 여성의 출산 의향이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낮다.

〈표 2-33〉 출산 계획 정도에 대한 출산 자녀 수별 비표준화계수

계수	0명	1명	2명 이상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328*	.352**	.517**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031	-.183	.017
출산 의향 정도	.804**	.016**	.687**

주: * $p < .05$, ** $p < .01$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마지막으로 임신 관련 행동 정도에 대해서는 〈표 2-34〉에 제시되어 있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임신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자녀가 없는 여성이 가장 강하고,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임신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자녀가 1명 있는 여성이 가장 강하다. 출산 의향 정도가 임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여성에게서 가

장 강하고, 출산 계획 정도가 임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가 없는 여성에게서 가장 강하다. 이는 자녀 수별로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부정적 태도가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임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표 2-34〉 임신 관련 행동 정도에 대한 출산 자녀 수별 비표준화계수

계수	0명	1명	2명 이상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742**	.290	.453**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509*	-.629**	-.104
출산 의향 정도	.272**	.286**	.355**
출산 계획 정도	.280**	.159**	.102**

주: * $p < .05$, ** $p < .01$

자료: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TPB 모형과 TDIB 모형을 통해 출산 계획이나 임신 관련 행위에 자녀에 대한 태도, 출산 관련 요소에 대한 평가 등 주관적 요소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TPB 모형에서 외생 변수는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인식된 통제이다. 그리고 내생변수는 출산 계획 정도이다.

TPB 모형에 바탕을 둔 자료 분석 결과는 선행 연구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출산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출산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관적 규범과 인식된 통제도 출산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인식된 통제의 경우는 출산 계획 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서구 사회의 자료 분석 결과와는 달리 주관적 규범이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나 부정적 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주관적 규범이 주위의 압력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국사회에서 출산이 갖는 의미가 서구 사회와는 다소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Klobas(2010)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사회처럼 가족주의적 특성이 강한 이탈리아에서도 주관적 규범이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출산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문화적 혹은 가족주의적 전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외생변수의 영향력을 나이나 출산 자녀 수로도 살펴보았다. 연령별로 비교하면, 네 개 외생변수의 영향력이 가장 낮은 집단은 35세 이상~39세 이하 집단이다. 출산 계획 정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상대적으로 고연령 집단에서 낮다. 반면에 25세 이상~29세 이하와 30세 이상~34세 이하 연령 집단은 외생변수별로 영향력 정도가 다르다.

출산 자녀 수로 비교할 때는 외생변수별로 경향이 다르다. 출산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영향은 줄어든다.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영향은 출산 자녀 수가 1명인 집단에서 가장 강하고, 그 다음으로 자녀 수가 0명, 2명 집단 순서로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다. 주관적 규범의 집단별 차이는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와 다른 유형을 보인다. 출산 자녀 수가 2명 이상일 때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다.

TDIB 모형은 출산을 출산 동기 혹은 의향과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자녀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가 출산 의향, 출산 계획, 임신 관련 행동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즉, 외생변수는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이고, 내생변수는 출산 의향 정도, 출산 계획 정도, 그리고 임신 관련 행동 정도이다.

TDIB 모형에서 임신 관련 행동에 직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출산 계획 정도이다. 출산 의향 정도는 그다음으로 강한 영향력을 갖는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임신 관련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약하다. 이는 서구 사회의 경우와 다소 다르게 자녀에 대한 태도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하다는 말이다. 이는 TPB 모형에서 나타났듯이 당사자의 자녀에 대한 태도에 비해 가족, 친지 등 주관적 규범이 갖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연령별과 출산 자녀 수별 외생변수와 내생변수가 임신 관련 행동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변수에 따라 다르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영향력이 약해진다. 반면에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중간 연령층에서 가장 강하다. 출산 의향 정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영향력이 강해진다. 그리고 출산 계획 정도는 낮은 연령층에서 가장 강하고 높은 연령층에서 가장 약하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변화하여 임신 관련 행동에 주는 영향도 달라진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연령이 높아수록 출산을 원하는 정도가 임신 행동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구체적인 출산 계획을 볼 때 출산 계획 정도가 임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구체적인 출산 계획이 임신 행동과 관련성이 높지만, 고령 여성이 가지고 있는 출산 계획의 어려움은 약한 임신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출산 자녀 수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도 관측되었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임신 관련 행동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출산 자녀 수가 0인 집단, 2

명 이상 집단, 그리고 1명 집단 순으로 강하다. 반면에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임신 관련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출산 자녀 수가 1명, 0명, 2명 이상 순으로 강하다. 한편, 출산 의향 정도와 출산 계획 정도가 임신 관련 행동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다. 출산 의향 정도의 영향은 출산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강해지는 반면에 출산 계획 정도의 영향은 출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약해진다.

자녀가 1명인 여성들의 긍정적인 태도가 다른 출산 패리티의 여성들보다 임신 행동 정도에 약한 영향을 미치지만, 부정적인 태도는 임신 행동에 상대적으로 강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녀 1명을 가진 여성들이 자녀 양육 중 겪게 된 어려웠던 경험들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본다.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여성들은 다자녀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는 여성들일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태도가 임신 행동에 주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으로 본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3장

출산 의향의 실현

제1절 선행 연구

제2절 분석 개요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 3 장 출산 의향의 실현

본 장은 본 연구의 두 번째 질문인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 이것이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외국의 경우 출산 의향의 실현에 관한 연구가 이미 2000년대 이전부터 많이 있었고, 최근의 연구 경향은 일정한 기간(예를 들어 3년 이내) 내에 계획한 출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정 기간 내에 출산 계획이 있다는 것은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불특정한 출산 계획 보다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다. 막연하게 세운 출산 계획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개인이 특정한 기간 이내로 목표를 세운 구체적인 출산 계획은 쉽게 바꾸기 어렵다. 구체적인 기간을 설정해 놓은 출산 계획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장애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경우 정책적으로 주는 시사점이 클 것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기간을 설정해 놓은 출산 계획의 실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본 장에서는 출산 의향의 실현에 관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여성 출산의 중단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여성가족패널 2008~2018년 (2차~7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2년 이내 출산 계획의 실현 여부와 실현 유형에 미치는 인구학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을 규명하여 국내 저출산 대응 정책에 적합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관련 학문 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자료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제1절 선행 연구

본 장에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을 계획하고 있었던 여성들이 실제로 출산을 실현하였는지, 그리고 계획한 출산을 실현하는 데 영향을 미친 어떠한 인구학적 혹은 사회경제학적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해 미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외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의 방법론과 주요 결과를 검토하고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Testa와 Toulemon(2006)은 1998년(1차 조사)과 2003년(2차 조사)에 조사된 프랑스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 실현자, 자발적 연기자, 비자발적 연기자의 각 모형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실현자는 1998년의 1차 조사에서 5년 이내에 자녀 낳기를 원한다고 응답하고 1998년~2003년 사이에 자녀를 낳은 사람이다. 자발적 연기자는 1998년의 1차 조사에서 5년 “이후”에 자녀 출산을 원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998~2003년 사이에 자녀를 낳지 않았고, 2003년도 조사에서도 여전히 자녀를 낳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사람이다. 비자발적 연기자는 1998년의 1차 조사에서 5년 “이내”에 자녀를 낳기를 원한다고 응답하였으나, 1998~2003년 사이에 자녀를 낳지 않았고, 2003년도 조사에서도 여전히 자녀를 낳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사람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강도 혹은 자녀 출산 가능성에 대한 변수를 포함하여 이러한 변수가 출산 실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이 이 연구 분석 모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강도는, 지금 당장 자녀 출산을 원하는지, 5년 이내에 자녀 출산을 원하는지, 자녀 출산 의향에 변함이 없을 것인지 혹은 변화가 있을 것인지, 자녀를 원하지만 지금 당장 낳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를 측정할 변수이다. 5

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은 “확실히 그렇다.”, “아마도 그렇다.”, “반반이다”, “아마도 아니다.”, “확실히 아니다.”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1998년부터 2003년도까지 자녀를 출산한 사람 중 60%가 1998년 질문에서 5년 이내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확실히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이었으며, 20%가 “아마도 그렇다”, 18%가 “반반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었다. 실현자 모형을 분석한 결과, 5년 이내에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에 출산하는 것을 강하게 원하는 경우, 5년 이내에 출산할 가능성을 확실하게 혹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 사람일수록 5년 이내 출산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연기자 혹은 비자발적 연기자 각각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 결과, 연령이 30세 이상일수록, 독신일수록, 결혼 생활 3~6년 차보다 신혼일수록 자발적 연기자가 될 확률이 높았으며, 연령이 30세 이하일수록, 신혼보다 결혼 3~6년 차일수록 비자발적 연기자가 될 확률이 낮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발적 연기자가 될 확률은 낮아지지만 비자발적 연기자가 될 확률은 높아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자발적 연기자가 될 확률은 높아지지만 비자발적 연기자가 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Kapitány & Spéder (2012)는 불가리아(2002년, 2005년), 헝가리(2001~2년, 2004~5년), 네덜란드(2003~4년, 2006~7년), 스위스(2004년, 2007년)의 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4개 국가의 출산 의향의 실현을 비교 분석하였다. 1차 연도 조사에서 3년 이내에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제로 출산한 사람을 “실현자”,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여전히 출산 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연기자”, 출산하지 못하였고 출산 의향을 포기한 사람들을 “포기자”로 구분하였다. 분석 모형의 종속변수를 이러한 세 가지 그룹으로 하여 다항 로짓 분석을 수행한 결과,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35세 이상일 때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을 연기할 가능성은 작지만, 출산을 포기할 가능성은 더 컸다. 비혼자가 유배우자보다, 그리고 이혼자가 유배우자보다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대학교 졸업자가 출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더 컸다.

Régnier-Loier, Vignoli, & Dutreuilh (2011)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GGS 1차 조사와 2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두 국가의 출산 의향의 실현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첫 번째 모형에서는 3년 이내에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 중에서 3년 이내에 출산을 실현한 사람은 1, 아닌 경우는 0을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모형에서는 모형 1에서 종속변수가 0인 사람들, 즉 출산 의향이 있었으나 3년 이내에 출산을 실현하지 못한 사람 중에서 출산 의향이 없는 사람을 1(포기자), 출산 의향이 여전히 있는 사람을 0(연기자)으로 두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가 출산 실현자, 포기자, 연기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은 Kapitány & Spéder (2012)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다항 로짓 분석이 아니라 각 모형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프랑스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유사한 부분도 있으나 차이도 발견되었다. 이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간의 자녀 출산을 둘러싼 문화 및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출산 의도에서 “아마도”라고 응답한 사람이 “확실히”라고 응답한 사람보다 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낮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한 사람일수록, 이미 자녀가 있는 사람이 무자녀보다 자녀 출산 가능성이 작았다. 자녀 출산 의도에서 “아마도”라고 응답한 사람이 “확실히”라고 응답한 사람보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포기가 될 확률이 더 높았

다. 이탈리아의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혹은 배우자가 고학력일 경우, 그리고 응답자의 어머니가 사망하여 자녀 돌봄을 도와줄 수 없는 경우 포기자가 될 확률이 더 높았다.

Schoen, Astone, Kim, Nathanson, & Fields (1999)는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NSFH)」의 1987~1988년과 1992~1994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992~1994년에 임신이 출산으로 결과된 경우 1, 그렇지 않았으면 0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분석 모형의 특징은 배우자의 출산 의도를 독립변수로 함께 넣어 배우자의 출산 의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는 데 있다. 분석 결과, 출산 의도가 매우 확실하지 않았을 때보다 확실하거나 불확실한 강도가 낮은 경우 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높았으며, 배우자의 출산 의도가 높으면 출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연구에서는 출산 의향을 이산형 변수 혹은 카테고리 변수로 측정하여 로짓 모형 혹은 다항 로짓 모형 분석을 수행했지만, 2000년대 이전 연구들은 다른 통계 모형을 이용하였다. Miller & Pasta(1995)는 1988~1989년 미국 캘리포니아 거주 201명의 무자녀 커플과 200명의 자녀 1명을 둔 커플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같은 집단을 대상으로 1년 이후, 2년 이후, 3년 반 이후 실시한 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출산 의향은 자녀 출산을 얼마나 의도하고 있는가에 대해 10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응답과 본인의 자녀 출산 의도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는가에 대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응답을 결합하여 출산 의향에 대한 변수를 구축하였다. 자녀 출산 시기에 대한 의향은 얼마나 빨리 자녀를 낳기를 의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① 12~17개월”, “② 18~23개월”, “③ 2~2.9년”, “④ 3~3.9년”, “⑤ 4~4.9년”, “⑥ 5년 이후”, “⑦ 자녀 출산을 의도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변수를 활용하였

다. 그리고 남편과 부인 간 의견의 차이는 남편과 부인이 자녀 출산 시기와 자녀 출산 의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차이를 가지고 구축한 변수를 이용하였다. 분석 모형으로 “Two party groups of simultaneous equation constrained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였다. 본 분석의 특징은 출산 의향의 실현 정도를 분석하면서 자녀 출산 의향뿐만 아니라 자녀 출산 시기 의향에 대한 변수도 함께 사용하였으며, 남편과 부인 간의 출산 의향 격차도 변수로 사용하였다는 데 있다.

분석 결과, 자녀 출산 의도가 무자녀 부부의 출산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이 있는 변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더 빨리 자녀 낳는 것을 희망할수록, 그리고 더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을 희망할수록 더 빨리 자녀를 낳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과 부인 간의 출산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자녀 출산은 더 늦어졌다.

Thomson(1997)은 미국의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1987~1988년과 1992~1994년 자료를 활용하여 부부가 모두 자녀 출산 의향과 의도에 응답한 1,143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출산 의향은 “당신이 낳기를 원하는 수만큼 자녀를 낳는다면 자녀 수는 몇 명이나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출산 의도 변수는 출산 의도 여부와 출산 의도의 확실성 정도를 결합하여 구축한 변수를 사용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향후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당신이 자녀를 갖지 않을 것이 얼마나 확실합니까?”라고 질문하여 “매우 아님”, “약간 아님”, “전혀 확신할 수 없음”이라는 세 가지 응답으로 변수를 구축하였다. “예”라고 응답한 경우, “당신이 자녀를 낳을 것이 얼마나 확실합니까?”라고 질문하여 “매우 아님”, “약간 아님”, “전혀 확신할 수 없음”의 세 가지 응답을 가지고 변수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출산 의도 변수는 의도의 강도에 따라 “자녀를 갖지 않을 것이 매우 확실함 (1)”부터 “자녀를 가질 것이 매우 확실함 (7)”까지의 점수를 갖는 변수를 이용하였다.

분석 모형으로 “piecewise-constant baseline hazard” 모형을 이용하여 출산 의향과 출산 의도가 출산 해저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부부가 모두 자녀를 원하지 않을 때는 출산 해저드가 현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에 대해 부부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부부 모두 출산을 원하지 않을 때와 유사한 출산 해저드를 보였다. 부부가 모두 자녀 출산 의도에서 확실한 경우와 비교하여 부부 일방이 자녀 출산에서 불확실성을 보일 때 출산 해저드는 3분의 1 감소하였다. 부부가 출산 의도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출산 해저드는 5분의 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출산 의향 실현에 관한 연구로는 우해봉, 장인수 (2019)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2차~6차 자료)의 2차 자료에서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6차까지의 출산 여부를 파악하여 이산형 생존분석 모형(discrete time hazard model)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출산 계획이 있는 개인들의 실제 출산 패턴을 설명하는 데 연령, 출산 자녀 수 등 인구학적 요인들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연령이 높을수록 추가 출산을 계획할 개연성은 커지지만 그것이 실현으로까지 이어질 확률은 높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연구와 다르게 생존분석을 활용하여 결혼 연령에 따른 추가 출산 의사의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고, 계획이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출산 계획의 (비)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TPB에 대한 내용을 선행 연구 고찰에서 소개하고 최근에 이루어진 외국의 출산 의향 실현에 관한 선행 연구에 대해서 일부 언급하였지

만, TPB 모형을 추정하거나 최근 외국의 출산 의향 연구 분석 동향을 반영하여 기간을 한정하고 출산 계획의 실현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다. 또한, 이산형 생존모형을 통해 출산 계획의 실현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연령과 자녀 수 등 인구학적 특성 이외에 학력, 소득 수준, 경제활동 등에서는 강건한 통계적인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앞서 고찰한 선행 연구들의 분석 모형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같은 응답자를 지속해서 조사한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출산은 출산 의향이 형성되고 의도로 발전하여 임신 행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출산하게 되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출산 의향의 실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같은 개인을 대상으로 출산 의향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속해서 관찰한 패널 자료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외국의 선행 연구들은 특정한 기간(예를 들면 3년 이내)을 한정하여 계획한 출산이 이러한 기간 내에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출산 의향과 계획에는 불확실한 특성이 있다. 불확실성 하에서 특정한 기간 내에 출산하겠다고 계획한 출산은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출산 계획보다 확실한 출산 계획일 수 있다. 따라서 더 확실성 있는 출산 계획의 실현을 분석하기 위하여 특정 기간 내에서 출산 계획의 실현 여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행 연구들은 특정 기한 내에 계획한 출산이 실현되었는지, 그리고 출산을 실현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출산을 연기하였는지 혹은 포기하였는지에 대한 분석도 함께 수행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은 합계출산율의 상승이 아니라 희망하는 출산을 실현하도록 정책의 지향성과 목적이 변화되었다. 따라서 국민이 희망하고 있는 출산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출산을 희망하고 있지만 실현되지 못하여 연기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2000년 이후에 수행

한 외국의 연구 모형들은 출산 의향의 실현 결과를 이산형 변수 혹은 카테고리 변수로 측정하여 로짓 모형 혹은 다항 로짓 모형을 이용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특정 기간 내에 계획한 출산이 실현 혹은 비실현으로 결과된 것을 분석하는 데 로짓 모형이나 다항 로짓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제2절 분석 개요

국내에서 출산 의향 혹은 출산 의도의 실현을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패널 자료는 여성가족패널(2007년~2018년)이다 (1장 3절 참조).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한 시기 이내에 출산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 자료는 2년마다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조사에서 2년 이내 출산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이 실제로 2년 이내에 출산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조사 때마다 출산 계획에 대해 질문하였기 때문에 출산 계획을 실현하지 못한 여성들이 출산을 연기하였는지 혹은 포기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여성가족패널 자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전략을 세웠다¹³⁾. 분석의 목적은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는 사람 (“2년 이내 출산 계획자”)의 출산 실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의 대상은 49세 이하 기혼 여성이다. 분석 자료 구축을 위하여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2년 단위의 쌍으로 묶었다¹⁴⁾. 각 쌍의 첫 번째 연도 자료에서 출

13) 여성가족패널 1차년도 조사는 자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추가 출산 계획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무자녀 여성의 출산 계획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2차년도 조사부터 자녀 출산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계획을 질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차년도부터 응답자의 출산 계획과 실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기존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산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출산 의향이 있다면 2년 이내 출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물었다. 2년 이내 출산이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와 출산 계획 당시 자녀 수는 각 패널 자료에서 출산 관련 데이터를 모아 놓은 “여성가족패널 출산력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각 쌍의 두 번째 연도 자료에서는 첫 번째 연도 조사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출산 의향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2년 이내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중에서 2년 이내에 출산한 여성을 “실현자”로 정의하였다. 2년 이내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중에서 2년 이내에 출산하지 않았어도 여전히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을 “연기자”로 정의하였다. 2년 이내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중에서 2년 이내 출산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을 “포기자”로 정의하였다. 2년 이내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중에서 2년 이후에 출산하지 않았고 출산 의향에 대한 질문에 “모르겠음”이라고 응답하였거나 해당 질문에 응답을 하지 않은 여성을 “미결정자”로 정의하였다. 자녀 출산 계획에 대해 “있다” 혹은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출산 계획에 대해 확실한 의견을 밝힌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모름” 혹은 무응답은 자녀 출산 계획에 대해 확실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따라 “모름”이라고 응답한 사람과 무응답의 사람을 합하여 “미결정자”로 정의하였다¹⁵⁾. 본 분석에서 표본을 선택한 도식과 해당 표본 수는 <표 3-1>부터 <표 3-5>와 같다.

14) 2차년도(2008년)-3차년도(2010년), 3차년도(2010년)-4차년도(2012년), 4차년도(2012년)-5차년도(2014), 5차년도(2014)-6차년도(2016), 6차년도(2016)-7차년도(2018)

15) 무응답자는 해당 회자에 참여하였으나 출산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모름”과 무응답자를 구분하여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보이나, 전체 표본 중에서 “모름”에 응답한 사람은 82명, 무응답은 138명으로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아 두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표 3-1〉 본 분석에 사용한 표본의 구성: 2008~2010년

분석 연도	2008년		2008~2010년	2010년				
	자녀출산 계획	자녀 출산 시기 계획	출산 여부	자녀출산계획				
2008~ 2010년	있다 (404명)	1년 이내 (147명)	출산 (52명)	있다	없다	모름	무응답	
			비출산 (95명)					31
		1~2년 사이 (146명)	출산 (42명)	있다	없다	모름	무응답	
			비출산 (104명)					34
		2년 이후 (68명)	출산 (19명)					
			비출산 (49명)					
		언제 될지 모름 (43명)	출산 (6명)					
			비출산 (37명)					
		없다 (4,023명)	-	출산 (52명)				
				비출산 (3,971명)				
		모르겠다 (176명)	-	출산 (19명)				
				비출산 (157명)				
계 (4,603명)								

자료: 여성가족패널 2차(2008년)~3차(2010년)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lowf.kwdi.re.kr/portal/mainPage.do>, 2020.04.03. 인출.

130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표 3-2〉 본 분석에 사용한 표본의 구성: 2010~2012년

분석 년도	2010년		2010~2012년	2012년			
	자녀출산 계획	자녀 출산 시기계획	출산 여부	자녀출산계획			
2010~ 2012년	있다 (256명)	1년 이내 (109명)	출산 (39명)				
			비출산 (70명)	있다	없다	모름	무응답
				21	24	10	15
		1~2년 사이 (88명)	출산 (16명)				
			비출산 (72명)	있다	없다	모름	무응답
				22	25	8	17
	2년 이후 (59명)	출산 (6명)					
		비출산 (53명)					
	없다 (3,941명)	-	출산 (50명)				
			비출산 (3,891명)				
	모르겠다 (137명)	-	출산 (21명)				
			비출산 (116명)				
계 (4,334명)							

자료: 여성가족패널 3차(2010년)~4차(201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lowf.kwdi.re.kr/portal/mainPage.do>, 2020.04.03. 인출.

〈표 3-3〉 본 분석에 사용한 표본의 구성: 2012~2014년

분석 년도	2012년		2012~2014년	2014년			
	자녀출산 계획	자녀 출산 시기계획	출산 여부	자녀출산계획			
2012~ 2014년	있다 (196명)	1년 이내 (98명)	출산 (34명)				
			비출산 (64명)	있다	없다	모름	무응답
				19	22	3	20
		1~2년 사이 (64명)	출산 (18명)				
			비출산 (46명)	있다	없다	모름	무응답
				16	21	3	6
	2년 이후 (34명)	출산 (8명)					
		비출산 (26명)					
	없다 (3,161명)	-	출산 (30명)				
			비출산 (3,131명)				
	모르겠다 (98명)	-	출산 (9명)				
			비출산 (89명)				
계 (3,455명)							

자료: 여성가족패널 4차(2012년)~5차(201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lowf.kwdi.re.kr/portal/mainPage.do>. 2020.04.03. 인출.

132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표 3-4〉 본 분석에 사용한 표본의 구성: 2014~2016년

분석 년도	2014년		2014~2016년	2016년				
	자녀출산 계획	자녀 출산 시기계획	출산 여부	자녀출산계획				
2014~ 2016년	있다 (133명)	1년 이내 (68명)	출산 (26명)					
			비출산 (42명)	있다	없다	모름	무응답	
		12		19	3	8		
		1~2년 사이 (47명)	출산 (13명)					
			비출산 (34명)	있다	없다	모름	무응답	
		14		7	6	7		
		2년 이후 (18명)	출산 (8명)					
			비출산 (10명)					
		없다 (2,795명)	-	출산 (37명)				
				비출산 (2,758명)				
		모르겠다 (74명)	-	출산 (9명)				
				비출산 (65명)				
계 (3,002명)								

자료: 여성가족패널 5차(2014년)~6차(2016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lwf.kwdi.re.kr/portal/mainPage.do>, 2020.04.03. 인출.

〈표 3-5〉 본 분석에 사용한 표본의 구성: 2016~2018년

분석 년도	2016년		2016~2018년	2018년			
	자녀출산 계획	자녀 출산 시기계획	출산 여부	자녀출산계획			
2016~ 2018년	있다 (217명)	1년 이내 (108명)	출산 (27명)				
			비출산 (81명)	있다	없다	모름	무응답
				14	31	17	19
		1~2년 사이 (84명)	출산 (21명)				
			비출산 (63명)	있다	없다	모름	무응답
				14	27	13	9
	2년 이후 (25명)	출산 (3명)					
		비출산 (22명)					
	없다 (3,206명)	-	출산 (14명)				
			비출산 (3,192명)				
	모르겠다 (133명)	-	출산 (11명)				
			비출산 (122명)				
계 (3,556명)							

자료: 여성가족패널 6차(2016년)~7차(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lofw.kwdi.re.kr/portal/mainPage.do>, 2020.04.03. 인출.

〈표 3-1〉부터 〈표 3-5〉에서 볼 때 49세 이하 기혼 여성 중에서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이내의 수준이다.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중에서 “1년 이내” 혹은 “1~2년 사이”에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전반적으로 볼 때 80% 이상이다.

2년 이내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중에서 2년 이내 출산을 실현한 여성의 비중은 약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년 이후에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중에서 2년 이내 출산을 실현한 여성의 비중은 약 21.6%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2년 이후에 출산을 계획하고 있어도 2년 이내에 출산할 가능성이 크게 낮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자녀 출산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 중에서 2년 이내에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는 1.1% 내외로 매우 낮다. 하지만 자녀 출산 계획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유보적인 응답을 보였지만 2년 이내에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는 약 11.2% 내외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출산 계획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한 여성 중에는 자녀 출산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표 3-6〉).

〈표 3-6〉 출산 계획별 2년 이내 출산 실현율

(단위: 명, %)

구분		출산	비출산	계
출산 계획 있음	2년 이내	288 (30.0)	671 (70.0)	959 (100.0)
	2년 이후	44 (21.6)	160 (78.4)	204 (100.0)
출산 계획 없음		183 (1.1)	16,943 (98.9)	17,126 (100.0)
모르겠음		69 (11.2)	549 (88.8)	618 (100.0)

자료: 여성가족패널 2차(2008년)~7차(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lowf.kwdi.re.kr/portal/mainPage.do>, 2020.04.03. 인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08~2010년, 2010~2012년, 2012~2014년, 2014~2016년, 2016~2018년의 각 기간에 출산 계획이 있는 여성들이다. 연도별 2년 이내 출산 계획자 수는 293명, 197명, 162명, 115명, 192명으로 각각의 연도별로 분석을 하기에는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다. 2008~2010년 표본수가 293명으로 상대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2008~2010년 기간의 자료는 오래되어 동 자료의 분석을 통해 최근의 출산 실현과 관련한 문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 연차별 자료를 합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전체 분석표본 959건 중에서 실현자는 288건(30.0%), 연기자는 197건(20.5%), 포기자는 254건(26.5%), 미결정자는 220건(22.9%)이었다. 과거 10년 동안 2년 이내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건수 중에서 약 30% 정도가 실제로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20% 정도는 여전히 출산할 계획이 있는 반면에, 약 25%는 자녀 출산을 포기하였고, 그리고 약 23%가 미결정적인 상황에 있는 건수라는 것을 말한다(〈표 3-7〉).

〈표 3-7〉 2년 이내 출산 계획자의 2년 이내 출산 실현 빈도

(단위: 건, %)

기간	2년 이내 출산 계획자	실현자	연기자	포기자	미결정자
2008~2010년	293 (100.0)	94 (32.1)	65 (22.2)	78 (26.6)	56 (19.1)
2010~2012년	197 (100.0)	55 (27.9)	43 (21.8)	49 (24.9)	50 (25.4)
2012~2014년	162 (100.0)	52 (32.1)	35 (21.6)	43 (26.5)	32 (19.8)
2014~2016년	115 (100.0)	39 (33.9)	26 (22.6)	26 (22.6)	24 (20.9)
2016~2018년	192 (100.0)	48 (25.0)	28 (14.6)	58 (30.2)	58 (30.2)
계	959 (100.0)	288 (30.0)	197 (20.5)	254 (26.5)	220 (22.9)

자료: 여성가족패널 2차(2008년)~7차(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lowf.kwdi.re.kr/portal/mainPage.do>, 2020.04.03. 인출.

한편, 연차별 자료를 합한 경우, 패널 데이터의 특성상 같은 응답자가 중복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기간 안에 2년 이내의 출산 의향을 중복적으로 갖는 경우 한 사람이 여러 번 전체 표본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표 3-2>에서 2년 이내 출산 계획자는 응답자 수가 아닌 응답 건수이다. 2년 이내 출산 계획자 표본 수 959건 중에서 실제로 조사에 응답한 여성의 수는 726명이다. 이는 2년 이내 출산 계획을 해당 분석 기간에 두 번 이상 가지고 있었던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중복적으로 표본에 들어 온 응답자 수, 즉 2년 이내 출산 계획을 여러 차례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수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 대상 기간에 2년 이내 출산 의향을 한 번만 가지고 있었던 응답자 수는 548명으로 전체 응답자 726명의 75.5%, 2년 이내 출산 의향을 두 번 가지고 있었던 응답자 수는 13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9.0%, 그리고 세 번 이상 2년 이내 출산 의향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은 전체 응답자의 약 5% 정도에 불과하다. 두 번 이상 2년 이내 출산 계획을 세운 사람들의 빈도를 보면 많은 경우 연속적인 연도별로 출산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중복적 출산 의향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은 연도별로 공백을 가진 경우는 드물고, 매 기간 연속적으로 출산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25세에 출산 의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26~29세에는 출산 의향이 없었고 30세에 와서 갑자기 출산 의향을 다시 갖게 된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여성들 대부분이 예를 들어 25에서 28세까지 매 기간 연속적으로 출산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어진 가임 기간을 고려해 볼 때 여성들 대부분의 핵심적인 가임 기간에 연속적으로 출산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년 이내 출산 의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출산을 실현한 여성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산을 실현하였다고 응답한 여성 271명 중에서

출산을 한 번만 실현한 경우가 254명(93.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출산 의향을 중복적으로 실현한 여성의 수는 17명으로 6.3%에 불과하다. 중복적으로 출산을 실현한 여성은 모두 2회 출산을 실현한 여성들이며, 3번 이상 출산을 실현한 여성은 분석 대상 중에는 없다. 출산을 실현한 여성 중 대부분이 한 번만 출산을 실현한 여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반영하는 모습이라 하겠다.

비실현자 표본 중에서 2년 이내 출산 실현 계획을 한 번 실현하지 않은 여성의 수가 427명으로 전체 비실현자 응답 여성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출산을 실현하지 못한 여성 중 약 20%가 중복적인 출산 비실현을 경험하고 있다. 중복적으로 출산 의향을 실현하지 못한 여성들은 연도별 연속적으로 출산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출산의 연기, 포기, 미결정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포기자와 미결정자의 경우 한 번만 표본에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2년 이내 출산 계획을 하고 중복적으로 포기하거나 혹은 중복적으로 미결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연기자의 경우 중복적으로 표본에 포함된 경우는 약 20%로 포기자와 미결정자와 비교하여 높다. 이는 여성들의 2년 이내 출산 계획이 중복적으로 연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앞서 비실현자 표본 중에서 중복적으로 출산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가 20% 정도라는 결과와 함께 고려해 보면, 비실현이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출산 포기, 출산 연기, 출산 미결정의 결과가 혼합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38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표 3-8〉 2년 이내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들의 분포

(단위: 명, %)

출산 계획 횟수	2008 ~2010	2010 ~2012	2012 ~2014	2014 ~2016	2016 ~2018	명	계
1회						194	548 (75.5)
						85	
						71	
						46	
						152	
2회						52	138 (19.0)
						23	
						20	
						17	
						12	
						4	
						3	
						3	
						2	
3회						2	27 (3.7)
						8	
						8	
						5	
						3	
						2	
4회						1	11 (1.5)
						7	
						2	
5회						2	2 (0.3)
계						726	(100.0)

자료: 여성가족패널 2차(2008년)~7차(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lowf.kwdi.re.kr/portal/mainPage.do>, 2020.04.03. 인출.

〈표 3-9〉 실현자와 비실현자 분포

(단위: 명, %)

실현 여부	횟수	2008 ~2010	2010 ~2012	2012 ~2014	2014 ~2016	2016 ~2018	명	계	
실현자	1회						86	254 (93.7)	
							45		
							46		
							33		
							44		
	2회							4	17 (6.3)
								3	
								2	
								2	
								1	
								1	
								1	
	계							271 (100.0)	
	비실현자	1회						140	427 (80.1)
							76		
							54		
							38		
							119		
2회								29	82 (15.4)
								14	
								11	
								11	
								8	
								3	
								2	
								2	
3회								7	17 (3.2)
								3	
								2	
								2	
								1	
								1	
4회								1	6 (1.1)
								2	
								2	
								1	
5회						1	1 (0.2)		
계							533 (100.0)		

자료: 여성가족패널 2차(2008년)~7차(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lowf.kwdi.re.kr/portal/mainPage.do>, 2020.04.03.인출.

140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표 3-10〉 연기자·포기자·미결정자 분포

(단위: 명, %)

구분	횟수	2008 ~2010	2010 ~2012	2012 ~2014	2014 ~2016	2016 ~2018	명	계	
연기자	1회						49	122 (79.7)	
							22		
							13		
							15		
							23		
	2회							6	20 (13.1)
								6	
								3	
								2	
								1	
								1	
	3회							6	9 (5.9)
								1	
								1	
	4회							1	2 (1.3)
							1		
계							153	(100.0)	
포기자	1회						73	238 (96.7)	
							47		
							38		
							24		
							56		
	2회							4	8 (3.3)
								1	
								1	
								1	
	계							246	(100.0)
미결정자	1회						56	218 (99.5)	
							49		
							32		
							24		
							57		
	2회						1	1 (0.5)	
계							219	(100.0)	

자료: 여성가족패널 2차(2008년)~7차(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lowf.kwdi.re.kr/portal/mainPage.do>, 2020.04.03.인출.

제3절 분석 결과

1. 기술 분석 결과

2년 이내 출산 계획자의 사회경제학적 배경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에 사용한 사회경제학적 특성은 자녀 출산 계획에 대해 응답한 연도 즉 첫 번째 연도에서의 상태이다. 2년 이내 출산 계획자의 평균 연령은 약 32.3세로 나타났다. 세부 집단별로 살펴보면 실현자와 연기자의 평균 연령은 각각 31.3세와 31.8세로 포기자의 33.9세, 미결정자의 32.4세보다 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의 여성들이 자녀를 출산하거나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반면에 포기자나 미결정자는 높은 연령 때문에 자녀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결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11〉 2년 이내 출산 계획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평균 연령

(단위: 건, 세)

구분	샘플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년 이내 출산 계획자	959	32.3	4.5	19	48
실현자	288	31.3	3.9	20	45
연기자	197	31.8	4.0	20	45
포기자	254	33.9	4.8	21	47
미결정자	220	32.4	5.0	19	48

자료: 여성가족패널 2차(2008년)~7차(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lowf.kwdi.re.kr/portal/mainPage.do>, 2020.04.03. 인출. 필자 분석.

계획 당시 자녀가 없었던 여성 중에서 2년 이내 출산을 실현한 여성은 25.8%, 연기한 여성은 26.1%, 포기한 여성은 17.3%, 미결정 중인 여성은 30.8%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없는 여성 중에서 자녀 출산을 유보하고 있는 여성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출산 계획 당시 자녀가 1명

있는 여성 중에서는 자녀 출산을 실현한 여성이 34.9%, 포기한 여성은 29%, 연기한 여성은 16.5%, 미결정 중인 여성은 19.7%로 나타났다. 출산 계획 당시 자녀가 2명 이상이었던 여성 중에서는 포기자가 36.2%로 월등하게 높으며 실현자 25.4%, 연기자 21.1% 그리고 미결정자는 17.3%로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 출산에 대해 유보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며, 2명 이상이면 유보적이기보다는 포기 혹은 출산이라는 더 확실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출산 계획 당시 자녀 수가 자녀 출산 여부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표 3-12〉 2년 이내 출산 계획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계획 당시 자녀 수

(단위: 건, %)

구분		2년 이내 출산 계획자	실현자	연기자	포기자	미결정자
계획 당시 자녀 수	0명	318 (100.0) [33.2]	82 (25.8) [28.5]	83 (26.1) [42.1]	55 (17.3) [21.7]	98 (30.8) [44.6]
	1명	456 (100.0) [47.6]	159 (34.9) [55.2]	75 (16.5) [38.1]	132 (29.0) [52.0]	90 (19.7) [40.9]
	2명 이상	185 (100.0) [19.3]	47 (25.4) [16.3]	39 (21.1) [19.8]	67 (36.2) [26.4]	32 (17.3) [14.6]
	계	959 (100.0) [100.0]	288 (30.0) [100.0]	197 (20.5) [100.0]	254 (26.5) [100.0]	220 (22.9) [100.0]

자료: 여성가족패널 2차(2008년)~7차(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lowf.kwdi.re.kr/portal/mainPage.do>, 2020.04.03. 인출. 필자 분석.

2년 이내 출산 계획자의 학력을 보면 고졸자 포기자의 비중이 32.9%로 대졸 이상 포기자 비중 23.1%보다 높다. 또한, 고졸자 중에서 2년 이내 출산을 실현한 비중은 25.9%로 대졸 이상의 32.2%보다 낮다. 고졸 학력은 대졸 이상 학력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자녀 출산 계획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며, 출산을 실현할 확률 역시 낮은 사실을 말해 준다.

〈표 3-13〉 2년 이내 출산 계획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학력

(단위: 건, %)

구분		2년 이내 출산 계획자	실현자	연기자	포기자	미결정자
학력	고졸 이하	328 (100.0) [34.2]	85 (25.9) [29.5]	60 (18.3) [30.5]	108 (32.9) [42.5]	75 (22.9) [34.1]
	대졸 이상	631 (100.0) [65.8]	203 (32.2) [70.5]	137 (21.7) [69.5]	146 (23.1) [57.5]	145 (23.0) [65.9]
	계	959 (100.0) [100.0]	288 (30.0) [100.0]	197 (20.5) [100.0]	254 (26.5) [100.0]	220 (22.9) [100.0]

자료: 여성가족패널 2차(2008년)~7차(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lowf.kwdi.re.kr/portal/mainPage.do>, 2020.04.03. 인출. 필자 분석.

2년 이내 출산 계획자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비경제활동 여성 중 실현자의 비중이 33.5%로 경제활동 여성 실현자가 차지하는 비중 24.9%보다 높다. 실현자, 연기자, 포기자, 미결정자로 따로 구분해서 보면, 실현자 중 비경제활동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67%로 연기자, 포기자, 미결정자 중 비경제활동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다. 연기자의 경우 경제활동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51.8%로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자녀 출산 계획을 실현한 여성 중에서는 비경제활동 여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자녀 출산을 연기하는 여성 중에는 경제활동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 계획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하겠다.

144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표 3-14〉 2년 이내 출산 계획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경제활동상태

(단위: 건, %)

구분		2년 이내 출산 계획자	실현자	연기자	포기자	미결정자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	382 (100.0) [39.8]	95 (24.9) [33.0]	102 (26.7) [51.8]	97 (25.4) [38.2]	88 (23.0) [40.0]
	비경제활동	577 (100.0) [60.2]	193 (33.5) [67.0]	95 (16.5) [48.2]	157 (27.2) [61.8]	132 (22.9) [60.0]
	계	959 (100.0) [100.0]	288 (30.0) [100.0]	197 (20.5) [100.0]	254 [26.5] [100.0]	220 [22.9] [100.0]

자료: 여성가족패널 2차(2008년)~7차(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lowf.kwdi.re.kr/portal/mainPage.do>, 2020.04.03. 인출. 필자 분석.

2년 이내 출산 계획자를 소득 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득은 출산을 계획하고 있었던 연도의 소득인데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당 연도의 명목 소득에 통계청(2020)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2015년도 실질 소득으로 환산하였다. 소득 변수를 가지고 2,500만 원 이하, 2,500~3,600만 원, 3,600~5,000만 원, 5,000만 원 이상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소득 집단별로 출산 실현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15〉 2년 이내 출산 계획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소득

(단위: 건, %)

구분	2년 이내 출산 계획자	실현자	연기자	포기자	미결정자	
소득	2,500만 원 이하	257 (100.0) [27.1]	89 (34.6) [31.1]	56 (21.8) [28.7]	57 (22.2) [22.8]	55 (21.4) [25.2]
	2,500~ 3,600만 원	259 (100.0) [27.3]	81 (31.3) [28.3]	38 (14.7) [19.5]	83 (32.1) [33.2]	57 (22.0) [26.2]
	3,600~ 5,000만 원	221 (100.0) [23.3]	57 (25.8) [19.9]	59 (26.7) [30.3]	55 (24.9) [22.0]	50 (22.6) [22.9]
	5,000만 원 이상	212 (100.0) [22.3]	59 (27.8) [20.6]	42 (19.8) [21.5]	55 (25.9) [22.0]	56 (26.4) [25.7]
	계	949 (100.0) [100.0]	286 (30.1) [100.0]	195 (20.6) [100.0]	250 (26.3) [100.0]	218 (23.0) [100.0]

주: 1. 분석 대상 표본 중에서 10건이 소득 정보 누락

2. 각 연도의 소득은 2015년 실질 소득

자료: 여성가족패널 2차(2008년)~7차(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lowf.kwdi.re.kr/portal/mainPage.do>, 2020.04.03.인출. 필자 분석.

2. 실증 모형 분석

가. 분석 모형

제3절 기술 분석에서는 2년 이내 출산 실현자, 연기자, 포기자, 미결정자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학적 특징을 기술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다른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학적 요인을 통제하고 특정한 요인이 출산의 실현, 연기, 포기, 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량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실현자는 2년 이내 출산을 계획했던 사람 중에서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사람들이다. 비실현자는 2년 이내 출산을 계획한 사람 중에서 출산

을 실현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비실현자 중에서 연기자는 2년 이후 여전히 자녀 출산 의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고, 포기자는 비실현자 중에서 2년 이후 자녀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들이며, 미결정자는 2년 이후 자녀 출산 의향에 “모르겠음”이라고 응답하였거나 혹은 무응답 여성들이다. 본 분석에서 사용할 종속 변수는 이산형 변수이므로 로짓 모형을 이용하고자 한다. 실현자 모형에서는 실현자와 비실현자를 비교하며, 비실현자 모형에서는 연기자를 그 외 비실현자(포기자와 미결정자), 포기자를 그 외 비실현자(연기자와 미결정자), 미결정자를 그 외 비실현자(연기자와 포기자)와 비교한다.

한편, 로짓 모형에서는 실현자, 연기자, 포기자, 미결정자 각각에 대해 비교하는 것이 어렵고, 비실현자 분석에서도 포기자, 연기자, 미결정자 각각에 대해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 출산 실현, 출산 연기, 출산 포기, 출산 미결정은 모두 차별적인 특성을 가진 결정이므로 각각을 비교함으로써 유용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로짓 모형 이외에도 집단별 비교가 가능한 다항 로짓 모형을 이용하기로 한다. 다항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2년 이내 출산 계획자 중에서는 실현자를 기준으로 연기자, 포기자, 미결정자를 비교하고, 2년 이내 출산 비실현자 중에서는 포기자를 기준으로 연기자와 미결정자를 비교하고자 한다. 다항 로짓 분석에서 실현자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실현자와 비교하여 연기자, 포기자, 미결정자에 어떠한 차별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또한, 비실현자에 대한 다항 로짓 분석에서 포기자를 기준으로 한 것은 연기자와 미결정자는 출산에 대한 의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는 판단하에 출산을 포기해 버린 포기자와 비교하여 연기자 그리고 미결정자에 어떠한 차별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한편, 본 분석은 두 개의 연도로 짝을 이룬 자료들을 결합한 패널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수행한다. 앞서 기술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년 이내 출산 계획이 있는 사람이 두 번 이상 표본에 들어 온 경우는 24.5%이다. 2년 이내 출산 계획을 실현하지 못한 사람, 즉 비실현자가 두 번 이상 표본에 들어온 경우도 역시 20%이다. 하지만 2년 이내 출산 의향을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출산을 중복적으로 실현하지 못한 여성들에게는 특이한 특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산 의향이 매우 강한 여성들은 연도별로 연속적으로 출산 의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출산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계획한 출산을 중복적으로 실현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통제하지 않고 모형을 추정하는 경우 독립 변수와 고유한 특성 간의 상관관계가 발생하여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 분석에서 표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확률 효과 모형을 이용하기로 한다¹⁶⁾.

본 분석에서 모든 독립 변수는 출산을 계획하고 있었던 당시의 상태로 보았다. 따라서 2년 이내 출산 계획이 한 번만 있었던 사람들은 독립 변수가 시간 불변 변수이며, 두 번 이상 표본에 들어온 사람만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독립 변수를 갖게 된다. 표본의 특성상 두 번 이상 표본에 들어온 사람의 수가 적고, 두 번 이상 표본에 들어온 사람은 연도별로 연속적으

16) 고정 효과 모형은 오차항 u_i 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반면에, 확률 효과 모형은 오차항 u_i 가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고정 효과 로짓 모형은 주어진 기간 동안 각 패널 개체의 값이 모두 0이거나 1인 패널 개체들을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한다. 본 분석에서 2년 이내 출산 계획자 중 종속 변수의 값이 지속해서 0을 가진 사람 즉 비실현자는 전체 표본의 70%를 차지한다. 따라서 고정 효과 로짓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70%의 표본을 제외하고 모형을 추정하게 된다. 따라서 70%의 표본이 제외된 상태에서 독립 변수를 모두 모형에 포함하게 되는 경우 충분한 자유도를 갖지 못하게 되어 모형 추정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분석에서는 고정 효과 모형이 아닌 확률 효과 모형을 사용하기로 한다.

로 들어온 경우가 많다. 연속적으로 표본에 들어온 경우에는 경제활동 상태, 학력, 소득, 자녀 수 등에 큰 차이가 있지 않다. 따라서 중복적으로 표본에 포함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독립 변수의 변이는 크지 않아 보임으로 로짓 모형의 결과와 확률 효과 로짓 모형의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인식, 최필선(2009)에 따라 본 연구의 로짓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y_{it} = \begin{cases} 1, & y_{it}^* > 0 \text{ 인 경우} \\ 0, & y_{it}^* \leq 0 \text{ 인 경우} \end{cases}$$

y_{it}^* 는 관찰되지 않는 실제 종속 변수이고, y_{it} 는 y_{it}^* 의 관찰값이다. y_{it}^*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선형회귀모형을 가정한다.

$$y_{it}^* = \alpha + \beta x_{it} + \epsilon_{it}$$

$y_{it} = 1$ 일 때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begin{aligned} \Pr(y_{it} = 1) &= \Pr(y_{it}^* > 0) \\ &= \Pr(\epsilon_{it} > -\alpha - \beta x_{it}) \\ &= F(\alpha + \beta x_{it}) \end{aligned}$$

$F(\cdot)$ 는 0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확률 분포의 누적 분포함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분포를 사용한다. 본 연구가 사용하는 자료는 패널 데이터이기 때문에 종속변수 y_{it}^* 에 다음과 같이 패널 개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오차항 u_i 를 포함한 모형으로 한다. 확률 효과 모형에서는 상수항 ($\alpha + u_i$)가 $N(\alpha, \sigma_u^2)$ 의 확률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로 가정한다.

$$y_{it}^* = \alpha + \beta x_{it} + u_i + e_{it}$$

한편, 2년 이내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출산 실현, 출산 연기, 출산 포기, 출산 미결정의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2년 이내 출산을 실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출산 연기, 출산 포기, 출산 미결정의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할 수 있다. 개인들이 직면한 이러한 선택지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른 모든 선택에 비해 특정한 선택이 주는 만족도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것을 잠재 변수로 간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된 종속 변수가 관찰된 값이다.

$$U_j = V_j + \varepsilon_j \quad (j = 1, 2, 3, 4)$$

여기서 V_j 는 관찰된 설명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만족도의 크기로서 설명 변수의 선형 함수 형태로 표현된다. 여러 범주 중에서 j 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른 선택에 비해 주는 만족도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begin{aligned} \Pr(y = j) &= \Pr(U_j > U_k, \text{ all } k \neq j) \\ &= \Pr(U_k - U_j < 0, \text{ all } k \neq j) \\ &= \Pr(\varepsilon_k - \varepsilon_j < V_j - V_k, \text{ all } k \neq j) \end{aligned}$$

선택의 범주가 네 가지이고 첫 번째 선택이 1번인 경우 위의 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begin{aligned} \Pr(y = 1) &= \Pr(\varepsilon_2 - \varepsilon_1 < V_1 - V_2, \varepsilon_3 - \varepsilon_1 < V_1 - V_3, \varepsilon_4 - \varepsilon_1 < V_1 - V_4) \\ &= \int_{-\infty}^{v_1 - v_2} \int_{-\infty}^{v_1 - v_3} \int_{-\infty}^{v_1 - v_4} f(\varepsilon_2 - \varepsilon_1, \varepsilon_3 - \varepsilon_1, \varepsilon_4 - \varepsilon_1) d(\varepsilon_2 - \varepsilon_1) d(\varepsilon_3 - \varepsilon_1) d(\varepsilon_4 - \varepsilon_1) \end{aligned}$$

오차항의 분포에 대해 제1종 극단값 분포를 가정하면 확률밀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f(\varepsilon_j) = \exp(-\varepsilon_j)\exp(-\exp(\varepsilon_j))$$

위 분포 하에서 오차항이 서로 독립이면 이중적분은 다음과 같이 간단한 형태로 표현된다.

$$\Pr(y = 1) = \frac{e^{V_1}}{e^{V_1} + e^{V_2} + e^{V_3} + e^{V_4}}$$

확정적 부분을 설명 변수의 선형함수로 표현하면 $V_{i1}=x_i\beta_1$, $V_{i2}=x_i\beta_2$, $V_{i3}=x_i\beta_3$, $V_{i4}=x_i\beta_4$ 가 된다. 따라서 위의 수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Pr(y_i = 1) = \frac{e^{x_i\beta_1}}{e^{x_i\beta_1} + e^{x_i\beta_2} + e^{x_i\beta_3} + e^{x_i\beta_4}}$$

$$\Pr(y_i = 2) = \frac{e^{x_i\beta_2}}{e^{x_i\beta_1} + e^{x_i\beta_2} + e^{x_i\beta_3} + e^{x_i\beta_4}}$$

$$\Pr(y_i = 3) = \frac{e^{x_i\beta_3}}{e^{x_i\beta_1} + e^{x_i\beta_2} + e^{x_i\beta_3} + e^{x_i\beta_4}}$$

$$\Pr(y_i = 4) = \frac{e^{x_i\beta_4}}{e^{x_i\beta_1} + e^{x_i\beta_2} + e^{x_i\beta_3} + e^{x_i\beta_4}}$$

기준 변수를 포기자 ($j=1$) 로 정하면 승산은 다음과 같다.

$$\frac{\Pr(y_i = 2)}{\Pr(y_i = 1)} = \frac{e^{x_i\beta_2}}{e^{x_i\beta_1}} = \exp(x_i(\beta_2 - \beta_1))$$

$$\frac{\Pr(y_i = 3)}{\Pr(y_i = 1)} = \frac{e^{x_i\beta_3}}{e^{x_i\beta_1}} = \exp(x_i(\beta_3 - \beta_1))$$

$$\frac{\Pr(y_i = 4)}{\Pr(y_i = 1)} = \frac{e^{x_i\beta_4}}{e^{x_i\beta_1}} = \exp(x_i(\beta_4 - \beta_1))$$

데이터가 패널 구조이면 모형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할 수 있다.

$$U_{itj} = x_{it}\beta_j + u_{ij} + e_{itj}$$

U_{ij} 는 개인-선택 특성 요인이고, e_{itj} 는 개인-시점-선택 특성 요인이다. e_{itj} 는 서로 독립된 제1종 극단값 분포를 가정한다. 각각의 로그 승산은 다음과 같다.

$$\ln\left(\frac{\Pr(y_{it} = 2)}{\Pr(y_{it} = 1)}\right) | (x_{it}, u_{ij}) = x\beta_2 + u_{i2}$$

$$\ln\left(\frac{\Pr(y_{it} = 3)}{\Pr(y_{it} = 1)}\right) | (x_{it}, u_{ij}) = x\beta_3 + u_{i3}$$

$$\ln\left(\frac{\Pr(y_{it} = 4)}{\Pr(y_{it} = 1)}\right) | (x_{it}, u_{ij}) = x\beta_4 + u_{i4}$$

확률 효과 다항 로짓 모형에서는 $u_i = [u_{i1}, u_{i2}, u_{i3}, u_{i4}]$ 에 대해 다변량 정규 분포를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여성 연령, 자녀 수 등 인구학적 변수와 여성의 학력, 경제활동 여부, 가구 소득(지난 1년간 가구 총소득) 등 사회경제학적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독립변수는 자녀 출산을 계획하였던 당시의 상태로 두 쌍의 연도 중에서 첫 번째 조사 연도에서 보고된 내용이다. 또한, 각 연도의 더미 변수를 포함하여 출산을 계획했을 당시의 연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통제하고자 한다.

〈표 3-16〉 분석에 이용한 독립변수

변수명	내용
연령	계획 당시 연령
계획 당시 자녀 수	계획 당시 자녀 수 0명(기준 변수) 계획 당시 자녀 수 1명 계획 당시 자녀 수 2명 이상
경제활동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기준 변수)
학력	대졸 이상 고졸 이하(기준 변수)
가구 소득	0~2,500만 원(기준 변수) 2,501만 원~3,600만 원 3,600만 원~5,000만 원 5,000만 원 이상
기간	2008~2010년(기준 변수) 2010~2012년 2012~2014년 2014~2016년 2016~2018년

자료: 여성가족패널 2차(2008년)~7차(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lowf.kwidi.re.kr/portal/mainPage.do>, 2020.04.03. 인출.

나. 로짓 모형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볼 때 로짓 모형과 로짓 확률 효과 모형의 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술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복적으로 표본에 포함된 응답자들이 출산 의향을 연속적인 연도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일정한 연도의 범위 내에서 독립변수는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같은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독립변수의 변이가 크지 않았으므로 로짓 모형의 추정 결과는 확률 효과 로짓 모형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로짓 모형의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확률 효과 로짓 모형의 결과는 [부록 2]에 수록하였다.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7〉의 로짓 모형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2년 이내의 출산 계획을 실현할 가능성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출산 계획 시 자녀가 1명 있었던 여성은 자녀가 없었던 여성보다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는데,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39% 높았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 보다 계획했던 출산을 실현할 확률이 더 낮았는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과 비교하여 약 34% 정도 낮았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과 비교하여 계획했던 출산을 실현할 확률이 더 높았는데,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보다 51% 정도 높았다. 연평균 가구 소득이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 해당하는 여성이 2,500만 원 이하 여성보다 출산을 실현할 확률이 더 낮았다. 연평균 가구 소득이 3,600~5,000만 원 가구의 여성이 계획했던 출산을 실현할 승산은 2,500만 원 이하인 여성 보다 약 31% 정도 낮았다.

〈표 3-17〉 로짓 모형 추정 결과: 실현자

변수	b	s.e	exp(b)
상수항	1.418	0.581	4.130
연령	-0.075***	0.018	0.928
자녀 수			
0명	-	-	-
1명	0.329*	0.171	1.390
2명 이상	-0.126	0.227	0.881
경제활동			
하고 있지 않음	-	-	-
하고 있음	-0.422**	0.167	0.656
학력			
고졸 이하	-	-	-
대졸 이상	0.413**	0.165	1.511
가구 소득			
0~2,500만 원	-	-	-
2,501만 원~3,600만 원	-0.123	0.196	0.884
3,600만 원~5,000만 원	-0.377*	0.221	0.686
5,000만 원 이상	-0.158	0.238	0.854
기간			
2008~2010년	-	-	-
2010~2012년	-0.051	0.210	0.950
2012~2014년	0.185	0.223	1.204
2014~2016년	0.296	0.250	1.345
2016~2018년	-0.124	0.237	0.883

주 * : $p < 0.1$, ** : $p < 0.05$, *** : $p < 0.01$

자료: 여성가족패널 2차(2008년)~7차(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lowf.kwdi.re.kr/portal/mainPage.do>, 2020.04.03. 인출. 필자 분석.

연기자 모형의 분석 결과(〈표 3-18〉)는 다음과 같다. 출산 계획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출산 계획을 포기하거나 미결정하는 것보다는 연기하는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계획을 실현하지 못한 여성 중 자녀가 있는 여성이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 포기하거나

미결정하기보다는 연기자가 될 확률이 낮았다. 자녀가 있는 여성이 출산을 연기할 승산은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약 38~42% 정도 낮았다. 출산 계획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포기 혹은 미결정보다는 출산을 연기하는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출산을 연기할 승산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 보다 약 64% 높았다.

출산 계획을 실현하지 못한 여성 중에서 연평균 가구 소득이 2,501만원~3,6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여성은 연평균 가구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의 여성보다 출산을 연기하기보다는 포기 혹은 미결정할 가능성이 더 컸다. 연평균 가구 소득이 2,501~3,600만원인 여성이 출산을 연기할 승산은 2,500만원 이하 여성 보다 약 44% 낮았다. 2016년에 출산 계획을 세웠던 여성이 출산 계획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 2008년에 출산 계획을 세웠던 여성보다 출산 포기나 미결정이 아니라 출산을 연기할 확률이 더 낮았다. 2016년도에 출산 계획을 세운 여성이 출산을 연기할 승산은 2008년도에 출산 계획을 세운 여성들 보다 약 57% 정도 더 낮았다(〈표 3-18〉).

포기자 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3-19〉와 같다. 출산 계획을 실현하지 못한 여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출산을 연기하거나 미결정하기보다는 포기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계획을 실현하지 못한 여성 중에서 출산 계획 당시 자녀가 있었던 여성은 연기자나 미결정자보다는 포기자가 될 가능성이 더 컸다. 자녀가 있었던 여성이 자녀가 없었던 여성보다 출산을 포기할 승산은 3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계획을 실현하지 못한 여성 중에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은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에 비해 출산 연기나 출산 미결정보다 출산을 포기할 확률이 더 낮았다.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이 출산을 포기할 승산

은 고졸 이하의 여성들 보다 약 30% 정도 낮았다. 출산 계획을 실현하지 못한 여성 중에서 연평균 가구 소득이 2,501만 원~3,600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여성은 연평균 가구 소득이 2,500만 원 이하의 여성보다 출산을 연기 혹은 미결정하기보다 포기할 가능성이 더 컸다. 연평균 가구 소득이 2,501~3,600만 원인 여성이 출산을 포기할 승산은 2,500만원 이하 여성 보다 약 68% 높았다.

미결정자 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3-20>과 같다. 출산 계획 시 자녀가 있었던 여성은 자녀가 없었던 여성과 비교하여 출산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기보다 출산을 미결정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여성이 자녀가 없는 여성과 비교하여 출산 미결정을 할 승산이 약 45~58% 정도 낮았다. 이는 출산 계획 당시 자녀가 없는 여성이 자녀가 있는 여성보다 출산에 대해 더 미결정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은 비경제활동 여성과 비교하여 출산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기보다 미결정자가 될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보다 미결정자가 될 승산이 약 32%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 계획을 실현하지 못한 여성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비경제활동 여성에 비해 미결정이라는 유보적인 결정보다는 더 확실한 연기 혹은 포기를 선택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말한다.

〈표 3-18〉 로짓 모형 추정 결과: 연기자

변수	b	s.e	exp(b)
상수항	0.1634	0.698	5.124
연령	-0.068***	0.020	0.934
자녀 수			
0명	-		
1명	-0.546***	0.207	0.580
2명 이상	-0.472*	0.255	0.624
경제활동			
하고 있지 않음	-		
하고 있음	0.496**	0.197	1.642
학력			
고졸 이하	-		
대졸 이상	0.241	0.199	1.273
가구 소득			
0~2,500만 원	-		
2,501만 원~3,600만 원	-0.574**	0.256	0.563
3,600만 원~5,000만 원	0.146	0.253	1.157
5,000만 원 이상	-0.297	0.289	0.743
기간			
2008~2010년	-		
2010~2012년	-0.100	0.251	0.905
2012~2014년	0.003	0.274	1.003
2014~2016년	0.010	0.310	1.010
2016~2018년	-0.840***	0.299	0.432

주 * : $p < 0.1$, ** : $p < 0.05$, *** : $p < 0.01$

자료: 여성가족패널 2차(2008년)~7차(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lowf.kwdi.re.kr/portal/mainPage.do>, 2020.04.03. 인출. 필자 분석.

〈표 3-19〉 로짓 모형 추정 결과: 포기자

변수	b	s.e	exp(b)
상수항	-4.390	0.699	0.012
연령	0.093***	0.019	1.097
자녀 수			
0명	-	-	-
1명	1.212***	0.216	3.361
2명 이상	1.344***	0.256	3.836
경제활동			
하고 있지 않음	-	-	-
하고 있음	-0.082	0.191	0.921
학력			
고졸 이하	-	-	-
대졸 이상	-0.355*	0.185	0.701
가구 소득			
0~2,500만 원	-	-	-
2,501만 원~3,600만 원	0.517**	0.237	1.677
3,600만 원~5,000만 원	-0.007	0.260	0.993
5,000만 원 이상	0.097	0.284	1.101
기간			
2008~2010년	-	-	-
2010~2012년	-0.199	0.246	0.820
2012~2014년	0.124	0.267	1.132
2014~2016년	-0.073	0.312	0.930
2016~2018년	0.357	0.273	1.429

주 * : $p < 0.1$, ** : $p < 0.05$, *** : $p < 0.01$

자료: 여성가족패널 2차(2008년)~7차(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lowf.kwdi.re.kr/portal/mainPage.do>, 2020.04.03. 인출. 필자 분석.

〈표 3-20〉 로짓 모형 추정 결과: 미결정자

변수	b	s.e	exp(b)
상수항	0.672	0.652	1.959
연령	-0.031	0.019	0.970
자녀 수			
0명	-	-	-
1명	-0.591***	0.194	0.554
2명 이상	-0.855***	0.255	0.425
경제활동			
하고 있지 않음	-	-	-
하고 있음	-0.379**	0.193	0.684
학력			
고졸 이하	-	-	-
대졸 이상	0.134	0.187	1.143
가구 소득			
0~2,500만 원	-	-	-
2,501만 원~3,600만 원	-0.052	0.239	0.950
3,600만 원~5,000만 원	-0.189	0.256	0.828
5,000만 원 이상	0.146	0.278	1.157
기간			
2008~2010년	-	-	-
2010~2012년	0.277	0.244	1.319
2012~2014년	-0.098	0.277	0.907
2014~2016년	0.059	0.311	1.060
2016~2018년	0.363	0.267	1.438

주 * : $p < 0.1$, ** : $p < 0.05$, *** : $p < 0.01$

자료: 여성가족패널 2차(2008년)~7차(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lowf.kwdi.re.kr/portal/mainPage.do>, 2020.04.03. 인출. 필자 분석.

다. 다항 로짓 모형 분석 결과

2년 이내 출산 계획자 중 실현자와 비교하여 각 연기자, 포기자, 미결정자에게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시사점이 있다. 또한, 2년 이내 출산 계획을 실현하지 못한 사람 중 출산을 포기한 사람들과 비교하여 연기자와 미결정자에게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도 역시 정책적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절에서는 2년 이내 출산 계획자와 2년 이내 출산 비실현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다항 로짓 분석 결과를 기술한다. 2년 이내 출산 계획자 분석에서는 출산 실현자를 기준으로 연기자, 포기자, 미결정자를 각각 비교 분석하였다. 2년 이내 출산 비실현자 분석에서는 포기자를 기준으로 연기자, 미결정자를 각각 비교 분석하였다. 로짓 모형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다항 로짓 모형 분석 결과에서도 확률 효과 포함 여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다항 로짓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기술하고, 확률 효과 다항 로짓 모형 분석 결과는 [부록 2]에 수록하였다.

다항 로짓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로짓 모형 추정 결과와 방향성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이내 출산 계획자에 대한 다항 로짓 모형 분석 결과, 나이가 많아질수록 실현자 보다는 포기자 혹은 미결정자가 될 확률이 높았다. 이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불임 등 고령화에 따른 생물학적 기능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계획한 출산을 실현하기보다는 포기하거나 유보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나이는 출산 연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실현자보다 연기자가 될 확률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이유는, 출산 연기는 일정한 연령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나이가 많아져도 지속해서 출산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자녀가 있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과 비교하여 실현자보다 연기자가 될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1명 있는 여성이 자녀가 없는 여성과 비교하여 실현자보다 연기자가 될 승산은 약 50%가량 낮았다. 자녀가 있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과 비교하여 실현자보다는 포기자가 될 확률이 더 높았으며, 실현자보다 포기자가 될 승산은 약 1.6배에서 2.7배가량 높았다. 또한, 자녀가 있는 여성은 없는 여성보다 출산을 실현하기보다 미결정 상태가 될 가능성이 더 낮았다. 자녀가 있는 여성이 미결정자가 될 승산은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약 35~48% 정도 낮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녀가 있으면 연기나 미결정 등 불확실한 선택보다는 포기 혹은 출산 실현 등 더 확실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여성은 자녀를 양육한 경험에 따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어떤 어려움과 행복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자녀가 없는 여성과 비교하여 더 확실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실현자보다는 연기자가 될 확률이 더 높았고, 연기자가 될 승산은 약 2배가량 높았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은 실현자보다는 포기자가 될 확률이 더 높아서, 포기자가 될 승산이 약 45% 정도 높았다.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은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과 비교하여 출산을 실현하기보다 포기 혹은 미결정할 확률이 더 낮아서, 출산을 포기 혹은 미결정할 승산은 고졸 이하 여성 보다 약 30~45%가량 낮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들이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들보다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저학력 등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여성이 자녀 출산 실현에 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한편, 연평균 가구 소득이 2,500만 원 이하의 여성들보다 3,600~5,000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여성이 출산 실현보다는 연기할 확률이 더 높아서, 출산을 연기할 승산은 약 60% 정도 높았다. 또한, 연평균 가구 소득이 2,501만 원~3,600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여성이 연평균 가구 소득 2,500만 원 이하의 여성보다 출산을 포기할 확률이 더 높아서, 출산을 포기할 승산은 약 57% 더 높았다.

〈표 3-21〉 2년 이내 출산 계획자에 대한 다항 로짓 모형 분석 결과

변수	연기자 vs 실현자			포기자 vs 실현자			미결정자 vs 실현자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상수항	-0.904	0.760	0.405	-4.970	0.759	0.007	-1.666	0.724	0.189
연령	0.026	0.023	1.026	0.135***	0.022	1.145	0.055**	0.022	1.057
자녀 수									
0명	-	-	-	-	-	-	-	-	-
1명	-0.686**	0.220	0.504	0.477***	0.229	1.611	-0.661***	0.210	0.516
2명 이상	-0.129	0.285	0.000	0.980***	0.284	2.664	-0.429*	0.290	0.651
경제활동									
하고 있지 않음	-	-	-	-	-	-	-	-	-
하고 있음	0.731***	0.212	2.077	0.370*	0.208	1.448	0.183	0.210	1.201
합력									
고졸 이하	-	-	-	-	-	-	-	-	-
대졸 이상	-0.242	0.218	0.785	-0.589***	0.199	0.555	-0.352*	0.207	0.703
가구소득									
0~2,500만 원	-	-	-	-	-	-	-	-	-
2,501만 원~3,600만 원	-0.301	0.270	0.740	0.450*	0.244	1.568	0.094	0.254	1.099
3,600만 원~5,000만 원	0.468*	0.275	1.597	0.360	0.282	1.433	0.261	0.281	1.298
5,000만 원 이상	-0.045	0.309	0.956	0.238	0.302	1.269	0.238	0.299	1.269
기간									
2008~2010년	-	-	-	-	-	-	-	-	-
2010~2012년	-0.008	0.270	0.992	-0.09	0.263	0.914	0.242	0.265	1.274
2012~2014년	-0.183	0.289	0.833	-0.149	0.277	0.862	-0.213	0.294	0.808
2014~2016년	-0.260	0.321	0.771	-0.370	0.321	0.691	-0.255	0.326	0.775
2016~2018년	-0.442	0.322	0.643	0.295	0.290	1.343	0.355	0.292	1.426

주 * : p<0.1, ** : p<0.05, *** : p<0.01

자료: 여성가족매널 2차(2008년)~7차(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lowf.kwdi.re.kr/portal/mainPage.do>, 2020.04.03. 인출, 필자 분석.

2년 이내에 출산을 실현하지 못한 연기자, 포기자, 미결정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다항 로짓 분석 결과를 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출산을 연기 혹은 미결정하기보다는 포기하는 확률이 더 높았다.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출산 계획을 포기하기보다는 연기나 미결정 등 출산에 대한 의향을 남겨 놓을 여지가 더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반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 연기나 미결정보다는 포기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말해 준다.

자녀가 있는 여성은 출산을 포기하기보다 연기 혹은 미결정할 확률이 낮았다. 자녀가 있는 여성이 출산을 연기하거나 미결정할 승산은 자녀가 없는 여성 보다 약 70~77% 정도 낮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자녀가 있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과 비교하여 출산 연기나 미결정 등 출산에 대한 의향을 남겨두기보다 출산을 포기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은 비경제활동 여성보다 출산을 포기하기보다는 연기할 확률이 더 높았고, 출산을 연기할 승산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보다 약 48% 정도 높았다.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은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보다 출산 포기보다는 연기할 확률이 더 높았으며, 출산을 연기할 승산이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들 보다 약 48% 정도 높았다.

연평균 가구 소득 수준이 2,500만 원 이하의 여성에 비하여 2,501~3,600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기보다는 연기할 확률이 더 낮았으며, 출산을 연기할 승산은 약 53% 정도 낮았다. 이는 소득 수준이 중하위 층에 속하는 여성이 저소득층 여성보다 출산을 연기하기보다 포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한다.

2016년도에 출산을 계획했던 여성들이 2008년도에 계획했던 여성들에 비해 출산을 포기하기보다는 연기할 확률이 더 낮았으며, 출산을 연기할 승산은 약 58%가량 낮았다.

〈표 3-22〉 비실현자 다항 로짓 모형 추정 결과

변수	연기자 vs 포기자			미결정자 vs 포기자		
	b	s.e	exp(b)	b	s.e	exp(b)
상수항	4.136	0.828	62.6	3.355	0.781	28.6
연령	-0.109***	0.023	0.897	-0.080***	0.022	0.923
자녀 수						
0명	-	-	-	-	-	-
1명	-1.224***	0.253	0.294	-1.210***	0.238	0.298
2명 이상	-1.240***	0.299	0.289	-1.469***	0.297	0.230
경제활동						
하고 있지 않음	-	-	-	-	-	-
하고 있음	0.394*	0.226	1.483	-0.199	0.221	0.820
학력						
고졸 이하	-	-	-	-	-	-
대졸 이상	0.395*	0.224	1.484	0.314	0.210	1.369
가구 소득						
0~2,500만 원	-	-	-	-	-	-
2,501만 원~3,600만 원	-0.741**	0.288	0.477	-0.345	0.270	0.708
3,600만 원~5,000만 원	0.111	0.297	1.117	-0.100	0.301	0.905
5,000만 원 이상	-0.253	0.334	0.776	0.046	0.323	1.047
기간						
2008~2010년	-	-	-	-	-	-
2010~2012년	0.068	0.289	1.070	0.319	0.281	1.376
2012~2014년	-0.081	0.311	0.922	-0.156	0.313	0.856
2014~2016년	0.058	0.359	1.060	0.088	0.360	1.092
2016~2018년	-0.857**	0.339	0.424	-0.015	0.305	0.985

주 *: p<0.1, **: p<0.05, ***: p<0.01

자료: 여성가족패널 2차(2008년)~7차(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lowfi.kwidi.re.kr/portal/mainPage.do>, 2020.04.03. 인출. 필자 분석.

제4절 소결

본 절에서는 2년 이내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들이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하였는지, 그리고 출산하지 못한 경우 출산을 연기하였는지, 포기하였는지 혹은 미결정인 상태로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러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학적 요인을 파악하였다. 로짓 모형과 다항 로짓 모형 결과를 종합하여 주요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로짓 모형 추정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실현자 혹은 연기자가 될 확률은 낮아지고 포기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항 로짓 분석 결과에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을 실현하기보다 실현하지 못할 확률이 더 높았으며, 출산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 연기하기보다 포기하는 확률이 더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을 연기하는 경향은 낮아지고 점차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강해져 결과적으로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출산 계획 당시 자녀가 1명 있었던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실현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큰 반면에 연기자 혹은 미결정자가 될 가능성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항 로짓 모형 추정 결과에서도 자녀가 있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과 비교하여 출산을 실현하기보다 포기할 확률이 더 높고, 연기하거나 미결정하기보다는 실현하는 확률이 더 높았다. 이는 자녀가 있는 여성이 없는 여성보다 출산 실현 혹은 출산 포기와 같은 더 확실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가 없는 여성이 자녀가 있는 여성보다 출산 연기나 출산 미결정과 같은 유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가 있는 여성은 자녀를 양육한 경험에

따라 자녀 때문에 생기는 혜택이나 불이익을 잘 알므로 출산이나 출산 포기와의 같은 더 확실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녀가 없는 여성은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없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여성보다 더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로짓 모형 분석 결과,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비경제활동 여성보다 실현자가 될 가능성은 작지만 연기자가 될 가능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항 로짓 분석 결과에서도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비경제활동 여성보다 출산을 실현하기보다는 연기할 확률이 더 높았지만, 출산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 출산을 포기하기보다는 연기할 확률이 더 높았다.

넷째,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이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에 비해 실현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크고 포기자가 될 가능성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항 로짓 분석 결과에서도 대졸 여성이 고졸 여성에 비해 출산 포기나 미결정보다는 출산을 실현할 확률이 더 높았고, 출산을 포기하기보다 연기할 확률이 더 높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고학력 여성의 출산율이 저학력 여성의 출산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신윤정, 이명진, 박신아, 2019). 본 연구 결과는 출산율 수준 자체와는 별개로 본인이 계획한 출산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대졸 여성이 고졸 여성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들이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보다 계획한 출산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원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저학력 여성 등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여성들이 희망하는 출산을 실현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섯째, 로짓 모형 추정 결과와 다항 로짓 모형 추정 결과 모두 중산층

혹은 중하층 집단이 저소득층보다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더 작았으며 출산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기보다는 포기할 가능성이 더 컸다. 이는 소득과 출산 간에 U자형 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섯째, 최근에 와서 출산을 계획한 여성이 과거에 출산을 계획한 여성에 비해 출산을 연기하기보다는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널자료의 특성상 연도가 지남에 따라 분석 표본에 포함된 여성의 연령이 증가하여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하지만 2008~2010년 표본에 포함된 여성의 평균 연령은 31.1세인데 반해, 2010~2012년, 2012~2014년, 2014~2016년, 2016~2018년에 포함된 여성의 평균 연령은 32.3세, 33.0세, 33.1세, 33.2세로 나타났다. 2012년도 조사 이후는 여성의 평균 연령이 약 33세 정도에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유독 2016~2018년에는 2008~2010년도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효과가 나타난 것은 표본의 평균 연령 증가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 최근에 와서 출산 연기보다 출산 포기가 더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개인이 2년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을 한정하고 계획한 출산의 실현 여부와 실현 유형에 미치는 다양한 인구학적 요인 및 사회경제학적 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같은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생애 주기 관점에서 출산 계획의 실현을 분석한 우해봉, 장인수(2019)의 연구는 출산 계획의 실현에 연령과 자녀 수 등 인구학적 변수 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학력과 취업, 소득 수준 등 사회경제적 변수를 찾지 못했지만, 2년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한 출산 계획의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출산

계획의 실현을 생애 주기 관점에서 볼 때와 구체적으로 2년 이내 출산 계획의 실현 관점에서 볼 때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즉, 생애 주기 관점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2년 이내 구체적으로 세운 출산 계획의 실현 여부에는 인구학적 요인 이외에도 사회경제학적 요인이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사회경제학적 배경이 취약한 집단이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집단보다 구체적인 출산 계획을 실현함에 있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 연구 결과는 취약한 집단을 더 많이 지원하는 출산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성의 출산 계획이 생애 주기에 걸쳐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유형을 군집화하여 분석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희망하는 출산의 실현”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므로, 여성의 출산 의향 형성과 실현을 함께 분석할 수 있는 패널 자료의 구축이 시급하다. 실제로 앞서 지적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GGS 조사는 출산 의향의 형성과 실현을 함께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 문항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변화하는 국내 상황과 외국의 동향을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출산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구축된 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연구의 발전은 물론 출산율 제고에 유용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4장

출산 의향의 예측 타당성

제1절 선행 연구
제2절 분석 개요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 4 장 출산 의향의 예측 타당성

본 장은 본 연구의 마지막 분석 부분으로 출산 의향이 실제 출산율을 예측하는 데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1명 이하를 밑도는 수준이어서 학계와 정책 입안자들은 앞으로 출산율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출산 의향이 실제 출산율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현재 가임기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출산 의향 수준을 바탕으로 미래 출산율의 전개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1974~2018년 기간에 구축된 출산력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고, 이상 자녀 수 및 기대 자녀 수와 합계 출산율 간의 차이가 갖는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학적 함의를 Bongaarts(2001) 모형을 토대로 논의한다. 외국에서는 출산 의향에 바탕을 둔 출산율을 장래인구추계에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출산 의향에 바탕을 두고 미래 출산율을 예측하는 접근 방법은 시도해 본 적이 없다. 본 장에서는 외국 선행 연구가 출산 의향을 기초로 하여 미래 출산율을 추계하는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본다.

본 장의 분석 결과를 통해 21세기의 변화된 출산 환경에서 출산 의향이 갖는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학적 의미를 모색하고 출산 의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여 정책적으로 중요한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1절 선행 연구

1. 출산 의향의 예측 타당성 연구

적어도 1990년대까지는, 인구 변천을 경험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출산 의향/의도 자료는 자녀에 대한 수요측정 지표로서, 그리고 자녀의 공급능력을 제어하는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에서 사용되어왔다(Easterlin & Crimmins, 1985). 한편, 인구 변천이 마무리된 1990년대 이후 유럽 및 북미의 선진국과 동아시아 일부의 저출산 국가에서는 출산 의향/의도 자료로 출산율을 추정하고 장래인구를 추계하는 용도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이후, Bongaarts (2001)를 위시한 연구자들은 출산의 퀀텀(quantum)과 템포(tempo)의 개념을 도입하여, 희망하는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간의 차이의 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이 사용한 출산 의향/의도 자료는 실제 출산율을 예측하는 데 일정 정도 타당성이 있으며 미래 출산율을 추계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 이들 주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래인구추계(demographic projection)는 과거 인구의 추이를 바탕으로 장래인구의 추이를 추정하는 것이다. 장래인구추계는 센서스, 출생/사망과 혼인/이혼 등 인구동태 통계, 출산력 조사 등의 표본조사를 이용하여 과거의 인구를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인구변동 가정을 설정하여 미래의 인구를 추계하여 예측하는 것으로, 엄격히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수리적/통계적 인구변동 가정을 설정하여 미래의 인구를 “투영”(projection)하는 것이다. 장래인구추계에서 출생, 사망, 이동 등 인구변동 요인의 가정 설정에는 코호트 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코호트 지표가 특정의 역년(曆年, calendar year)에 관찰된 기간 지표보다 더욱 안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암묵적 가정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코호트들의 연령별 출산율은 다시 추계시점에 대한 연령별 출산율로 재배열되어야 하지만, 코호트 요인법은 코호트별 합계 출산율이나 연령별 출산율의 추정 또는 추계에서 수학적 또는 통계적 모델을 적용하기가 쉽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코호트별 출산율 예측은 인구동태와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의 출산 경향에 바탕을 두고 외삽연장(extrapolation)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거나, “희망 자녀 수” (desired family size), “기대 자녀 수(birth expectations)”와 같은 출산 선호(fertility preference)에 대한 개별응답을 집계하여 장래인구추계의 가정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출산을 하는 여성들에게 향후 출산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질문하거나, 전문가가 미래 출산율 경향에 대해 개인적으로 예측한 시나리오를 근거자료로 이용하여 출산율을 예측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de Beer, 1992; 2000; Lutz, Sanderson, & Scherbov, 1998).

출산의 의도나 의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에는 이상적인 자녀 수(ideal number of children), 희망하는 자녀 수(desired number of children)와 추가로 계획하는 자녀 수(additional number of planned children)가 있고, 자녀의 수와 성별 구성에 대한 선호를 척도화하고 출산 행동을 설명하는 측정방법론을 도입하려는 노력도 있었다(Coombs et al., 1975). 개발도상국에서 성행했던 출산력 연구는, 특히 1970년대 이후 세계출산력 조사(World Fertility Survey)와 1980년 이후 인구보건조사(Demographic and Health Survey)에서 여성 응답자의 출산 의도나 의향을 실제 실현된 출산율과 비교한 다음 가족계획에 대한 “충족되

지 않은 요구(unmet needs)”를 측정하여 출산 규제 비용(RC, Regulation Cost)과 관련되는 정도를 파악하였다. 한편, 인구 변천을 끝낸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1950년대 이후부터 출산 의향/의도를 측정할 자료를 이용하여 장래의 출생아 수를 예측하는 작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네덜란드 통계국(Statistics Netherlands) 인구통계부는 1975년, 1977년, 1982년, 1988년 출산력 조사에 기대 자녀 수에 대한 조사 항목을 포함하여 이를 토대로 1979년부터 기대 자녀 수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장래인구 추계에서 기대 자녀 수 자료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호주, 네덜란드, 영국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조사 자료에서 얻은 기대 자녀 수 정보를 이용하며, 오스트리아, 캐나다, 사이프러스, 체코슬로바키아, 일본, 노르웨이, 폴란드, 미국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기대 자녀 수 자료를 이용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출산력 조사의 응답자들에게서 얻는 의향/의도 정보, 곧 “희망 자녀 수” 또는 “기대 자녀 수” 정보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미래 출산율을 예측하는 것은 그 “기대 자녀 수” 정보가 얼마나 신뢰성(reliability)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성이란 응답자들이 얼마나 솔직하고 정확하게 기대 자녀 수에 대해서 응답하였는가가 아니라 응답자들의 기대 자녀 수가 이후에 실제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실현될 것인가를 말한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출산 의도가 평균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해당 코호트의 완결 출산율을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 바 있다. 1970년대 이전부터 전체 여성들의 출산 의도와 실제 출산 간의 정합성/일치성(coherence/consistency)이 지적되었으며, 이러한 정합성/일치성은 최근 출생 코호트에 와서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와서 출산 의도가 가지고 있는 예측 타당성이 더 커진 이유는 피임 도구의 발달, 교육 수준의 향상,

여성 노동 시장 참여 증가에 따라 과거보다 여성들이 자신의 미래를 더 잘 예측하여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이 과거보다 더 적은 수의 자녀 낳기를 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적은 수의 자녀에 대해서는 더 큰 확실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가 사회적 규범보다는 개인의 선호를 존중하고 있어 출산 선호를 포함한 개인의 태도와 의도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Morgan(2001)은 1976년 이후 실시한 미국의 Current Population Survey(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해당) Fertility Supplement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출산 자녀 수가 기대 자녀 수를 향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현재의 출산 경향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30~34세에서 기대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간의 차이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CPS의 출산 의도 자료는 집계(aggregation) 수준에서 실현되는 출산율에 대한 예측 타당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Morgan(2001)은 또한 1979년 NLSY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자료를 이용하여 1957년 코호트와 1965년 코호트의 기대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간의 차이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두 코호트 모두 23세 이전, 곧 출산에 관련된 자신의 규범과 사회적 이상 사이의 균형점을 찾지 못할 때는 예상하는 기대 자녀 수가 약간 과도한 경향이 있었지만, 23세 이후 연령대에서는 그 차이가 약 2명 정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1957년 코호트의 경우 41세에서 거의 완결된 출산율을 측정할 수 있었는데 그 출산율은 기대 자녀 수와 거의 유사한 크기로 나타났다. 즉 41세에서의 완결 출산율은 과거 15년 전부터 구축한 출산 의도 자료로부터 정확하게 예측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체 여성들을 평균으로 측정한 출산 의도가 실제로 실현

된 출산율을 매우 잘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Van de Giessen et al. (1992)과 동료들은 신뢰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측정된 기대 자녀 수를 이용하면 완결 코호트 출산율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네덜란드 출산율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 집단별 기대 자녀 수의 예측 타당성을 측정한 결과, 기대 자녀 수의 실제 출생아 실현율이 배우자가 없는 젊은 여성은 0.9, 배우자가 있는 젊은 여성은 1.0, 배우자가 없는 33~37세 여성은 0.5라고 추정되었다. 이러한 조정 계수(correction efficient)를 거의 50개 인구 집단에 대해서 추정하였다.

하지만 기대 자녀 수 정보를 가지고 장래의 출산율을 예측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Westoff & Ryder(1977)는 “응답자들이 출산하는 데 좋지 않은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고”, “미래의 세계가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타당하지는 않다”고 하였다. 이들은 응답자들이 보고하는 기대 자녀 수를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출산 기대치를 미래 출산율 예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조정 계수 또는 보정요인(correction factor)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기대 자녀 수의 신뢰성을 연구한 선행 연구 중에서는 특히 무자녀 여성들이 미래 출산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Van de Giessen, 1982; Lutz, 1985), 특히 신혼부부의 과대평가가 약 35% 정도 높았다(Freedman, Freedman, & Thornton, 1980; Henripin, 1981). 기대 자녀 수의 과대평가는 1960년대 및 1970년대 초반에 특히 높게 나타났으나, 그 이후의 연구에서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Hendershot & Placek, 1981; Shaw & Statham, 1981).

기대 자녀 수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실제 자녀 수 과대평가에 대한 우려로 호주와 네덜란드는 기대 자녀 수에 보정치를 적용하는 작업을 수행

하였다. 호주는 무자녀 여성에 대해서 20%, 유자녀 여성에 대해서 10% 감소시키는 보정을 하였다. O'Connell & Rogers(1983)는 미국의 기혼 여성들은 1971년도에 기대 자녀 수가 1981년도에 와서 완전하게 실현되었으나, 무자녀 여성의 기대 자녀 수는 30~35% 정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출산 의도를 가지고 1970년 실제 출생아 수를 예측하는 데 실패한 원인이 비혼 여성의 증가 그리고 자녀 출산 나이가 늦추어지게 된 것과 관련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는 하지만 비혼 여성의 출산 의도가 기혼 여성의 출산 의도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O'Connell & Moore, 1977), 전체 코호트 여성의 출산율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비혼 여성의 출산 의도를 보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Van de Giessen(1992)에 따르면, 1969년 네덜란드의 조사결과도 역시 응답자들이 실제 출산 자녀 수보다 기대 자녀 수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단기와 장기, 신혼부부와 기혼부부 모두 기대 자녀 수를 상당히 과대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75년과 1977년에 와서 기대 출산은 단기에서는 과대평가 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1975년과 1977년에 조사된 초혼 여성의 평생 기대 자녀 수는 1985년에 조사된 같은 코호트 여성과 비교하여 단지 6% 정도만 높았다. 과거 코호트 여성은 어느 정도 기대 출산 자녀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1974~76년도에 결혼한 젊은 코호트 여성은 기대 자녀 수가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5년과 1977년 조사는 결혼한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기대 자녀 수를 조사하였으나, 1982년 네덜란드에서는 비혼 여성들까지 포함하여 기대 자녀 수를 조사하였다. 1982년과 1988년 사이에 (5년 3개월 차이) 기혼 여성과 비혼 여성의 기대 자녀 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기혼 여성의 기대 자녀 수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타났지만, 비혼 여성의 기대 자녀 수

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 자녀 수를 가장 크게 과대평가한 집단은 나이가 많은(28~32세) 미혼 여성이었다. 하지만 여성 전체적으로 볼 때 기대 자녀 수는 상당히 안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출산 의향과 계획의 보정 방법론

Lee(1980)는 여성들의 기대 자녀 수가 미래 출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정된 목표 모형(fixed target model)을 제시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완결된 가족원 수를 형성하고 전체 가임 기간에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으로 베커의 “신가정경제학”의 핵심 부분이기도 하다(Becker, 1960). 하지만 고정된 목표 모형은 출산이 일회성이 아니라 일련의 연속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전의 출산 결정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즉 이전의 출산 경험이 이후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첫째 자녀 혹은 둘째 자녀 출산은 규범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나, 셋째 자녀 출산은 출산 규범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출산 순위에 따라 서로 다른 출산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정된 목표 모형은 출산 의도가 시간 변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Rindfuss, Morgan, & Swicegood(1988)은 장기적으로 자녀 출산을 의도하고 있는 여성은 그 중간에 개입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 자신이 의도를 바꿀 수 있다고 보았다. 고정된 목표 모형은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적정하지 않고, 상황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가정 아래 출산 의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출산이 이루어지는 장기적인 과정에서

는 상황의 변화가 생기면(이혼 혹은 결혼 등) 애초의 출산 의도가 변화할 수 있다. 또한, 고정된 목표 모형은 의사결정자들 간의 불일치 혹은 의견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출산에 대한 의도가 응답자 여성만의 출산 의도를 반영하는 것인지 혹은 부부의 출산 의도를 반영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대개 부인과 남편이 각각 출산 의도에 응답할 때는 부부의 의견이 결합한 의도로 응답한다(Morgan, 1985). 적어도 출산 의도의 예측 타당성을 미시적 차원에서 판단하는 경우는, 부부 모두의 의도와 특성을 포함하여야만 신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출산 의도가 고정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기간과 생애 주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움직이는 목표(moving target)” (Lee, 1980)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논의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출산 의도의 확실성에 다양한 측면을 부여했을 때 출산 의도의 신뢰성이 극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출산 의도를 보정하는 방법론의 사례로 한정요인법(MLF, Method of Limiting Factors), 역(逆) 스노우볼법(ISM, Inverse Snowball Method), 부분조정예측모델(PAF, Partial Adjustment Forecasting Model) 등이 제시된 바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정요인법(MLF)은 여성들의 기대 자녀 수의 실현율은 기대 자녀 수를 조사한 시점에서 측정된 다양한 요인(예를 들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MLF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인구 특성별로 0에서 1의 구간에 해당하는 보정치(adj. factor)를 구한다. 여기서 보정치란 여성들이 응답한 기대 자녀 수의 실현율을 가리킨다. 이러한 보정치는 1982년 네덜란드 출산율 조사에서 파악된 여성의 연령, 여성들이 기대 자녀 수에 가지고 있는 확실성 정도, 불임 가능성, 배우자의 기대(여성들의 기대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혼 혹은 비혼

에 따라 출산을 하지 못할 가능성을 조합하여 만들었다(Van de Giessen, 1989). 보정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완결 코호트 출산율은 1960~1964 코호트 여성 1.59명, 1955~1959 코호트 여성 1.66명, 1950~1954 코호트 여성 1.83명, 1945~1949 코호트 여성 1.94명이었으며 이러한 자료를 1984년 네덜란드 장래인구추계에 사용하였다.

역(逆) 스노우볼법(ISM)은 기본적으로 기대 자녀 수의 실현은 코호트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다. 즉 젊은 여성은 나이든 여성이 같은 나이에서 보였던 기대 자녀 수의 변화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다. 1982, 1985, 1988년 네덜란드 출산력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3개년 간격을 두고 기대 자녀 수를 분석한 후, 1982년 자료를 가지고 구한 22세 여성의 기대 자녀 수와 1985년 자료를 가지고 구한 25세 여성의 기대 자녀 수 변화를 1985년 22세 여성이 3년 후에 변화할 기대 자녀 수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 여성의 연령에 따라 분석을 진행한다면 1982년 22세 여성의 완결 코호트 출산율을 예측할 수 있다. “Inverse(역으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스노우볼(눈덩이)을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지만, 기대 자녀 수는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1985년과 1988년 출산율 자료에 ISM을 적용하여 코호트 완결 출산율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두 그래프 모두 매우 유사하게 하향하는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ISM를 통해 코호트 완결 출산율을 적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ISM가 MLF와 비교하여 갖는 장점은 후자의 방법론이 보정치를 만들 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는 반면에, ISM는 보정치에 대한 근거가 실증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ISM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경향에서 벗어나는 이상치(outlier)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연도 간 변화에 따른 평균치를 적용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부분조정예측모델(PAF)은 De Beer(1991)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Lee (1980)의 “Moving Target Model”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PAF는 여성들이 출산을 원하는 총 자녀 수에 대해 고정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여성들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Lee(1980)의 모형과의 차이점은 이러한 비중이 연령이 많아지면서 달라지고 코호트 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Lee(1980)는 출산 목표가 모든 코호트에서 같다고 가정하였는데 PAF는 이러한 가정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출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연령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대 자녀 수가 실현되는 것에 대해 서로 다른 가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역스노우볼법(ISM)은 부분조정예측모델(PAF)에 특별한 가정을 적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부분조정예측모델(PAF)을 적용하여 완결 코호트 출산율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1985년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와 1988년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 모두 서로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정요인법(MLF), 역(逆)스노우볼법(ISM), 부분조정예측모델(PAF)의 3가지 보정 방식은 1988년 네덜란드 장래인구추계에서 출산율에 대한 가정을 설정할 때 모두 사용되었다. 1988년 네덜란드 출산율 자료를 활용하여 3가지 방법론을 적용한 추정치를 비교한 결과, 최소 추정의 특성을 가진 한정요인법(MLF)이 다른 추정치에 비해 젊은 코호트 여성을 대상으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세 추정치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면 기대 자녀 수가 실제 출생아 수에 대한 예측성(predictive value)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신뢰할 수 있으며, 출산율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Bongaarts를 중심으로 한 최근 연구 동향

1980년대 출산 의향에 관한 연구가 미래 출산율을 추정하는 데 어느 정도의 예측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반면에, 2000년 이후의 출산 의향에 관한 연구는 희망하는 출산(desired family size)과 실제 출산(observed fertility) 간의 격차와 이러한 격차의 요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선도적인 연구를 제시한 연구자는 John Bongaarts이다. Bongaarts & Robert(1983)는 장기간에 걸친 출산율 변천의 요인으로 결혼, 모유 수유 빈도와 강도, 피임 도구의 사용과 효과성, 인공임신중절을 제시한 바 있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을 피임과 낙태로 보고 있는 이 모형은 여성의 학력 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출산의 의향과 의도를 출산의 쿼텀과 템포의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Bongaarts(2001)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장기간의 출산율 변천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 변천 이후 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틀로 출산 의향 곧 이상 자녀 수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사람들이 규범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상 자녀 수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출산력 변천의 초기 단계에서는 실제 낳은 자녀 수가 이상 자녀 수 보다 높게 나타나, 출산력 변천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실제 자녀 수가 이상 자녀 수보다 낮게 나타남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자녀 수가 이상 자녀 수보다 높게 된 것은 전통적인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원하지 않은 출산, 사망하는 자녀를 대체하기 위한 출산, 자녀 성 선호, 그리고 다른 경쟁적 선호요인(competing preference)을 들었다. 최근에 와서 실제 자녀 수가 출산의 의향/의도를 밀돌게 된 것은 원치 않는 자녀나 계획하지 않은 자녀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연령의 상승, 비자발적인 불임, 경쟁적 선호 때문이라고 보았다.

Bongaarts(2001)의 출산 모델은 각종 조사에 나타난 출산 의향과 출산 행동 간의 차이에 초점을 맞춘다. 이 모델은 출산 행동의 원인에 집중하면서 출산 의향을 주어진 상수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출산 의향과 현실적으로 실현된 출산율 간의 일치 여부는 이들 양자에 대한 구조적 영향력의 성격이나 안정성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가령, 구조적 영향력이 비슷하다면, 출산 의향과 실제로 실현된 출산율의 측정값 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아야 할 것이다. 출산 의향과 출산율이 다른 구조적 영향력에 반응하거나 현재와 과거의 구조에 의하여 차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면, 이들 간에 격차가 점점 커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Dharmalingam, Rajan, & Morgan(2014)은 Bongaarts(2001)의 개념적인 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면서 인도 인구보건조사(Indian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DHS) 자료를 활용하여 Bongaarts(2001) 모형을 검증하였다. Coutinho & Golgher(2018)도 브라질 인구보건조사(Brazilian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DHS) 자료를 활용하여 Bongaarts(2001) 모형을 로짓 모델을 사용하여 정교하게 검증하였다. 두 연구의 결과 모두 이상 자녀 수가 실제 관찰되는 자녀 수를 예측하는 데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지 않은 출산, 사망한 자녀를 대체하기 위한 출산, 자녀 성 선호는 출산율 변천의 초기 단계에서 실제 자녀 수가 이상 자녀 수보다 높게 나타나는 요인임을 보여주었으며, 출산율 하락이 이루어진 후 실제 관찰되는 자녀 수가 이상 자녀 수보다 낮은 요인으로는 출산연령의 증가, 비자발적인 불임, 경쟁적인 선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2절 분석 개요

우리나라의 출산 의향/의도의 예측 타당성 연구는 2000년 초반 1.1~1.2명의 대체수준을 훨씬 밑도는 저출산이 2020년 현재 0.90명 수준으로 다시 감소한 초저출산 체제(ulterior-low fertility regime)가 21세기의 전반부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출산율의 저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21세기 전반의 상황에서, 앞에서 언급한 Bongaarts의 출산 의향/의도, 즉 이상 자녀 수/기대 자녀 수와 기간 합계 출산율(Period TFR) 간의 격차를 설명하는 모델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장기적 관점에서 본 출산 의향/의도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출산율을 예측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은 1960년대 베이비붐 시대를 거쳐 변천 이후 시대에 진입하면서, 대부분 출산율이 2.0명 이하로 떨어졌다. 출산율 저하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인 아르헨티나, 칠레 등 라틴 아메리카 일부 국가들은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남유럽과 동유럽, 최근에는 북유럽에서도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율로 다시 감소하여 초저출산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체수준의 출산율(replacement-level fertility)의 개념이나 이상 자녀 수 또는 기대 자녀 수가 2.0명, 곧 대체수준의 출산율 근방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젊은 남녀의 출산 행동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출산 의도/의향이 대체수준 2.0명 근방의 이상 자녀 수 또는 기대 자녀 수를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20년 동안 지속하고 있는 대체수준 이하의 저출산 또는 초저출산의 영속화(perpetuation) 속에서 만혼화, 비혼화, 출산 연기, 무자녀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것을 보면 출산율 반등의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여전히 상대적으로 낙관적 전망을 펴는 연구자들도 있다. 이들은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이나 동아시아의 저출산 사회에서 대체수준에 근접하는 출산 의향 또는 출산 의도를 밑도는 출산율은 여전히 과도기적 현상(transitional phenomenon)일 수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관점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70년대 이후 거의 3년마다 실시한 출산력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상 자녀 수나 기대 자녀 수가 2명 근방 또는 그 이상이었다는 경험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대체수준 근방 2.0명의 의향/의도를 밑도는 출산율이 만혼화/비혼화와 출산 연기/무자녀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혼인연령 상승과 이에 따른 출산연령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성의 혼인연령과 순위별 출산연령의 상승이 더 지속하지 않는다면, 이 요인의 출산 억제 효과는 사라지고, 실제 출산율이 출산 의향/의도가 보여주는 대체수준 근방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체 출산(replacement fertility)에 근접하는 의향/의도와 실제 출산율 간의 괴리를 둘러싼 낙관론과 비관론은 모두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있지만, 그 자체로서는 정책을 위한 아이디어로 그리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 아니다. 현재 출산 의향/의도를 훨씬 밑도는 초저출산의 지속은 겉모습보다 복잡한 내부요인들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장기적 관점의 의향/의도, 곧 이상 자녀 수 및 기대 자녀 수와 이들을 출산율과 연계하는 두 개의 관련 변수 곧 의향/의도를 초과하는 출산율과 출산 순위별 출산 연령을 차례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출산 의향/의도의 지표-이상 자녀 수/기대 자녀 수

우리나라의 출산력 조사는 1974년 이후 거의 3년마다 시행되면서, 조사 연도마다 출산 의향/의도 즉,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상 자녀 수는 문항 자체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희망 자녀 수의 개념으로 표현되고, 기대 자녀 수는 현재의 출생아 수에 추가로 계획하는 자녀 수를 합한 것이다. 하지만 출산력 조사가 패널조사(panel survey)가 아니고 다년간 1회성 횡단 표본조사(cross-sectional sample survey)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출산 의향/의도에 관한 응답을 얻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앞에서 기술한 추계 방법론, 한정요인법(MLF), 역(逆)스노우볼모델(ISM) 부분조정예측모델(PAF) 등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출산율이 2.0명을 밀돌기 시작하는 변천 이후 시대에서 사회 전체의 출산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변수는 바로 출산 의향/의도 곧 이상 자녀 수 혹은 기대 자녀 수가 될 것이다. 출산율이 인구 대체수준을 초과하였던 인구 변천 이전에는 자녀의 “잠재적 공급(potential supply)”, 곧 부부의 가임력(fecundity)이 사회 전체의 출산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변수였다. <표 4-1>에서 고전적 인구 변천이 끝나는 시점인 1985년을 기준으로 보면, 15~49세 기혼 여성의 이상 자녀 수는 기간 합계 출산율(PTFR)을 초과하고 있으며, 30~34세 기혼 여성의 기대 자녀 수는 이상 자녀 수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1990년대에 기간 합계 출산율이 지속해서 감소하여 여성 1인당 1.3명을 밀도는 초저출산의 시대에 진입하지만, 15~49세 기혼 여성의 이상 자녀 수는 그리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자녀의 잠재적 공급이 자녀에 대한 수요를 초과하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시기를 지나면서 기대 자녀 수가 이상 자녀 수보다 더 빠르

고 민감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기대 자녀 수는 이상 자녀 수를 밑도는 경향이 있다. [그림 4-1]에서 보면 기간 합계 출산율은 기대 자녀 수의 55.6%, 이상 자녀 수의 64.2%에 이르고 있다. 또 코호트 합계 출산율(CTFR) 곧 코호트 완결 가족 크기의 추계결과를 보면, 1955년과 1960년에 태어난 코호트는 출산 의향/의도에 나타난 대체수준의 출산율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1985년 이후 대체수준을 밑도는 새로운 출산력 저하가 시작되면서, 1960년대 이후에 출생한 코호트들도 그들의 의향/의도에 못 미치는 코호트 합계 출산율 곧 완결 가족의 크기로 나타나고 있다. 이후 출생 코호트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지속할 개연성이 크다.

190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표 4-1〉 출산력 조사 연도별 출산 의향/의도와 기간 합계 출산율 및 코호트 합계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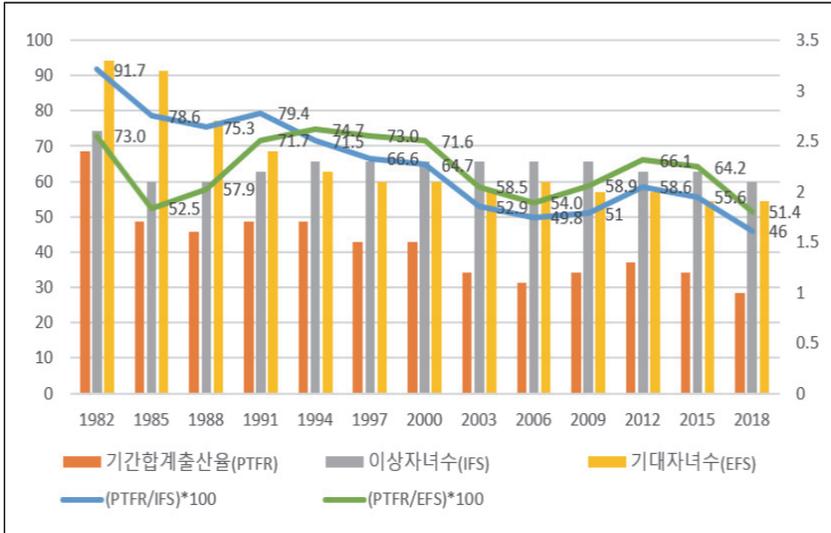
(단위 : 명)

연도	출산 의향/의도				기간 합계 출산율	출생 연도	코호트 합계 출산율
	15~49세 기혼 여성		30~34세 기혼 여성				PTFR
	이상 자녀 수	기대 자녀 수	이상 자녀 수	기대 자녀 수			
1974	3.1	NA	3.3	NA	3.8	1935	5.3
1976	2.8	3.6	2.9	4.2	3.1	1940	4.3
1982	2.4	2.8	2.6	3.3	2.4	1945	4.8
1985	2.0	2.8	2.1	3.2	1.7	1950	3.0
1988	2.0	2.5	2.1	2.7	1.6	1955	2.3
1991	2.1	2.3	2.2	2.4	1.7	1960	2.1
1994	2.2	2.2	2.3	2.2	1.7	1965	2.0
1997	2.3	2.2	2.3	2.1	1.5	1970	1.8
2000	2.2	2.0	2.3	2.1	1.5	1975*	1.6
2003	2.2	1.9	2.2	2.0	1.2	1980*	1.8
2006	2.2	2.1	2.3	2.1	1.1	1985*	1.5
2009	2.2	1.9	2.3	2.0	1.2	1990*	1.3
2012	2.3	1.9	2.2	2.0	1.3	1995*	1.1
2015	2.3	2.0	2.2	1.9	1.2	2000*	1.1
2018	2.1	1.8	2.1	1.9	1.0	2005*	1.2

주: *는 해당연도에서 49세에 도달하지 못한 코호트임.

자료: 출산 의향/의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데이터(<https://data.kihasa.re.kr/databank/subject/list?page=1&seq=6&searchText=%EC%B6%9C%EC%82%B0%EB%A0%A5>, 2020.06.03. 인출) 제표 결과, 기간 및 코호트 합계 출산율 자료: 권태환(1997, pp 13-56)의 1960~1990년 자료와 통계청 국가통계서비스 포털의 합계 출산율 데이터(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1A17&vw_cd=MT_GTITLE01&list_id=1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1, 2020.06.03. 인출)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4-1] 기간 합계 출산율(PTFR) 대비 이상 자녀 수/기대 자녀 수(30~34세 기준 여성의 비율(%): 1982~2018년



자료: 출산 의향/의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데이터(<https://data.kihasa.re.kr/databank/subject/list?page=1&seq=6&searchText=%EC%B6%9C%EC%82%B0%EB%A0%A5>, 2020.06.03. 인출) 분석 결과, 기간 합계 출산율: 통계청 국가통계서비스 포털의 합계 출산율 데이터(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1A17&vw_cd=MT_GTITLE01&list_id=1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1, 2020.06.03. 인출) 분석 결과.

192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표 4-2〉 기간 합계 출산율(PTFR) 대비 이상 자녀 수/기대 자녀 수(30~34세 기혼 여성)의 비율(%) : 1982~2018년

	기간 합계 출산율 (PTFR)	이상 자녀 수 (IFS)	기대 자녀 수 (EFS)	PTFR/IFS (%)	PTFR/EFS (%)
1982	2.4	2.6	3.3	91.7	73.0
1985	1.7	2.1	3.2	78.6	52.5
1988	1.6	2.1	2.7	75.3	57.9
1991	1.7	2.2	2.4	79.4	71.7
1994	1.7	2.3	2.2	71.5	74.7
1997	1.5	2.3	2.1	66.6	73.0
2000	1.5	2.3	2.1	64.7	71.6
2003	1.2	2.3	2.0	52.9	58.5
2006	1.1	2.3	2.1	49.8	54.0
2009	1.2	2.3	2.0	51.0	58.9
2012	1.3	2.2	2.0	58.6	66.1
2015	1.2	2.2	1.9	55.6	64.2
2018	1.0	2.1	1.9	46.0	51.4

자료: 출산 의향/의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데이터(<https://data.kihasa.re.kr/databank/subject/list?page=1&seq=6&searchText=%EC%B6%9C%EC%82%B0%EB%A0%A5>, 2020.06.03. 인출) 제표 결과, 기간 합계 출산율: 통계청 국가통계서비스 포털의 합계 출산율 데이터(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1A17&vw_cd=MT_GTITLE01&list_id=1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1, 2020.06.03. 인출) 제표 결과.

2000년대 출산력 조사의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 기혼 여성들의 대부분이 출산 의향 즉 이상 자녀 수를 보통 아들 1명과 딸 1명으로 이루어진 2명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상 자녀 수가 2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녀의 성 성호는 출산율이 2.0명 수준일 때 유효한 변수이고,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성 선호 자체가 허물어지면서 출산 의향/의도와 함께 출산율 간의 차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이 사회경제 전반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극단적 개인주의 생활방식이 자녀 양육에 관한 비용 관념의 전면적인 변화를 초래하면서, 이상 자녀 수는 2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대 자녀 수는 이상 자녀 수보다 민감하여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출산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의향/의도 자료는 향후 기간 합계 출산율의 동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출산 의향 및 출산 의도를 초과하는 출산율

〈표 4-3〉은 의향/의도를 초과하는 자녀의 비율(%)을 보여준다. 연차별 출산력 조사에서 출산 의향을 초과하는 자녀, 곧 원치 않은 자녀의 비율은 인구동태 통계에서 1983년에 13%대에 이르렀다가 1994년 6%에서 다시 약간 상승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 실시한 출산력 조사 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의향을 초과하는 인구동태 총 출생아의 비율은 8~9%대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의도를 초과하는 자녀, 곧 계획하지 않은 자녀의 비율은 1980년에 6%대에 이르렀다가 1988년에 2%대로 최저점에 도달한 후 다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기대하지 않은 자녀의 비율은 출생아의 13%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4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표 4-3〉 출산력 조사 연도별 출산 의향/의도(기혼 여성 30~34세)를 초과하는 인구동태 통계의 자녀 비율(%): 1982~2018년

(단위: 명, %)

연도	기간 합계 출산율 (PTFR)	의향/의도를 초과하는 자녀 비율		의향 구분 합계 출산율		의도 구분 합계 출산율	
		원치 않은 자녀 비율	기대하지 않은 자녀 비율	원치 않는 출산율	원하는 출산율	기대하 지 않은 출산율	기대하는 출산율
1982	2.4	13.2	6.3	0.350	3.480	0.167	3.663
1985	1.7	9.9	2.9	0.175	2.532	0.052	2.655
1988	1.6	7.2	2.2	0.112	2.014	0.034	2.092
1991	1.7	5.7	4.2	0.091	2.085	0.068	2.108
1994	1.7	5.5	7.0	0.092	1.777	0.116	1.753
1997	1.5	7.0	8.9	0.111	1.528	0.140	1.499
2000	1.5	8.2	10.3	0.117	1.395	0.147	1.365
2003	1.2	8.3	10.1	0.097	1.126	0.118	1.105
2006	1.1	8.0	9.3	0.087	1.052	0.101	1.038
2009	1.2	7.9	11.5	0.095	1.057	0.138	1.015
2012	1.3	8.7	12.2	0.109	1.185	0.151	1.142
2015	1.2	8.0	12.6	0.097	1.140	0.152	1.084
2018	1.0	8.3	12.9	0.088	0.888	0.136	0.839

자료: 출산 의향/의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데이터(<https://data.kihasa.re.kr/databank/subject/list?page=1&seq=6&searchText=%EC%B6%9C%EC%82%B0%EB%A0%A5>, 2020.06.03. 인출) 제표 결과, 기간 합계 출산율: 통계청 국가통계서비스 포털의 합계 출산율 데이터(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1A17&vw_cd=MT_GTITLE01&list_id=1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1, 2020.06.03. 인출) 제표 결과.

21세기에 들어서 초저출산이 진행되면서도 고령 여성들에게서 출산 의향 및 출산 의도를 초과하는 출산율이 관찰되고 있다. 이는 합계 출산율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현재의 대체수준을 훨씬 밑도는 출산율을 상승시키는 데 일부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까지도 관찰되는 원하지 않은 출산과 기대하지 않은 출산이 출산율을 올리는 데 크게 이바지

하지는 않지만, 출산 행동을 자신의 의향과 의도대로 통제 가능한 시기가 오면 아마도 초저출산 상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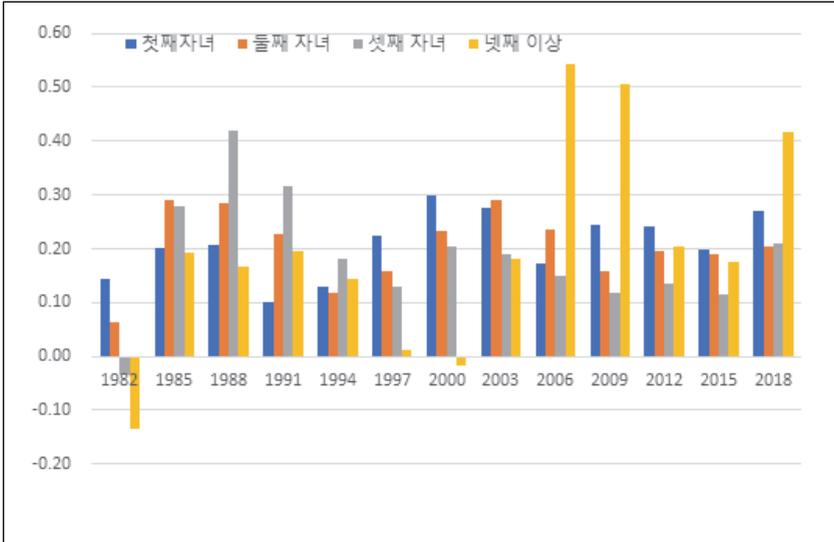
원치 않는 자녀의 비중은 1980년대 초 13%에서 1990년대 중반 인구 변천의 후반부에 이르면, 출산 의향/의도가 분명하게 형성되고, 부부들 사이에서도 가족계획으로 출산 의향/의도를 초과하는 자녀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자녀”(unwanted children) 또는 “계획하지 않은 자녀”(unplanned children)의 수가 줄어들었다. 물론 그 이유는 1960년대 이후 정부에 의하여 강력하게 추진된 가족계획사업으로 효율적인 피임방법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인공임신중절의 활용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20세기 후반부와 21세기 전반부에 기간 합계 출산율이 대체수준을 밑돌고, 초저출산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의향/의도를 초과하는 이상 자녀 수나 계획 자녀 수가 발생할 개연성은 줄어들 것이다. 결국, 실제로 관찰되는 합계 출산율을 의향/의도의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은 21세기 전반부에도 지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크므로, “원치 않는 자녀” 또는 “계획하지 않은 자녀”의 출산은 좀 더 희귀한 현상이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추이에 대해서 예외적인 현상이 출현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모성보호(maternal protection) 또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선택권(pro-choice right)보다 생명권(pro-life right)을 존중하는 추세가 사회적으로 승인을 받으면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접근이 불법화되면 의향/의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초과출산(excess fertility)이 발생할 개연성은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 될 수도 있다.

3. 출산연령의 상승

[그림 4-2]는 1982~2018년의 출산력 조사 연도별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 순위별 평균 출산연령은 초혼연령의 상승과 함께, 출산 순위별로 매년 0.15~0.2세씩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3]은 1970~2019년의 50년에 걸친 출산 순위별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기간율(period rate)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모든 출산 순위에서 1970년대에는 출산연령 곧 템포(tempo)의 큰 변화 없이 출산율의 수준 곧 퀀텀(quantum)이 단순히 감소하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출산율의 감소와 출산 연령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다가, 마침내 2000년대에 초저출산의 시대가 되면서, 출산율의 큰 변화 없이 출산 연령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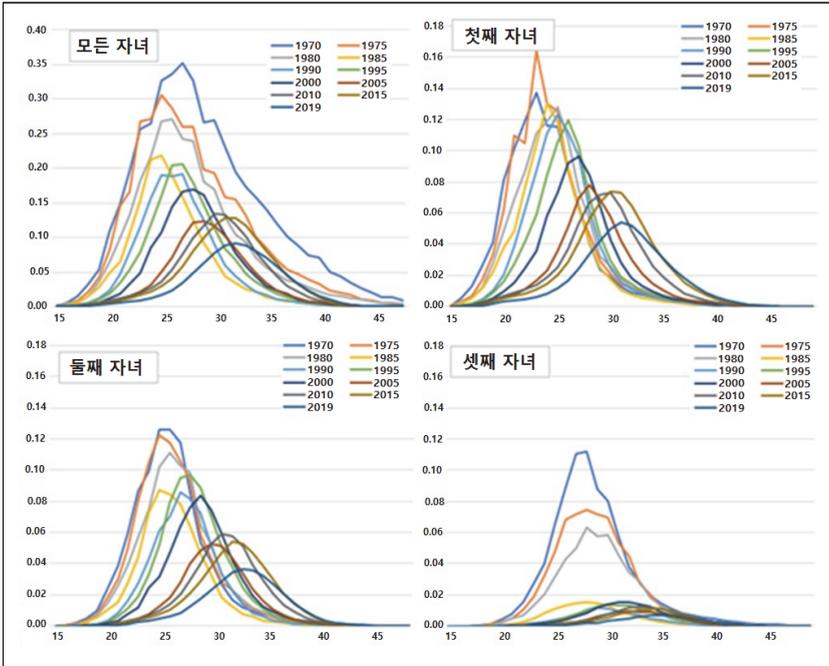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특히 의향/의도가 보여주는 대체수준의 출산율을 훨씬 밑도는 초저출산에 대한 우려는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과 1980년대에 고전적 인구 변천이 끝난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는 출산의 퀀텀(quantum) 문제도 있지만, 다수의 여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출산의 시점(tempo)을 늦추고 있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강하다. Bongaarts(2001)는 기간 합계 출산율(PTFR)의 급격한 저하는 최종적으로 상당 부분은 비혼화(non-marriage tendency)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출산 시점의 지연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일시적 불균형(temporal disequilibrium)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를 보정하는 새로운 출산율의 측정, 곧 조정 기간 합계 출산율(adjusted PTFR)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림 4-2] 출산력 조사 연도별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 순위별 출산연령의 증가(세)
: 1982~2018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데이터(<http://data.kihasa.re.kr/databank/subject/list?page=1&seq=6&searchText=%EC%B6%9C%EC%82%B0%EB%A0%A5>, 2020.06.03. 인출) 분석 결과.

[그림 4-3]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 순위별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 추이: 1970~2019년



자료: 권태환(1997, pp 13-56)의 1960~1990년 자료와 통계청 국가통계서비스 포털의 합계 출산율 데이터(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1A17&vw_cd=MT_GTITLE01&list_id=1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1, 2020.06.03. 인출)를 활용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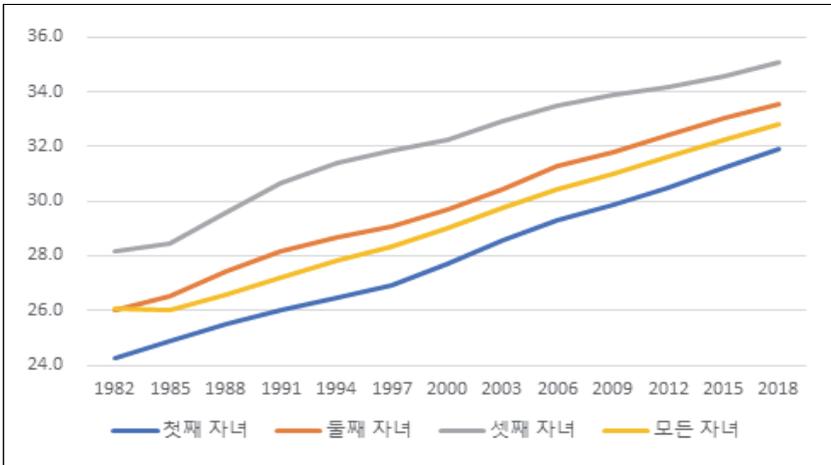
현재에도 대체출산에 근접하는 의향/의도를 훨씬 밑도는 초저출산 상태의 기간 합계 출산율과 관련하여, 결혼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결과임이 뚜렷해 보인다. [그림 4-4]에서 인구동태 자료를 바탕으로 구한 출산 순위별 출산 연령¹⁷⁾는

17) 이 인구동태 출산연령은 센서스의 혼인상태, 특히 연령별 미혼여성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초혼연령(SMAM: Singulate Mean Age at Marriage)과는 다른 개념이다. 센서스의 초혼연령은 합성 코호트(synthetic cohort)의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여기에 제시된 인구동태 초혼연령은 특정 연도에 출산한 여성들의 초혼연령을 평균하였기 때문에, 비혼(non-marriage)과 무자녀(childlessness)의 추이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못한다.

1985년 24.1세에서 2004년 27.5세로, 20년 동안 3.4세, 매년 0.17세씩 상승한 셈이다. 또 첫째 자녀의 출산연령은 1985~2000년의 15년 동안 24.9세에서 28.8세로 3.9세, 매년 0.26세씩 상승하였다.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의 해당 출산 순위에 대한 평균 출산 연령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혼인연령의 상승으로 인하여 지속해서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과 함께 <표 4-4>가 보이는 바와 같이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의 실제 관측치(TFR)와 출산의 템포 효과를 제거한 조정 합계 출산율(adjusted TFR) 사이의 격차가 더욱 두드러짐이 확인되었다. 결국, 결혼과 출산 연령의 상승이 특정 기간의 합계 출산율(TFR)을 훨씬 밑도는 1.1~1.2명 수준에 머물도록 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4] 출산력 조사 연도의 인구통태 출산 순위별 출산연령: 1982~2018년

(단위: 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데이터(<http://data.kihasa.re.kr/databank/subject/list?page=1&seq=6&searchText=%EC%B6%9C%EC%82%B0%EB%A0%A5>, 2020.06.03. 인출) 분석 결과.

기간 합계 출산율(PTFR)과 출산 의향/의도(30~34세 기혼 여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Bongaarts(2001)의 출산 모형에서 논의한 내용을 <표 4-4>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조정 이전의 기간 합계 출산율은 1985년 이후에는 대체수준을 밑도는 수준으로 감소하였는 데 반하여, 조정 이후의 기간 합계 출산율(adj PTFR)은 새천년 밀레니엄 베이비붐이 있었던 2000년까지 대체출산에 근접하는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출산 의향, 곧 이상 자녀 수 대비 조정 기간 합계 출산율은 1990년대 초반에는 1.2배 수준이었던 것이 거의 지속해서 감소하여, 2018년에는 60% 수준으로 격감하였다. 한편, 출산 의도 곧 기대 자녀 수 대비 조정 기간 합계 출산율은 1980년대에는 1.15배로 기대 자녀 수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2000년대에 진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조정 기간 합계 출산율은 출산 의도, 곧 기대 자녀 수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2000년 이후 초저출산 시대로 접어들면서, 여전히 출산 의향, 곧 이상 자녀 수보다는 출산 의도, 곧 기대 자녀 수가 조정 기간 합계 출산율과 일치도가 높지만, 그것도 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찌면, 21세기 전반부에는 피임이나 인공유산에 더욱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출산 의향/의도를 더욱 만족스럽게 실현할 수 있다면, 의향/의도 자료에 나타난 “원치 않는 자녀 수”나 “추가 계획 자녀 수”의 범주에 들지 않는 자녀 수의 출산 촉진 효과가 사라지면서, 현재의 초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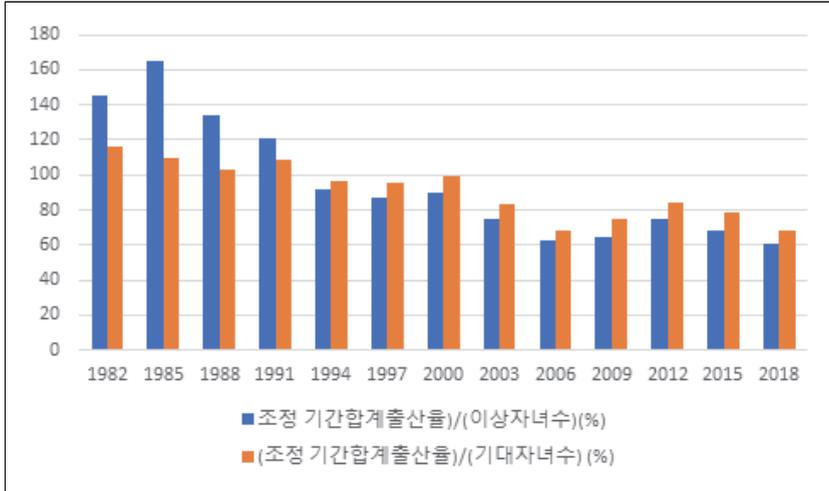
〈표 4-4〉 출산력 조사 연도별 조정 기간 합계 출산율·이상 자녀 수·기대 자녀 수
(30~34세 기혼 여성): 1982~2018년

(단위: 명)

연도	조정 이전과 이후 기간 합계 출산율(PTFR)		출산 의향/의도(desire/intention)	
	조정 이전 PTFR	조정 이후 PTFR	이상 자녀 수	기대 자녀 수
1982	2.42	3.84	2.64	3.32
1985	1.67	3.50	2.12	3.18
1988	1.56	2.78	2.07	2.70
1991	1.74	2.64	2.19	2.43
1994	1.67	2.15	2.33	2.23
1997	1.54	2.00	2.31	2.11
2000	1.47	2.04	2.27	2.05
2003	1.19	1.68	2.25	2.03
2006	1.13	1.43	2.27	2.10
2009	1.15	1.46	2.25	1.95
2012	1.30	1.65	2.21	1.96
2015	1.24	1.53	2.23	1.93
2018	0.98	1.29	2.12	1.90

자료: 이상 자녀 수 및 기대 자녀 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데이터(<https://data.kihasa.re.kr/databank/subject/list?page=1&seq=6&searchText=%EC%B6%9C%EC%82%B0%EB%A0%A5>, 2020.06.03. 인출) 제표 결과, 기간 합계 출산율은 권태환(1997, pp 13-56)의 1960~1990년 자료와 통계청 국가통계서비스 포털의 합계 출산율 데이터(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1A17&vw_cd=MT_GTITLE01&list_id=1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1, 2020.06.03. 인출)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4-5] 이상 자녀 수 및 기대 자녀 수 (30~34세 기혼 여성) 대비 조정 기간 합계 출산율의 크기(%): 1982~2018년



자료: 이상 자녀 수 및 기대 자녀 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데이터(<https://data.kihasa.re.kr/databank/subject/list?page=1&seq=6&searchText=%EC%B6%9C%EC%82%B0%EB%A0%A5>, 2020.06.03. 인출) 분석 결과, 기간 합계 출산율은 권태환(1997, pp 13-56)의 1960~1990년 자료와 통계청 국가통계서비스 포털의 합계 출산율 데이터(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1A17&vw_cd=MT_GTITLE01&list_id=1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1, 2020.06.03. 인출)를 활용하여 작성.

이 연구의 출산 의향/의도의 실제 출산율 예측에서 직접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Bongaarts (2001)는 고전적 변천의 마지막 단계나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변천 이후 사회에서 추가적 요인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영유아 사망률, 자녀 성 선호의 문제, 경쟁적 선호 및 비자발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3개의 변수가 실제 출산율과 출산 의향/의도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영유아 사망률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급격히 감소하였다 (The World Bank, 2020).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0세의 십만 명당 사망률

은 268.3명이기 때문에 출산 의향/의도나 기간 합계 출산율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2019년 1~4세의 십만 명당 사망률은 14.5명으로 구미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높은 편이 아니다 (통계청, 2020 국가통계포털). 우리나라는 1970년대를 지나면서 평균수명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현재 남자 79.7세, 여자 85.7세, 전체 평균 82.7세로 유럽 선진국에 비교하여 손색이 없다(통계청, 2020). 한국도 구미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생아 중 성년에 이르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는 1% 정도에 불과하며, 이것이 21세기 전반부의 기간 합계 출산율은 물론 출산 의향/의도와 코호트별 완결 가족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무시해도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남아선호사상은 1980년대 고전적 인구변천을 끝내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지만, 최근 페미니즘 사회운동이 발전하면서 딸과 아들을 차별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한국인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Kye, 2014). 현재 한국은 물론 중국과 타이완 등 몇 개의 아시아 국가에서 남아선호사상이 완전히 구시대적 유산이 될 것 같은 사회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물론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한국의 젊은 부부들의 출산 의향/의도가 위축되면서, 셋째 자녀가 아니라 둘째 자녀나 심각한 경우에는 첫째 자녀에서부터 성 선별 인공임신중절을 실천에 옮기는 바람에 기간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출산 의향/의도가 대체출산율을 밀돌아 실제 출산율의 격감 현상을 더욱 가속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사회가 대체수준 근방의 출산율을 암시하는 의향/의도를 훨씬 밑도는 제2의 출산력 변천을 지나서 초저출산의 시대에 진입하면서, 출산개시 연령과 생애미혼율이 상승하여 만혼화와 비혼화의 문제가 심각해졌고 이혼율도 예외는 아니다. 이것은 대체수준 근방의 출산 의향/의도

와 관련한 불확실성 요인이 강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경향은 신혼부부들이 출산의 지연으로 인한 가임력의 조기 상실이나 이혼·사별 등의 혼인 해소로 “기대 자녀 수” 또는 “이상 자녀 수”를 달성할 가능성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최근 혼전 동거가 늘어나고 있으나, 그것이 자녀 출산을 가능케 하는 사회제도로 자리를 잡았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상당수의 개인이 평생 미혼으로 남아서 단순한 만혼화가 아니라 비혼화 모형이 여성들의 주류 가치지향이 되면서 안정적인 성 활동을 개시하겠다는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남녀의 출산 의향/의도 지표인 이상 자녀 수 또는 희망 자녀 수가 2명 근방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비혼화와 혼인연령의 상승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체수준 이하의 수준에 있는 코호트 합계 출산율에 이러한 요인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은 커지게 될 것이다.

제3절 분석 결과

1. 출산력 조사 연도별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여 실시한 출산력 조사 연도별 15~49세 기혼 여성의 각세별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는 <표 4-5>와 <표 4-6>에 각각 정리되어 있다. 15~19세의 경우, 표본 수가 적어서 수치 자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출산력 조사의 연도는 1974년 세계출산력조사(WFS: World Fertility Survey)의 일부로 시작되어 1976년 조사가 있었고, 1982년부터 2018년까지 13회를 모두 합쳐서 15회의 조사가 시행되었다. 기대 자녀 수는

1974년 세계출산력 조사의 문항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14회 조사의 응답을 각세별 제표화하였다.

이 절에서는, 출산력 조사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자녀 여성(childless women)을 제외한 여성들의 출산 의향/의도를 계산하고 그것을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의 코호트 완결 가족의 크기와 비교하여 실효적 관점에서 의향/의도가 어떻게 어느 정도 2017년 장래인구 특별추계의 결과인 출산율과 비교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¹⁸⁾

여기서 실효적 출산 의향/의도는 출생 코호트의 만혼화와 비혼화를 종합하는 것으로, 해당 출생 코호트가 혼인하여 최종적으로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코호트의 의향/의도가 실현되는 정도를 예측하고자 한다. 여기서 단순히 출산연령의 끝인 만 50세에 이르기까지 처음으로 혼인을 하는 여성의 비율이 아니라 첫째 자녀의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의 비율을 사용한 것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초저출산 문제가 악화하는 가운데 만혼과 비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발적 무자녀 여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들의 의도/의향, 곧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를 삭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실제 출산율의 예측작업이 되리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력 조사는 15회에 걸친 장기간 횡단적 조사이기는 하지만, 패널 조사 또는 출생 코호트 추적조사의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니므로, 움직이는 목표(Moving target) 모델이나 출산 의향/의도를 보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방법들 Method of Limiting Factors(MLF), Inverse Snowball Method(ISM), Partial Adjustment Forecasting Model (PAF)을 직접 적용하

18) 비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출산력 조사 시점별 15~49세 연령별 코호트별 완결 가족의 크기는 부록 <표 3-3>에 제시되어 있다.

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언급한다.

〈표 4-5〉와 〈표 4-6〉은 출산력 조사의 응답자인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15~49세(다만 1982년 출산력 조사는 연령 상한이 44세로 설정되었음) 기혼 여성의 출산 의향/의도 자료, 곧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를 1974년부터 2018년까지의 15개 조사에 대해 연도별로 각세별 평균값을 정리하고 있다. 출산력 조사는 시점마다 표본의 크기가 다르지만 대략 5,000명 정도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기혼 여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25세 미만 특히 20세 미만의 연령대에서는 그들의 출산 의향/의도 자료가 일부는 표본의 응답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연령대별로 심각한 정도로 불규칙적 패턴을 보이고, 표본 수가 10개 미만이면 의향/의도 자료를 삭제하여 표시하였다.

〈표 4-5〉 출산력 조사 연도의 기혼 여성 각세별 이상 자녀 수: 1974~2018년

(단위: 명)

연령/ 연도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15								
16								2.00
17							2.00	2.00
18	3.20	2.63	1.86	1.00	1.33	1.57	2.00	2.67
19	2.80	2.37	2.00	1.73	1.73	2.00	2.11	2.17
20	2.88	2.60	2.14	1.68	1.67	1.80	2.11	1.91
21	2.61	2.51	2.17	1.88	1.89	1.87	1.96	2.26
22	2.80	2.43	2.11	1.81	1.83	1.90	2.06	1.98
23	2.65	2.17	2.07	1.82	1.87	1.78	2.00	2.13
24	3.02	2.26	2.05	1.89	1.84	1.83	2.05	2.06
25	2.83	2.43	2.13	1.85	1.86	1.89	1.96	2.12
26	2.66	2.48	2.18	1.92	1.94	1.84	2.05	2.20
27	2.73	2.39	2.24	1.94	1.94	1.95	2.13	2.13
28	2.92	2.57	2.25	1.96	1.91	2.01	2.16	2.21
29	2.88	2.53	2.24	2.04	1.95	1.97	2.13	2.09
30	2.89	2.63	2.47	1.98	1.96	2.05	2.17	2.19
31	3.00	2.77	2.47	1.88	1.98	2.02	2.25	2.19
32	3.08	2.82	2.45	2.07	1.98	2.09	2.29	2.20
33	3.05	2.80	2.52	2.03	2.04	2.13	2.27	2.24
34	3.22	2.78	2.44	2.15	2.05	2.06	2.35	2.29
35	3.17	2.90	2.56	2.16	2.07	2.16	2.25	2.27
36	3.26	2.83	2.60	2.13	2.04	2.19	2.27	2.25
37	3.28	2.86	2.65	2.04	2.02	2.16	2.42	2.31
38	3.38	3.02	2.64	2.21	2.03	2.22	2.33	2.42
39	3.26	3.16	2.77	2.09	2.19	2.23	2.41	2.31
40	3.46	3.14	2.78	2.12	2.21	2.26	2.33	2.32
41	3.49	3.14	2.88	2.08	2.05	2.32	2.44	2.36
42	3.58	3.15	2.83	2.31	2.16	2.37	2.31	2.29
43	3.52	3.17	2.98	2.28	2.17	2.25	2.38	2.30
44	3.40	3.26	2.90	2.34	2.19	2.36	2.51	2.40
45	3.57	3.32		2.33	2.24	2.46	2.47	2.36
46	3.67	3.23		2.43	2.27	2.61	2.40	2.50
47	3.69	3.29		2.48	2.30	2.51	2.51	2.46
48	3.66	3.48		2.49	2.30	2.48	2.53	2.58
49	3.67	3.22		2.53	2.41	2.58	2.63	2.61

208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표 4-5〉 계속)

(단위: 명)

연령/ 연도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15							
16	0.50						
17	0.00	0.33	0.25		1.00	1.00	0.50
18	0.33	0.00	0.33	0.00			0.00
19	0.67	0.56	0.25	0.50	0.00	0.00	1.00
20	0.75	0.85	0.50	0.60	0.63	0.63	0.80
21	0.76	0.71	0.54	0.60	1.50	1.50	0.82
22	0.76	0.56	0.78	0.96	0.95	0.95	1.00
23	0.84	0.67	0.72	0.67	0.85	0.85	1.06
24	0.89	0.73	0.83	0.69	0.66	0.66	1.08
25	0.99	1.00	0.68	0.84	0.66	0.66	0.90
26	0.90	0.91	0.84	0.84	0.70	0.70	1.19
27	1.13	1.25	0.95	0.93	0.75	0.75	1.05
28	1.38	1.30	1.11	1.05	0.90	0.90	1.21
29	1.58	1.49	1.29	1.18	1.05	1.05	1.13
30	1.76	1.54	1.33	1.36	1.33	1.33	1.30
31	1.72	1.74	1.54	1.54	1.57	1.57	1.42
32	1.89	1.88	1.70	1.61	1.58	1.58	1.40
33	1.86	1.83	1.79	1.65	1.67	1.67	1.51
34	2.01	1.92	1.85	1.73	1.72	1.72	1.64
35	1.97	1.91	1.84	1.80	1.77	1.77	1.69
36	1.99	2.05	1.90	1.92	1.84	1.84	1.75
37	2.07	1.97	1.96	1.87	1.92	1.92	1.80
38	2.00	2.04	1.98	1.97	1.94	1.94	1.86
39	1.96	2.01	2.00	1.97	1.88	1.88	1.82
40	2.02	2.01	2.01	1.94	1.93	1.93	1.91
41	2.12	2.10	1.99	1.97	1.95	1.95	1.89
42	2.14	2.03	1.99	2.00	1.97	1.97	1.87
43	2.21	2.19	2.03	2.06	1.98	1.98	1.92
44	2.39	2.13	2.01	2.00	2.04	2.04	1.93
45	2.38	2.21	1.94	2.07	1.96	1.96	1.97
46	2.45	2.26	2.06	2.01	1.93	1.93	1.90
47	2.52	2.40	2.10	2.01	2.00	2.00	1.97
48	2.61	2.46	2.15	2.03	2.01	2.01	1.95
49	2.42	2.31	2.41	2.29	2.23	2.33	2.2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데이터(<http://data.kihasa.re.kr/databank/subject/list?page=1&seq=6&searchText=%EC%B6%9C%EC%82%B0%EB%A0%A5>, 2020.06.03. 인출) 제표 결과.

〈표 4-6〉 출산력 조사 연도의 기혼 여성의 각세별 기대 자녀 수(총 출생아 수 + 추가 계획 자녀 수 : 1974~2018년

(단위: 명)

연령/ 연도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15								
16								
17							1.00	2.00
18		2.42	2.42	1.00	1.00	1.40	1.50	2.67
19		2.15	2.15	1.52	1.76	1.62	1.89	2.14
20		2.45	2.45	1.58	1.29	1.66	1.50	1.64
21		2.30	2.30	1.56	1.55	1.81	1.77	2.06
22		2.49	2.49	1.65	1.49	1.82	1.89	1.78
23		2.08	2.08	1.66	1.48	1.72	1.93	1.95
24		2.28	2.28	1.67	1.62	1.81	1.95	1.90
25		2.45	2.45	1.68	1.63	1.83	1.96	1.87
26		2.52	2.52	2.02	1.77	1.85	1.96	1.95
27		2.61	2.61	2.12	1.90	1.94	2.05	1.88
28		2.76	2.76	2.21	2.00	1.95	2.00	1.95
29		2.86	2.86	2.39	2.11	1.92	2.01	2.02
30		2.98	2.98	2.43	2.23	2.02	2.05	2.00
31		3.36	3.36	2.38	2.26	1.99	2.02	2.05
32		3.35	3.35	2.50	2.38	2.07	2.05	2.03
33		3.57	3.57	2.71	2.46	2.10	2.07	2.03
34		3.76	3.76	2.90	2.54	2.16	2.05	2.02
35		3.92	3.92	2.96	2.56	2.23	2.10	2.15
36		3.97	3.97	3.19	2.60	2.34	2.17	2.02
37		4.13	4.13	3.03	2.71	2.44	2.21	2.11
38		4.30	4.30	3.41	2.76	2.53	2.23	2.15
39		4.47	4.47	3.38	2.90	2.67	2.46	2.11
40		4.53	4.53	3.66	3.10	2.68	2.51	2.10
41		4.93	4.93	3.58	3.16	2.81	2.56	2.28
42		4.81	4.81	3.86	3.19	2.81	2.52	2.34
43		5.10	5.10	4.20	3.38	2.93	2.72	2.28
44		5.09	5.09	4.22	3.40	3.02	2.92	2.40
45		5.28		4.26	3.65	3.37	3.10	2.72
46		5.22		4.57	4.00	3.48	3.06	2.73
47		5.68		4.80	4.01	3.54	3.05	2.89
48		5.78		4.78	4.07	3.51	2.98	3.07
49		5.51		5.13	4.23	3.62	3.43	3.13

210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표 4-6〉 계속)

(단위: 명)

연령/ 연도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15							
16	2.00		2.00				
17	1.50		2.00		0.00	2.50	
18	2.50	1.33	1.75	0.00	1.33	2.00	
19	2.17	2.00	1.83	1.50	0.00	2.20	1.00
20	1.29	1.89	2.25	3.00	1.67	2.04	1.33
21	1.66	1.74	2.00	2.16	2.20	1.76	2.00
22	1.80	1.86	2.17	1.96	1.83	1.61	1.52
23	1.64	1.92	2.02	1.83	2.07	1.98	1.91
24	1.72	1.73	1.74	2.10	1.64	1.86	1.51
25	1.70	1.85	1.87	1.85	1.63	2.07	1.86
26	1.83	1.84	1.81	2.01	1.74	1.90	1.68
27	1.74	1.82	1.80	1.90	1.89	1.82	1.85
28	1.79	1.81	1.84	1.86	1.85	1.93	1.71
29	1.79	1.80	1.78	1.91	1.75	1.88	1.80
30	1.94	1.86	1.83	1.80	1.89	1.90	1.73
31	1.98	1.99	1.82	1.99	1.95	1.87	1.83
32	1.96	1.98	1.87	2.03	1.95	1.79	1.80
33	1.99	2.01	1.93	1.91	1.93	1.88	1.80
34	1.94	1.94	1.97	1.90	1.95	1.92	1.82
35	2.08	1.99	1.99	1.90	1.90	1.90	1.86
36	2.03	1.98	1.97	1.94	1.90	1.90	1.86
37	2.05	2.11	2.00	2.01	1.97	1.92	1.93
38	2.09	2.01	2.02	1.93	2.02	1.98	1.92
39	2.03	2.06	2.02	1.99	2.01	1.95	1.93
40	1.98	2.04	2.03	2.05	1.94	1.93	1.89
41	2.03	2.05	2.05	1.99	1.96	1.98	1.95
42	2.13	2.13	2.00	1.99	1.98	1.97	1.94
43	2.16	2.04	2.00	2.01	2.00	1.97	1.91
44	2.22	2.20	2.03	2.07	2.00	2.03	1.94
45	2.40	2.14	2.04	2.01	2.06	1.96	1.94
46	2.39	2.21	1.95	2.07	1.98	2.03	1.98
47	2.45	2.28	2.06	2.02	1.94	1.94	1.91
48	2.53	2.41	2.10	2.02	2.01	1.97	1.97
49	2.61	2.46	2.15	2.03	2.01	2.02	1.9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데이터(<http://data.kihasa.re.kr/databank/subject/list?page=1&seq=6&searchText=%EC%B6%9C%EC%82%B0%EB%A0%A5>, 2020.06.03. 인출) 제표 결과.

〈표 4-7〉은 출산력 조사의 응답자인 기혼 여성을 15~49세와, 이들을 두 집단 15~34세와 35~49세로 구분하여 출산 의향의 지표인 이상 자녀 수의 평균값, 표준편차, 중위값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그림 4-6]은 기혼 여성 전체와 15~34세, 35~49세의 연령집단에 대해서 이상 자녀 수의 평균값을 도표화하고 있다. 모든 15~49세 기혼 여성의 출산 의향 곧 이상 자녀 수는 1974년의 3.16명에서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1985년에는 대체수준 2.1명에 근접하고, 그 수치는 약간의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2000년대 초저출산의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대체수준 근방의 출산 의향을 보인다. 한편, 평균값의 표준편차는 1974년에 상당히 높은 수준인 0.34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3년에는 0.09명에 이르렀다가 다시 약간 씩 등락하고 있다. 이는 초저출산 시대의 모든 연령대에 코호트별 출산 의향은 평준화되고 있으며 과거와 같이 연령대 간 혹은 코호트 간 이질성으로 회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4-7〉에서 15~34세 기혼 여성들의 출산 의향은 1974년 평균 2.89명에서 계속 낮아져 1982년에는 2.22명, 1985년에는 1.87명에 이르러 대체수준을 확실히 밑돌다가, 1994년에는 약간 상승하여 대체수준을 웃돌고 있다. 전반적으로 15~34세 연령대의 평균 출산 의향은 기혼 여성 전체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대략 대체수준의 근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5~34세 기혼 여성의 출산 의향의 중위값도 평균값과 비슷하여 이상 자녀 수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평균값의 표준편차는 1970년대에는 기혼 여성 15~34세가 15~49세 모든 여성보다 낮았으며, 최근 출산율이 대체수준을 밑돌기 시작하고 특히 초저출산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출산 의향 곧 이상 자녀 수의 표준편차는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35~49세 기혼 여성들의 경우, 1974년에는 출산 의향이 3.47명으로

15~34세 기혼 여성보다 0.6명이나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가 줄어들어 1985년에는 0.4명에 이르고, 2003년 이후에는 0.1명 정도의 차이를 보이게 되어, 상대적으로 젊은 층과 나이가 많은 기혼 여성들 간에 출산 의향의 차이는 확실하게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고, 여기의 중위값도 비슷한 추세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기혼 여성들이 출산력 저하의 과정에서 젊은 여성들과 같은 출산 의향을 보이면서, 기혼 여성들의 연령대별, 코호트별 출산 의향 동질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7〉 출산력 조사 기혼 여성 연령대별(15~49세, 15~34세, 35~49세)의 이상 자녀 수 :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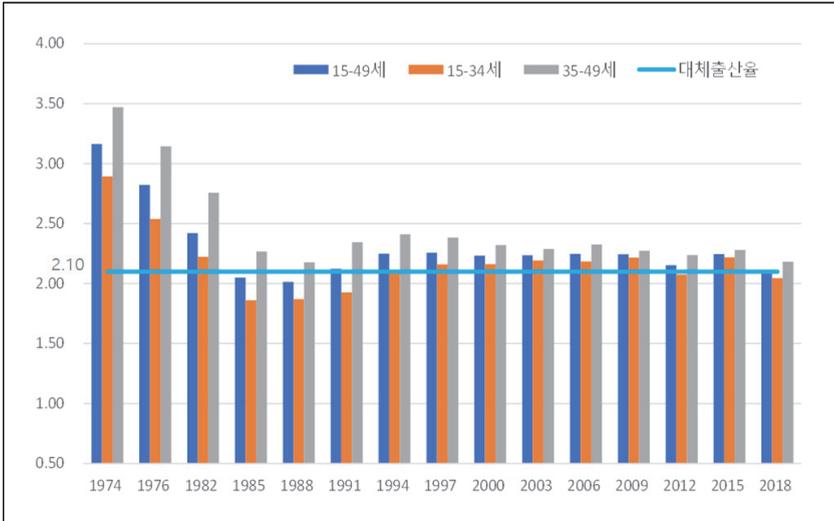
(단위 : 명)

연도	이상 자녀 수 (기혼 여성 15~49세)			이상 자녀 수 (기혼 여성 15~34세)			이상 자녀 수 (기혼 여성 35~49세)		
	평균	표준 편차	중위값	평균	표준 편차	중위값	평균	표준 편차	중위값
1974	3.16	0.34	3.18	2.89	0.18	2.88	3.47	0.17	3.49
1976	2.82	0.35	2.81	2.54	0.18	2.53	3.14	0.17	3.16
1982	2.42	0.31	2.45	2.22	0.18	2.18	2.76	0.13	2.77
1985	2.05	0.29	2.05	1.86	0.24	1.89	2.27	0.16	2.28
1988	2.01	0.21	2.02	1.87	0.17	1.91	2.18	0.11	2.19
1991	2.12	0.25	2.11	1.93	0.13	1.95	2.34	0.15	2.32
1994	2.25	0.18	2.27	2.11	0.11	2.11	2.41	0.10	2.41
1997	2.26	0.18	2.25	2.16	0.16	2.17	2.38	0.11	2.36
2000	2.23	0.13	2.25	2.16	0.13	2.14	2.32	0.07	2.31
2003	2.24	0.09	2.25	2.19	0.09	2.19	2.29	0.05	2.30
2006	2.25	0.14	2.23	2.18	0.16	2.17	2.33	0.05	2.32
2009	2.24	0.10	2.24	2.22	0.13	2.22	2.27	0.04	2.28
2012	2.15	0.19	2.18	2.08	0.24	2.15	2.24	0.04	2.24
2015	2.25	0.13	2.25	2.22	0.17	2.21	2.28	0.05	2.28
2018	2.11	0.13	2.09	2.04	0.13	2.04	2.18	0.06	2.1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데이터(<http://data.kihasa.re.kr/databank/subject/list?page=1&seq=6&searchText=%EC%B6%9C%EC%82%B0%EB%A0%A5>, 2020.06.03. 인출) 제표 결과.

[그림 4-6] 출산력 조사의 기혼 여성 연령대별(15~49세, 15~34세, 35~49세) 평균 이상 자녀 수 추이: 1974~2018년

(단위: 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데이터(<http://data.kihasa.re.kr/databank/subject/list?page=1&seq=6&searchText=%EC%B6%9C%EC%82%B0%EB%A0%A5>, 2020.06.03. 인출) 분석 결과.

〈표 4-8〉과 [그림 4-7]은 출산 의향-이상 자녀 수의 요약통계와 마찬가지로, 출산력 조사의 응답자인 기혼 여성을 15~49세 모두와 이들을 두 집단 15~34세와 35~49세로 구분하여,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의 평균 값, 표준편차, 중위값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우리는 1980년대 인구 변천이 끝날 무렵까지도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가 출산 의향-이상 자녀 수보다 실제 관찰된 출산율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였지만, 출산율이 대체 수준을 밑돌기 시작하고 마침내 초저출산의 시대에 진입하게 되자 실제 관찰되는 출산율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4-7]은 기혼 여성 15~49세 전체와 이를 35세를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15~34세, 35~49세의 연령집단에 대해서 출산 의도 지

표인 기대 자녀 수의 평균값을 도표화하고 있다. 15~49세 모든 기혼 여성의 출산 의도 곧 기대 자녀 수는 1976년의 3.72명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5년에는 3.0명을 밑돌고, 2000년에는 2.0명에 도달하였고, 그 후 초저출산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약간의 등락이 있지만 이 수치도 2.0명을 밑돌고 있다. 한편, 평균값의 표준편차는 1976년에 1.17명으로 출산 의향-이상 자녀 수의 평균값 표준편차보다 훨씬 컸는데 계속 감소하여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 표준편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전반적으로, 15~49세 모든 기혼 여성의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는 출산 의향-이상 자녀 수와 마찬가지로 크게 줄었고, 연령대 간, 즉 출생 코호트 간 편차도 감소하였다. 또 중위값은 1970년대에는 평균값보다 약간 작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의 도수분포 (frequency distribution) 모양은 정규 분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표 4-8〉에서 15~34세 기혼 여성들의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는 1976년 평균 2.73명에서 계속 낮아져, 1988년 1.85명에서 일시적으로 상승하여 약간 등락을 했었지만, 2012년 1.63명에서 다시 상승하여 1.70명에 이르렀다. 전반적으로 15~34세 연령대의 평균 출산 의도는 기혼 여성 15~49세 전체보다는 낮고 전반적으로 대체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출산 의향-이상 자녀 수보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할 수 있다. 15~34세 기혼 여성의 출산 의도 중위값도 평균값과 큰 차이는 나지 않아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의 분포도 정규 분포에서 이탈하지는 않는다. 또, 평균값의 표준편차는 1970년대에는 기혼 여성 15~34세가 15~49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대체수준을 밑돌고, 특히 2000년 이후 초저출산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의 연령대 간, 출생 코호트 간 표준편차는 약간씩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49세 기혼 여성들의 경우, 1976년에는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가 3.26명으로 15~34세 기혼 여성보다 0.5명이나 많지만,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그 차이는 계속 줄어들어서 1988년에는 0.4명에 이르고 2003년 이후에는 0.1명 정도의 차이를 보이게 되어, 상대적으로 젊은 층과 나이가 많은 기혼 여성들 간에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의 차이는 출산 의향-이상 자녀 수와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줄어들었다. 여기의 중위값도 비슷한 패턴으로 변하고 있으며, 결국,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기혼 여성들이 출산력 저하의 과정에서 젊은 여성들과 같은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를 기록하면서, 기혼 여성들의 출산 의도가 연령대별로, 출생 코호트별로 동질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 4-8〉 출산력 조사 기혼 여성(미혼 제외) 연령대별(15~49세, 15~34세, 35~49세)의 기대 자녀 수: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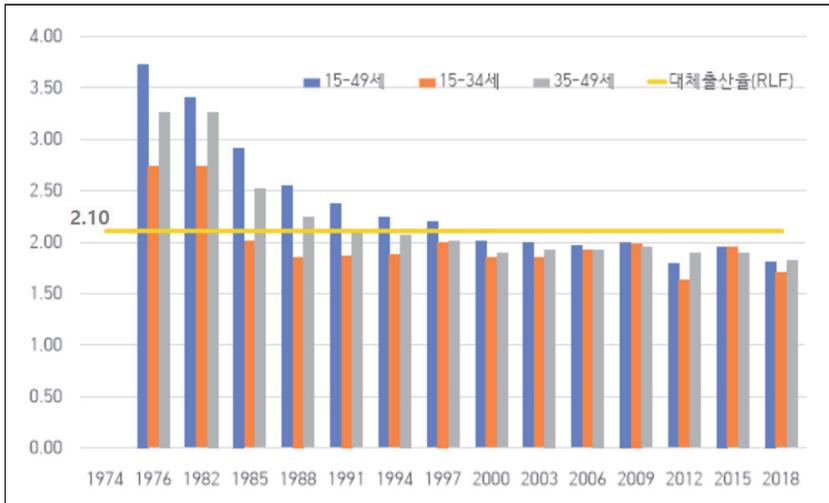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기대 자녀 수 (기혼 여성 15~49세)			기대 자녀 수 (기혼 여성 15~34세)			기대 자녀 수 (기혼 여성 35~49세)		
	평균	표준 편차	중위값	평균	표준 편차	중위값	평균	표준 편차	중위값
1976	3.72	1.17	3.66	2.73	0.49	2.52	3.26	0.73	3.35
1982	3.39	1.14	3.35	2.73	0.49	2.52	3.26	0.73	3.35
1985	2.91	1.29	2.81	2.00	0.49	2.02	2.51	0.56	2.43
1988	2.54	1.04	2.50	1.85	0.42	1.77	2.23	0.42	2.26
1991	2.36	0.83	2.13	1.86	0.19	1.85	2.09	0.26	2.02
1994	2.23	0.63	2.05	1.87	0.27	1.96	2.06	0.13	2.05
1997	2.19	0.36	2.06	2.00	0.20	2.00	2.00	0.10	2.02
2000	2.00	0.29	1.99	1.84	0.25	1.80	1.88	0.14	1.94
2003	1.98	0.21	1.99	1.84	0.15	1.86	1.92	0.10	1.94
2006	1.96	0.12	2.00	1.91	0.14	1.87	1.92	0.11	1.93
2009	1.99	0.22	1.99	1.98	0.30	1.91	1.94	0.07	1.92
2012	1.79	0.48	1.94	1.63	0.50	1.84	1.88	0.12	1.90
2015	1.95	0.14	1.94	1.94	0.18	1.90	1.89	0.09	1.90
2018	1.81	0.21	1.86	1.70	0.24	1.80	1.81	0.10	1.8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데이터(<http://data.kihasa.re.kr/databank/subject/list?page=1&seq=6&searchText=%EC%B6%9C%EC%82%B0%EB%A0%A5>, 2020.06.03. 인출) 제표 결과.

[그림 4-7] 출산력 조사의 기혼 여성 연령대별(15~49세, 15~34세, 35~49세) 평균 기대 자녀 수 추이: 1974~2018년

(단위: 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데이터(<http://data.kihasa.re.kr/databank/subject/list?page=1&seq=6&searchText=%EC%B6%9C%EC%82%B0%EB%A0%A5>, 2020.06.03. 인출) 분석 결과.

2. 출산력 조사 연도별 무자녀 여성을 제외한 여성의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의 계산

출산력 조사의 출산 의향/의도는 기혼 여성만을 포함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들의 출산 의향/의도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이 대부분 혼인한 부부의 출산이고 그것을 실효적 출산으로 간주한다면, 현재 혼인상태가 미혼인 여성의 출산 의향/의도-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혼인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35세 경에 이르러 의향/의도는 사실상 최고 정점(peak)에 도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고전적 변천이 끝난 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혼인상

태가 미혼으로 있는 여성의 비율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4-9>에 의하면, 우리나라 35세 여성 중 무자녀 여성의 비율은 출산력 조사 연도별로 1994년에 9% 정도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2000년 5.9%, 2003년 2.0%, 2006년 9.1%, 2009년 12.7%, 2012년 15.9%, 2015년 19.7%, 2018년 23.7%에 이르러 출산 의향/의도 즉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가 실제 관찰된 출산율로 표현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림 4-8]은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한 1950년부터 2005년생 코호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첫째 자녀의 출산율과 누적 출산율을 보여준다.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의 1950년부터 2005년 출생 코호트의 연령별 출산율 및 누적 출산율을 이용하여 출산력 조사 연도별로 15세부터 50세 여성에 대해 무자녀로 남는 비율을 <표 4-9>에 제시하였다. 출산 시작 연령인 만 15세의 미혼 여성이 최종적으로 무자녀로 남는 비율은 <표 4-9>에서 보는 것처럼, 1974년에 일시적으로 9%에 이르렀다가 1988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 비율을 보면, 1988년 12.7%, 1991년 14.2%, 1994년 18.0%, 1997년 23.6%, 2000년 26.1%, 2003년 32.1%, 2006년 40.9%, 2009년 45.9%, 2012년 44.6%, 2015년 42.3%, 2018년 39.1%에 이른다. 무자녀로 남는 여성들이 출산력 조사의 기혼 여성 응답자의 출산 의향/의도가 실제 출산 행동으로 옮겨질 개연성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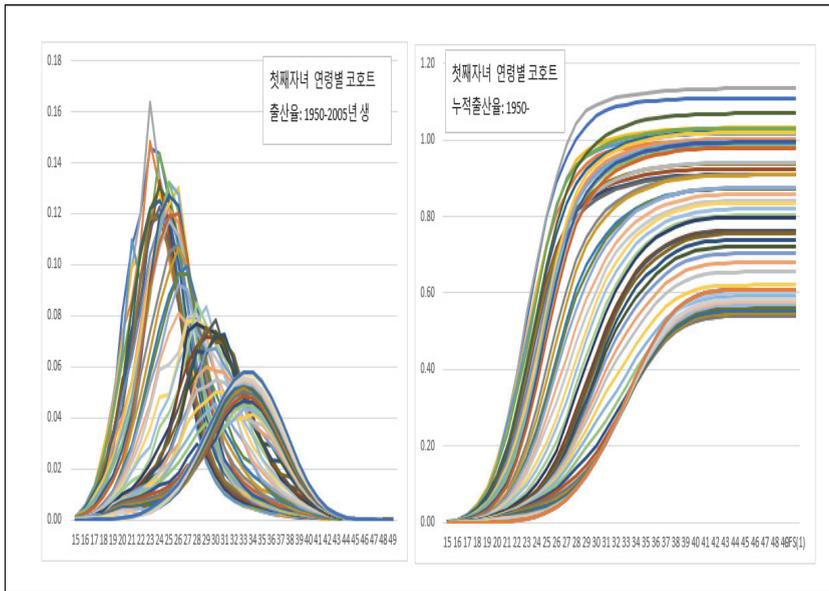
이 때문에, 본 연구는 1974~2018년의 출산 의향/의도 자료에 무자녀 여성을 제외한 모든 여성의 비율을 곱하여 실효적 출산 의향/의도 곧 실효 이상 자녀 수와 실효 기대 자녀 수를 계산하여, 출산 의향/의도의 출산율 예측을 위한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다¹⁹⁾. 이

19) [그림 4-8]에서 코호트별로 연령별 누적 출산율이 1.0명을 초과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연구가 무자녀 여성을 제외한 여성이 아니라, 만 50세에 미혼이 아닌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실효적 출산 의향/의도를 계산할 수도 있지만, 출산력 조사에 포함된 여성들의 향후 출산행태의 불확실성 때문에, 무자녀 여성을 제외한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그림 4-8] 1950~2005년생 코호트의 연령별 첫째 자녀 출산율과 누적 출산율

(단위: 명)



자료: 통계청(2020) 인구동향조사: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F&vw_cd=MT_ZTITLE&list_id=A2_6&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E, 2020.06.10. 인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직접 작성.

출생 자녀 수별 여성의 차별 사망력 혹은 1950년대에 출생등록(birth registration)의 오류에 의하여 생겨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1.0으로 조정하여 무자녀 여성을 제외한 모든 여성의 출산 의향/의도-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출생등록은 1970년대에도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등록자료의 품질이 꾸준히 개선되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20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표 4-9〉 계속)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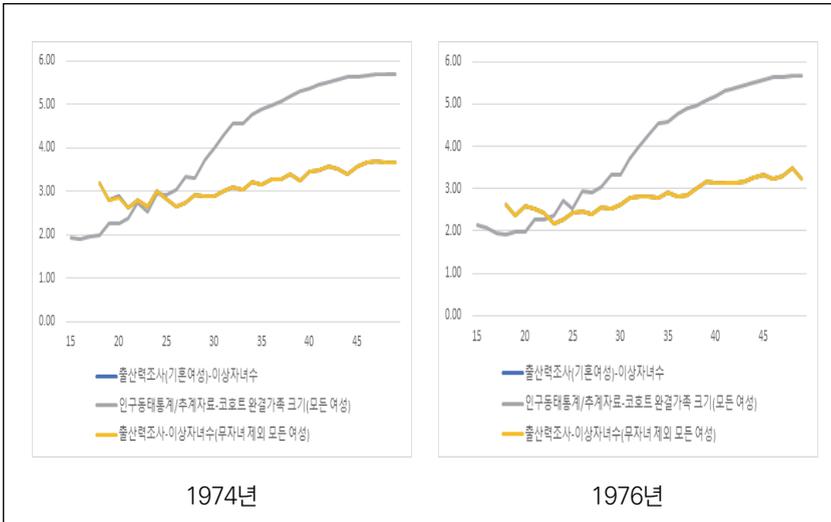
연령/ 연도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15	0.2609	0.3208	0.4093	0.4587	0.4465	0.4232	0.3911
16	0.2442	0.2967	0.3795	0.4505	0.4537	0.4308	0.3989
17	0.2370	0.2780	0.3451	0.4347	0.4587	0.4391	0.4162
18	0.2359	0.2609	0.3208	0.4093	0.4587	0.4465	0.4232
19	0.2027	0.2442	0.2967	0.3795	0.4505	0.4537	0.4308
20	0.1973	0.2370	0.2780	0.3451	0.4347	0.4587	0.4391
21	0.1804	0.2359	0.2609	0.3208	0.4093	0.4587	0.4465
22	0.1647	0.2027	0.2442	0.2967	0.3795	0.4505	0.4537
23	0.1588	0.1973	0.2370	0.2780	0.3451	0.4347	0.4587
24	0.1421	0.1804	0.2359	0.2609	0.3208	0.4093	0.4587
25	0.1248	0.1647	0.2027	0.2442	0.2967	0.3795	0.4505
26	0.1268	0.1588	0.1973	0.2370	0.2780	0.3451	0.4347
27	0.1274	0.1421	0.1804	0.2359	0.2609	0.3208	0.4093
28	0.0920	0.1248	0.1647	0.2027	0.2442	0.2967	0.3795
29	0.0910	0.1268	0.1588	0.1973	0.2370	0.2780	0.3451
30	0.0205	0.1274	0.1421	0.1804	0.2359	0.2609	0.3208
31	0.0062	0.0920	0.1248	0.1647	0.2027	0.2442	0.2967
32	0.0197	0.0910	0.1268	0.1588	0.1973	0.2370	0.2780
33	0.0041	0.0205	0.1274	0.1421	0.1804	0.2359	0.2609
34	0.0000	0.0062	0.0920	0.1248	0.1647	0.2027	0.2442
35	0.0590	0.0197	0.0910	0.1268	0.1588	0.1973	0.2370
36	0.0000	0.0041	0.0205	0.1274	0.1421	0.1804	0.2359
37	0.0133	0.0000	0.0062	0.0920	0.1248	0.1647	0.2027
38	0.0000	0.0590	0.0197	0.0910	0.1268	0.1588	0.1973
39	0.0000	0.0000	0.0041	0.0205	0.1274	0.1421	0.1804
40	0.0618	0.0133	0.0000	0.0062	0.0920	0.1248	0.1647
41	0.0906	0.0000	0.0590	0.0197	0.0910	0.1268	0.1588
42	0.0750	0.0000	0.0000	0.0041	0.0205	0.1274	0.1421
43	0.0897	0.0618	0.0133	0.0000	0.0062	0.0920	0.1248
44	0.0000	0.0906	0.0000	0.0590	0.0197	0.0910	0.1268
45	0.0000	0.0750	0.0000	0.0000	0.0041	0.0205	0.1274
46	0.0000	0.0897	0.0618	0.0133	0.0000	0.0062	0.0920
47	0.0000	0.0000	0.0906	0.0000	0.0590	0.0197	0.0910
48	0.0000	0.0000	0.0750	0.0000	0.0000	0.0041	0.0205
49	0.0000	0.0000	0.0897	0.0618	0.0133	0.0000	0.006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데이터(<https://data.kihasa.re.kr/databank/subject/list?page=1&seq=6&searchText=%EC%B6%9C%EC%82%B0%EB%A0%A5>, 2020.06.03. 인출) 제표 결과.

3. 이상 자녀 수의 출산을 예측 정도

[그림 4-9]는 출산력 조사에 나타난 15~49세의 기혼 여성 응답자의 출산 의향-이상 자녀 수, 기혼 여성 중 만 50세에서 무자녀로 남는 여성을 제외한 응답자의 실효 출산 의향, 즉 실효 이상 자녀 수, 그리고 인구동태 통계/장래인구추계의 코호트별 완결 가족의 크기를 1974년부터 2018년까지 15회의 각 조사 시점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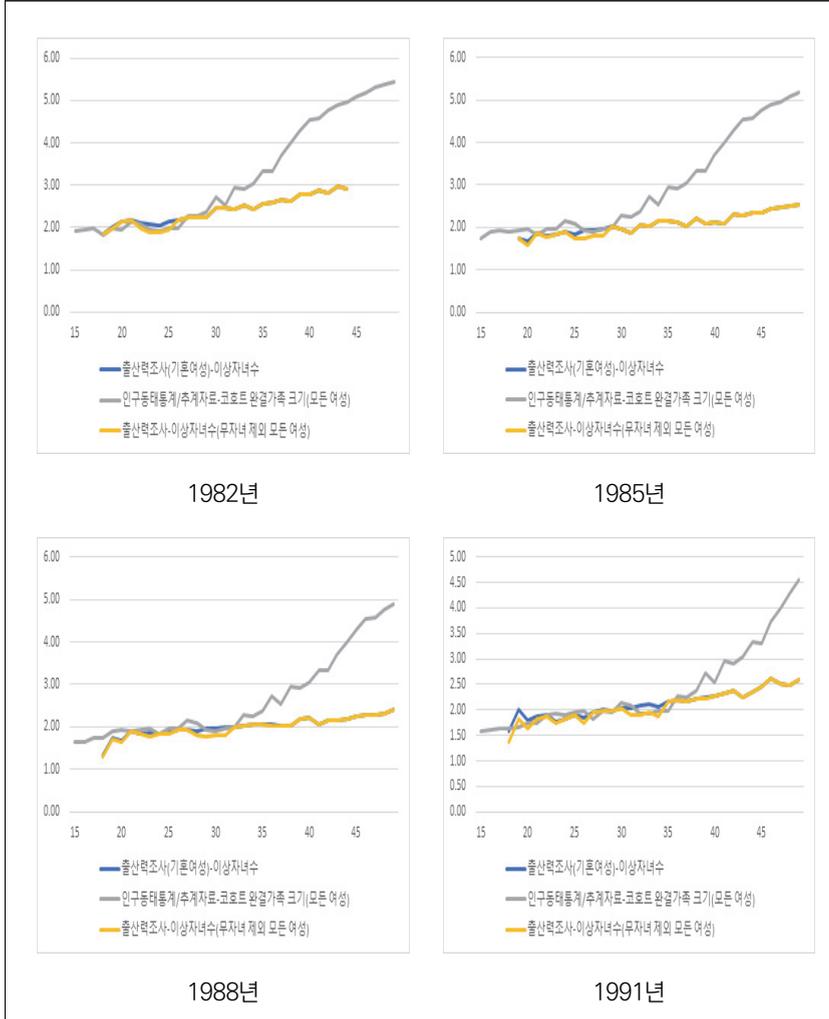
[그림 4-9] 출산력 조사 각세별 기혼 여성의 이상 자녀 수, 무자녀를 제외한 모든 여성의 실효 이상 자녀 수, 인구동태 및 추계자료의 평균 코호트 완결 가족 크기(명) 연도별 비교 : 1974~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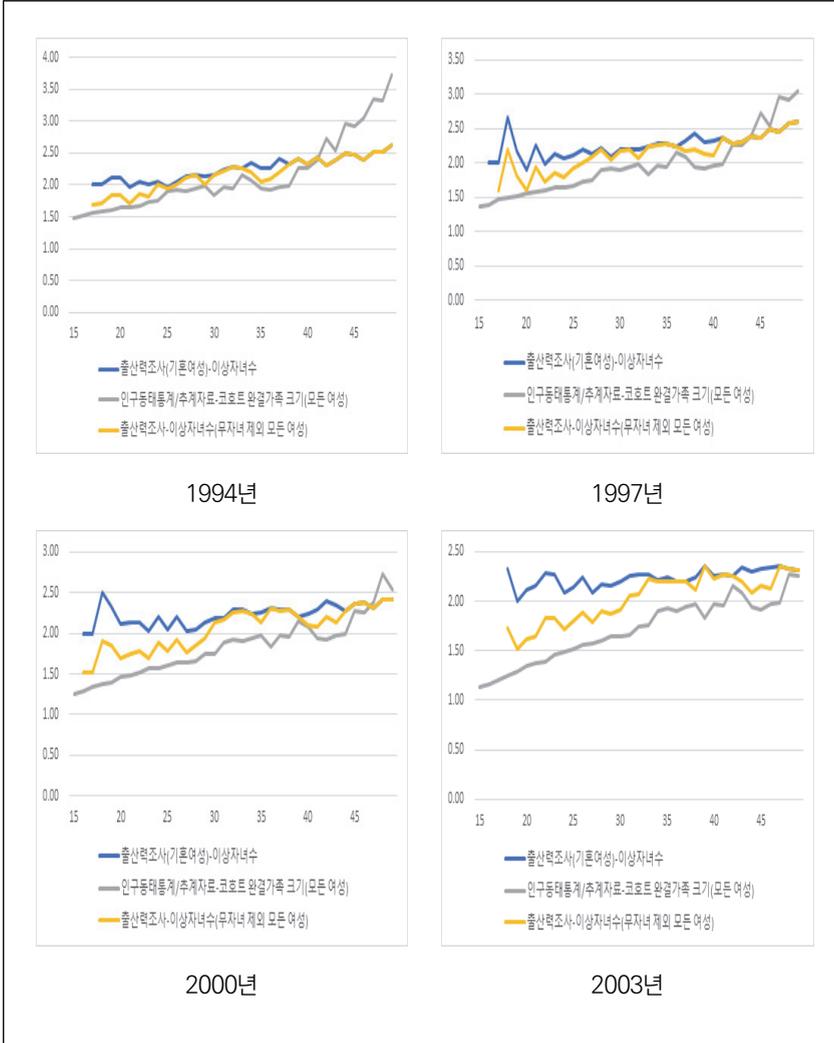
20) 출산력 조사의 기혼 여성 중 만 50세에서 무자녀 여성을 제외한 응답자의 실효 출산 의향 곧 이상 자녀 수는 <부록 표 3-1>을, 인구동태 통계/장래인구추계의 코호트별 완결 가족의 크기는 <부록 표 3-4>를 참고할 것.

222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그림 4-9]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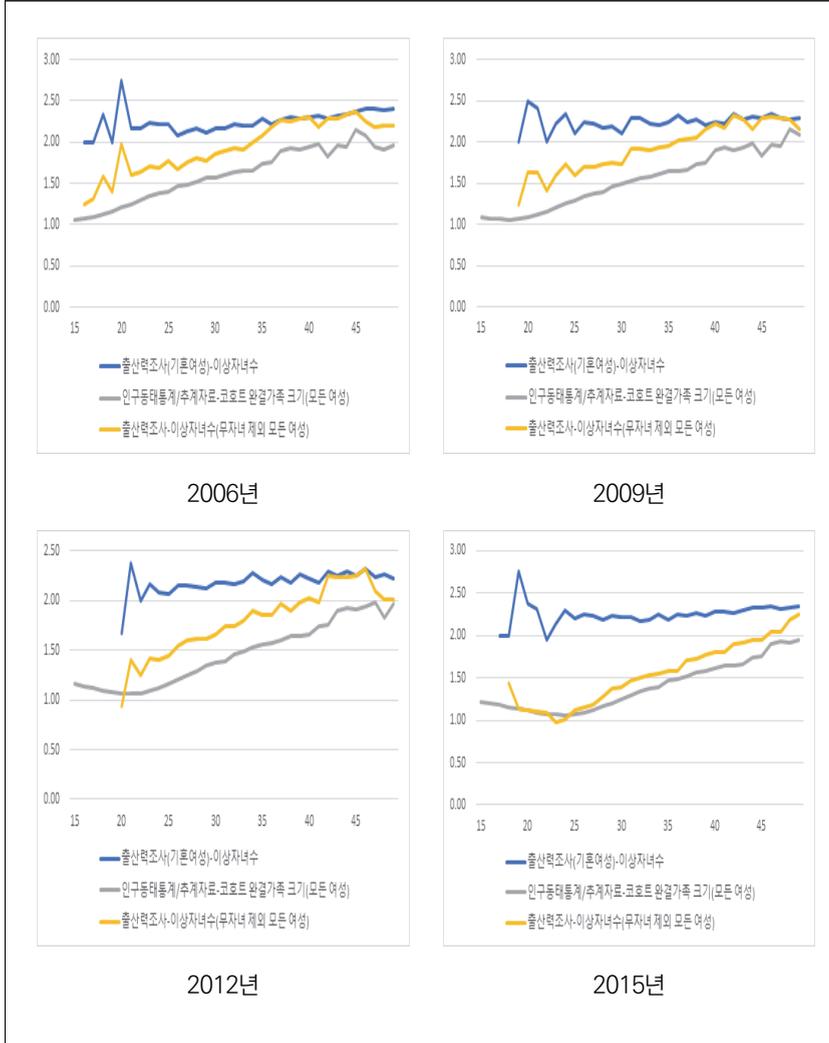


([그림 4-9]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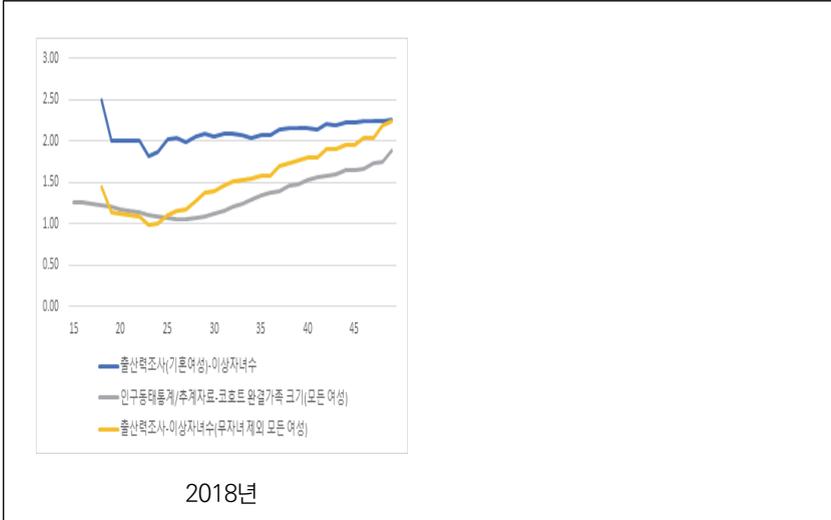


224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그림 4-9] 계속)



([그림 4-9] 계속)



자료: 이상 자녀 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데이터(<https://data.kihasa.re.kr/databank/subject/list?page=1&seq=6&searchText=%EC%B6%9C%EC%82%B0%EB%A0%A5>, 2020.06.03. 인출) 분석 결과. 코호트 합계 출산율은 권태환(1997, pp 13-56)의 1960~1990년 자료와 통계청 국가통계서비스 포털의 합계 출산율 데이터(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1A17&vw_cd=MT_GTITLE01&list_id=1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1, 2020.06.03. 인출)를 활용하여 작성.

1995년 조사 시점까지는 15~49세의 모든 연령대에서 기혼 여성의 출산 의향-이상 자녀 수와 만 50세에서의 무자녀인 여성을 제외한 여성의 실효 출산 의향-이상 자녀 수 간에는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만혼화나 비혼화의 추이가 1995년 이전의 연령대, 코호트별 실효 이상 자녀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구동태 통계/장래인구추계의 코호트별 완결 가족의 크기는 1974년과 1976년에는 20대 중반, 1982년과 1985년에는 35세에 이르면서 출산 의향-이상 자녀 수를 초과하게 된다. 연령이 상승할수록 출산 의향-이상 자녀 수를 초과하는 자녀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자녀의 잠재적 공급

(supply)이 자녀에 대한 수요(demand)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1980년대 중반 고전적 인구 변천이 끝나고 대체수준으로 기간 합계 출산율이 떨어진 변천 이후 시대에 진입한 시점에서도 35세 후반의 초과출산을 규제하기 위한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중·고령 여성의 경우 출산 의향-이상 자녀 수를 넘어서는 “원치 않은 자녀(unwanted children)”가 2~3명 되는 것은 가족계획 비용(Regulation Cost)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임을 말해준다.

코호트별 완결 가족의 크기는 1998년대까지는 만 35세의 출산 의향-이상 자녀 수와 실효적 출산 의향-이상 자녀 수가 거의 일치하여 상당 부분 출산 의향이 완결 가족의 크기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40세 이상 기혼 여성의 완결 가족의 크기는 여전히 상당 부분 출산 의향을 초과하였다. 그러다가 IMF 금융위기를 경험한 1997년 이후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의 비혼화가 진행되면서 코호트별 완결 가족의 크기가 출산 의향을 밑돌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에 접어들어 초저출산 시대가 시작되면서, 출산 의향-이상 자녀 수와 무자녀 여성을 제외한 기혼 여성의 실효적 출산 의향-이상 자녀 수도 약간 괴리가 생겼는데 그 경향은 젊은 연령층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은 점점 커지는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무자녀 여성을 제외한 기혼 여성들도 실제로 상당 부분 출산 의향을 실제 출산 행동으로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 시점이 최근으로 올수록,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는, 출산 의향-이상 자녀 수의 연령대별, 출생 코호트별 동질화가 분명히 강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장래인구추계의 출산력 가정 설정 때문에, 출산력 예측에는 최근 젊은 연령층의 여성들의 최종 완결 가족의 크기가 그리 줄지 않거나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¹⁾. 그러나 본 연구는 현재의

출산 의향-이상 자녀 수의 연령대별 패턴이 불규칙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출산력 조사에서 20세 미만 젊은 기혼 여성 표본 수 부족, 응답 내용의 비현실성을 고려하더라도, 첫째 자녀를 출산한 후에 둘째 자녀 출산으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보정(correction)하기 위하여 출산 의향-이상 자녀 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가령 만 50세에 이르기까지 무자녀로 남게 되는 여성을 제외하고, 다시 둘째 자녀 낳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불확실 또는 경쟁적 선호(competing preference)를 개념화할 수 있는 조사 문항이 필요한 것이다(Bongaarts,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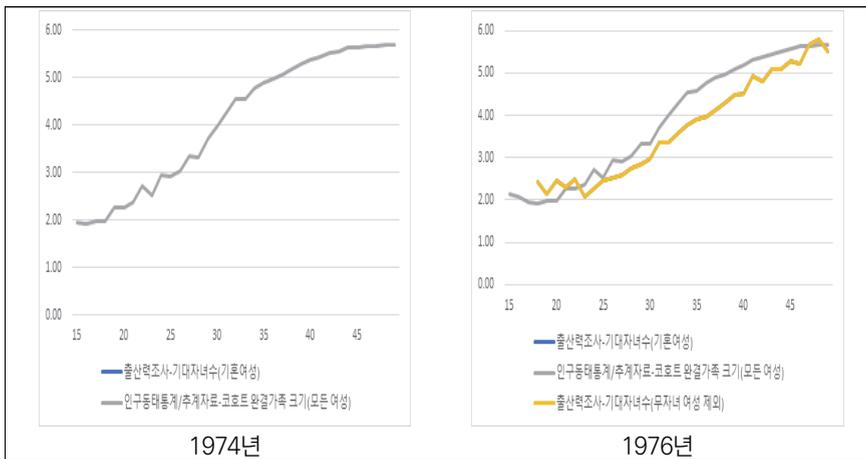
기존 연구에 의하면, 기혼 여성의 출산 의향-이상 자녀 수는 혼인 연령의 상승과 독신 여성의 증가, 즉 만혼화와 비혼화 때문에 분명히 위축될 수 있다. 출산 순위별 출산율에서 혼인연령의 상승은 결국 첫째 자녀의 출산연령을 올리게 되고 이처럼 많은 연령에서의 첫째 자녀 출산은 둘째 자녀 출산의 연기 혹은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조정하는 보정요인을 이용하면 출산 의향-이상 자녀 수를 가지고 코호트별 완결 가족 크기의 예측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21) 코호트 요인법을 이용하는 2017년의 장래인구추계의 참조 코호트(reference cohort)는 2002년생 코호트이고, 2017년생 코호트는 최종코호트로서 목표 코호트(target cohort)가 된다. 참조 코호트부터 목표 코호트까지 출산의 쿼텀(quantum)은 변하지 않지만 템포는 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출산 의향-이상 자녀 수는 지속해서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서의 코호트 완결 가족 크기가 이상 자녀 수보다 커질 수도 있게 되는, 현실성이 없는 수리적/통계적 수치가 나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에서도 똑같이 관찰된다.

4. 기대 자녀 수의 출산율 예측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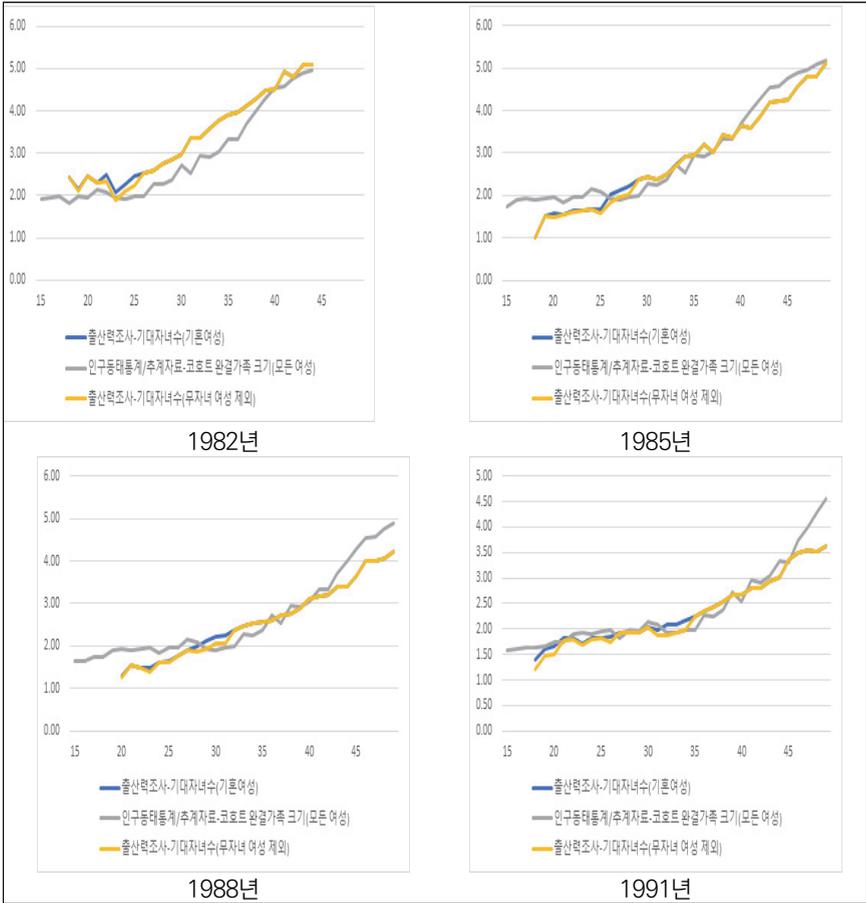
[그림 4-10]은 출산력 조사에 나타난 기혼 여성 응답자 15~49세의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 인구동태 통계/장래인구추계의 코호트별 완결 가족의 크기, 출산력 조사의 기혼 여성 중 만 50세에서 무자녀 여성을 제외한 응답자의 실효 출산 의도, 곧 실효 기대 자녀 수를 1976년부터 2018년까지 14회의 각 조사 시점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다.²²⁾

[그림 4-10] 출산력 조사 각세별 기혼 여성의 기대 자녀 수와 모든 여성의 실효 기대 자녀 수, 출산 여성(무자녀 제외)의 실효 기대 자녀 수, 인구동태 및 추계자료의 평균 코호트 완결 가족 크기(명) 연도별 비교: 1974~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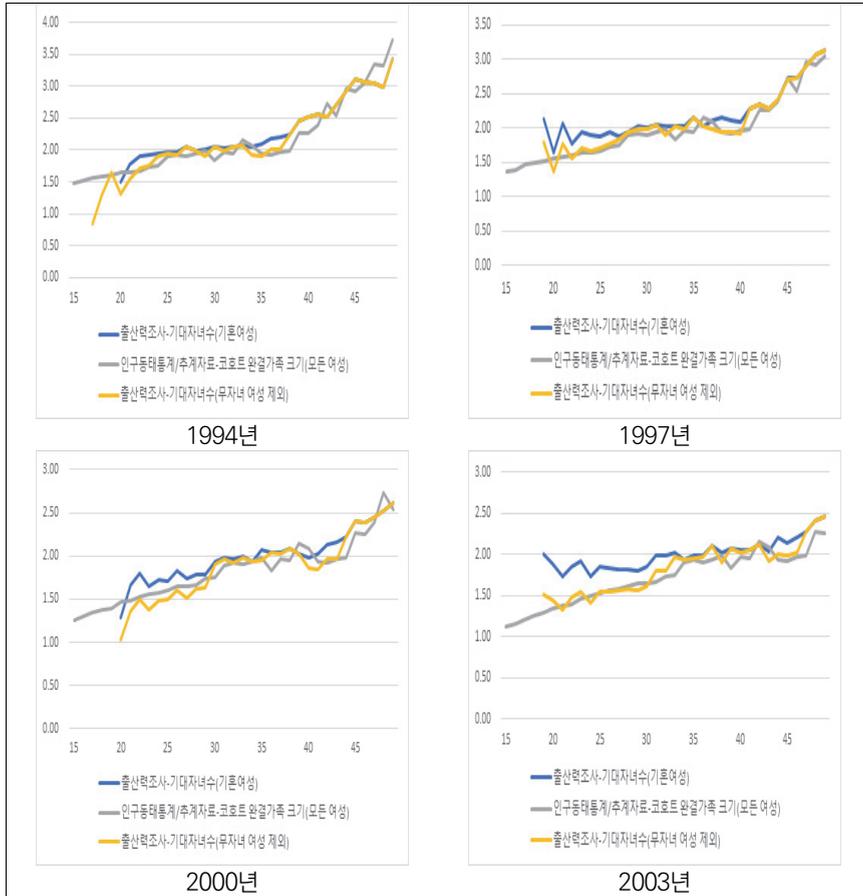
22) 출산력 조사의 기혼 여성 중 만 50세에서 무자녀 여성을 제외한 응답자의 실효 출산 의도 곧 기대 자녀 수는 <부록 표 3-2>를, 인구동태 통계/장래인구추계의 코호트별 완결 가족의 크기는 <부록 표 3-4>를 참고할 것.

([그림 4-10]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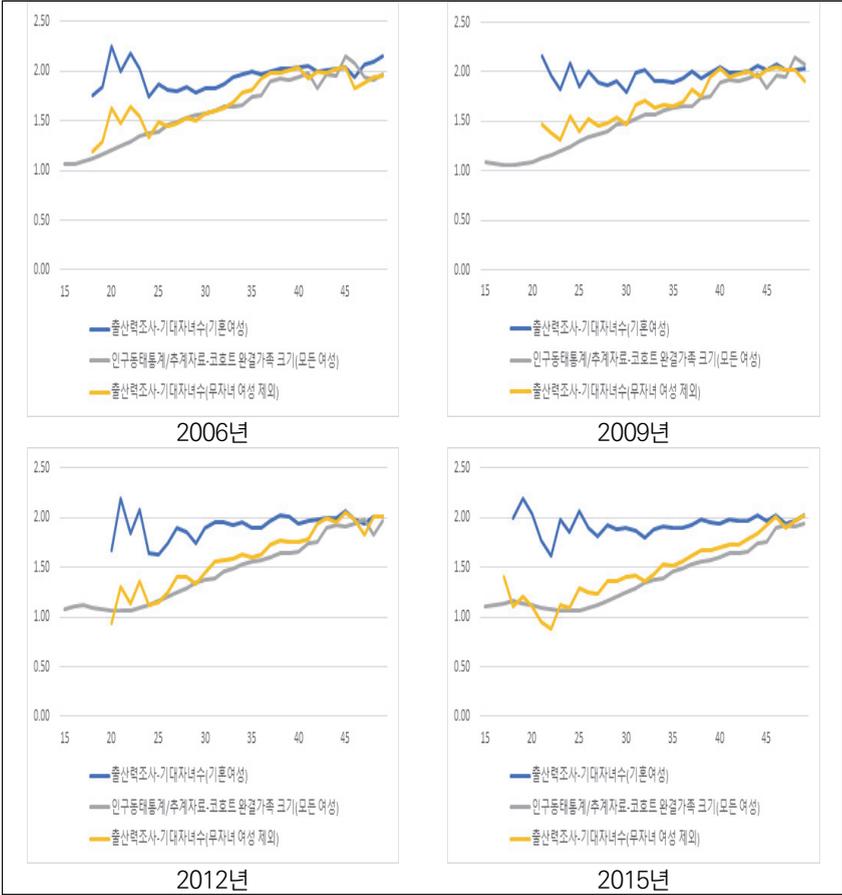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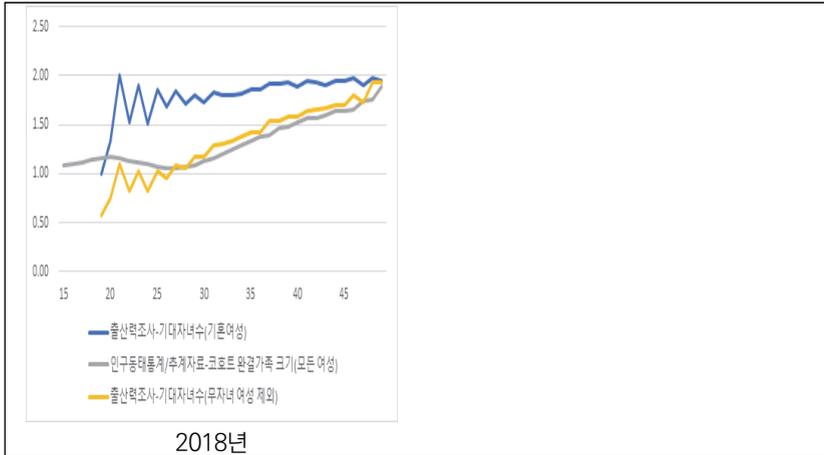
230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그림 4-10] 계속)



([그림 4-10] 계속)





자료: 기대 자녀 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데이터(<https://data.kihasa.re.kr/databank/subject/list?page=1&seq=6&searchText=%EC%B6%9C%EC%82%B0%EB%A0%A5>, 2020.06.03. 인출) 분석 결과. 코호트 함께 출산율은 권태환(1997, pp 13-56)의 1960~1990년 자료와 통계청 국가통계서비스 포털의 함께 출산율 데이터(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1A17&vw_cd=MT_GTITLE01&list_id=1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1, 2020.06.03. 인출)를 활용하여 작성.

출산력 조사의 2000년 시점까지는 15~49세의 모든 연령대에서 기혼 여성의 단순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와 만 50세에서 무자녀로 남는 여성을 제외한 모든 여성의 실효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 간에는, 출산 의향 이상 자녀 수의 검토에서 본 것처럼,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것은 2000년대까지도 조사 시점별로 모든 연령대, 그러니까 출생 코호트별로 거의 모든 응답자가 50세 이전에는 모두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할 개연성이 높았기 때문에 기혼 여성의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와 만50세까지 무자녀로 남는 여성을 제외한 모든 여성의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 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인구동태 통계/장래인구추계의 코호트별 완결 가족의 크기는 1974년과 1976년에는 출산 의향-이상 자녀 수의 경우에는 원치 않는 자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980년대부터 적어도 2000년 직전까지는 피임과 인공임신중절 등 출산 억제 수단에 접근이 쉬워지고 출산 계획이 현실성을 가지게 되면서,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가 상당히 실제 코호트의 크기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예측 타당성(predictive validity)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또 2000년대 초저출산의 시대에 진입하면서, 만 50세에 이르기까지 무자녀로 남게 되는 여성을 제외한 여성들의 실효적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는 전체 기혼 여성의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를 약간씩 밀돌기 시작하고, 젊은 여성들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탈하는 코호트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무자녀 여성들을 제외한 여성들의 실효적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는 출생 코호트의 완결 가족의 크기와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코호트별 완결 가족의 크기는 1980년대까지는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와 실효적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가 약간 크거나 작거나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일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가 IMF 금융 위기를 경험한 1997년 이후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의 만혼화와 비혼화가 진행되면서, 만 50세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여성들의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가 줄어들어 코호트별 완결 가족의 크기가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와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가 향후의 출산을 예측 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점을 보여준다. 특히 젊은 연령층의 경우 최종적으로 결혼할 가능성과 연관시켜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의출산율을 측정하면 장래인구추계의 방법론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리라고 본다.

조사 시점이 최근으로 올수록 특히 2000년대 초저출산의 시대에 접어들수록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의 연령대 간 코호트 간 동질화 현상은 분명히 강해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연령별, 코호트별 기대 자녀 수를 보면, 최근 젊은 연령층 여성들의 최종 완결 가족의 크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연령대별 코호트별 완결 가족의 크기도 실효적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기대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간에 정합성(coherence)이 향상되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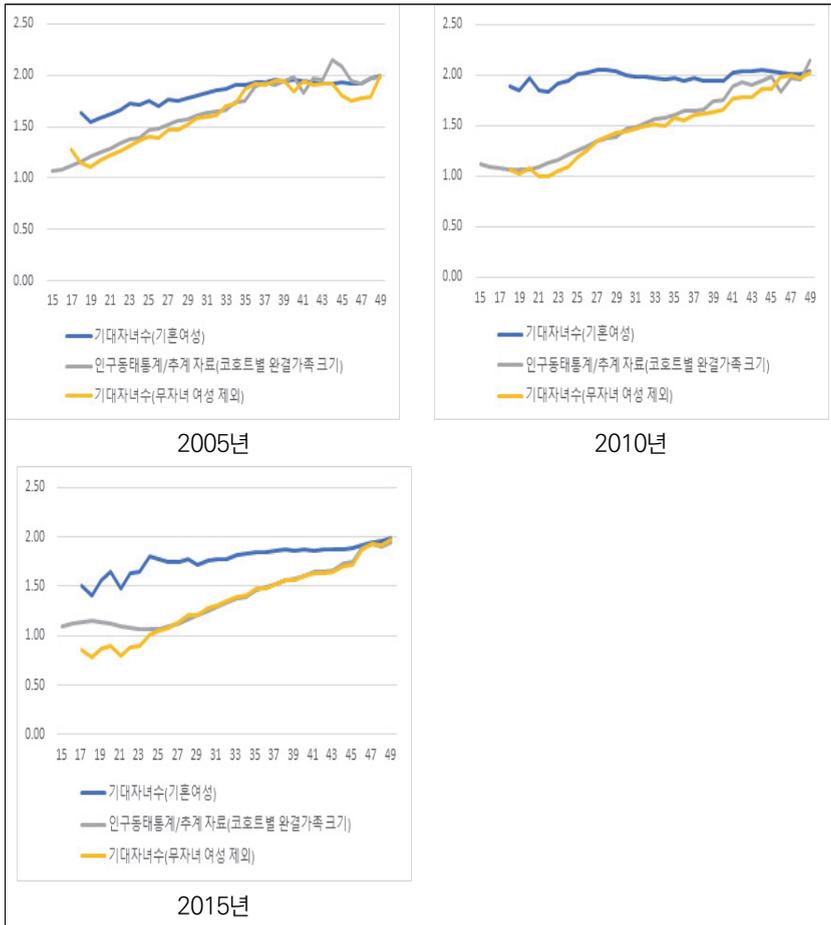
그러나 본 연구는, 현재의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도, 출산 의향-이상 자녀 수와 마찬가지로, 연령대별 패턴은 출산력 조사의 젊은 기혼 여성 표본 수 부족, 응답 내용의 비현실성을 고려할 때,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에 만 50세까지 무자녀로 남는 여성을 제외한 모든 여성의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를 이용하면 장래인구추계의 출산력 가정 설정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우리나라의 인구센서스는 보통 다른 나라의 센서스와 같이 출생아 수, 지난 1년 동안 자녀 출산 여부 등의 문항을 포함하지만, 다른 나라에는 없는 추가계획 자녀 수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문항의 응답 내용에 조사 시점의 출생아 수를 합하여, 본 연구에서 출산 의도의 지표로 사용한 “기대 자녀 수”를 계산할 수 있다. 2005년의 10% 표본조사, 2010년의 10% 표본조사, 2015년 조사 시점의 20% 표본조사에서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를 계산할 수 있다. 곧 출산 의도는 현재의 출생아 수에 추가계획 자녀 수를 합하여 계산한 것으로, 현재의 출생아 중에는 계획되지 않은 자녀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만 50세의 시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자녀의 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센서스 자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만 50세에 이르기까지 무자녀로 추정되는 여성을 제외한 모든 여성의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는 코호트별 완결 가족의 크기에 대단히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아마 센서스 자료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80년대 이후 3년마다 시행한 출산력 조사보다 대규모 표본조사로서(2005년과 2010년은 10% 표본조사, 2015년은 20% 표본조사),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의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이 이유인 것은 아니다. 센서스는 인구통계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출산력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표본조사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출산력 조사는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출산예측모형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패널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출산 의향-이상 자녀 수와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를 패널 주기별로 확인하여 그것의 정확성(accuracy)과 신뢰성(reliability)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36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그림 4-11] 우리나라 센서스 매세별 기혼 여성의 기대 자녀 수와 모든 여성의 실효 기대 자녀 수, 출산 여성(무자녀 제외)의 실효 기대 자녀 수, 인구동태 및 추계자료의 평균 코호트 완결 가족 크기(명) 연도별 비교: 2005~2015년



자료: 기대 자녀 수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2005, 2010, 2015년도 데이터(https://www.census.go.kr/dat/ysr/ysrItem.do?q_menu=6&q_sub=2, 2020.06.03. 인출)를 활용하여 작성, 코호트 합계 출산율은 권태환(1997, pp 13-56)의 1960 ~1990년 자료와 통계청 국가통계서비스 포털의 합계 출산율 데이터(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1A17&vw_cd=MT_GTITLE01&list_id=1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1, 2020.06.03. 인출)를 활용하여 작성.

5. 출산력 시나리오의 작성

우리나라도 유럽과 아시아의 일부 국가(예: 네덜란드, 일본)에서와 같이, 출산 의향-이상 자녀 수,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를 이용하여 장래인구추계에 필요한 출산력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Keilman, 1989, 1997, 1998, 2000; 社会保障審議會, 2008). 먼저, 출산력 조사의 의향/의도는 표본 크기와 응답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불규칙한 패턴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 선형방정식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생각한다. 그 결과는 <표 4-10>과 [그림 4-12]에 요약되어 있다. 물론, 조사의 시계열을 축적하고 그것을 APC 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하여, 코호트별 의향/의도 자료를 작성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출산 의향/의도 자료의 표본 수 문제나 연령대별 패턴의 불규칙성 때문에 간단히 선형방정식을 이용하여 코호트별 출산력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것을 장래인구추계의 출산력 가정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한다.

〈표 4-10〉 출산력 조사 연도별 이상 자녀 수 및 기대 자녀 수의 연령별 패턴 선형방정식 추정 결과: 1974~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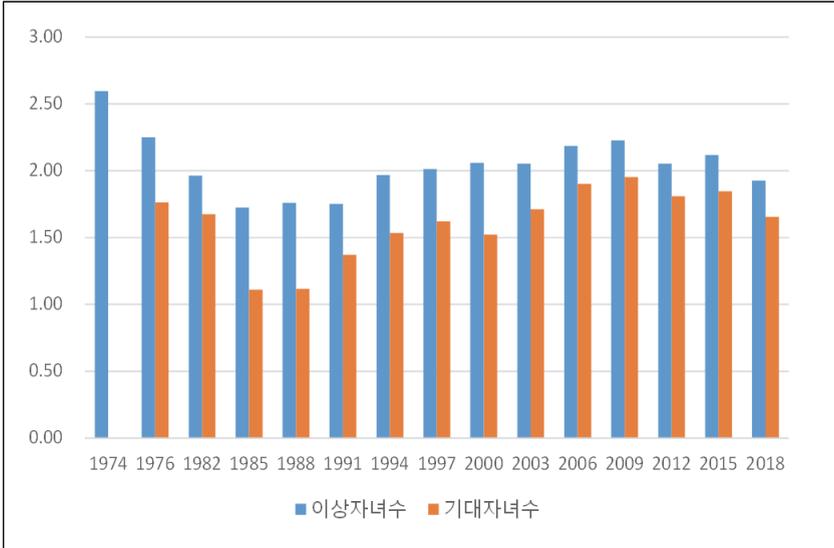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이상 자녀 수			기대 자녀 수		
	절편(명)	기울기	R ²	절편	기울기	R ²
1974	2.5949	0.0375	0.91	NA	NA	NA
1976	2.2501	0.0383	0.90	1.7616	0.1326	0.97
1982	1.9621	0.0383	0.95	1.6756	0.0989	0.95
1985	1.7247	0.0240	0.90	1.1087	0.1231	0.98
1988	1.7604	0.0184	0.91	1.1150	0.0967	0.98
1991	1.7531	0.0267	0.95	1.3708	0.0677	0.92
1994	1.9696	0.0194	0.89	1.5331	0.0501	0.87
1997	2.0127	0.0162	0.80	1.6205	0.0365	0.75
2000	2.0595	0.0113	0.72	1.5214	0.0307	0.88
2003	2.0535	0.0083	0.34	1.7115	0.0186	0.81
2006	2.1853	0.0055	0.14	1.9017	0.0044	0.10
2009	2.2270	0.0017	0.03	1.9517	0.0018	0.03
2012	2.0535	0.0083	0.34	1.8093	0.0072	0.24
2015	2.1178	0.0044	0.23	1.8458	0.0049	0.22
2018	1.9265	0.0112	0.82	1.6561	0.0115	0.43

주: 연도별 선형방정식의 추정에는 해당 연도의 20~49세 기혼 여성의 출산 의향/의도 자료, 곧 〈표 4-5〉와 〈표 4-6〉의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 집계 결과(1976년에는 20~44세)를 이용하며, 15~19세 기혼 여성의 자료는 추정된 방정식으로 외삽연장법(extrapolation)을 이용하여 다시 추정한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데이터(<http://data.kihasa.re.kr/databank/subject/list?page=1&seq=6&searchText=%EC%B6%9C%EC%82%B0%EB%A0%A5>, 2020.06.03. 인출) 분석 결과.

[그림 4-12] 출산력 조사 연도의 연령별 이상 자녀 수 및 기대 자녀 수 선형방정식의 절편값(명)과 기울기(명): 1974~2018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데이터(<http://data.kihasa.re.kr/databank/subject/list?page=1&seq=6&searchText=%EC%B6%9C%EC%82%B0%EB%A0%A5>, 2020.06.03. 인출) 분석 결과.

〈표 4-11〉과 [그림 4-13]은 출산 의향-이상 자녀 수와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의 분포가 조사 시점별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연령대별, 출생 코호트별로 역출(translation)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고전적 변천을 끝내고, 2000년대 초 저출산 시대에 들어서면서 출산 의향-이상 자녀 수와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의 분포가 대체출산 근방으로 수렴하고, 연령대 간, 출생 코호트 간 출산 의향의 이질성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240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표 4-11〉 연령대별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의 선형방정식 추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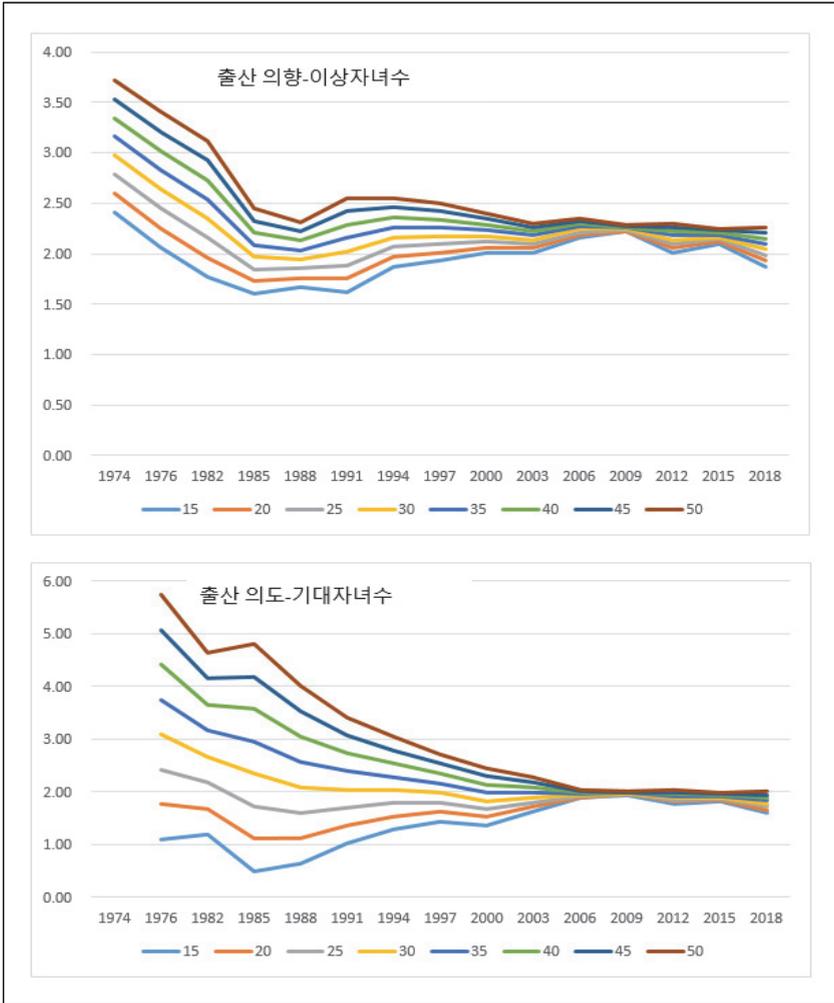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연령	15세	20세	25세	30세	35세	40세	45세	50세
출산 의향-이상 자녀 수								
1974	2.4074	2.5949	2.7824	2.9699	3.1574	3.3449	3.5324	3.7199
1976	2.0586	2.2501	2.4416	2.6331	2.8246	3.0161	3.2076	3.3991
1982	1.7706	1.9621	2.1536	2.3451	2.5366	2.7281	2.9196	3.1111
1985	1.6047	1.7247	1.8447	1.9647	2.0847	2.2047	2.3247	2.4447
1988	1.6684	1.7604	1.8524	1.9444	2.0364	2.1284	2.2204	2.3124
1991	1.6196	1.7531	1.8866	2.0201	2.1536	2.2871	2.4206	2.5541
1994	1.8726	1.9696	2.0666	2.1636	2.2606	2.3576	2.4546	2.5516
1997	1.9317	2.0127	2.0937	2.1747	2.2557	2.3367	2.4177	2.4987
2000	2.0030	2.0595	2.1160	2.1725	2.2290	2.2855	2.3420	2.3985
2003	2.0120	2.0535	2.0950	2.1365	2.1780	2.2195	2.2610	2.3025
2006	2.1578	2.1853	2.2128	2.2403	2.2678	2.2953	2.3228	2.3503
2009	2.2185	2.2270	2.2355	2.2440	2.2525	2.2610	2.2695	2.2780
2012	2.0120	2.0535	2.0950	2.1365	2.1780	2.2195	2.2610	2.3025
2015	2.0958	2.1178	2.1398	2.1618	2.1838	2.2058	2.2278	2.2498
2018	1.8705	1.9265	1.9825	2.0385	2.0945	2.1505	2.2065	2.2625
출산 의도-기대 자녀 수								
1976	1.0986	1.7616	2.4246	3.0876	3.7506	4.4136	5.0766	5.7396
1982	1.1811	1.6756	2.1701	2.6646	3.1591	3.6536	4.1481	4.6426
1985	0.4932	1.1087	1.7242	2.3397	2.9552	3.5707	4.1862	4.8017
1988	0.6315	1.1150	1.5985	2.0820	2.5655	3.0490	3.5325	4.0160
1991	1.0323	1.3708	1.7093	2.0478	2.3863	2.7248	3.0633	3.4018
1994	1.2826	1.5331	1.7836	2.0341	2.2846	2.5351	2.7856	3.0361
1997	1.4380	1.6205	1.8030	1.9855	2.1680	2.3505	2.5330	2.7155
2000	1.3679	1.5214	1.6749	1.8284	1.9819	2.1354	2.2889	2.4424
2003	1.6185	1.7115	1.8045	1.8975	1.9905	2.0835	2.1765	2.2695
2006	1.8797	1.9017	1.9237	1.9457	1.9677	1.9897	2.0117	2.0337
2009	1.9427	1.9517	1.9607	1.9697	1.9787	1.9877	1.9967	2.0057
2012	1.7733	1.8093	1.8453	1.8813	1.9173	1.9533	1.9893	2.0253
2015	1.8213	1.8458	1.8703	1.8948	1.9193	1.9438	1.9683	1.9928
2018	1.5986	1.6561	1.7136	1.7711	1.8286	1.8861	1.9436	2.001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데이터(<http://data.kihasa.re.kr/databank/subject/list?page=1&seq=6&searchText=%EC%B6%9C%EC%82%B0%EB%A0%A5>, 2020.06.03. 인출) 분석 결과.

[그림 4-13] 출산력 조사 연도의 연령대별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의 분포 패턴 : 1976~2018년

(단위: 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데이터(<http://data.kihasa.re.kr/databank/subject/list?page=1&seq=6&searchText=%EC%B6%9C%EC%82%B0%EB%A0%A5>, 2020.06.03. 인출) 분석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력 조사 자료를, 출산 의향/의도가 실현될 개연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인구센서스 자료의 연령대별 혼인상태 자료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누적미혼율(cumulative proportion single)을 계산하고, 5년마다 시행된 자료를 보간(interpolation)하여 그것을 해당 출산력 조사의 각 연령(매세)에 적용한다. 인구센서스의 미혼 상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초혼연령(SMAM: singulate mean age at marriage)은 1970년 23.29세에서 2015년에는 33.24세를 넘었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35세 기준 기혼자의 비율은 1970년대에는 100%에 근접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75% 수준까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생애 미혼자의 비율을 크게 증가시키고, 종국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유배우 출산이 대부분인 경우, 결국 첫째 자녀의 출산이 일어나지 않아서 무자녀 부부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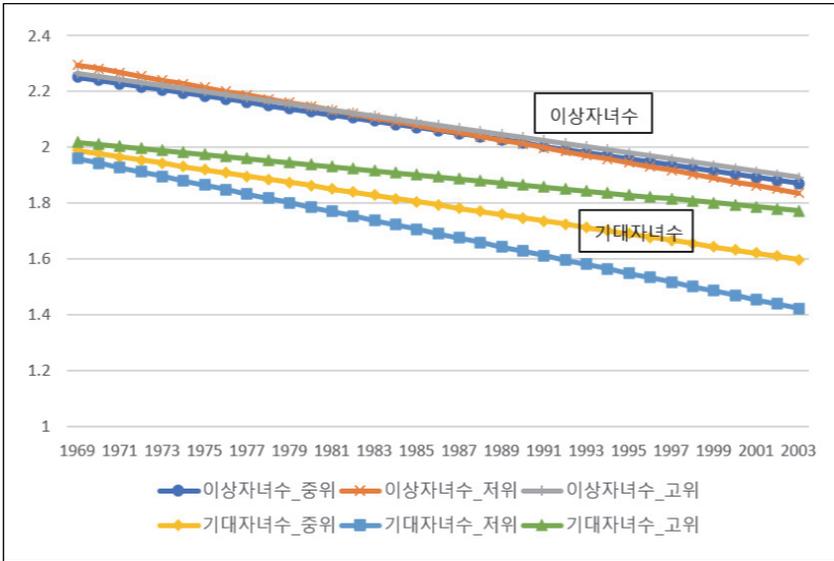
2018년 출산력 조사 자료의 출산 의향/의도-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에 대한 선형추정 방정식으로 계산한 도표에 기초하여 2018년 출산력 조사의 15~49세, 곧 2003년생에서 1969년생에 이르기까지 코호트별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를 계산한 결과는 <표 4-12>과 [그림 4-14]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는 선형추정 결과를 그대로 이용하고, 선형방정식의 기울기와 절편의 표본 편차 95% 상한과 하한의 값을 이용하여 저위추계(low variate estimates)와 고위추계(high variate estimates)의 가정치를 설정하였다. 참고로 이상 자녀 수 코호트별 추정 방정식의 기울기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가 0.03713이고, 절편의 표준편차는 0.0137이며, 기대 자녀 수 코호트별

23)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https://www.census.go.kr/mainView.do> 2020.06.03. 인출)의 연령대별 혼인상태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가 직접 추산함.

추정 방정식의 기울기의 표준편차는 0.0783이고, 절편의 표준편차는 0.0322이다. 선형추정 방정식의 결과에서 출산 의향-이상 자녀 수는 연령대 간, 코호트 간 동질성이 대단히 강하여, 저위추계와 고위추계 간의 출생아 수 차이는 그리 크지 않고, 기대 자녀 수는 연령대 간, 코호트 간 차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저위추계와 고위추계 간의 출생아 수 차이가 이상 자녀 수보다 크게 되어서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²⁴⁾

[그림 4-14] 2018년 출산력 조사 기혼 여성의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를 이용한 출생아 수 가정치 도표화

(단위: 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데이터(<https://data.kihasa.re.kr/databank/subject/list?page=1&seq=6&searchText=%EC%B6%9C%EC%82%B0%EB%A0%A5>, 2020.06.03. 인출) 분석 결과.

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https://data.kihasa.re.kr/databank/datatype/view?seq=877>)' 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직접 추산함.

244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표 4-12〉 2018년 출산력 조사 기혼 여성의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를 이용한 출생아 가정치 설정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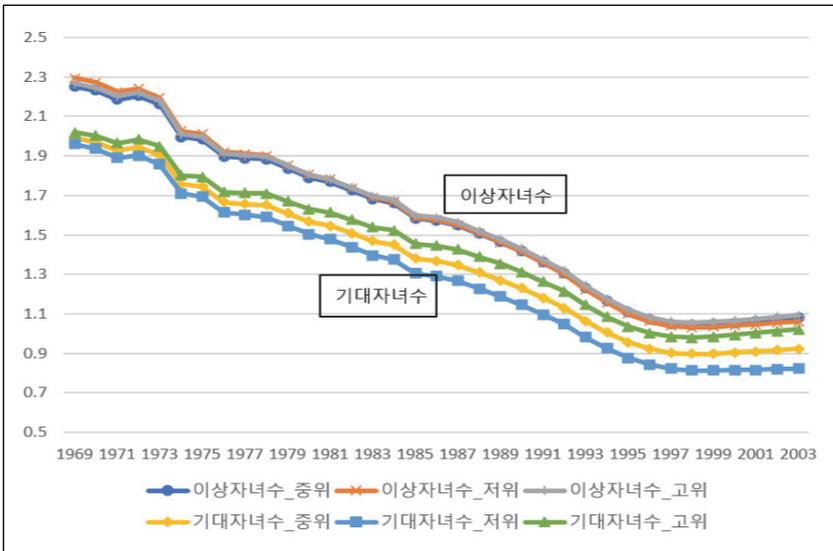
2018년 기준연령	출생 연도	이상 자녀 수			기대 자녀 수		
		중위	저위	고위	중위	저위	고위
49	1969	2.25130	2.29544	2.26664	1.98960	1.95984	2.01836
48	1970	2.24010	2.28196	2.25567	1.97810	1.94407	2.01113
47	1971	2.22890	2.26848	2.24469	1.96660	1.92831	2.00389
46	1972	2.21770	2.25500	2.23372	1.95510	1.91254	1.99666
45	1973	2.20650	2.24152	2.22275	1.94360	1.89678	1.98942
44	1974	2.19530	2.22804	2.21178	1.93210	1.88101	1.98219
43	1975	2.18410	2.21457	2.20081	1.92060	1.86525	1.97495
42	1976	2.17290	2.20109	2.18983	1.90910	1.84948	1.96772
41	1977	2.16170	2.18761	2.17886	1.89760	1.83372	1.96048
40	1978	2.15050	2.17413	2.16789	1.88610	1.81795	1.95325
39	1979	2.13930	2.16065	2.15692	1.87460	1.80219	1.94601
38	1980	2.12810	2.14717	2.14595	1.86310	1.78642	1.93878
37	1981	2.11690	2.13369	2.13497	1.85160	1.77066	1.93154
36	1982	2.10570	2.12021	2.12400	1.84010	1.75489	1.92431
35	1983	2.09450	2.10673	2.11303	1.82860	1.73913	1.91707
34	1984	2.08330	2.09325	2.10206	1.81710	1.72336	1.90984
33	1985	2.07210	2.07978	2.09109	1.80560	1.70760	1.90260
32	1986	2.06090	2.06630	2.08011	1.79410	1.69183	1.89537
31	1987	2.04970	2.05282	2.06914	1.78260	1.67607	1.88813
30	1988	2.03850	2.03934	2.05817	1.77110	1.66030	1.88090
29	1989	2.02730	2.02586	2.04720	1.75960	1.64454	1.87366
28	1990	2.01610	2.01238	2.03623	1.74810	1.62877	1.86643
27	1991	2.00490	1.99890	2.02525	1.73660	1.61301	1.85919
26	1992	1.99370	1.98542	2.01428	1.72510	1.59724	1.85196
25	1993	1.98250	1.97194	2.00331	1.71360	1.58148	1.84472
24	1994	1.97130	1.95846	1.99234	1.70210	1.56571	1.83749
23	1995	1.96010	1.94499	1.98137	1.69060	1.54995	1.83025
22	1996	1.94890	1.93151	1.97039	1.67910	1.53418	1.82302
21	1997	1.93770	1.91803	1.95942	1.66760	1.51842	1.81578
20	1998	1.92650	1.90455	1.94845	1.65610	1.50265	1.80855
19	1999	1.91530	1.89107	1.93748	1.64460	1.48689	1.80131
18	2000	1.90410	1.87759	1.92651	1.63310	1.47112	1.79408
17	2001	1.89290	1.86411	1.91553	1.62160	1.45536	1.78684
16	2002	1.88170	1.85063	1.90456	1.61010	1.43959	1.77961
15	2003	1.87050	1.83715	1.89359	1.59860	1.42383	1.7723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데이터(<http://data.kihasa.re.kr/databank/subject/list?page=1&seq=6&searchText=%EC%B6%9C%EC%82%B0%EB%A0%A5>, 2020.06.03. 인출) 분석 결과.

〈표 4-12〉와 [그림 4-14]에서 추정된 출산 의향/의도-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를 이용한 출생아 가정치에 출생 코호트별로 만 50세에서 최종적으로 자녀를 가질 여성의 비율을 곱하여 최종 출생아 수를 계산한다. 이것에 대한 도표는 〈표 4-13〉과 [그림 4-15]에 제시하였다. 2018년 출산력 조사에서 출산을 개시한 15세의 2003년생 코호트(곧 참조 코호트, reference cohort)의 출산 의향 즉 이상 자녀 수에 바탕을 둔 중위추계가 1.08로 저위추계나 고위추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편 2003년생 코호트의 출산 의도 곧 기대 자녀 수에 바탕을 둔 중위추계가 0.92명, 저위추계는 0.82명, 고위추계는 1.02명으로 모두 이상 자녀 수를 바탕으로 하는 최종 출생아 수보다는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15] 2018년 출산력 조사 무자녀 여성을 제외한 모든 여성의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를 이용한 출생아 수 가정치 도표화

(단위: 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데이터(<http://data.kihasa.re.kr/databank/subject/list?page=1&seq=6&searchText=%EC%B6%9C%EC%82%B0%EB%A0%A5>, 2020.06.03. 인출) 분석 결과.

246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표 4-13〉 2018년 출산력 조사 무자녀 여성을 제외한 모든 여성의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를 이용한 출생아 가정치 설정

(단위: 명)

2018년 기준연령	출생 연도	이상 자녀 수			기대 자녀 수		
		중위	저위	고위	중위	저위	고위
49	1969	2.25130	2.29544	2.26664	1.98960	1.95984	2.01836
48	1970	2.23092	2.27260	2.24642	1.96999	1.93610	2.00288
47	1971	2.18499	2.22379	2.20047	1.92786	1.89032	1.96442
46	1972	2.20395	2.24102	2.21987	1.94298	1.90068	1.98428
45	1973	2.16127	2.19557	2.17718	1.90376	1.85789	1.94864
44	1974	1.99553	2.02529	2.01051	1.75628	1.70984	1.80181
43	1975	1.98316	2.01083	1.99833	1.74390	1.69364	1.79326
42	1976	1.89607	1.92067	1.91085	1.66588	1.61386	1.71703
41	1977	1.88760	1.91022	1.90258	1.65698	1.60120	1.71189
40	1978	1.88212	1.90280	1.89734	1.65071	1.59107	1.70948
39	1979	1.83531	1.85362	1.85042	1.60822	1.54610	1.66948
38	1980	1.79016	1.80620	1.80517	1.56724	1.50274	1.63090
37	1981	1.76825	1.78227	1.78334	1.54664	1.47903	1.61342
36	1982	1.72583	1.73773	1.74083	1.50815	1.43831	1.57716
35	1983	1.68126	1.69107	1.69613	1.46782	1.39600	1.53883
34	1984	1.66102	1.66895	1.67597	1.44877	1.37404	1.52271
33	1985	1.58329	1.58916	1.59780	1.37966	1.30477	1.45378
32	1986	1.57247	1.57658	1.58713	1.36890	1.29087	1.44617
31	1987	1.54916	1.55152	1.56386	1.34729	1.26677	1.42705
30	1988	1.50666	1.50727	1.52119	1.30902	1.22713	1.39017
29	1989	1.46371	1.46267	1.47808	1.27043	1.18736	1.35278
28	1990	1.41792	1.41531	1.43208	1.22944	1.14552	1.31266
27	1991	1.36173	1.35765	1.37555	1.17950	1.09555	1.26276
26	1992	1.30567	1.30025	1.31915	1.12977	1.04603	1.21285
25	1993	1.23014	1.22359	1.24305	1.06329	0.98131	1.14465
24	1994	1.16445	1.15686	1.17687	1.00543	0.92487	1.08540
23	1995	1.10804	1.09950	1.12007	0.95570	0.87619	1.03464
22	1996	1.07092	1.06136	1.08273	0.92267	0.84303	1.00175
21	1997	1.04888	1.03823	1.06064	0.90267	0.82192	0.98288
20	1998	1.04281	1.03093	1.05470	0.89645	0.81339	0.97897
19	1999	1.04633	1.03309	1.05844	0.89844	0.81229	0.98406
18	2000	1.05392	1.03925	1.06632	0.90392	0.81427	0.99302
17	2001	1.06173	1.04558	1.07442	0.90956	0.81631	1.00224
16	2002	1.07106	1.05338	1.08408	0.91647	0.81942	1.01295
15	2003	1.07890	1.05967	1.09222	0.92207	0.82126	1.0223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데이터(<http://data.kihasa.re.kr/databank/subject/list?page=1&seq=6&searchText=%EC%B6%9C%EC%82%B0%EB%A0%A5>, 2020.06.03. 인출)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장래인구추계에 이용된 50세까지 무자녀의 비율은 통계적/수리적 모형에 의하여 추정된 것이지만, 출산 의향/의도 자료와 마찬가지로 연령대별로 혼인 의향/의도 자료를 얻어서 추계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또 출산력 자료를 이용하여 앞에서 검토한 불확실성의 다양한 측면, 즉이혼/사별 등의 혼인 해소, 일-가정 양립문제와 같은 경쟁적 선호의 문제를 조정할 계수를 얻기 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며, 코호트별 연령별 출산율의 추계를 위한 통계적/수리적 모형(statistical and mathematical model)과 함께 출산 의향/의도 자료를 인구추계 목적에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소결

1980년 이전 연도에는 기간 합계 출산율이 이상 자녀 수를 초과하고, 기대 자녀 수가 기간 합계 출산율보다 높은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고전적 인구변천이 끝나는 시점인 1985년을 기준으로 30~34세 기혼 여성의 기대 자녀 수는 이상 자녀 수보다 여전히 많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15~49세 기혼 여성의 기간 합계 출산율은 이상 자녀 수 이하로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1985년 이후 대체수준을 밑도는 출산력 저하가 시작되면서 1960년대 이후 출생 코호트들은 출산 의향 및 출산 의도에 미치지 못하는 완결 출산율을 경험하고 있다. 고전적 인구변천 이전에 나타난 완결 출산율과 이상 자녀 수 및 기대 자녀 수 간의 격차는 Bongaarts(2001)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원치 않는 자녀” 또는 “계획하지 않은 자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영유아 사망률은 이러한 격차를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은 아닐 것으로 보았다. 또한, 1985년 이후 이상 자녀 수/기

대 자녀 수와 완결 출산율 간의 격차는 출산 연령의 상승, 경쟁적 선호, 그리고 비자발적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구 변천 이후에도 몇몇 과거 출생 코호트를 중심으로 발견되고 있는 이상 자녀 수보다 더 높은 기대 자녀 수는 남아선호사향이 최근까지도 어느 정도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출산력 조사의 이상 자녀 수와 인구동태 통계/장래인구추계의 코호트별 완결 출산율을 비교한 결과, 1985년 이전에는 코호트별 완결 출산율이 이상 자녀 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까지는 만35세까지 여성의 이상 자녀 수 및 실효적 이상 자녀 수가 코호트 완결 출산율 크기와 비슷하게 나타나 이상 자녀 수가 출산율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후 코호트 완결 출산율이 이상 자녀 수 이하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의 이상 자녀 수와 실효적 이상 자녀 수 간의 차이도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심화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 자녀 수를 출산율 예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상 자녀 수가 실제 출산으로 연결되는 불확실성을 보정하는 작업을 거쳐 예측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출산력 조사의 기대 자녀 수와 인구동태 통계/장래인구추계의 코호트별 완결 출산율을 비교한 결과, 1980년대 이전까지는 코호트 완결 출산율과 기대 자녀 수 및 실효적 기대 자녀 수와의 차이가 등락을 보이면서 약간의 격차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일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센서스를 통해 계측한 실효적 기대 자녀 수는 출산력 조사를 통해 계측된 실효적 기대 자녀 수보다 통계청의 인구동태 통계/장래인구추계의 코호트별 완결 출산율에 더 가까이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임과 인공임신중절 등 출산 억제 수단에 접근이 쉬워져서 출산 계획이 현실성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젊은 여성들의 만혼화 혹은

비혼화가 진행되어 만50세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여성들의 기대 자녀 수가 감소하면서 완결 가족의 크기와 비슷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 코호트 완결 출산율의 크기가 실효적 기대 자녀 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기대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간의 정합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종합해 보면, 출산 의향-이상 자녀 수와 특히 출산 의향-기대 자녀 수는 여성 1인당 0.9명을 밑도는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와 함께 실제 출산율을 추계하여 장래인구의 모습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앞에서 개괄적으로 검토한 Bongaarts model의 출산 의향/출산 의도와 기간 합계 출산율 간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히 의향/의도를 초과하는 자녀 수나 만혼화/비혼화 요인들을 보정하는 작업을 거친다면 미래 출산율을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50세까지 무자녀로 남는 여성을 제외하고 실효 이상 자녀 수와 실효 기대 자녀 수를 계측하여 출산율 예측 타당성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삼은 것도 이러한 최근의 미혼화 및 무자녀화를 고려한 보정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자녀 수 및 기대 자녀 수를 이용하여 장래인구 추계에 필요한 출산력 시나리오를 작성한 결과, 2018년 출산력 조사에서 출산을 개시한 15세(2003년 출생 코호트)의 경우 이상 자녀 수에 바탕을 둔 최종 출산아 수는 중위추계가 1.08명으로 저위추계 1.06명이나 고위추계 1.09명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대 자녀 수를 이용한 최종 출산아 수는 중위추계가 0.92명, 고위추계 1.02명, 저위추계 0.82명으로 모두 이상 자녀 수를 이용한 추계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제2절 정책 제언



제 5 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2장은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 모형에 근거하여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 출산에 대한 주관적 규범, 출산에 대한 인식된 통제가 자녀 출산 계획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 친구, 친척의 출산에 대한 압력이라고 볼 수 있는 주관적인 규범이 출산 계획에 미치는 가장 강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태도는 그다음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그 영향의 강도는 주관적인 규범에 비해 절반 정도의 영향만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경제적인 상황과 정부 정책이 출산 계획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인 인식된 통제는 모든 요인 중에서 가장 약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주관적인 규범이 출산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자녀에 대한 태도가 그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두영(2015)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외국에서 수행한 TPB 분석 연구에서도 주관적 규범과 인식된 통제가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가족 관계의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이탈리아와 남녀 성별 분업의 강도가 강한 독일에서 주관적인 규범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고(Klobas 2010), 프랑스와 같이 가족 정책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인식된 통제가 출산 계획에 큰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Ajen & Klobas, 2013). 이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사회는 강한 가족주의적 문화로 인해 주관적인 규범이 자녀 출산 계획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식된 통제가 출산 계획에 주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재정적 상황, 주거 환경, 일자리와 같은 거시경제적인 환경이 출산하는 데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며, 보육 서비스, 육아 휴직, 현금 지원 등 자녀 양육 지원정책도 출산 의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개선이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 출산 의향, 출산 계획, 임신 행동 등 일련의 과정을 모형화한 Traits-Desire-Intentions-Behavior (TDIB) 모형 추정 결과, 임신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산 계획이었으며 그다음 요인은 출산 의향이었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는 임신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통해 더 강한 효과를 주고 있었다. 역시 TPB 모형 추정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출산으로 직결되는 임신 행동에는 자녀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와 같은 본인의 태도보다는 가족과 친지 등 주관적인 규범이 갖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TPB 모형과 TDIB 모형의 추정 결과는 자녀 출산 계획과 임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크기가 여성의 연령과 출산 패리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두 모형 모두에서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자녀 계획이나 임신 행동에 갖는 부정적 효과가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보다 자녀가 1명인 여성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주관적인 규범이 자녀 출산 계획에서 강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혼한 부부의 자녀 출산을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규범에 따라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하여 부정적인 경험을 갖게 되는 경우 둘째 아이 출산 계획이나 임신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아이 이상

다자녀 출산의 경우는 자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긍정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출산을 결정하게 되어 자녀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평가가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TPB 모형 추정결과는 여성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 계획에 미치는 모든 요인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DIB 모형 추정결과에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 계획의 정도가 임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체적인 출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려워지며, 고령 여성이 가지고 있는 출산 계획의 어려움이 임신 행동을 약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3장에서는 여성가족패널 2차~8차(2008년~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2년 이내 출산 계획의 실현을 실현자, 연기자, 포기자, 미결정자로 구분하여 로짓 모형과 다항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출산을 연기하는 경향은 낮아지고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인 저출산 현상이 출산연기에 따른 결과라는 외국의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유럽 국가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합계 출산율의 반등은 여성들이 그때까지 미루어 왔던 출산을 실현함에 따른 결과라고 보고되었다(Kohler, Billari, & Ortega, 2002; Goldstein, Sobotka, & Jasilioniene, 2009; Sobotka, 2017). 우리나라에서 합계 출산율의 반등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만혼화와 비혼화로 출산을 연기하고 있으며 미루어진 출산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의 연기보다는 포기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본 분석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합계 출산율의 반등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코호트 여성들이 과거 코호트 여성과 달리 출산을 연기하기보다 포기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출산율 회복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자녀 1명을 가진 여성이 자녀가 없는 여성과 비교하여 출산을 실현하거나 혹은 포기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2장에서 자녀가 1명 있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다자녀 여성보다 자녀 출산 계획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녀를 처음 낳고 키우면서 자녀 출산과 양육의 기쁨을 알게 된 여성은 둘째 아이 출산을 주저 없이 선택하겠지만, 반대로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 여성들은 둘째 자녀 출산을 계획하지 않거나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과 비교하여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은 작지만, 출산을 실현하지 않는 경우 비경제활동 여성과 비교하여 출산을 포기하기보다 출산을 연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활동이 출산을 실현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출산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 경제 활동은 출산을 포기하기보다는 출산을 연기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OECD 국가의 경우 여성의 경제 활동과 출산율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ECD, 2011). 경제 활동이 출산을 포기하기보다 연기하도록 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연기된 출산을 실현하도록 하는 사회적인 체계가 마련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활동과 출산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3장의 분석 결과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희망하는 출산을 실현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이 발견되

었다. 학력을 기준으로 볼 때,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들이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들보다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더 컸고, 출산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산을 포기하기보다 연기할 확률이 더 높았다. 이는 학력 수준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높은 여성들이 희망하는 출산을 더 쉽게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저소득층보다 중산층 혹은 중하층 집단이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더 작았으며 출산을 포기할 가능성은 더 컸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정도는 경제적인 능력과 함께 자녀의 질(Quality)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작용한다. 예를 들어 중하층 혹은 중산층이 자녀의 질에 대해 고소득층만큼 높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이는 중하층 혹은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자녀 출산 및 양육에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을 말한다.

제4장에서는 1974~2018년 동안 3년 간격으로 조사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0년대 이전에는 기간 합계 출산율이 이상 자녀 수를 초과하였고, 기대 자녀 수가 이상 자녀 수를 초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985년 이후 그리고 1997년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가 기간 합계 출산율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이상 자녀 수/기대 자녀 수와 기간 합계 출산율 간의 격차는 Bongaarts(2001) 모형의 “원치 않는 자녀”, “계획하지 않은 자녀”, 출산연령의 상승, 출산에 대한 경쟁적 선호, 불임 등 비자발적 요인, 남아 선호 사상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출산력 조사의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 그리고 인구센서스의 기대 자녀 수를 실효적 이상 자녀 수와 실효적 기대 자녀 수로 보정한 다음 통

계청의 인구동태 통계/장래인구추계의 코호트별 완결 가족 크기와 비교한 결과, 특히 실효적 기대 자녀 수가 통계청의 완결 가족 크기에 매우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바탕을 둔 이상 자녀 수 및 기대 자녀 수는 기간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를 밑도는 초저출산 시대에서 출산율을 추계하고 장래인구 모습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현저해지고 있는 만혼화와 비혼화를 고려하여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에 50세까지 무자녀로 남아 있는 여성을 제외한 비중을 적용하여 실효적 이상 자녀 수와 실효적 기대 자녀 수로 보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앞으로도 추가로 혼인 의향 등으로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를 보정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또한, 출산력 조사를 패널화하여 이상 자녀 수 및 기대 자녀 수를 패널 주기로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면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 출산율 예측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출산력 조사의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를 활용하여 인구추계에 필요한 출산력 시나리오를 작성한 결과, 2003년 출생 코호트의 최종 출생아 수는 이상 자녀 수에 바탕을 두면 중위추계 1.08명, 저위추계 1.06명, 고위추계 1.09명으로 나타났으며, 기대 자녀 수에 바탕을 두면 중위추계 0.92명, 고위추계 1.02명, 저위추계 0.8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에 바탕을 두고 볼 때 우리나라에서 1명을 밑도는 초저출산율의 추이는 당분간 지속할 것임을 의미한다.

제2절 정책 제언

우리나라의 희망 자녀 수는 대체수준인 2.1명에 근접하지만, 코호트들의 완결 가족 크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속성을 갖고 있고 문화적으로 공유된 가족 규범, 곧 지배적인 가족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는 두 자녀에 대한 스키마(schema) 또는 두 자녀의 프레임과 경제, 소비, 건강 등과 관련한 제도적 구조 내에서 출산을 억제하는 압력이 존재하고 이것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효과를 추월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여기서 제기되는 쟁점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서도 두 자녀 규범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나는 점이다. 이러한 탄력성은 과거 시대의 감상적인 잔존물에 해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화생물학 등에 의하여 제시된 근본적인 인간의 경험에 해당하는 것인가? 물론, 한 자녀 또는 무자녀에 대한 “출산 의향”이 확산하면서 두 자녀 규범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새로운 세대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증거도 상당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가족 규범들이 존재하고, 동아시아에서는 대체출산율을 출산 의향으로 삼는 가족 규범을 벗어나려는 조짐이 보이며, 유럽에서도 그러한 이탈이 보이지만 아직은 그리 심각하지는 않다. 희망하고 있는 출산이 2명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를 지속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희망하는 출산과 실제 출산, 그리고 이 둘 간의 차이에 사회경제적인 환경과 정부 정책이 갖는 역할과 함의는 인구변천 이후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지속해서 논의하여야 할 과제이다.

이상 자녀 수/기대 자녀 수와 실제 관찰되는 출산율 간에 존재하는 차이는 바로 오랫동안 인구학자들의 연구의 관심이었던 기회구조와 제약구조 그리고 이들이 가져다주는 스키마적인 의미들에 의존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분명히 이것은 단순히 여성의 취업기회, 경력단절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공유된 스키마의 문제로 이것을 인구정책에 반영하고 사회 전반을 재조직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비용이나 합법성 또는 접근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허용하는 종교적 신념의 구조 또는 변천 이후 사회의 가치구조 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현재의 혼인 행태와 출산 의향/의도가 지향하는 대체수준을 훨씬 밑도는 초저출산 체제 아래서 생식보조기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을 활용할 수 있는 생물 의학의 놀라운 발전은 여성의 50세를 출산연령의 상한선으로 하는 재생산 도식을 구태의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적정한 가족 규모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심대한 영향을 남길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출산과 가족 형성의 의미나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들을 포함하여 구조적 변수들을 확대하는 것은 구조적 기회 요인과 제약 요인에 따른 영향력을 보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고 몇 가지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 평가 혹은 부정적 평가가 출산 의향이나 계획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임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 친지 등 외부의 압력이 출산 행동에 미치는 영향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Lutz, Skirbekk, & Testa(2006)가 “저출산의 덫” 가설에서 제시했듯이 초저출산에 따라 주변에서 두 자녀 이상을 낳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한 자녀 혹은 무자녀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도래하는 경우 우리나라

라의 저출산 현상은 더욱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출산 계획을 세우는 데 인식된 통제가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그동안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책적인 환경이 출산 계획을 세우는 데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출산과 자녀 양육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저출산 대응 정책은 지속해서 추진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출산 패리티별로 자녀에 대한 태도가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 의향의 실현과 비실현 유형도 출산 패리티별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할 때 출산 패리티별로 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첫째 아이를 출산한 여성들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갖지 않도록 자녀를 처음으로 출산한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녀가 없는 여성이 지속해서 출산을 연기하고 미결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무자녀 여성들이 지속해서 자녀 출산을 연기하거나 미결정적인 태도를 보여서 출산 포기로 귀결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녀 없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과 양육에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자녀를 출산하여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지금까지 저출산 대응 정책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보편적인 정책의 기초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향후 저출산 대응 정책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여성들이 희망하는 출산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동 수당과 보육료 지원 등의 정부 정책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최상위 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집단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득 수준별로 차등적인 지원을 하여 중산층 이하의 집단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이상 자녀 수와 특히 기대 자녀 수는 통계청의 인구동태 통계/장래인구추계의 코호트별 완결 출산율의 크기와 정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는 인구추계를 위한 출산율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본다. 이상 자녀 수/기대 자녀 수와 실제 출산율 수 사이의 차이를 보정하는 작업을 통하여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의 출산율 예측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초저출산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저출산 현상은 출산 의향/의도 요소보다는 혼인에 대한 의향 또는 선호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산 의향 및 출산 의도와 함께 혼인 의향에 대한 자료를 함께 축적하여 장래인구추계에 응답자의 의향/의도를 명백히 고려하는 추계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이나 출산 의향 자료에 바탕을 둔 미래 출산율 예측작업은 만족스러운 데이터, 특히 코호트 추적이나 패널 조사의 자료가 제공되면 더욱 강건한 분석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출산 의향 및 출산 의도 자료의 보정 작업은 “고정된 목표 모형(fixed target model)”에서 “움직이는 목표 모형(moving target model)”으로 진전할 수 있고, 출산 의도의 확실성에 다양한 측면을 부여했을 때 출산 의도의 신뢰성을 더할 수 있는 출산 의도를 보정하는 방법론의 사례인 Method of Limiting Factors(MLF), Inverse Snowball Method(ISM), Partial Adjustment Forecasting Model(PAF)도 추계 목적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원하는 출산의 실현으로 방향성이 전환되

있는데, 원하는 출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검증하는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도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패널 자료 구축이 중요하다. 「여성가족패널」의 조사 패널이 처음으로 구축된 시점은 2007년인데 10년도 더 지난 현재 상황에서는 조사대상 패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 의향을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기 어렵다. 출산이 가장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여성의 연령대(예를 들어 25~35세 등)를 고려하여 여성의 가임기에 출산 의향의 실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여성의 출산 의향 실현을 분석하기 위한 패널 조사는 여성의 출산 특성과 제한된 가임기를 고려해 볼 때 노동 패널 혹은 여성가족패널과 같이 장기적인 패널이 아니라 2~3년 주기로 3회 정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유럽 국가의 대표적인 패널 조사인 GGS 조사도 3년 주기로 2회 혹은 3회 (몇몇 소수 국가만 3회까지 실시함) 실시하였고, 2020년부터 새롭게 구축되는 GGS도 3년 주기로 3회 계획하고 있다. Miller(1995)의 CBQ 조사도 3년 6개월 동안 세 차례만 추적조사를 하였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볼 때 패널 조사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이나 관리 문제는 심각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출산 패널을 구축하는 경우 설문 문항도 정교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출산 의향의 형성 분석은 온라인으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고, 출산 의향의 실현은 여성가족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상적으로는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출산 의향의 형성과 출산 의향의 실현을 연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성 가족 패널에서는 출산 의향 형성에 대한 모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내 저출산 대응 정책이 “원하는 출산의 실현”으로 전환되었는데, 이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도 출산 의향이 어떻게 형성되고 얼마만큼 실현되는가에 대한 분

석이 가능한 패널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외국의 출산 패널 자료인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GGS)는 출산 의향의 형성과 실현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어, 국내 조사 자료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GGS와 CBQ 모듈을 적용하여 조사한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에 대한 결과는 향후 전국적인 조사를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준비조사(Pilot Study)로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 자료의 제약으로 강한 출산 의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출산을 실현하지 못한 여성에 대한 분석은 수행하지 못했다. 여성가족 패널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에 대한 강도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출산 대응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집단이 바로 출산 의향은 높으나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일 것이다. 2장에서 수행한 설문 조사와 같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의 강도를 조사한 후 2~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출산 의향 혹은 출산 계획이 높았으나 출산을 실현하지 못한 집단을 대상으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출산력 패널 조사와 함께 장기적인 출산력 횡단면 조사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1974~2018년 동안 조사된 횡단면 출산력 조사는 국내 출산 관련 상황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모니터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조사 자료이다. 출산력 조사는 현재의 변화된 출산 환경을 고려하면서 출산력 변천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조사 자료로서 그 명맥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전국의 대표적인 표본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출산력 변천 과정을 다양한 인구사학적 그리고 사회경제학적 변인을 고려하면서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출산에 대한 횡단면 조사가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출산 관련 분석이 종단면적인 측면과 함께 횡단면적 측면에서 이루어

지면 더욱 다양한 각도에서 출산을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횡단면 조사와 패널 조사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연구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자료의 이용도는 분명하게 다르다. 횡단면 조사는 표본의 대표성에 바탕을 두고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장점이 있지만 생애 주기별 분석은 어렵고, 반면에 패널 조사는 개인을 단위로 생애 주기별 변화를 관찰하는 데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시계열적 변화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출산에 대한 조사가 시계열적 조사와 함께 패널 조사가 병행되어 수행되면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져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권태환. (1997). 출산력 변천의 과정과 의미.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pp. 13-56). 서울: 일신사.
- 김정석. (2007).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 출산계획. **한국인구학**, 30(2), 97-116.
- 민인식, 최필선. (2009).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서울: 한국 STATA 학회.
- 박수미. (2008). 둘째 출산 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 내 성 형평성. **한국인구학**, 31(1), 59-77.
- 변두영. (2015). **기혼남녀의 출산의도 영향 요인분석: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충북).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44f279280a4f1983ffe0bdc3ef48d419에서 인출.
- 신윤정, 이명진, 박신아. (2019). **초저출산 현상 장기화 추이 분석가 향후 전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 (2016). 출산력 조사(1974~ 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해봉, 장인수. (2017). 출산에 대한 개인 특성과 부부 특성의 영향. **한국인구학**, 40(3), 79-105.
- 우해봉, 장인수. (2019). 출산 계획과 출산 행위 간 연관성 분석과 시사점. **사회복지정책**, 46(2), 85-115.
- 정성호. (2012).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35(1), 31-52.
- 정혜은, 진미정. (2008).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 **한국인구학**, 31(1), 151-168.
- 통계청. (2017).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통계청 인구동향과.
- 통계청. (2019). **“2018년 출생 통계(확정)”**. 통계청 인구동향과.

통계청. (2020). **“간이생명표(5세별)”**.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1&checkFlag=N에서 2020.06.09. 인출.

통계청. (2020). **“소비자물가지수”**.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에서 2020. 06.01. 인출.

통계청. (2020). **“인구동향조사: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F&vw_cd=MT_ZTITLE&list_id=A2_6&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0.06.10. 인출.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https://www.census.go.kr/dat/ysr/ysrItem.do?q_menu=6&q_sub=2에서 2020.06.03. 인출.

통계청. (2020). **“성·연령(5세) 사망자 수, 사망률”**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entrType=btn#content-group 에서 2020. 06. 10 인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 2차(2008년) ~ 7차(2018년)”**. <https://klof.kwdi.re.kr/portal/mainPage.do>에서 2020. 04 .03. 인출.

社会保障審議會(2008), **“人口構造の变化に関する特別部会「出生等に対する希望を反映した人口試算」の公表に当たっての人口構造の变化に関する議論の整理”**, 일본 후생성. 社会保障審議會.

Ajzen, I., & Klobas, J. (2013). Fertility intentions: An approach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Demographic research*, 29, 203-232.

Becker, G. S. (1960).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209-231.

- Becker, G. S. (1981a).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S: Harvard University Press.
- Becker, G. S. (1981b). Altruism in the Family and Selfishness in the Market Place. *Economica*, 48(189), 1-15.
- Becker, G. S., & Barro, R. J. (1988). A reformulation of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3(1), 1-25.
- Billari, F. C., Philipov, D., & Testa, M. R. (2009). Attitudes, norms and perceived behavioural control: Explaining fertility intentions in Bulgaria.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5(4), 439.
- Bongaarts, J., & Robert G. P. Jr., (1983). *Fertility, Biology, and Behavior: An Analysis of the Proximate Determinants*. New York : Academic Press.
- Bongaarts, J. (2001). Fertility and reproductive preferences in post-transitional societ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 260-281.
- Coombs, C. H., Coombs, L. C., & McClelland, G. H. (1975). Preference scales for number and sex of children. *Population studies*, 29(2), 273-298.
- Coutinho, R. Z., & Golgher, A. B. (2018). Modelling the proximate determinants of fertility for Brazil: the advent of competing preferences. *Revista Brasileira de Estudos de População*, 35(1).
- De Beer, J. (1991). From birth expectations to birth forecasts: A partial-adjustment approach. *Mathematical Population Studies*, 3(2), 127-144.
- De Beer, J. (1992). *General time series models for forecasting fertility*. In: N. Keilman & H. Crujisen (eds), National population forecasting in industrialized countries. 147-175. Amsterdam,

Swets & Zeitlinger.

- De Beer, J. (2000). *Dealing with uncertainty in population forecasting*. Department of Population, Statistics Netherlands
- De Santis, G., & Livi Bacci, M. (2001). *Reflections on the economics of the fertility decline in Europe*. In Euresco Conference,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Europe, Bad Herrenalb, 23-28, Germany.
- Dharmalingam, A., Rajan, S., & Morgan, S. P. (2014). The determinants of low fertility in India. *Demography*, 51(4), 1451-1475.
- Dommermuth, L., Klobas, J., & Lappegård, T. (2011). Now or later?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timing of fertility intentions.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6(1), 42-53.
- Easterlin, R. A., & Crimmins, E. M. (1985). *The fertility revolution: A supply-demand analys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reedman, R., Freedman, D. S., & Thornton, A. D. (1980). Changes in fertility expectations and preferences between 1962 and 1977: Their relation to final parity. *Demography*, 17(4), 365-378.
- Gauthier, A. H. (2019). On measuring the obstacles to fertility and the impact of policies, In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Effectiveness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Policy Implication for Low Fertility of Korea. *Policy Briefs and short papers*, 67-80. Sejong Gender & Generation Programme. (2020). *Gender & Generation Survey*. Horizon 2020 Research and Innovation Programme <https://www.ggp-i.org> 2020.04.06. 인출
- Gender & Generation Programme Consortium Board. (2003).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Core Questionnaire for Wave 1*. https://www.ggp-i.org/sites/default/files/questionnaires/GGP_QuestW1Core.pdf, 2020.03.08. 인출.

- Goldstein, J. R., Sobotka, T., & Jasilioniene, A. (2009). The end of “lowest-low”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5(4), 663-699.
- Henripin, J. (1981). *Les enfants qu'on n'a plus au Québec*.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 Hendershot, G. E., & Placek, P. J. (1981).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birth expectations: evidence from the 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 and the National Natality Survey*. Predicting fertility: Demographic studies of birth expectations. Lexington, Massachusetts: Lexington Books, 61-74.
- Jain, S.K. (1988). *Trends and projections of fertility in Australia, 1971-2021*, the 4th Annual Conference of the Australian Population Association, Brisbane.
- Jöreskog K. G. (1969). A General Approach to Confirmatory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4, 183-202.
- Kapitány, B., & Spéder, Z. (2012). Realization, postponement or abandonment of childbearing intentions in four European countries. *Population*, 67(4), 599-629.
- Keilman, N. W. (1989). *Uncertainty in National Population Forecasting: Issues, Backgrounds, Analysis, and Recommendation*. Amsterdam: Swets and Zeitlinger.
- Keilman, N. W. (1997). Ex-Post Errors in Official Population Forecast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Journal of Official Statistics (Statistics Sweden)*, 13, 245-77.
- Keilman, N. W. (1998). How Accurate Are the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jection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4, 15-41.
- Keilman, N. W. (2000). *Demographic Translation: From Period to*

- Cohort Perspective and Back*,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Oslo, Norway.
- Kennedy, D. P. (2005). Scale adaptation and ethnography. *Field Methods*, 17(4), 412-431.
- Kim, J. O., & Ferree Jr, G. D. (1981). Standardization in causal analysi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0(2), 187-210.
- Klobas, J. (2010). *Social psychological influences on fertility intentions: A study of eight countries in different social, economic and policy contexts*. Carlo F. Dondena Centre for Research on Social Dynamics. Milan.
- Kohler, H-P., Billari, F. C., Ortega, H. A. (2002). The Emergence of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1990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4), 641-680.
- Kye, Bong-ho (2014). Son Preference and Fertility Transition in South Kore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7(3), 107-141.
- Lee, R. D. (1980). Aiming at a moving target: Period fertility and changing reproductive goals. *Population Studies*, 34(2), 205-226.
- Lesthaeghe, R. (1998). On theory development: applications to the study of family forma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4(1), 1-14.
- Lutz, W. (1985). Parity-specific fertility analysis: a comparative study on 41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World Fertility Survey. Demographic Institute of the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 Lutz, W., Sanderson, W. C., & Scherbov, S. (1998). Expert-based probabilistic population projection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4, 139-155.
- Lutz, W. Skirbekk, V. & Testa, M.R. (2006). The Low-Fertility Trap

- Hypothesis: Forces that May Lead to Further Postponement and Fewer Births in Europe,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4, 167-192.
- MacCallum, R. C., Roznowski, M., & Necowitz, L. B. (1992). Model Modification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The Problem of Capitalization on chance. *Psychological Bulletin*, 111, 490-504.
- McDonald, P.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430.
- Miller, W. B. (1994). Childbearing motivations, desires, and intentions: A theoretical framework.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20(2), 223-258.
- Miller, W. B. (1995). Childbearing motivation and its measurement.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27(4), 473-487.
- Miller, W. B., & Pasta, D. J. (1995). Behavioral intentions: Which ones predict fertility behavior in married coupl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5(6), 530-555.
- Miller, W. B. (2011) Differences between fertility desires and intentions: Implications for theory, research and policy.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75-98.
- Morgan, S. P. (1985). Individual and couple intentions for more children: A research note. *Demography*, 22(1), 125-132.
- Morgan, S. P. (2001). *Should Fertility Intentions Inform Fertility Forecasts?*. US Census Bureau Conference: The Direction of Fertility in the United States, Oct 2-3, 2001, Virginia.
- Morgan, S. P., & Rackin, H. (2010). The correspondence between fertility intentions and behavior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1), 91-118.
- Mueller, R. O., & Hancock, G. R. (2008). *Best practices in structural*

- equation modeling*. Best practices in quantitative methods, 488-508.
- Mynarska, M. (2009). Deadline for parenthood: Fertility postponement and age norms in Poland.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6(3), 351-373.
- Mynarska, M., & Rytel, J. (2018). From motives through desires to intentions: Investigating the reproductive choices of childless men and women in Poland.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50(3), 421.
- O'Connell, M., & Moore, M. J. (1977). New evidence on the value of birth expectations. *Demography*, 14(3), 255-264.
- O'Connell, M., & Rogers, C. C. (1983). Assessing cohort birth expectations data from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1971-1981. *Demography*, 20(3), 369-384.
-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 Publications.
- OECD Family Database. (2020). *SF2.2: 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 Pezeshki, M. Z., Zeighami, B., & Miller, W. B. (2005). Measuring the childbearing motivation of couples referred to the Shiraz Health Center for premarital examinations.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37(1), 37.
- Régnier-Loilier, A., Vignoli, D., & Dutreuilh, C. (2011). Fertility intentions and obstacles to their realization in France and Italy. *Population*, 66(2), 361-389.
- Rindfuss, R. R., Morgan S. P., & Swicegood C. G. (1988). *First Births in Amer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choen, R., Astone, N. M., Kim, Y. J., Nathanson, C. A., & Fields, J. M.

- (1999). Do fertility intentions affect fertility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90-799.
- Shaw, L., & Statham, A. (1981). Changes In The Birth Expectations Of Young-Women, 1973-1978. *Population Index*, 47(3), 469-469.
- Sina, M., ter Meulen, R., & Carrasco de Paula, I. (2010). Human infertility: is medical treatment enough? A cross-sectional study of a sample of Italian couples. *Journal of Psychosomatic Obstetrics & Gynecology*, 31(3), 158-167.
- Stanford, J. B., Hobbs, R., Jameson, P., DeWitt, M. J., & Fischer, R. C. (2000). Defining dimensions of pregnancy intendedness. *Maternal and child health journal*, 4(3), 183-189.
- Sobotka, T. (2017). Post-transitional fertility: the role of childbearing postponement in fuelling the shift to low and unstable fertility levels.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49(S1), S20-S45.
- Testa, M. R., & Toulemon, L. (2006). Family formation in France: Individual preferences and subsequent outcomes.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41-75.
- The World Bank (2020) *Mortality rata, infant (per 1,000 live birth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IMRT.IN>, 2020. 06.10. 인출.
- Thomson, E. (1997). Couple childbearing desires, intentions, and births. *Demography*, 34(3), 343-354.
- Van De Giessen, G. J. (1982). The reliability of birth expectations. *Maandstatistiek van de bevolking (Hague, Netherlands: 1982)*, 30(10), 30-38.
- Van de Giessen, G. J. (1989). *The Snowball Method*. Working paper, Netherlands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 Van de Giessen, G. J. (1992). *Using birth expectations information in*

- national population forecasts*. National Population Forecasting in Industrialized Countries. Nico Keilman and Harri Cruisjen (1992) eds. Amsterdam: Swets & Zeitlinger.
- Van de Kaa, D. J. (2001). Post modern fertility preferences: from changing value orientation to new behaviour”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 290-331.
- Van de Kaa, D. J. (1987). Europe's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bulletin*, 42(1), 1-59.
- Westoff, C. F. & Ryder, N. B. (1977). The Predictive Validity Of Reproductive Intentions, *Demography*, 14, 431-453.
- Werner, B. (1986). Family building intentions of different generations of women: results from the General Household Survey 1979-83, *Population Trends*, 46, 26-34.
- Whittaker, T. A. (2011). Using the Modification Index and Standardized Expected Parameter Change for Model Modification.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80, 26-44.



[부록 1]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지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조사 인터넷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관련 정책 방안의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의 만 25세-39세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소요시간은 약 15 분 내외로 예상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향후 저출산 관련 정책 방안을 수립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제34조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확실하게 보장되며, 통계 산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사가 정부정책 수립과 추진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하고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 참여를 거절할 수 있고, 응답 도중에 설문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 참여 및 거절, 참여 중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 조사의 자발적 참여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신다면 아래에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응답자 일반사항(인구학적 특성), 출산에 관련된 동기 및 계획, 임신 및 피임 행동

[개인정보 수집 목적]

저출산 관련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합니다. 다만,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들을 이해하였고,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조사’의 조사대상으로 참여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인터넷으로 안내하여 표시)

2020년 월 일 조사대상자 : _____ (인터넷으로 동의)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상자 선정 질문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자 → 조사 중단 2) 여자

SQ2. 귀하의 출생연월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년
_____월

SQ3. 귀하의 혼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 1) 미혼 → 조사 중단 2) 배우자 있음(주말부부 포함)
3) 이혼/별거 → 조사 중단 4) 사별 → 조사 중단

SQ4. 귀하께서는 언제 결혼하셨습니다? _____년도

SQ6. 귀하는 몇 명의 자녀가 있으십니까? 출산, 입양 등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주시오.

※ 현재 임신 중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0명 2) 1명 3) 2명 4) 3명
5) 4명 6) 5명 7) 6명 이상

SQ7.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광주광역시 5) 대전광역시 6) 인천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세종특별자치시 9) 경기도
10) 강원도 11) 충청북도 12) 충청남도
13) 전라북도 14) 전라남도 15) 경상북도
16) 경상남도 17) 제주특별자치도

SQ7-1.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시/군/구는 어디입니까?

SQ7-2.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동/읍/면은 어디입니까?

SQ7 응답내용 SQ7-1응답내용 _____ 동/읍/면

SQ8.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중학교 이하 2) 고등학교 3) 대학교(2년제 포함)
4) 대학원

B. 다음은 귀하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배우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B1-1. 배우자의 출생년월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년 _____월

B1-2. 배우자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중학교 이하 2) 고등학교 3) 대학교(2년제 포함)
4) 대학원

B1-3. 배우자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같이 살고 계십니까?

- 1) 같이 살고 있음 2) 같이 살지 않음(주말부부 등 포함)

B1-4. 배우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1) 경제활동 하고 있음 2) 경제활동 하지 않음

B1-5. [B1-4=1] 그렇다면, 배우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1) 전문직 | 2) 사무직 |
| 3) 생산/기능직 | 4) 판매/영업/서비스직 |
| 5) 단순노무직 | 6) 농/임/어업 |
| 7) 프리랜서/자유직 | 8) 기타(_____) |

B1-6. [B1-4=1] 배우자의 고용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1) 정규직
- 2) 계약직(계약기간 1년 이상)
- 3) 임시직(계약기간 1개월~1년 미만)
- 4) 일용직(1개월 미만 아르바이트)

지금부터 자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분	출생 연월	성별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동거 여부
첫째 자녀	___년 __월	① 남자 ② 여자	① 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기타(_____)	① 동거 ② 비동거
둘째 자녀	___년 __월	① 남자 ② 여자	① 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기타(_____)	① 동거 ② 비동거
셋째 자녀	___년 __월	① 남자 ② 여자	① 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기타(_____)	① 동거 ② 비동거

Part C. 다음 질문은 귀하의 자녀 출산 의향과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C1.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실제로 몇 명의 자녀를 낳으셨습니까?

_____명

지금부터 귀하의 자녀 출산 의향과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산 의향은 자녀 출산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며, 출산 계획은 자녀 출산을 실제적으로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C2. [C1=0 응답자] 귀하께서는 자녀 낳는 것을 어느 정도 원하고 계십니까? 다음의 0점부터 10점 강도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C2. [C1=1 이상 응답자] 귀하께서는 자녀를 한 명 더 낳는 것을 어느 정도 원하고 계십니까? 다음의 0점부터 10점 강도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원하지 않음					보통					상당히 원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3. 위 응답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하십니까?

전혀 확신하지 않는다	확신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확신한다	매우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C4. [C1=0 응답자] 귀하께서는 자녀 낳는 것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다음의 0점부터 10점 강도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C4. [C1=1 이상 응답자] 귀하께서는 **자녀를 한 명 더 낳는 것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다음의 0점부터 10점 강도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계획하지 않음					보통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5. 위 응답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하십니까?

전혀 확신하지 않는다	확신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확신한다	매우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C6. 일반적으로 볼 때, 한 가정에서 이상적인 자녀의 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명

C7. 개인적으로 볼 때, 귀하가 몇 명의 자녀를 낳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명

C8. [C1=0 응답자] 귀하는 몇 명의 자녀를 낳는 것을 원하십니까?

C8. [C1=1 이상 응답자] 귀하는 몇 명의 자녀를 **더 낳는 것을** 원하십니까? 현재의 자녀 수를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_____명

C9. [C1=0 응답자] 귀하는 몇 명의 자녀를 낳는 것을 계획하십니까?

C9. [C1=1 이상 응답자] 귀하는 몇 명의 자녀를 **더 낳는 것을** 계획하십니까? 현재의 자녀 수를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_____명

C10. 귀하는 언제쯤 자녀를 낳는 것을 **바라십니까?**

- | | |
|-----------------------|-----------------|
| 1) 12개월 이내 혹은 가능하면 빨리 | 2) 1년~1년 6개월 미만 |
| 3) 1년 6개월~2년 미만 | 4) 2년~3년 미만 |
| 5) 3년~4년 미만 | 6) 4년~5년 미만 |
| 7) 5년 이후 | 8) 원하지 않음 |

C11. 귀하는 **구체적으로** 언제 자녀를 낳는 것으로 **계획하십니까?**

- | | |
|-----------------------|---------------------|
| 1) 12개월 이내 혹은 가능하면 빨리 | 2) 1년~1년 6개월 미만 |
| 3) 1년 6개월~2년 미만 | 4) 2년~3년 미만 |
| 5) 3년~4년 미만 | 6) 4년~5년 미만 |
| 7) 5년 이후 | 8)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음 |

Part D. 다음의 배우자의 자녀 출산 의향과 계획에 대한 동의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배우자의 자녀 출산 의향과 계획에 대한 동의 정도입니다.

D. 다음은 **배우자의 자녀 출산 의향과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우자가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응답해주시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자녀 출산 의향에 대한 동의	①	②	③	④	⑤
2) 자녀 출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동의	①	②	③	④	⑤

Part E. 다음은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한 행동 혹은 임신을 하기 위한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한 행동이란 피임 도구를 사용하는 것, 자연 피임 주기를 활용하는 것, 성관계 횟수를 줄이거나 시기를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신을 하기 위한 행동이란 임신하기 위하여 피임 도구 사용을 하지 않는 것, 성관계 횟수를 늘이는 것, 성관계 시점을 조절하는 것, 배란기 정보를 획득하는 것, 배란 촉진 도구를 구입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E1. 귀하는 현재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한 행동 혹은 임신을 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임신을 하기 위한 행동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한 행동				
매우 강하게	강하게	보통	약하게	매우 약하게	아무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매우 약하게	약하게	보통	강하게	매우 강하게
+5	+4	+3	+2	+1	0	-1	-2	-3	-4	-5

E2. [E1=0부터 4번 응답자] 귀하께서는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최소 1개, 최대 2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1) 난관 수술 | 2) 정관 수술 |
| 3) 자궁 내 장치 | 4) 사전 경구 피임약 |
| 5) 사후 경구 피임약(응급 피임약) | 6) 콘돔 |
| 7) 질살정제 | 8) 월경 주기법 |
| 9) 질외 사정법 | 10) 기타(_____) |

E3. [E1=6부터 10번 응답자] 귀하께서는 임신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최소 1개, 최대 2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1) 체외 수정 (시험관 시술 등) | 2) 배란 유도법 |
| 3) 기초 체온법 | 4) 월경 주기법 |
| 5) 건강한 몸 만들기 (엽산, 보약 섭취 등) | 6) 종교적인 활동 |
| 7) 기타(_____) | |

Part F. 다음은 자녀가 주는 좋은 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자녀가 주는 좋은 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자녀 출산에 관한 동기가 다음의 문항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응답해주시시오.

F1. 다음은 자녀가 주는 기쁨에 대한 진술입니다		전혀 아니 다	아 니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자녀의 태동·태기를 느끼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2)	배우자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만족감을 주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3)	배우자의 자녀를 갖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4)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5)	아기를 안고 귀여워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6)	자녀를 키우고 헌신하는 부모가 된다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F2. 다음은 전통적인 부모의 모습에 대한 진술입니다.		전혀 아니 다	아 니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7)	집안을 이을 자녀를 갖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8)	내가 가족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9)	출산을 통해 결혼이 굳건해진다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10)	가족생활에 대한 나의 종교적인 책무를 다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11)	나의 부모에게 손주를 안겨드리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12)	자녀를 낳음으로써 나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F3. 다음은 자녀 양육의 즐거움에 대한 진술입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자녀를 가져서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느끼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14) 자녀와 함께 노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15) 자녀를 낳아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16) 자녀를 훈육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17) 배우자와 자식을 함께 키우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18) 자녀가 주는 특별한 사랑과 친밀감을 경험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F4. 다음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진술입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자녀를 통해 내가 필요하고 유용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20) 노후에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자녀를 갖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21)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를 갖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22) 자녀를 통해 여성으로서 완벽함을 인정받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23) 자녀를 통해서 좀 더 흥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전혀 아 니 다	아 니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F5. 다음은 자녀가 주는 혜택에 대한 진술입니다.				
24) 나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25) 자녀를 가짐으로써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존중받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26) 아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27) 딸을 갖게 된다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28) 자녀에게 형제 혹은 자매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Part G. 자녀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자녀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자녀 출산에 관한 동기가 다음의 문항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응답해주시시오.

	전혀 아 니 다	아 니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G1. 다음은 임신과 출산이 주는 불편함에 대한 진술입니다.				
1) 임신으로 인한 입덧, 체중증가 등의 고통이 생기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2) 자녀 출산에 따른 육체적인 고통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G2. 다음은 부모가 갖는 불안과 걱정 에 대한 진술입니다.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3) 아이가 크면서 말 안 듣고 불평하는 아이가 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4)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5)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지 걱정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7) 자녀가 집안의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8) 부모로서 죄의식과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G3. 다음은 자녀 양육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진술입니다.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9) 자녀 때문에 직장생활에 소홀하거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10) 자녀의 다양한 요구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11) 자녀 양육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12) 자녀가 어지럽혀 놓는 것을 치우고 소란스럽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13) 자녀를 키우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14) 말 듣지 않고 귀찮게 구는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15) 자녀가 아플 때 돌보아야 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16) 자녀 때문에 내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G4. 다음은 부모가 갖는 스트레스에 대한 진술입니다.		전혀 아니 다	아 니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7)	자녀로 인해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18)	자녀 때문에 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19)	자녀 때문에 배우자가 부담을 갖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20)	자녀 부양을 위해 나 또는 배우자가 직업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21)	다른 자녀들에게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Part H. 다음은 경제적인 상황과 정부 정책이 미치는 영향
대한 질문입니다.**

- H1. [C1=0 응답자] 귀하의 출산 의향과 계획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얼마나 영향을 줍니까?
- H1. [C1=1 이상 응답자] 귀하가 자녀를 한 명 더 낳을 것인지 혹은 낳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의향과 계획이 다음의 상황에 얼마나 영향을 줍니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준다	매우 영향을 준다
1) 재정적 상황	①	②	③	④
2) 주거 환경	①	②	③	④
3) 나의 일자리	①	②	③	④
4) 나의 건강	①	②	③	④
5) 배우자의 일자리	①	②	③	④
6) 배우자의 건강	①	②	③	④
7)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①	②	③	④
8) 육아 휴직이나 자녀 돌봄 휴가	①	②	③	④
9) 국가의 현금 지원	①	②	③	④

**Part I. 귀하의 자녀 출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 I1. [C1=0 응답자] 귀하가 자녀를 낳는 것은 당신 혹은 배우자의 결
정이지만 주변 사람들은 귀하의 출산에 대해서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귀하의 출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
까?
- I1. [C1=1 이상 응답자] 귀하가 자녀를 한 명 더 낳는 것은 당신 혹
은 배우자의 결정이지만 주변 사람들은 귀하의 출산에 대해서 의
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귀하의 출산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부분의 친구들이 내가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내가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친척들은 내가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Part J. 다음은 미래의 상황에 대한 귀하의 의견입니다.

J1. 향후 3년 이후에 당신의 경제적인 상황은 현재와 비교하여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매우 더 나빠진다	나빠진다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다	좋아진다	훨씬 더 좋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J2.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난 후 확산되기 이전과 비교하여 귀하의 자녀 출산 의향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매우 약화되었다	약화되었다	변화 없다	강화되었다	매우 강화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J3.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난 후 확산되기 이전과 비교하여 귀하의 자녀 출산 계획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매우 약화되었다	약화되었다	변화 없다	강화되었다	매우 강화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DQ3. [DQ1=1] 귀하의 고용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1) 정규직
- 2) 계약직(계약기간 1년 이상)
- 3) 임시직(계약기간 1개월~1년 미만)
- 4) 일용직(1개월 미만 아르바이트)

DQ4.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1) 없음
- 2) 불교
- 3) 개신교
- 4) 천주교
- 5) 기타(_____)

DQ5. 귀하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쯤 이신가요? 임대소득, 이자소득 보너스 등을 모두 포함한 가구소득을 선택해 주십시오.

- 1) 소득 없음
- 2) 100만 원 미만
- 3) 100-199만 원 미만
- 4) 200-299만 원 미만
- 5) 300-399만 원 미만
- 6) 400-499만 원 미만
- 7) 500-699만 원 미만
- 8) 700-999만 원 미만
- 9) 1,000만 원 이상

DQ6. 귀하의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 중에서 귀하의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은 임대소득, 이자소득 보너스 등을 제외한 귀하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기준 _____ %

DQ7. 귀하께서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형태는 어디에 해당 되십니까?

- 1) 단독주택
- 2) 아파트
- 3) 주상복합
- 4) 오피스텔
- 5) 연립/빌라
- 6) 기타(_____)

DQ8. 귀하께서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보유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1) 자가(본인이나 가족의 소유)
- 2) 전세
- 3) 월세
- 4) 반전세
- 5) 기타(_____)

DQ9. 3년 후 다시 본 조사를 실시하여 그동안의 출산에 관해
묻는다면 귀하께서는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다	없다	있다	매우 있다
①	②	③	④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출산 의향의 실현: 확률 효과 로짓 모형 분석 결과

〈부록 표 2-1〉 로짓 확률효과 모형 추정 결과: 실현자²⁵⁾

변수	b	s.e	exp(b)
상수항	1.418**	0.581	4.130
연령	-0.075***	0.018	0.928
자녀수			
0명	-	-	-
1명	0.329*	0.171	1.390
2명 이상	-0.126	0.227	0.881
경제활동			
하고 있지 않음	-	-	-
하고 있음	-0.422**	0.167	0.656
학력			
고졸 이하	-	-	-
대졸 이상	0.413**	0.165	1.511
가구소득			
0~2,500만원	-	-	-
2,501만원~3,600만원	-0.123	0.196	0.884
3,600만원~5,000만원	-0.377*	0.221	0.686
5,000만원 이상	-0.158	0.238	0.854
기간			
2008~2010년	-	-	-
2010~2012년	-0.051	0.210	0.950
2012~2014년	0.185	0.223	1.204
2014~2016년	0.296	0.250	1.345
2016~2018년	-0.124	0.237	0.883

주 * : $p < 0.1$, ** : $p < 0.05$, *** : $p < 0.01$

자료: 여성가족패널 2차(2008년)~7차(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lowf.kwdi.re.kr/portal/mainPage.do>, 2020.04.03. 인출. 필자 분석

25) 추정된 계수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삭하여 실현자의 로짓 모형의 결과와 로짓 확률 효과 모형의 결과는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정된 계수를 소수점 셋째 자리 이상으로 확장하여 볼 때 두 추정 계수 간의 크기는 차이가 있다. 이는 미결정자 모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부록 표 2-2〉 로짓 확률효과 모형 추정 결과: 연기자

변수	b	s.e	exp(b)
상수항	2.203**	0.901	9.050
연령	-0.090***	0.027	0.914
자녀수			
0명	-	-	-
1명	-0.635**	0.260	0.530
2명 이상	-0.519*	0.312	0.595
경제활동			
하고 있지 않음	-	-	-
하고 있음	0.565**	0.237	1.759
학력			
고졸 이하	-	-	-
대졸 이상	0.324	0.245	1.383
가구소득			
0~2,500만 원	-	-	-
2,501만 원~3,600만 원	-0.641**	0.298	0.527
3,600만 원~5,000만 원	0.122	0.303	1.130
5,000만 원 이상	-0.402	0.348	0.669
기간			
2008~2010년	-	-	-
2010~2012년	-0.259	0.299	0.772
2012~2014년	-0.172	0.332	0.842
2014~2016년	-0.146	0.372	0.864
2016~2018년	-1.022***	0.367	0.360

주 * : p<0.1, ** : p<0.05, *** : p<0.01

자료: 여성가족패널 2차(2008년)~7차(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lowf.kwdi.re.kr/portal/mainPage.do>, 2020.04.03. 인출. 필자 분석

〈부록 표 2-3〉 로짓 확률효과 모형 추정 결과: 포기자

변수	b	s.e	exp(b)
상수항	-5.425***	1.156	0.004
연령	0.117***	0.030	1.124
자녀 수			
0명	-	-	-
1명	1.451***	0.325	4.265
2명 이상	1.612***	0.379	5.010
경제활동			
하고 있지 않음	-	-	-
하고 있음	-0.076	0.233	0.926
학력			
고졸 이하	-	-	-
대졸 이상	-0.427*	0.238	0.652
가구소득			
0~2,500만 원	-	-	-
2,501만 원~3,600만 원	0.579**	0.289	1.784
3,600만 원~5,000만 원	-0.019	0.316	0.982
5,000만 원 이상	0.128	0.346	1.137
기간			
2008~2010년	-	-	-
2010~2012년	-0.154	0.292	0.858
2012~2014년	0.187	0.322	1.206
2014~2016년	-0.017	0.374	0.983
2016~2018년	0.449	0.336	1.567

주 * : $p < 0.1$, ** : $p < 0.05$, *** : $p < 0.01$

자료: 여성가족패널 2차(2008년)~7차(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lowf.kwdi.re.kr/portal/mainPage.do>, 2020.04.03. 인출. 필자 분석

〈부록 표 2-4〉 로짓 확률효과 모형 추정 결과: 미결정자

변수	b	s.e	exp(b)
상수항	0.672	0.652	1.959
연령	-0.031	0.019	0.970
자녀 수			
0명	-	-	-
1명	-0.591***	0.194	0.554
2명 이상	-0.855***	0.255	0.425
경제활동			
하고 있지 않음	-	-	-
하고 있음	-0.380**	0.193	0.684
학력			
고졸 이하	-	-	-
대졸 이상	0.134	0.187	1.143
가구소득			
0~2,500만 원	-	-	-
2,501만 원~3,600만 원	-0.052	0.239	0.950
3,600만 원~5,000만 원	-0.189	0.256	0.828
5,000만 원 이상	0.146	0.278	1.157
기간			
2008~2010년	-	-	-
2010~2012년	0.277	0.244	1.319
2012~2014년	-0.098	0.277	0.907
2014~2016년	0.059	0.311	1.061
2016~2018년	0.363	0.267	1.438

주 * : $p < 0.1$, ** : $p < 0.05$, *** : $p < 0.01$

자료: 여성가족패널 2차(2008년)~7차(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lowf.kwdi.re.kr/portal/mainPage.do>, 2020.04.03.인출. 필자 분석

〈부록 표 2-5〉 2년 이내 출산 계획자에 대한 다항 로짓 확률효과 모형 분석 결과

변수	연기자 vs 실현자			포기자 vs 실현자			미결정자 vs 실현자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상수항	-0.9037	0.7601	0.405	-4.9690***	0.7590	0.007	-1.6560**	0.7244	0.191
연령	0.0263	0.0231	1.026	0.1349***	0.0217	1.145	0.0549***	0.0217	1.056
자녀 수									
0명	-	-	-	-	-	-	-	-	-
1명	-0.6860***	0.2204	0.504	0.4774**	0.2295	1.611	-0.6610***	0.2096	0.516
2명 이상	-0.1290	0.2850	0.879	0.9797***	0.2839	2.664	-0.4291	0.2896	0.651
경제활동									
하고 있지 않음	-	-	-	-	-	-	-	-	-
하고 있음	0.7311***	0.2125	2.077	0.3700*	0.2078	1.448	0.1828	0.2101	1.201
학력									
고졸 이하	-	-	-	-	-	-	-	-	-
대졸 이상	-0.2419	0.2179	0.785	-0.5887***	0.1994	0.555	-0.3522*	0.2068	0.703
가구소득									
0~2,500만 원	-	-	-	-	-	-	-	-	-
2,501만 원~3,600만 원	-0.3012	0.2696	0.740	0.4496*	0.2444	1.568	0.0938	0.2528	1.099
3,600만 원~5,000만 원	0.4678*	0.2746	1.597	0.3598	0.2823	1.433	0.2606	0.2811	1.298
5,000만 원 이상	-0.0450	0.3086	0.956	0.2376	0.3021	1.269	0.2383	0.2991	1.269
기간									
2008~2010년	-	-	-	-	-	-	-	-	-
2010~2012년	-0.0078	0.2696	0.992	-0.0903	0.2627	0.914	0.242	0.2652	1.274
2012~2014년	-0.1835	0.2887	0.833	-0.1494	0.2766	0.862	-0.2134	0.2943	0.808
2014~2016년	-0.2601	0.3214	0.771	-0.3702	0.3206	0.691	-0.2553	0.3262	0.775
2016~2018년	-0.4421	0.3227	0.643	0.2953	0.2897	1.343	0.3552	0.2918	1.426

주 * : p<0.1, ** : p<0.05, *** : p<0.01

자료: 여성가족패널 2차(2008년)~7차(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lowf.kwdi.re.kr/portal/mainPage.do>, 2020.04.03. 인출. 필자 분석

〈부록 표 2-6〉 비실현자 다항 로짓 확률효과 모형 추정 결과

	연기자 vs 포기자			미결정자 vs 포기자		
	b	s.e	exp(b)	b	s.e	exp(b)
상수항	5.013***	1.201	150.355	4.247***	1.174	69.895
연령	-0.130***	0.032	0.878	-0.101***	0.030	0.904
자녀 수						
0명	-	-	-	-	-	-
1명	-1.427***	0.340	0.240	-1.413***	0.330	0.243
2명 이상	-1.471***	0.399	0.230	-1.692***	0.394	0.184
경제활동						
하고 있지 않음	-	-	-	-	-	-
하고 있음	0.385	0.257	1.470	-0.200	0.253	0.819
학력						
고졸 이하	-	-	-	-	-	-
대졸 이상	0.458*	0.263	1.581	0.373	0.252	1.452
가구소득						
0~2,500만 원	-	-	-	-	-	-
2,501만 원~3,600만 원	-0.789**	0.326	0.454	-0.402	0.311	0.669
3,600만 원~5,000만 원	0.116	0.340	1.123	-0.087	0.344	0.917
5,000만 원 이상	-0.281	0.381	0.755	0.022	0.371	1.022
기간						
2008~2010년	-	-	-	-	-	-
2010~2012년	0.032	0.323	1.033	0.276	0.317	1.318
2012~2014년	-0.136	0.353	0.873	-0.208	0.355	0.812
2014~2016년	0.013	0.407	1.013	0.036	0.408	1.037
2016~2018년	-0.920**	0.383	0.399	-0.101	0.357	0.904

주 * : p<0.1, ** : p<0.05, *** : p<0.01

자료: 여성가족패널 2차(2008년)~7차(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lowf.kwdi.re.kr/portal/mainPage.do>, 2020.04.03. 인출. 필자 분석

[부록 3] 출산 의향과 출산 의도의 예측 타당성 분석에 활용한 표

〈부록 표 3-1〉 출산력 조사의 연령(매세)별 만 50세에서 무자녀인 여성을 제외한 모든
여성의 연도별 이상 자녀 수: 1974-2018년

(단위: 명)

연령/ 연도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15								
16								2.0000
17							2.0000	2.0000
18	3.2000	2.6250	1.8571	1.0000	1.3333	1.5714	2.0000	2.6667
19	2.8000	2.3684	2.0000	1.7273	1.7273	2.0000	2.1111	2.1667
20	2.8750	2.5962	2.1395	1.6842	1.6667	1.8000	2.1111	1.9091
21	2.6098	2.5114	2.1695	1.8750	1.8919	1.8718	1.9600	2.2609
22	2.8036	2.4259	2.1121	1.8056	1.8256	1.8958	2.0600	1.9750
23	2.6515	2.1742	2.0714	1.8214	1.8699	1.7766	2.0000	2.1343
24	3.0180	2.2615	2.0515	1.8917	1.8436	1.8344	2.0480	2.0625
25	2.8264	2.4340	2.1333	1.8493	1.8555	1.8895	1.9613	2.1163
26	2.6582	2.4762	2.1806	1.9238	1.9443	1.8419	2.0521	2.1989
27	2.7255	2.3937	2.2376	1.9421	1.9434	1.9494	2.1336	2.1276
28	2.9170	2.5672	2.2500	1.9643	1.9097	2.0060	2.1556	2.2072
29	2.8792	2.5344	2.2441	2.0364	1.9484	1.9686	2.1315	2.0878
30	2.8879	2.6273	2.4694	1.9750	1.9631	2.0466	2.1673	2.1901
31	3.0046	2.7684	2.4657	1.8832	1.9836	2.0208	2.2484	2.1917
32	3.0838	2.8190	2.4462	2.0707	1.9807	2.0928	2.2950	2.1993
33	3.0459	2.8008	2.5187	2.0263	2.0399	2.1264	2.2721	2.2415
34	3.2200	2.7830	2.4388	2.1467	2.0517	2.0557	2.3473	2.2884
35	3.1698	2.8964	2.5577	2.1561	2.0721	2.1614	2.2535	2.2709
36	3.2622	2.8263	2.6015	2.1285	2.0447	2.1888	2.2669	2.2466
37	3.2775	2.8583	2.6454	2.0376	2.0195	2.1597	2.4196	2.3148
38	3.3842	3.0184	2.6358	2.2057	2.0304	2.2169	2.3256	2.4228
39	3.2562	3.1577	2.7707	2.0889	2.1932	2.2327	2.4056	2.3119
40	3.4551	3.1415	2.7767	2.1242	2.2097	2.2636	2.3281	2.3217
41	3.4866	3.1354	2.8779	2.0847	2.0494	2.3233	2.4434	2.3556
42	3.5829	3.1465	2.8278	2.3056	2.1613	2.3735	2.3070	2.2904
43	3.5235	3.1705	2.9769	2.2750	2.1667	2.2519	2.3807	2.3041
44	3.4025	3.2616	2.8986	2.3429	2.1921	2.3580	2.5054	2.3962
45	3.5694	3.3222		2.3293	2.2411	2.4585	2.4663	2.3626
46	3.6688	3.2333		2.4286	2.2735	2.6142	2.3977	2.5028
47	3.6882	3.2930		2.4752	2.2952	2.5104	2.5127	2.4566
48	3.6636	3.4837		2.4889	2.3030	2.4788	2.5268	2.5795
49	3.6696	3.2170		2.5333	2.4115	2.5787	2.6299	2.6074

〈부록 표 3-1〉 계속)

(단위: 명)

연령/ 연도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15							
16	2.0000		2.0000				
17	2.0000		2.0000			2.0000	
18	2.5000	2.3333	2.3333		1.3333	2.0000	2.5000
19	2.3333	2.0000	2.0000	2.0000		2.7500	2.0000
20	2.1111	2.1111	2.7500	2.5000	1.6667	2.3750	2.0000
21	2.1364	2.1538	2.1667	2.4000	2.3750	2.3077	2.0000
22	2.1379	2.2857	2.1667	2.0000	2.0000	1.9524	2.0000
23	2.0222	2.2727	2.2286	2.2174	2.1579	2.1304	1.8182
24	2.1967	2.0909	2.2115	2.3333	2.0741	2.2973	1.8710
25	2.0392	2.1486	2.2157	2.1087	2.0588	2.2034	2.0278
26	2.2048	2.2376	2.0769	2.2329	2.1429	2.2533	2.0462
27	2.0278	2.0892	2.1391	2.2277	2.1558	2.2231	1.9892
28	2.0374	2.1747	2.1585	2.1732	2.1333	2.1897	2.0609
29	2.1297	2.1493	2.1068	2.1839	2.1217	2.2275	2.0960
30	2.1801	2.1937	2.1667	2.1032	2.1765	2.2115	2.0524
31	2.1863	2.2616	2.1622	2.2851	2.1790	2.2153	2.0906
32	2.2988	2.2731	2.2148	2.2827	2.1630	2.1655	2.0863
33	2.2844	2.2697	2.1958	2.2176	2.1971	2.1806	2.0685
34	2.2481	2.2143	2.2052	2.2103	2.2724	2.2457	2.0412
35	2.2599	2.2457	2.2829	2.2329	2.2097	2.1760	2.0775
36	2.3082	2.2035	2.2238	2.3158	2.1656	2.2414	2.0705
37	2.2993	2.1949	2.2747	2.2438	2.2398	2.2260	2.1414
38	2.2928	2.2407	2.2975	2.2656	2.1791	2.2603	2.1550
39	2.1980	2.3543	2.2915	2.2025	2.2626	2.2334	2.1638
40	2.2305	2.2528	2.3031	2.2400	2.2264	2.2755	2.1498
41	2.2954	2.2665	2.3199	2.2177	2.1805	2.2706	2.1460
42	2.3920	2.2545	2.2896	2.3387	2.2906	2.2675	2.2152
43	2.3401	2.3381	2.3171	2.2797	2.2448	2.3000	2.1825
44	2.2735	2.2951	2.3333	2.2975	2.2849	2.3233	2.2300
45	2.3655	2.3264	2.3765	2.2917	2.2529	2.3206	2.2306
46	2.3878	2.3444	2.3953	2.3333	2.3123	2.3395	2.2420
47	2.3175	2.3597	2.3977	2.2857	2.2286	2.3145	2.2371
48	2.4235	2.3200	2.3849	2.2669	2.2651	2.3210	2.2358
49	2.4216	2.3125	2.4110	2.2924	2.2269	2.3349	2.261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데이터(<https://data.kihasa.re.kr/databank/subject/list?page=1&seq=6&searchText=%EC%B6%9C%EC%82%B0%EB%A0%A5>, 2020.06.03. 인출) 분석 결과

304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부록 표 3-2〉 출산력 조사의 연령(매세)별 만 50세에서 무자녀인 여성을 제외한 모든 여성의 연도별 기대 자녀 수: 1976-2018년

(단위: 명)

연령/ 연도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15								
16								
17								2.0000
18		2.4167	2.4167	1.0000	1.0000	1.4000	1.5000	2.6667
19		2.1491	2.1491	1.5182	1.7614	1.6167	1.8889	2.1429
20		2.4523	2.4523	1.5789	1.2857	1.6615	1.5000	1.6364
21		2.3020	2.3020	1.5625	1.5479	1.8132	1.7717	2.0587
22		2.4907	2.4907	1.6462	1.4943	1.8189	1.8942	1.7803
23		2.0820	2.0820	1.6576	1.4820	1.7227	1.9272	1.9457
24		2.2777	2.2777	1.6747	1.6232	1.8126	1.9471	1.8967
25		2.4492	2.4492	1.6829	1.6324	1.8278	1.9580	1.8733
26		2.5196	2.5196	2.0162	1.7724	1.8469	1.9564	1.9451
27		2.6058	2.6058	2.1213	1.8950	1.9371	2.0541	1.8783
28		2.7647	2.7647	2.2096	2.0022	1.9508	1.9978	1.9504
29		2.8575	2.8575	2.3866	2.1066	1.9173	2.0135	2.0183
30		2.9849	2.9849	2.4255	2.2262	2.0208	2.0500	1.9956
31		3.3601	3.3601	2.3774	2.2587	1.9887	2.0241	2.0502
32		3.3497	3.3497	2.5014	2.3809	2.0744	2.0528	2.0255
33		3.5679	3.5679	2.7146	2.4588	2.0978	2.0651	2.0266
34		3.7602	3.7602	2.9041	2.5445	2.1644	2.0548	2.0206
35		3.9168	3.9168	2.9606	2.5573	2.2332	2.0982	2.1463
36		3.9683	3.9683	3.1911	2.5954	2.3441	2.1730	2.0205
37		4.1299	4.1299	3.0250	2.7122	2.4381	2.2078	2.1129
38		4.2965	4.2965	3.4113	2.7601	2.5303	2.2327	2.1457
39		4.4658	4.4658	3.3778	2.9010	2.6681	2.4563	2.1071
40		4.5286	4.5286	3.6638	3.1029	2.6781	2.5105	2.0992
41		4.9250	4.9250	3.5823	3.1588	2.8077	2.5569	2.2811
42		4.8138	4.8138	3.8606	3.1908	2.8073	2.5182	2.3370
43		5.0973	5.0973	4.2028	3.3847	2.9297	2.7152	2.2807
44		5.0874	5.0874	4.2214	3.3974	3.0214	2.9243	2.4047
45		5.2821		4.2562	3.6479	3.3659	3.1022	2.7189
46		5.2236		4.5676	4.0032	3.4822	3.0621	2.7322
47		5.6786		4.8042	4.0088	3.5417	3.0503	2.8908
48		5.7785		4.7845	4.0707	3.5060	2.9821	3.0711
49		5.5088		5.1268	4.2256	3.6193	3.4320	3.1350

〈부록 표 3-2〉 계속)

(단위: 명)

연령/ 연도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15							
16	2.0000		2.0000				
17	1.5000		2.0000			2.5000	
18	2.5000	1.3333	1.7500	0.0000	1.3333	2.0000	
19	2.1667	2.0000	1.8333	1.5000	0.0000	2.1964	1.0000
20	1.2917	1.8889	2.2500	3.0000	1.6667	2.0417	1.3333
21	1.6630	1.7350	2.0000	2.1556	2.1964	1.7628	2.0000
22	1.7957	1.8571	2.1748	1.9636	1.8333	1.6090	1.5182
23	1.6446	1.9200	2.0202	1.8279	2.0724	1.9848	1.9091
24	1.7220	1.7280	1.7440	2.0952	1.6435	1.8586	1.5108
25	1.7027	1.8476	1.8719	1.8530	1.6259	2.0697	1.8645
26	1.8296	1.8387	1.8073	2.0095	1.7362	1.9021	1.6782
27	1.7366	1.8224	1.8043	1.9000	1.8892	1.8154	1.8462
28	1.7858	1.8115	1.8357	1.8583	1.8509	1.9296	1.7149
29	1.7906	1.7968	1.7774	1.9116	1.7460	1.8838	1.8022
30	1.9373	1.8554	1.8294	1.8000	1.8924	1.8952	1.7275
31	1.9812	1.9871	1.8248	1.9950	1.9504	1.8740	1.8282
32	1.9612	1.9797	1.8708	2.0271	1.9542	1.7904	1.8016
33	1.9891	2.0108	1.9329	1.9116	1.9274	1.8756	1.7982
34	1.9395	1.9378	1.9688	1.9008	1.9530	1.9160	1.8190
35	2.0765	1.9925	1.9883	1.8967	1.8965	1.8962	1.8552
36	2.0332	1.9807	1.9663	1.9377	1.8957	1.9030	1.8591
37	2.0458	2.1051	1.9959	2.0059	1.9679	1.9246	1.9252
38	2.0874	2.0118	2.0212	1.9293	2.0190	1.9811	1.9224
39	2.0260	2.0649	2.0191	1.9909	2.0096	1.9529	1.9273
40	1.9827	2.0449	2.0345	2.0523	1.9362	1.9338	1.8937
41	2.0279	2.0514	2.0463	1.9935	1.9636	1.9815	1.9507
42	2.1279	2.1260	1.9967	1.9873	1.9800	1.9723	1.9373
43	2.1629	2.0364	2.0027	2.0074	2.0007	1.9699	1.9075
44	2.2205	2.1994	2.0283	2.0693	1.9980	2.0289	1.9424
45	2.3960	2.1424	2.0357	2.0138	2.0608	1.9600	1.9433
46	2.3873	2.2124	1.9452	2.0749	1.9794	2.0254	1.9771
47	2.4536	2.2767	2.0625	2.0165	1.9414	1.9383	1.9089
48	2.5250	2.4066	2.0974	2.0171	2.0093	1.9711	1.9717
49	2.6146	2.4623	2.1458	2.0320	2.0094	2.0163	1.948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데이터(<https://data.kihasa.re.kr/databank/subject/list?page=1&seq=6&searchText=%EC%B6%9C%EC%82%B0%EB%A0%A5>, 2020.06.03. 인출) 분석 결과

306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부록 표 3-3> 출산력 조사의 연령별 모든 여성의 코호트 합계출산율: 1974-2018년

(단위: 명)

연령/ 연도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15	1.9396	2.1503	1.9054	1.7524	1.6480	1.5749	1.4862	1.3758
16	1.9151	2.0815	1.9408	1.8937	1.6603	1.6048	1.5227	1.3940
17	1.9683	1.9396	1.9776	1.9263	1.7380	1.6409	1.5620	1.4648
18	1.9869	1.9151	1.8311	1.9054	1.7524	1.6480	1.5749	1.4862
19	2.2659	1.9683	1.9673	1.9408	1.8937	1.6603	1.6048	1.5227
20	2.2564	1.9869	1.9511	1.9776	1.9263	1.7380	1.6409	1.5620
21	2.3815	2.2659	2.1503	1.8311	1.9054	1.7524	1.6480	1.5749
22	2.7329	2.2564	2.0815	1.9673	1.9408	1.8937	1.6603	1.6048
23	2.5315	2.3815	1.9396	1.9511	1.9776	1.9263	1.7380	1.6409
24	2.9536	2.7329	1.9151	2.1503	1.8311	1.9054	1.7524	1.6480
25	2.9117	2.5315	1.9683	2.0815	1.9673	1.9408	1.8937	1.6603
26	3.0397	2.9536	1.9869	1.9396	1.9511	1.9776	1.9263	1.7380
27	3.3405	2.9117	2.2659	1.9151	2.1503	1.8311	1.9054	1.7524
28	3.3196	3.0397	2.2564	1.9683	2.0815	1.9673	1.9408	1.8937
29	3.7206	3.3405	2.3815	1.9869	1.9396	1.9511	1.9776	1.9263
30	3.9853	3.3196	2.7329	2.2659	1.9151	2.1503	1.8311	1.9054
31	4.2799	3.7206	2.5315	2.2564	1.9683	2.0815	1.9673	1.9408
32	4.5470	3.9853	2.9536	2.3815	1.9869	1.9396	1.9511	1.9776
33	4.5625	4.2799	2.9117	2.7329	2.2659	1.9151	2.1503	1.8311
34	4.7794	4.5470	3.0397	2.5315	2.2564	1.9683	2.0815	1.9673
35	4.8920	4.5625	3.3405	2.9536	2.3815	1.9869	1.9396	1.9511
36	4.9672	4.7794	3.3196	2.9117	2.7329	2.2659	1.9151	2.1503
37	5.0765	4.8920	3.7206	3.0397	2.5315	2.2564	1.9683	2.0815
38	5.1926	4.9672	3.9853	3.3405	2.9536	2.3815	1.9869	1.9396
39	5.3074	5.0765	4.2799	3.3196	2.9117	2.7329	2.2659	1.9151
40	5.3778	5.1926	4.5470	3.7206	3.0397	2.5315	2.2564	1.9683
41	5.4478	5.3074	4.5625	3.9853	3.3405	2.9536	2.3815	1.9869
42	5.5152	5.3778	4.7794	4.2799	3.3196	2.9117	2.7329	2.2659
43	5.5641	5.4478	4.8920	4.5470	3.7206	3.0397	2.5315	2.2564
44	5.6282	5.5152	4.9672	4.5625	3.9853	3.3405	2.9536	2.3815
45	5.6408	5.5641		4.7794	4.2799	3.3196	2.9117	2.7329
46	5.6681	5.6282		4.8920	4.5470	3.7206	3.0397	2.5315
47	5.6804	5.6408		4.9672	4.5625	3.9853	3.3405	2.9536
48	5.6881	5.6681		5.0765	4.7794	4.2799	3.3196	2.9117
49	5.6930	5.6804		5.1926	4.8920	4.5470	3.7206	3.0397

〈부록 표 3-3〉 계속)

(단위: 명)

연령/ 연도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15	1.2488	1.1271	1.0602	1.0946	1.1582	1.2220	1.2677
16	1.2941	1.1603	1.0697	1.0771	1.1371	1.2010	1.2653
17	1.3409	1.2064	1.0890	1.0641	1.1157	1.1800	1.2438
18	1.3758	1.2488	1.1271	1.0602	1.0946	1.1582	1.2220
19	1.3940	1.2941	1.1603	1.0697	1.0771	1.1371	1.2010
20	1.4648	1.3409	1.2064	1.0890	1.0641	1.1157	1.1800
21	1.4862	1.3758	1.2488	1.1271	1.0602	1.0946	1.1582
22	1.5227	1.3940	1.2941	1.1603	1.0697	1.0771	1.1371
23	1.5620	1.4648	1.3409	1.2064	1.0890	1.0641	1.1157
24	1.5749	1.4862	1.3758	1.2488	1.1271	1.0602	1.0946
25	1.6048	1.5227	1.3940	1.2941	1.1603	1.0697	1.0771
26	1.6409	1.5620	1.4648	1.3409	1.2064	1.0890	1.0641
27	1.6480	1.5749	1.4862	1.3758	1.2488	1.1271	1.0602
28	1.6603	1.6048	1.5227	1.3940	1.2941	1.1603	1.0697
29	1.7380	1.6409	1.5620	1.4648	1.3409	1.2064	1.0890
30	1.7524	1.6480	1.5749	1.4862	1.3758	1.2488	1.1271
31	1.8937	1.6603	1.6048	1.5227	1.3940	1.2941	1.1603
32	1.9263	1.7380	1.6409	1.5620	1.4648	1.3409	1.2064
33	1.9054	1.7524	1.6480	1.5749	1.4862	1.3758	1.2488
34	1.9408	1.8937	1.6603	1.6048	1.5227	1.3940	1.2941
35	1.9776	1.9263	1.7380	1.6409	1.5620	1.4648	1.3409
36	1.8311	1.9054	1.7524	1.6480	1.5749	1.4862	1.3758
37	1.9673	1.9408	1.8937	1.6603	1.6048	1.5227	1.3940
38	1.9511	1.9776	1.9263	1.7380	1.6409	1.5620	1.4648
39	2.1503	1.8311	1.9054	1.7524	1.6480	1.5749	1.4862
40	2.0815	1.9673	1.9408	1.8937	1.6603	1.6048	1.5227
41	1.9396	1.9511	1.9776	1.9263	1.7380	1.6409	1.5620
42	1.9151	2.1503	1.8311	1.9054	1.7524	1.6480	1.5749
43	1.9683	2.0815	1.9673	1.9408	1.8937	1.6603	1.6048
44	1.9869	1.9396	1.9511	1.9776	1.9263	1.7380	1.6409
45	2.2659	1.9151	2.1503	1.8311	1.9054	1.7524	1.6480
46	2.2564	1.9683	2.0815	1.9673	1.9408	1.8937	1.6603
47	2.3815	1.9869	1.9396	1.9511	1.9776	1.9263	1.7380
48	2.7329	2.2659	1.9151	2.1503	1.8311	1.9054	1.7524
49	2.5315	2.2564	1.9683	2.0815	1.9673	1.9408	1.893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데이터(<https://data.kihasa.re.kr/databank/subject/list?page=1&seq=6&searchText=%EC%B6%9C%EC%82%B0%EB%A0%A5>, 2020.06.03. 인출) 분석 결과

308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부록 표 3-4〉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장래인구추계의 연령별 모든 여성의 코호트 합계
출산율: 1974-2018년

(단위: 명)

연령/ 연도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15	1.9396	2.1503	1.9054	1.7524	1.6480	1.5749	1.4862	1.3758
16	1.9151	2.0815	1.9408	1.8937	1.6603	1.6048	1.5227	1.3940
17	1.9683	1.9396	1.9776	1.9263	1.7380	1.6409	1.5620	1.4648
18	1.9869	1.9151	1.8311	1.9054	1.7524	1.6480	1.5749	1.4862
19	2.2659	1.9683	1.9673	1.9408	1.8937	1.6603	1.6048	1.5227
20	2.2564	1.9869	1.9511	1.9776	1.9263	1.7380	1.6409	1.5620
21	2.3815	2.2659	2.1503	1.8311	1.9054	1.7524	1.6480	1.5749
22	2.7329	2.2564	2.0815	1.9673	1.9408	1.8937	1.6603	1.6048
23	2.5315	2.3815	1.9396	1.9511	1.9776	1.9263	1.7380	1.6409
24	2.9536	2.7329	1.9151	2.1503	1.8311	1.9054	1.7524	1.6480
25	2.9117	2.5315	1.9683	2.0815	1.9673	1.9408	1.8937	1.6603
26	3.0397	2.9536	1.9869	1.9396	1.9511	1.9776	1.9263	1.7380
27	3.3405	2.9117	2.2659	1.9151	2.1503	1.8311	1.9054	1.7524
28	3.3196	3.0397	2.2564	1.9683	2.0815	1.9673	1.9408	1.8937
29	3.7206	3.3405	2.3815	1.9869	1.9396	1.9511	1.9776	1.9263
30	3.9853	3.3196	2.7329	2.2659	1.9151	2.1503	1.8311	1.9054
31	4.2799	3.7206	2.5315	2.2564	1.9683	2.0815	1.9673	1.9408
32	4.5470	3.9853	2.9536	2.3815	1.9869	1.9396	1.9511	1.9776
33	4.5625	4.2799	2.9117	2.7329	2.2659	1.9151	2.1503	1.8311
34	4.7794	4.5470	3.0397	2.5315	2.2564	1.9683	2.0815	1.9673
35	4.8920	4.5625	3.3405	2.9536	2.3815	1.9869	1.9396	1.9511
36	4.9672	4.7794	3.3196	2.9117	2.7329	2.2659	1.9151	2.1503
37	5.0765	4.8920	3.7206	3.0397	2.5315	2.2564	1.9683	2.0815
38	5.1926	4.9672	3.9853	3.3405	2.9536	2.3815	1.9869	1.9396
39	5.3074	5.0765	4.2799	3.3196	2.9117	2.7329	2.2659	1.9151
40	5.3778	5.1926	4.5470	3.7206	3.0397	2.5315	2.2564	1.9683
41	5.4478	5.3074	4.5625	3.9853	3.3405	2.9536	2.3815	1.9869
42	5.5152	5.3778	4.7794	4.2799	3.3196	2.9117	2.7329	2.2659
43	5.5641	5.4478	4.8920	4.5470	3.7206	3.0397	2.5315	2.2564
44	5.6282	5.5152	4.9672	4.5625	3.9853	3.3405	2.9536	2.3815
45	5.6408	5.5641	5.0765	4.7794	4.2799	3.3196	2.9117	2.7329
46	5.6681	5.6282	5.1926	4.8920	4.5470	3.7206	3.0397	2.5315
47	5.6804	5.6408	5.3074	4.9672	4.5625	3.9853	3.3405	2.9536
48	5.6881	5.6681	5.3778	5.0765	4.7794	4.2799	3.3196	2.9117
49	5.6930	5.6804	5.4478	5.1926	4.8920	4.5470	3.7206	3.0397

〈부록 표 3-4〉 계속)

(단위: 명)

연령/ 연도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15	1.2488	1.1271	1.0602	1.0946	1.1582	1.2220	1.2677
16	1.2941	1.1603	1.0697	1.0771	1.1371	1.2010	1.2653
17	1.3409	1.2064	1.0890	1.0641	1.1157	1.1800	1.2438
18	1.3758	1.2488	1.1271	1.0602	1.0946	1.1582	1.2220
19	1.3940	1.2941	1.1603	1.0697	1.0771	1.1371	1.2010
20	1.4648	1.3409	1.2064	1.0890	1.0641	1.1157	1.1800
21	1.4862	1.3758	1.2488	1.1271	1.0602	1.0946	1.1582
22	1.5227	1.3940	1.2941	1.1603	1.0697	1.0771	1.1371
23	1.5620	1.4648	1.3409	1.2064	1.0890	1.0641	1.1157
24	1.5749	1.4862	1.3758	1.2488	1.1271	1.0602	1.0946
25	1.6048	1.5227	1.3940	1.2941	1.1603	1.0697	1.0771
26	1.6409	1.5620	1.4648	1.3409	1.2064	1.0890	1.0641
27	1.6480	1.5749	1.4862	1.3758	1.2488	1.1271	1.0602
28	1.6603	1.6048	1.5227	1.3940	1.2941	1.1603	1.0697
29	1.7380	1.6409	1.5620	1.4648	1.3409	1.2064	1.0890
30	1.7524	1.6480	1.5749	1.4862	1.3758	1.2488	1.1271
31	1.8937	1.6603	1.6048	1.5227	1.3940	1.2941	1.1603
32	1.9263	1.7380	1.6409	1.5620	1.4648	1.3409	1.2064
33	1.9054	1.7524	1.6480	1.5749	1.4862	1.3758	1.2488
34	1.9408	1.8937	1.6603	1.6048	1.5227	1.3940	1.2941
35	1.9776	1.9263	1.7380	1.6409	1.5620	1.4648	1.3409
36	1.8311	1.9054	1.7524	1.6480	1.5749	1.4862	1.3758
37	1.9673	1.9408	1.8937	1.6603	1.6048	1.5227	1.3940
38	1.9511	1.9776	1.9263	1.7380	1.6409	1.5620	1.4648
39	2.1503	1.8311	1.9054	1.7524	1.6480	1.5749	1.4862
40	2.0815	1.9673	1.9408	1.8937	1.6603	1.6048	1.5227
41	1.9396	1.9511	1.9776	1.9263	1.7380	1.6409	1.5620
42	1.9151	2.1503	1.8311	1.9054	1.7524	1.6480	1.5749
43	1.9683	2.0815	1.9673	1.9408	1.8937	1.6603	1.6048
44	1.9869	1.9396	1.9511	1.9776	1.9263	1.7380	1.6409
45	2.2659	1.9151	2.1503	1.8311	1.9054	1.7524	1.6480
46	2.2564	1.9683	2.0815	1.9673	1.9408	1.8937	1.6603
47	2.3815	1.9869	1.9396	1.9511	1.9776	1.9263	1.7380
48	2.7329	2.2659	1.9151	2.1503	1.8311	1.9054	1.7524
49	2.5315	2.2564	1.9683	2.0815	1.9673	1.9408	1.893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8년 데이터(<http://data.kihasa.re.kr/databank/subject/list?page=1&seq=6&searchText=%EC%B6%9C%EC%82%B0%EB%A0%A5>, 2020.06.03. 인출) 분석 결과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제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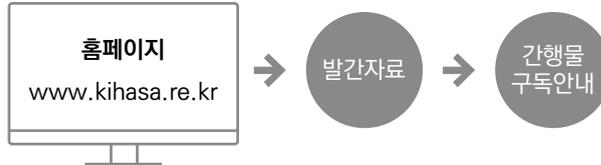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